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24

예레미야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예 레 미 야

Jeremiah

내 종 아굽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아굽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46 : 27)

וַאֲתָהּ אֶל-תִּירָא עֲבָדַי יַעֲקֹב וְאֶל-תַּחַת יִשְׂרָאֵל
כִּי הִנְנִי מוֹשְׁעָה מִרְחֹק וְאֶת-נִרְעָה מֵאֶרֶץ שָׁבִים
וְשָׁב יַעֲקֹב וְשָׁקֵט וְשָׁאֵן וְאֵין מִחֲרִיד :

예레미야 차례

예레미야 서론.....	〈12제〉 ...	13
제 1 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21제〉 ...	17
제 2 장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훈계.....	〈39제〉 ...	22
제 3 장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다.....	〈24제〉 ...	31
제 4 장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받을 큰 화(禍).....	〈30제〉 ...	37
제 5 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	〈26제〉 ...	44
제 6 장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다.....	〈26제〉 ...	52
제 7 장 계속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23제〉 ...	59
제 8 장 유다가 받을 심판.....	〈18제〉 ...	66
제 9 장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는 유다.....	〈19제〉 ...	71
제 10 장 참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멸망당할 유다.....	〈19제〉 ...	76
제 11 장 유다가 언약을 파괴하므로 심판을 받게 되다.....	〈16제〉 ...	82
제 12 장 예레미야의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	〈18제〉 ...	87
제 13 장 유다 백성에게 주신 비유와 경고.....	〈21제〉 ...	92
제 14 장 유다가 재난을 당하다.....	〈15제〉 ...	98
제 15 장 유다가 받을 심판과 예레미야가 받을 축복.....	〈18제〉 ...	103
제 16 장 유다의 재앙과 이방 구원.....	〈16제〉 ...	108
제 17 장 구원자이신 하나님.....	〈23제〉 ...	113

제 18 장	토기장이의 교훈	〈16제〉	120
제 19 장	깨어진 오지병의 교훈	〈14제〉	126
제 20 장	고뇌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15제〉	130
제 21 장	바벨론의 침입을 받은 유다	〈13제〉	135
제 22 장	강포를 행한 유다의 왕들이 받을 심판	〈28제〉	139
제 23 장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범한 죄	〈28제〉	147
제 24 장	예레미야가 본 무화과 환상	〈10제〉	155
제 25 장	유다와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	〈32제〉	158
제 26 장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설교하다	〈20제〉	167
제 27 장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경고하시다	〈17제〉	173
제 28 장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동시에 예언하다	〈14제〉	178
제 29 장	예레미야가 포로된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다	〈21제〉	183
제 30 장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다	〈17제〉	190
제 31 장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이 약속되다	〈28제〉	195
제 32 장	유다 회복의 상징으로 예레미야가 밭을 사다	〈24제〉	204
제 33 장	메시아의 오심이 약속되다	〈14제〉	212
제 34 장	유다의 남녀 종들이 해방되다	〈14제〉	217
제 35 장	레갑 족속이 순종하므로 축복을 받다	〈12제〉	222
제 36 장	바룩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다	〈24제〉	227
제 37 장	예레미야가 투옥되다	〈16제〉	235

제 38 장	예레미야가 항복을 권고하다	〈15제〉	240
제 39 장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7 제〉	245
제 40 장	그다라가 유다의 총독이 되다	〈13제〉	248
제 41 장	이스마엘이 반역하다	〈11제〉	252
제 42 장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다	〈11제〉	256
제 43 장	유다의 남은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7 제〉	260
제 44 장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에 대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	〈16제〉	263
제 45 장	하나님께서서 바룩을 위로하시다	〈6 제〉	269
제 46 장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다	〈14제〉	271
제 47 장	블레셋이 멸망을 예언하다	〈7 제〉	276
제 48 장	예레미야가 모압에 대하여 예언을 하다	〈22제〉	278
제 49 장	예레미야가 이방 열국의 멸망을 예언하다	〈24제〉	286
제 50 장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다(1)	〈24제〉	294
제 51 장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다(2)	〈26제〉	302
제 52 장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12제〉	311

예레미야 특별 자료 차례

예레미야 서론 〈연구 자료〉	본서의 연대표	16
제 1 장 〈본장의 요절〉		21

제 2 장	〈화보 자료〉	목욕하는 여인상	30
제 3 장	〈연구 자료〉	자산(赭山)과 푸른 나무	36
제 5 장	〈화보 자료〉	새를 잡는 사냥군들	51
제 6 장	〈본장의 요절〉	58
제 7 장	〈연구 자료〉	힌놈의 골짜기 (Valley of Hinnom)	65
제 8 장	〈본장의 요절〉	70
제 10 장	〈화보 자료〉	양(羊) 치는 목자	81
제 11 장	〈연구 자료〉	아나돛(Anathoth)	86
제 12 장	〈화보 자료〉	먹이를 찾아 날아온 독수리	91
제 13 장	〈본장의 요절〉	97
제 14 장	〈본장의 요절〉	102
제 16 장	〈화보 자료〉	고기를 낚는 어부	112
제 17 장	〈화보 자료〉	물가에 심기운 나무	119
제 18 장	〈연구 자료〉	토기장이와 녹로(轆轤)	125
제 19 장	〈지도 자료〉	하시드 문(Harsith Gate)	129
제 20 장	〈화보 자료〉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새겨진 점토판	134
제 21 장	〈연구 자료〉	염병(染病)	138
제 22 장	〈화보 자료〉	인장반지(印章斑指)	146
제 24 장	〈본장의 요절〉	157
제 25 장	〈화보 자료〉	술마시다 싸움하는 사람들	166
제 26 장	〈본장의 요절〉	172
제 27 장	〈본장의 요절〉	177
제 28 장	〈화보 자료〉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 버리는 하나냐(Hananiah) ...	182

제 29 장	〈지도 자료〉	유다인들의 바벨론 이주 경로.....	189
제 31 장	〈화보 자료〉	현재의 예루살렘 전경(前景).....	203
제 32 장	〈본장의 요절〉	211
제 34 장	〈본장의 요절〉	221
제 35 장	〈연구 자료〉	유다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226
제 36 장	〈화보 자료〉	선지자와 서기관.....	234
제 37 장	〈지도 자료〉	바벨론의 유다 침공 경로.....	239
제 39 장	〈화보 자료〉	샘물을 마시고 있는 노새.....	247
제 41 장	〈화보 자료〉	구덩이.....	225
제 42 장	〈연구 자료〉	예루살렘 멸망과 그 이후 예레미야의 활동.....	259
제 43 장	〈지도 자료〉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인들이 거주하였던 지역.....	262
제 44 장	〈화보 자료〉	부적(符籙).....	268
제 45 장	〈연구 자료〉	바룩(Baruch).....	270
제 46 장	〈본장의 요절〉	275
제 48 장	〈화보 자료〉	포도주 틀.....	285
제 49 장	〈연구 자료〉	말감(Malcam).....	293
제 50 장	〈지도 자료〉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301
제 51 장	〈화보 자료〉	파멸당하는 바벨론.....	310

예 레 미 야 서 론

1. ㉠ 본서의 저자와 명칭을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는 본서와 구약의 다른 책들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2) 먼저 본서 36:1, 2에는 여호야김 제 4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주신 모든 예언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3) 또한 다니엘서(단 9:2)와 역대기(대하 36:21) 그리고 에스라서(스 1:1)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치하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것과 바사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본국으로 귀환시킨 것을 예레미야에 의해 기록된 본서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4) 이 같은 본서와 구약의 다른 책들에 나타난 내용을 통해 본서의 저자를 '예레미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한편 본서의 명칭은 본서의 저자인 예레미야의 이름을 따라 '예레미야' 서(書)로 부르게 되었다.

2. ㉠ 본서의 저자 예레미야의 생애를 약술(略述)하라.

- ㉡ (1) B. C. 650년경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아나돏(1:1)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1:6).
(2) 또한 그는 선지자가 된 후 성전에서 발견(왕하 22:8)된 율법책을 보고 크게 깨달은 요시야 왕의 도움으로 우상 숭배를 폐지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만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였다가 고향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큰 미움을 받기도 했다(11:18-23; 12:6).
(3) 그러나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 그의 왕위를 세습한 여호아하스나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계속 예언하였다(22: 11, 12, 18, 19, 25).
(4) 결국 그의 예언대로 왕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다(B. C. 586, 52:12, 13).
(5) 그 후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하여 내란을 일으켰던 이스라엘 백성의 몇몇 무리들에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도 예언을 하다가 일생을 마쳤다(B. C. 585, 43:7).

3. ㉠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의 기록 연대는 B. C. 627-586년 사이로 본다.
(2) 왜냐하면 본서의 저자인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요시야 왕 때(B. C. 627)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B. C. 586)까지이기 때문이다(1:2; 25:3; 52:12).

4. ㉠ 예레미야의 성품은 어떠한가?

- ㉡ (1) 예레미야는 천성적으로 부드럽고 겸손했으며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는 무자비할 정도로 강한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했다(9:1).
(3) 이처럼 타고난 은유한 성품으로 냉혹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많은 심적 갈등을 느끼고 많이 울기도 하여(8:21) 그에게는 '눈물의 선지자', '상한 심령의 선지자' 등과 같은 별명이 붙여졌다.

5. ㉠ 본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본서가 기록되기 시작한 시기는 한마디로 유다의 평화 시대였다.
 (2) 그것은 외적으로는 갈대아가 근동 지방에서 앗시리아와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유다에 대해 관심이 없던 시기였고 내적으로는 선한 왕 요시야가 즉위하여 성전을 깨끗이 하고 우상 숭배를 금지(왕하 23:1-25)할 뿐 아니라 과거 솔로몬 왕국 때 만큼의 국력을 회복하기 위해 내실을 다지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러한 유다의 정치·종교적인 평화 시대는 B. C. 609년 요시야가 므깃도에서 애굽의 느고 왕과 싸우다가 전사함으로써(대하 35:20-24) 중단되었다.
 (4) 그 후 유다 왕 여호야김이 갈대아 족속에게 조공(朝貢) 바치기를 거부함으로써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 시대는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 절정을 이루어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B. C. 586)하고 말았다.
 (5)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이 시기는 구약 시대 중 이스라엘이 가장 참혹하고도 광범위하게 시련을 당한 시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6. ㉠ 본서에 나타난 예언의 내용을 유다 왕의 순서대로 배열하라.

㉠

왕	본 문
요시야	1-6장
여호아하스	22:10-12
여호야김	7-20, 25, 26, 35, 45장; 46:1-12; 47-49장
여호야진	22, 23장
시드기야	21, 24, 27-34, 37-39장
그달라	40-44장

7. ㉠ 본서의 주제를 설명하라.

- ㉠ (1) 본서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선포하신 것과 그 선포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사실 그리고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오래 전부터 우상을 숭배해 온 죄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대로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그 가운데서라도 택한 백성을 인내로써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8. ㉠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라.

- ㉠ (1) 본서는 그 내용에 있어서 논리적인 순서로 정돈되어 있지 않음에도 강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2) 즉 본서의 내용이 연대순(年代順)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았고 본서의 저자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예언하였으므로 본서의 내용은 논리적이 못하다.
 (3) 그러나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하나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9. ㉠ 본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중요한 사건을 연대(年代) 별로 정리하라.

㉠

연 대	사 건
B. C. 627년	젊은 제사장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다(1:6). 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다
B. C. 622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다(왕하 22:8)

B. C. 612년	바벨론이 앗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점령하다
B. C. 609년	요시아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므깃도에서 전사하다 (왕하 23:29, 30)
B. C. 609-593년	갈그미스 (Carchemish)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을 대파(大破)하다 (46:2) 느부갓네살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에 침입하다 다니엘과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봉신(封臣)이 되다
B. C. 601년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경고를 듣지 않고 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다 (22:13-17)
B. C. 597년	여호야김이 사망하다 바벨론이 두번째로 이스라엘을 침입하다 여호야김이 폐위되고 시드기아가 왕이 되다
B. C. 586년	바벨론의 세번째 침입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임명된 (왕하 25:22-26) 그달라가 암살되다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끌려가다

10. ㉠ 본서의 내용을 구분해 보라.

- ㉠ (1) 본서의 내용은 크게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첫째 부분(1:1-18:23)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시아 왕의 통치 기간 동안에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들과 그가 행한 행동들이 기록되어 있다.
 (3) 둘째 부분(19:1-29:32)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종교·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그들의 부패와 죄악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4) 셋째 부분(30:1-33:26)에서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올 것을 선포한다.
 (5) 넷째 부분(34:1-39:18)에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잡혀감으로 이스라엘은 소멸될 것을 예언한다.
 (6) 다섯째 부분(40:1-45:5)에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애굽으로 끌려간 내용과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예언을 선포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7) 여섯째 부분(46:1-51:64)에는 이스라엘의 열방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8) 마지막 일곱째 부분(52:1-34)에서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다.

11.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召命)을 받다 / 1:1-19
 (2) 이스라엘을 향한 예레미야의 예언 / 2:1-45:5
 ① 유다의 범죄 / 2:1-3:5
 ② 유다가 받을 형벌 / 3:6-6:30
 ③ 유다의 우상 숭배 / 7:1-10:25
 ④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유다 / 11:1-13:27
 ⑤ 유다에 닥칠 가뭄 / 14:1-15:9
 ⑥ 다시 소명을 받는 예레미야 / 15:10-16:9
 ⑦ 유다의 죄악상 / 16:10-17:27
 ⑧ 토기장이의 상징 / 18:1-23
 ⑨ 깨어진 오지병의 상징 / 19:1-20:18

16 예레미야 서론

- ⑩ 유다의 왕들 / 21:1-23:8
- ⑪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 / 23:9-40
- ⑫ 유다의 포로 시대 / 24:1-25:38
- ⑬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한 유다의 반응 / 26:1-24
- ⑭ 예레미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할 것을 유다 왕들에게 권고하다 / 27:1-29:32
- ⑮ 유다의 회복에 대한 소망 / 30:1-33:26
- ⑯ 예루살렘 함락 전까지의 상황 / 34:1-38:28
- ⑰ 예루살렘의 함락 / 39:1-18
- ⑱ 예루살렘 함락 후의 예레미야의 사역 / 40:1-45:5
- (3) 각 족속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 46:1-51:64
 - ① 애굽에 대하여 / 46:1-28
 - ②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 47:1-7
 - ③ 모압에 대하여 / 48:1-47
 - ④ 암몬에 대하여 / 49:1-6
 - ⑤ 에돔에 대하여 / 49:7-22
 - ⑥ 다메섹에 대하여 / 49:23-27
 - ⑦ 게달과 하술에 대하여 / 49:28-33
 - ⑧ 엘람에 대하여 / 49:34-39
 - ⑨ 바벨론에 대하여 / 50:1-51:64
- (4)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 52:1-34

12. ㉠ 본서의 요절을 말하라.

- ㉠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46:27).

<u>연구자료</u>		본서의 연대표	
요시아 (B. C. 640-609, 1-6장)		B. C. 630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음 (B. C. 627, 1장)
		620	성전 수리 중 율법책 발견 (B. C. 622, 왕하 22장)
여호아하스 (B. C. 609, 22: 10- 12)		610	여호아하스가 애굽의 봉신(封臣) 으로 유다를 통치하기 시작 (B. C. 609, 22장)
여호아김 (B. C. 609-597, 7- 20, 25, 26, 35, 45- 49장)		600	여호아김이 다시 애굽과 동맹을 맺음 (B. C. 601, 22장)
여호아긴 (B. C. 597, 22, 23장)		590	
시드기야 (B. C. 597- 586, 21, 24, 27- 34, 37- 39장)		580	예루살렘 멸망 (B. C. 586, 왕하 25장)

제 1 장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단락구분 1-3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다 / 4-10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다 / 11-17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두 가지 환상 / 18-19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다

1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증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2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삼 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삼 일 년 말까지 임하니라 이 해 오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

4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7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하고

9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10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1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

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1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어 함이니라

13 여호와와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15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16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17 그러므로 너는 네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다 그들에게 고하라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18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석기둥, 못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유다의 선지자로 부르시어 미래에 유다에게 닥칠 환난을 두 환상을 통해 보여 주신 후 그 닥칠 환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하라는 내용의 분부가 기록되어 있다.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당신이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사역을 감당하라고 격려하시기도 하신다.
- (3)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고 담대히 맡은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2. **㉠** '아나돗'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1절)

- ㉠** (1) '아나돗'은 예루살렘 북방 약 4.8km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의 '아나타'이다.
 (2) 이곳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제사장 마을'로 유명한 곳이다.
 (3) 왜냐하면 이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 땅을 나눌 때 제사장 아론 자손에게 준 곳이었기 때문이다(수21:18).

3. **㉠** 예레미야는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는가? (1절)

- ㉠** (1)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다.
 (2)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제사장의 직책이 세습되었었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의 가정들은 유서 깊은 종교적 가정들이었다(참조, 출8,9장).
 (3) 이같이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난 예레미야는 이미 그 성장 과정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4. **㉠**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레미야에게 임(臨)했는가? (2, 3절)

- ㉠** (1)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아 왕 13년부터 시작되어 여호야김 왕 때를 거쳐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임했다.
 (2) 이 왕의 연대기에 요시아 왕과 시드기야 왕 사이의 두 왕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의 이름이 빠진 것은 그들이 각각 3개월씩만 왕 노릇하였기 때문이다(대하36:2,9).
 (3)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요시아 때 18년간(대하34:1)과 여호야김, 시드기야 때 각각 11년간(대하36:5,11) 그리고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긴 때의 각각의 3개월간을 합친 40년 6개월 동안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5. **㉠** '이 해 오 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히니라'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이것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를 가리킨다. 예루살렘은 시드기야 11년, 즉 B. C. 586년에 멸망하였다. 한편 여기서 5월은 히브리 종교력으로서 오늘날 태양력으로는 7,8월에 해당한다.
 (2)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은 B. C. 586년 7,8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보낸 느부사라단(Nebuzaradan)에 의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유다는 멸망하고 말았다(왕하25:8-11).
 (3) 이 사건이 있기 직전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도망하려다 사로잡히게 되어 눈을 뽑히고 사슬로 결박한 채로 바벨론 포로가 되어 갔었다(왕하25:5-7).

6. **㉠**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사실을 2절에 이어 되풀이하여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그것은 자신의 선포가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선언이 없으면 인간 예레미야의 말이 되어 자신만 드러내기 때문일 뿐 아니라 그 선포는 권위(權威)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임을 강조하여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한다(막6:14).

7. **㉠**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6절)

- ㉠** (1)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지자의 사명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다(참조, 출4:10).
 (2)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고백을 한 이유는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스스로 느꼈기 때문이다.

(3) 물론 자신이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적격자(不資格者)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이다(참조, 잠 16:33).

(4)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이다.

8. **㉠**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7절)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맡기실 때 우리가 아이처럼 부족하다고 변명하지 말고 순종해야 할 것을 가리킨다.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들을 들어 쓰시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이다(고전 1:27).

(3)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도 아이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는 적극적으로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참조, 행 10:29).

9. **㉠**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라는 말 가운데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8절)

㉠ (1) 여기서의 '그들'은 앞으로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을 가리킨다.

(2) 예레미야가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출 3:12;4:15).

(3)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도우실 것이므로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4) 그러므로 복음 사역자들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람을 두려워함 없이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마 10:18-20;28:20;행 18:9, 10).

10. **㉠**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9절)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삼으실 때 당신께서 직접 현현(顯現)하시어 그의 입을 성별(聖別)하시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사 6:5-8).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성별하신 이유는 그의 입을 통해 당신의 말씀이 전파될 때 당신의 순수한 말씀과 인간 예레미야가 꾸민 말이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3)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입이 성별된 자들이므로 말씀을 전할 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어떤 자신의 꾸민 말을 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준다.

(4)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입은 하나님에 의해 성별된 것임을 깨닫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해야 한다(롬 10:8;고후 4:5).

11. **㉠**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 위에 예레미야를 세우셨는가? (10절)

㉠ (1) 하나님께서는 열방 만국 위에 예레미야를 세우셨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선포될 당신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권세잡은 자나 부를 소유한 자나 고상한 인격과 큰 지식을 가진 자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엡 1:21).

(3) 이것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사역자들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권위도 두려워 말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12. **㉠** 하나님에 의해 열방 만국 위에 세우심을 입은 예레미야가 전파해야 할 예언의 성격은 어떠한가? (10절)

㉠ (1) 그것은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는 것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 (2) 이 말은 곧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할 예언적 사명이 파괴적이면서도 건설적인 성격을 가졌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즉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는 멸망과 축복에 관한 내용이 동시에 들어 있는 것을 비유한다.
- (4) 우리는 이것을 통해 예레미야가 멸망과 축복을 동시에 예언한 선지자임을 알 수 있다.

13. **㉠** 하나님께서는 첫번째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보여 주셨는가? (11,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여 주셨다.
- (2) 여기서 이스라엘의 살구나무는 거울에도 성장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내기 때문에 쉬지 않고 성장하는 것을 상징한다.
 - (3)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살구나무를 보여 주시으로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부지런하라는 것을 묵시적으로 교훈하셨다.
 - (4) 말씀에 대하여 부지런하지 않고 게으르면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지만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대로 부지런히 순종하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다(참조, 마4:1-11).

14. **㉠** 예레미야가 본 두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13절)

- ㉠** (1) 그는 그 면(面)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진 풀은 가마를 보았다.
- (2) 이 상징은 형식에 있어서 살구나무의 환상과 같지만 그 내용은 불과 같은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으로 내용상 절정을 이룬다.
 - (3) 한편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북편 바벨론을 통하여 남쪽 유다 위에 임한다는 내용이고, '푹었다'는 말은 그 도가 극심하고 맹렬하므로 모두 그 심판에서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15. **㉠**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이것은 북방에서 일어난 바벨론이 유다를 침입해 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것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이 선포대로 B. C. 605년 애굽과의 전투에서 대승(大勝)을 거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곧 유다를 침입하기 시작했다(단1:1).

16. **㉠** '부를 것인즉'이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5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방에 사는 바벨론 사람들을 소리쳐 불러모아 유다를 징계하실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중에도 바벨론 사람들을 유다의 징계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는 그 당시 유다가 애굽을 자신들의 방패로 여겨 그들을 신뢰했기 때문이었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인간 애굽인을 더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유다를 징계하신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보다 인간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을 더 신뢰하여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시118:8, 9).

17. **㉠**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焚香)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기 때문이었다.
- (2) 즉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다.
 -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닫게 된다. 사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사랑을 빼앗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도 이스라엘이 섬겼던 눈에 보이는 우상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인 ‘탐심’을 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골 3:5).

18. **Q** 예레미야가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할 일은 무엇인가? (17절)

- A** (1)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고하는 일이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서이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다 고하라고 하신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을 소홀히 취급하여 대충 전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가리킨다.
 (3)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4) 그러므로 오늘날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이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소홀히 취급하여 대충 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후 2:17).

19. **Q** ‘두려워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 A** (1) 이 말은 ‘담대하여 준비된 마음을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연히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는 뜻이다.
 (2) 즉 이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을 담대히 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다. 전도자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할 수 없다.
 (3) 하나님께서 이 같은 주의를 주시는 것은 예레미야가 핍박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점차 불신앙으로 바뀌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행해야 할 것이다(히 10:35).

20. **Q** ‘견고(堅固)한 성읍’, ‘쇠기둥’, ‘뿔 성벽’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 A** (1) 이것들은 어떤 사람이나 힘에 의해서도 결코 정복되지 않는 강한 것을 가리킨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같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장차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그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였다.
 (3)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고 예레미야는 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참조, 신 29:9).

21. **Q** 예레미야의 대적자가 그를 쳐도 이기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A**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여 그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 더 자세한 내용은 본장 **Q**9을 참조하라.

본장의 요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7절).



제 2 장 타락한 유다 백성에게

향한 하나님의 훈계

단락구분 1-3 하나님을 사랑했던 유다 / 4-8 우상을 숭배한 유다 / 9-13 하나님의 변론 / 14-19 멸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유다를 경고하시다 / 20-28 유다 백성의 타락한 모습 / 29-37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다

1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 가서 예루살렘 거민의 귀에 외쳐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년 때의 우의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좃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

3 그때에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와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를 삼키는 자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만났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4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아 나 여호와와 말을 들으라

5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관대 나를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6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움침한 땅, 사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통과케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7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여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가증히 만들었으며

8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나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판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좃았느니라

9 그러므로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투고 너희 후손과도 다투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10 너희는 것덫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달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의 유무를 자세히 살피되라

11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는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2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이다 심히 떨지이다 두려워할지이다 여호와와 말이니라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14 이스라엘이 종이나 씨종이나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15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날려 네 땅을 황무케 하였으며 네 성읍들은 불타서 거민이 없게 되었으며

16 늑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17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네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나

18 내가 시효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쩔이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쩔이뇨

19 네 악이 너를 징계하되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의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이니라

20 내가 옛적부터 네 땅에를 꺾고 네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21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뿜은 어쩔이뇨

22 주 여호와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잣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23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좃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릴 같았으며

24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하므로 험덕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25 내가 또 말하기를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갈하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26 도적이 불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27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은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 내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는노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29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닮은 어찌이노 너희가 다 내게 범과하였느니라

30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31 너희 이 세대에 여호와와 말을 들어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혹은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놓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32 처녀가 어찌 그 패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33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34 또 네 옷단에 죄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35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36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앗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37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라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1. ㉠ 본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이 커다란 범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하여져서 깨달음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른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었다.
- (3)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2. ㉡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사실을 되풀이하여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자신이 선포한 것들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 (2) 더 자세한 내용은 1장의 ㉠6을 참조하라.

3. ㉢ 소년 때의 '우의(友誼)와 결혼 때의 사랑'이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이 말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꺼이 따른 것을 가리킨다. 즉 시내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청종했음을 뜻한다.
- (2)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출 19:8).
- (3)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당신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신뢰를 회상하시면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의 배신을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 것이다.

4. **㉠**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을 삼키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3절)

- ㉠** (1) 그들은 다 별을 받아 재앙을 만났다.
 (2)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이기 때문이다.
 (3) 즉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이스라엘을 특별히 구별하시어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이 험난한 세파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구별하여 보호하신다(시 145:20).

5. **㉠**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당신이 하실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야곱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가족에게 당신이 하실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다. 즉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는 자(야곱 집)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자(이스라엘의 집)를 막론하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다.
 (2)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 백성에게 하실 말씀에 대하여 그들이 주의 깊게 경청하도록 하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3) 왜냐하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은 그들의 큰 죄악을 지적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다.

6. **㉠** 유다 백성의 열조들은 어떻게 행해 왔는가? (5절)

- ㉠** (1) 여기서 열조는 사사 시대 때 살던 유다의 조상으로부터 예레미야 당시 살아 있던 어른들을 모두 의미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해 왔다.
 (2) 여기의 허탄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했다는 것은 유다 백성의 조상들이 살아 계신 참신 여호와를 경배하기 보다는 아무 의미 없는 우상을 숭배해 온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3)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의 동시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등장한 세대부터는 거의가 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바알만을 섬겼다(삿 2:10-17).

7. **㉠**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도다'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 (1) 유다의 열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은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2) 즉 유다의 열조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속박의 지배에서 해방시키셨고(출 3:7), 길도 없고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셨고 기적적으로 떡과 물을 공급하시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신(신 8:15)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는커녕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았던 것이다.
 (3) 이것은 유다의 열조가 하나님께 얼마나 배은 망덕(背恩忘德)했나를 알게 한다(참조, 시 78:17).

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기름진 땅에 들어 그 과실과 그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셨을 때 그들은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7절)

- ㉠** (1) 그들은 그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기업을 가증(可憎)하게 만들었다.
 (2) 그런데 여기서 땅을 더럽히고 기업을 가증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음행(레 18:24)과 우상 숭배(참조, 절 36:18) 한 것을 가리킨다.
 (3)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충분해지자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범한 것이다.
 (4)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먹을 것이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영위할수록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기 쉽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5) 그러므로 우리는 풍족하고 윤택한 삶을 살 때 물질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롬 11:12).

9. **Q**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A** (1)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을 가리킨다.
 (2) 원래 이들은 율법의 교사들(미 3:11)이기 때문에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했다(레 10:11; 신 33:10).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기는커녕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것이다.
10. **Q** ‘범 잡은 자… 좃았느니라’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8절)
- A** (1) 이것은 유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참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음을 가리킨다.
 (2) 이같이 학자, 정치가, 예언자 등의 유력한 지도자 계급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타락한 것은 므낫세 왕(B. C. 697-642, 왕하 21:1) 시대부터 시작되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B. C. 626-585)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3) 이렇게 오랫동안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 등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이다.
11. **Q** ‘내가 여전히 너희와 다루고 너희 후손과도 다루리라’란 말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9절)
- A** (1) 이것은 유다 백성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큰 형벌을 받았듯이 그 당시의 유다 백성과 그들의 후손까지도 같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이다.
 (2) 그런데 당시의 유다 백성과 그들의 후손이 같은 형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그 당시의 유다 백성은 조상들이 범죄하여 형벌을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도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3)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았을 때 그 지었던 죄를 회개치 않고 우습게 생각하여 다시 하나님께 범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죄를 지어 그에 대한 형벌을 받으면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잠 28:5).
12. **Q** ‘깃딤’과 ‘게달’은 각각 어느 곳을 가리키는 말인가? (10, 11절)
- A** (1) ‘깃딤’은 야완의 자손(창 10:4)의 땅인 지중해 해안에 있는 구브로(Cyprus) 지방을 가리키고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 동쪽에 거주하던 유목 민족(창 25:13)을 말한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깃딤’과 ‘게달’을 언급하신 이유는 ‘깃딤’ 지방에 사는 민족과 ‘게달’ 민족은 비록 헛된 우상을 섬기지만 결코 그 우상을 버리거나 다른 유익을 위해 바꾸는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즉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들이 거짓 신을 섬기면서도 배반치 않고 대대로 그것을 지켰으나 유다 민족은 참신이신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지 못한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 깃딤과 게달을 언급하셨다.
13. **Q**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1절)
- A** (1)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하나님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할 이방 신을 택한 것을 가리킨다.
 (2) 그런데 그들이 그같이 행한 이유는 인간 본성의 악한 성품을 따라 눈에 보이는 잠시 동안의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이었다.
 (3) 이것은 눈에 보이는 잠시 동안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치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후 4:18).
14. **Q** ‘하늘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12절)
- A** (1) 이것은 유다의 죄를 보고 자연도 놀라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참조, 욕 2:31).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표현을 하신 이유는 당시 유다의 죄는 판단력이 없는 자연

도 놀랄 정도로 큰 것이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

(3)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당시 유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된다.

15. **㉠**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행한 두 가지 악은 무엇인가? (13절)

- ㉠** (1) 그것은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이다.
- (2) 그런데 여기서의 '생수의 근원'은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는 '영원한 죽음'을 비유한 말이다.
- (3) 즉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한 생명'을 버리고 '영원한 죽음'을 택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참조, 마 25:46).
- (4)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16. **㉠** '씨종'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14절)

- ㉠** (1) '씨종'이란 노예 제도가 있던 시대에 같은 집안의 남종과 여종이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가리키는데, 그 자식은 그들의 부모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질 수 없었다(참조, 레 19:20).
-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씨종'도 아닌데 앗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자유 없는 종이 되었다.
- (3)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갈 5:1).

17. **㉠** '어린 사자들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으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5절)

- ㉠** (1) 이것은 이스라엘의 적국인 앗시리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왔던 과거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B. C. 722년에 앗시리아(대하 32:1)는 이스라엘에 침입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였다(왕하 17:6).

18. **㉠** 농과 다바네스의 자손은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16절)

- ㉠** (1) 농과 다바네스 자손들은 유다의 정수리를 상하게 하였다.
- (2) 그런데 여기서의 '농과 다바네스 자손'이란 애굽 나일 강 부근에 있던 도시들인 농과 다바네스에 살던 시민들을 말하며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는 말은 그들이 유다를 침략했던 사실을 가리킨다.
- (3) 이것은 애굽 군대로 유다를 침략하여 괴롭히기 시작했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왕하 23:29, 30).

19. **㉠** 유다 백성이 농과 다바네스의 자손에 의해 침입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16, 17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길로 인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 것을 의미한다.
- (3) 즉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타국의 침입을 택한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가 그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실 때 거부하여 화(禍)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시 97:1).

20. **㉠**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하수(河水)를 마시려고'란 말들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인가? (18절)

- ㉠** (1)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란 말은 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받아 살고자 함을 의미하고 '하수를 마시려고'란 말은 유다가 바벨론의 세력을 등에 업고 살고자 한 것을 의미한다.
- (2) 즉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대국들을 의지하려 했던 것

을 가리키는 말이다.

21. **Q** 유다 백성이 징계당하고 책망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A** (1)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또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유다 백성이 그와 같이 행한 것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세상의 세력에 더 마음을 두었기 때문이다.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면 필연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교훈을 얻는다(참조, 잠 23:26).

22. **Q** '명예를 꺾고 결박을 끊으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0절)

- A** (1)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을 가리킨다(시 2:3).
 (2)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유는 율법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들을 구속하는 것으로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다.
 (3)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들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4) 그러므로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 같아도 그 말씀 안에 생활함으로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요 6:68).

23. **Q** '귀한 포도나무'와 '이방 포도나무'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21절)

- A** (1) '귀한 포도나무'는 좋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포도나무를 가리키고, '이방 포도나무'는 쓴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를 가리킨다(참조, 신 32:32; 겔 17:5).
 (2) 여기서 '귀한 포도나무'는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그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고 '이방 포도나무'는 여호수아와 신실한 장로들의 다음 세대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여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포도나무를 비유로 들으시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떠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여 준다.

24. **Q** '갯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數多)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2절)

- A** (1) 이것은 인간적 수단으로는 결코 유다의 죄악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2) 인간이 이와 같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는 것은 그 죄를 씻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다(막 2:10).
 (3)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씻음 받을 것을 가르치는 말이다.
 (4) 그러므로 우리도 범죄하였을 때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씻음 받도록 해야겠다(사 1:18).

25. **Q** 유다 백성이 바알들을 좇았던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3절)

- A** (1) 유다 백성이 바알을 좇았던 사실은 골짜기 속에 있는 그들이 다니던 길을 보면 알 수 있다.
 (2) 여기서 골짜기는 힌놈의 골짜기(수 15:8)를 가리키며 '골짜기 속에 있는 길'이란 유다 백성이 힌놈의 골짜기에서 우상을 섬기기 위해(7:31) 자주 다녔던 길을 가리킨다.

26. **Q**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어지러이 달림'과 '들암나귀가 그 성욕이 동하므로 험떡거림'이란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3, 24절)

- A** (1) 이것들은 유다 백성이 열정적으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그들이 그같이 열정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이다(왕상 11:9).

(3) 즉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이 공허해지고 육체적인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매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27.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네 발을 제어(制馭)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갈(渴)하게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25절)

㉠ (1) 그들은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라고 했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도록 여러 번 경고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고 계속 우상을 숭배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유다가 얼마나 강박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28. **㉠** 유다의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떤 수치를 당하였는가? (26절)

㉠ (1) 그들은 도적이 도둑질하다가 붙들렸을 때 당하는 것과 같은 수치를 당하였다.

(2) 이것은 당시의 지도자급인 왕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우상을 숭배했는데 그들의 범죄는 부인하거나 감출 수 없이 너무 현저한 것이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3)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벗은 수치를 가려 보고자 했던 것(참조, 창3:7)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을 뿐더러 그 죄악으로 인해 큰 수치를 당하게 된다.

29. **㉠** 유다 백성은 우상을 섬기다가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했는가? (27절)

㉠ (1) 그들은 우상을 섬기다가도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다.

(2) 이것은 당시의 유다 백성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움직였는가를 보여 주는 말이다.

(3) 인간들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구원을 호소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참조, 사2:18;6:7,8).

30. **㉠** 당시의 유다 백성이 만든 신의 수효는 얼마나 되었는가? (28절)

㉠ (1) 당시의 유다 백성이 만든 신의 수효는 이스라엘의 성읍 수효와 같았다.

(2) 이것은 당시의 유다가 많은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보여 준다.

(3) 그런데 그 많은 우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우상들에 의해 구원을 받지 못했다.

(4) 이것은 우상이 인간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13:10).

31. **㉠**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쩔이뇨’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29절)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우상을 숭배한 범죄에 대해 징계를 내렸을 때 그들이 그 징계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것을 가리킨다.

(2) 그런데 그들이 징계받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이유는 자신들의 징계받음이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유다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매(愚昧)했는가를 알 수 있다(잠23:9). 영적인 소경은 자신 뿐 아니라 그 이웃도 멸망으로 인도한다.

32. **㉠** ‘너희 자녀를 때릴도 무익하다’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0절)

㉠ (1) 그것은 유다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이것은 유다의 어른들은 물론이고 젊은이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강박했던 것을 의미한다.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유다는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고 강박했음을 깨닫게 된다(잠28:14).

33. **㉠**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0절)

- ㉠** (1) 이것은 유다의 악한 왕 므낫세가 참된 예언자들을 많이 학살했던 사실을 가리킨다 (왕하 21:16).
 (2) 그런데 므낫세가 그와 같이 행했던 이유는 참된 예언자들이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기 때문이다(왕하 21:1-18).
 (3) 이처럼 영적으로 우매하고 극히 악한 성품을 지닌 사람은 진리와는 무관하게 생활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진리를 와해시키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현장에는 항상 이러한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엡6:12).

34. **㉠**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1절)

- ㉠** (1) 이것은 어려운 광야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생활의 곤난을 겪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이다.
 (2) 그런데 그들이 그같이 배신한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이 윤택해졌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과 우상 덕택에 얻어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3) 이것은 삶이 윤택하여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생활을 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시78:17).

35. **㉠** ‘처녀가 어찌 그 패물(佩物)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2절)

- ㉠** (1) 이것은 처녀가 자기의 귀중히 여기는 패물을 잘 간수하고 신부가 자기의 고운 옷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이유는 사람은 패물이나 옷과 같은 사소한 귀중품조차 잊지 않는데 하물며 유다 백성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은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다.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당신을 잊은 사실에 대해 얼마나 섭섭해하시는가를 엿볼 수 있다.

36. **㉠**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33절)

- ㉠** (1) 이것은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 주위의 악한 열방이 자신들이 있는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도리어 용기를 얻게 된 것을 의미한다.
 (2)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에게 참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하면 도리어 불신자들의 죄악을 격려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교훈삼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본을 보여야 하겠다(마 23:13).

37. **㉠** ‘옷단에 죄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4절)

- ㉠** (1) 이것은 유다의 왕 므낫세가 무죄한 많은 예언자들을 죽였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자세한 것은 본장 **㉠** 33을 참조하라.

38. **㉠** 유다 백성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5절)

- ㉠** (1) 그것은 그들이 큰 죄를 범하고도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2)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도 자신들에게는 죄가 전혀 없다고 하는 과오를 범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요 9:41).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없다 하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이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자’라고 하셨다(참조, 요일 1:8, 10).

(4) 결국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속였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39. **㉠** ‘앗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과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이란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6, 37절)

- ㉠** (1) ‘앗수르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은 유다 왕 아하스가 앗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치며 의지하려 했으나(왕하 16장) 그들이 결국에는 유다를 버린 사실을 가리키며,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이란 여호야김이 애굽에게 뇌물을 바치며 의지하려 했으나(왕하 23:35) 실패한 사실을 가리킨다.
- (2)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을 의지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을 의미한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쉽게 사라지는 인간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된다(시 118:8).

화보자료

목욕하는 여인상. 고대의 토기 작품으로서 예루살렘 록펠러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목욕 대야 속에 앉은 채 발을 씻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B.C. 1500년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처녀가 한번 순결을 잃으면 아무리 목욕을 해도 그 부정함은 씻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에 빗대어 하나님께서는 본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김으로써 영적 순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네가 젖물과 비누로 씻을지라도 네 죄악이 그저 있느니라’(22절)라고 책망하셨다.

제 3 장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다

단락구분 1-5 유다가 회개하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 6-10 회개하지 않는 유다 / 11-19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받을 축복 / 20-25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아뢰고 백

1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므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2 네 눈을 들어 자산을 보라 너의 행음치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는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한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3 그러므로 단 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낮음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4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5 노를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두시겠나이까 하지 않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네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6 요시아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7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8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도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내가 보았노라

9 그가 들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을 가법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 이 모든 일이 있어도 패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12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히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13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1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6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 사람이 여호와와 언약케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17 그때에 예루살렘이 여호와와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와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18 그때에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을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19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20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녕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21 소리가 자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

을 급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다

22 배역한 자식들이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23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의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24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의 어렸을 때로부터 우리 열조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24 우리는 수치 중에 늙었고 우리는 수욕에 덮이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

1. **㉠ 본장의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했을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시겠다는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다.
 (2) 그런데 그토록 큰 죄를 범한(2:20-25) 유다 백성을 용서하시고 축복까지 하시겠다는 것을 보아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3)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낙심말고 즉시 하나님께로 뉘는 향해 회개하고 그분이 내리시는 용서의 은총을 누려야 할 것이다(사55:7).

2. **㉠ ‘사람이… 받겠느냐’ 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이것은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의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범하여 내어 보냄을 당했다면 후에 그녀가 다시 돌아와도 본래의 남편은 그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신 24:1-4).
 (2) 즉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다가 다시 돌아와도 율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율법대로 하면 유다 백성을 용서하실 수 없으나 당신의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실 의도가 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초월한 사랑을 가지신 분임을 알 수 있다(시 103:8).

3. **㉠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이 말은 히브리어로 <웨쇼브 엘라이>로서 법적 규제와 일치할지라도 나는 너를 영접해 주는 안 될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르기를 내게로 돌아오라’ 는 뜻이다.
 (2) 즉 이것은 유다 백성이 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멈추고 돌아올 것을 간곡히 호소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3)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자라고 해도 회개하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4)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참조, 눅 15:20; 롬 11:29).

4. **㉠ ‘자산(赭山)을 보라’ 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자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과임>은 ‘붉은 산’, 즉 ‘나무가 없는 민둥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자산을 보라’ 는 말은 ‘민둥산을 보라’ 는 말이다.
 (2) 그런데 예레미야가 나무 없는 산을 보라고 외친 것은 그곳에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빈핍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열심히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2절)**

- ㉠** (1) 이것은 광야를 여행하는 자들의 장막을 수선하기 위해 광야에 앉아 있던 아라비아 사람을 가리킨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라비아 사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아라비아 사람이 열심히 손님을 기다리듯이 유다 백성이 열심히 우상을 섬긴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

6. **㉠** ‘단비가 그쳐졌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이것은 유다의 봄, 가을에 내리던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최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천재 지변을 일으키셔서 징계하셨던 것이다.
 (3)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천재 지변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들을 회개케 하셨으나 그들은 결코 깨닫지 못했다.
 (4) 이처럼 마음이 굳어 있는 자는 어떠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마음을 닫아 놓고 자신의 욕심대로 생활해 간다. 이런 자의 결국은 멸망뿐이다(신 31:27).

7. **㉠** ‘이제부터’란 언제를 말하는가? (3-5절)

- ㉠** (1) ‘이제부터’란 유다 땅에 가뭄이 온 때를 말하는데(3절) 그때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한다.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호소에 응답하실 수 없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같은 호소를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5절).
 (3) 그러므로 죄를 범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가 그 징계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이 즐겨 짓던 죄를 완전히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한다(참조, 마6:24).

8. **㉠**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을 배역(背逆)한 유다 백성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6절)

- ㉠** (1) 그들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음, 즉 우상을 숭배했다.
 (2) 그런데 이것은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감행하여 우상을 파괴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대하 34:3-7) 유다 백성이 은밀한 산 속에서 계속하여 우상을 섬겼던 사실을 가리킨다.
 (3) 유다 백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은밀히 계속해서 범하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겠다(전 12:14; 롬 2:16).

9. **㉠** ‘이혼서’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이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결별을 선언하신 사실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게 멸망(B. C. 722)한 것을 가리킨다.
 (2)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앗시리아에게 멸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심하게 섬겨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었다.
 (3) 한편 유다는 자기의 혈족(血族)인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한 것을 보았을 때 각성하기는 커녕 도리어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똑같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함이 이스라엘의 악함보다 크다고 하셨다.
 (4) 이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의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을 보고 단순히 동정을 표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러한 사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참조, 딤후 4:3).

10. **㉠**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이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9절)

- ㉠** (1) 이것은 유다 백성이 무생물인 나무와 돌에게 경배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즉 유다인들이 참된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할 영광을 무생물에게 돌려 하나님을 배신한 것을 말한다.

11. **㉠**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0절)

- ㉠** (1)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 때의 종교 개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성전에 나오면서도 마음으로는 계속 우상에 집착했던 것을 가리킨다.
 (2)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들이 의롭고 경건하다고 생각하였다.

(3) 이와 같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위선적(偽善的)인 행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자신의 배를 채우는(물질을 숭배하는) 일에 급급하고 있다.

12. **Q** ‘배역한 이스라엘은 패역한 유다보다 오히려 의로움이 나타났나니’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A (1) 이것은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죄가 지금 현존하여 우상을 섬기는 남유다의 죄보다 오히려 가볍다는 의미이다.

(2) 본장 **Q** 9를 참조하라.

13. **Q**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고 계시하셨는가? (12절)

A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앗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이다.

(3)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이 소망을 가져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므로 노(怒)를 한없이 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시 30:5).

(4) 이것은 우리가 징계를 받아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여 소망을 가지라는 가르침을 준다.

14. **Q** 유다 백성이 자복해야 할 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13절)

A (1) 그것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이다.

(2) 본장 **Q** 8을 참조하라.

15. **Q**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A (1) 이것은 ‘만일 한 성읍에서 한 명이 와도 또 한 지파에서 단 두 명이 회개하고 돌아와도 영접하겠다’는 뜻이다.

(2) 이 말은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아니면 전체가 회개하고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접하신다는 것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다. 이러한 사실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 만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16. **Q**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어떤 자를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15절)

A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주시겠다고 하셨다.

(2)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란 하나님께서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이키신 후에 그들을 지도할 선한 지도자를 가리킨다.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낸다(23:4).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온 인류의 구속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삶을 살다가 끝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참조, 요 10:11).

17. **Q** ‘여호와와의 언약궤(言約櫃)를 다시는 말하지…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6절)

A (1) 이것은 유다 백성이 언약궤를 자랑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2) 그런데 이 말은 유다 백성이 맹목적으로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자랑했지만 포로 생활 이후에는 그들을 가르칠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15절)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3)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B. C. 586) 함께 타

버리도록 허용하셨다.

- (4)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분을 경배하기 보다는 비록 우리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믿음이라 할 수 있다(참조, 요 20:29).

18. **㉠**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악한 마음의 강팍(剛愎)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 ㉠** (1) 이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백성들이 서로 단절된 채 미워했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시대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되어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2) 그런데 이 두 백성이 서로 단절되어 미워했던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더 많이 가졌던 재물과 영토를 자랑하고, 남유다는 성전과 법제를 소유한 것을 자랑하여 서로 알력(軋轢)이 있었기 때문이다(11:8).
 (3) 이것은 사이가 가까운 친구라도 자신들의 세상적인 장점을 너무 자랑하면 서로가 멀어지게 되는 것과 그와 같은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신의 자랑을 삼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가르쳐 준다.

19. **㉠** ‘유다 약속이… 함께 이르리라’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토(本土)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리킨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시던 때는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기 전(前)인 것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 이 약속을 주신 것임을 알 수 있다.
 (3)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를 다시 한번 더 깊이 배울 수 있다(시 103:8).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치실 때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 그들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20.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아름다운 낙토(樂土)를 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복을 내리겠다고 하셨다.
 (2)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시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에 대한 허용하심을 가리킨다(사 63:16).

21. **㉠**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20절)

- ㉠** (1)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 우상을 섬긴 것을 음탕하여 남편의 품을 떠나버린 아내에 비유한 말이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배신한 유다에게 이스라엘이 받았던 것보다 더 큰 징계를 내리셨는데 그것은 유다가 전에 이스라엘이 배신했다가 멸망한(왕하 17:5,6) 것을 보고도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 형제가 범죄하여 징계받은 것을 보고도 그 형제가 범한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면 하나님의 더 큰 징계를 받게 된다(참조, 잠 28:5).

22. **㉠**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의 떠드는 무리’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3절)

- ㉠** (1)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의 떠드는 무리’란 산에서 우상에게 자신들을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간구하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유다 백성이 아무리 간구를 해도 우상들이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 그 이유는 우상의 정체가 무인격적이기 때문이며(참조, 시 115:3-9), 참구원이 하나님

계란 있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인간을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구원자는 하나님뿐인 것을 깨우쳐 주는 말이다(사43:3).

23. **㉠** ‘부끄러운 그것이... 삼켰사온즉’이란 말은 무슨 의미인가? (24절)

- ㉠** (1) 이것은 므낫세 왕 시대 때부터 유다 백성이 바알을 숭배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이 일이 부끄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일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에서 이탈된 일이기 때문이다.
 (3)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허물을 깊이 통회하고 자신들이 과거에 행한 일들을 낱알이 하나님께 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당신의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참조, 눅 15:21, 22).

24. **㉠** ‘우리는 수치 중에 눌졌고 우리는 수욕(羞辱)에 덮이올 것이니’란 말은 어떤 모습을 묘사한 말인가? (25절)

- ㉠** (1) 이 말은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접한 자가 자기 마음으로부터 뼈아프게 참회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2) 그런데 이 말도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 고백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서 다윗의 통회의 시와 유사한 내용이다(참조, 시6편).
 (3) 또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르쳐 주시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고백을 원하신다.

연구자료

자산(赭山)과 푸른 나무. ‘자산’(히, 세파임)이란 말은 나무가 나 있지 않은 벌거벗은 민둥산(bare heights)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곳은 ‘푸른 나무 아래’(6, 13절; 2:20; 17:2)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섬기던 중요한 장소였다(2, 21절; 4:11; 7:29). 한편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언급되고 있는 ‘푸른 나무’란 사시 사철 푸르름을 잃지 않는 상록수(常綠樹)를 의미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푸른 나무’란 잎이 시들어 바래기 전의 나무 상태를 의미하는데 대개 상수리나무(oak)를 가리킨다(참조, 절 6:13).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산에서 뿐 아니라 이러한 상수리나무 아래에서도 제단을 쌓고 바알(Baal)과 같은 이방 신을 섬겼다. 이에 선지자 이사야(Isaiah)는 그들에 대하여 엄히 경고하기까지 하였다(사 1:29). 한편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이방 신을 섬겼던 까닭은 고대인들간에서 푸른 빛이 신성한 색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제사에 간접적인 신비감과 엄숙감을 더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의식이라 할지라도 신령과 진정이 배제된 채 이러한 인위적인 요소만 강조된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참조, 요 4:20-24).

제 4 장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이 받을 큰 화(禍)

단락구분 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시다 / 5-18 회개치 아니한 이스라엘에게 미칠 큰 화 / 19-31 이스라엘에게 미칠 큰 화를 슬퍼하는 예레미야

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 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장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2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와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3 나 여호와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목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4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끝 자가 없으리라

5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6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를 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제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이니라

7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도되 네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8 이를 인하여 너희는 굶은 베를 두르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와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9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 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10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11 그 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땅아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

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12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13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14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느냐

15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제앙을 공포하는도다

16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17 그들이 발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고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18 네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네 마음에게 미치지니라

19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네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으로다

20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천막은 홀연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

21 내가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22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둔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23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르즉 거기 빛이 없으며

24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25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26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27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28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라

29 기병과 활쏘는 자의 원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은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

람이 없나니

30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강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31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혈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 있도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이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화를 선포하시는 것과 예레미야가 그 당할 화로 인해 슬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화는 당시의 왕, 방백, 제사장, 선지자 등의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도 놀랄 만한 무서운 것이었다.
- (3) 이것은 회개하지 않은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께 범죄했으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실 화를 면해야 하겠다(시 7:12).

2. **㉠**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1절)

- ㉠** (1) 그것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搖動)치 않도록 하는 것이다.
- (2) 그런데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한다’는 것은 전에 숭배하던 우상을 다시는 섬기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도 그것에 두지 않는 것을 말한다.
- (3) 이것은 한 번 회개한 후에는 전에 짓던 죄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4)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 한 번 죄를 짓고 회개한 후에는 다시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벧후 2:22).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다.

3. **㉠**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열방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자랑하게 되는가? (2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할 때이다.
- (2)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죄인임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이다(롬 5:19).
- (3) 즉 이것은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행동하면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가르침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답게 행동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야겠다(마 5:16).

4. **㉠**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播種)하지 말라’란 말이 가리키는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 (1)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죄를 제거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신 것은 그와 같은 마음의 상태이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호 10:12).
- (3)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겸손하게 수용(受容)할 마음을 가졌을 뿐 아니라 죄

를 회개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약1:21).

(4) 그러므로 우리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분의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 있다.

5. **㉠**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4절)

- ㉠** (1) 유다 백성들이 외식적이 아닌 참된 마음의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당신께 속해야 할 것을 뜻하는 말이다(율2:13).
- (2) 그런데 유다 백성이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불같이 분노를 발하시어 그들을 사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 (3) 즉 이것은 유다 백성이 참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바벨론의 침입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시 34:18).

6. **㉠** ‘나팔을 불라’와 ‘기호(旗號)를 세우라’ 등의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5, 6절)

- ㉠** (1) 이러한 말들을 통해 우리는 곧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나팔과 기호는 전쟁을 알릴 때 쓰던 표식이었기 때문이다(사 33:23; 호 5:8).
- (2) 또한 그들이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징계로 바벨론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치시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방 불신자 무리를 통해서라도 징벌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신 28:62).

7. **㉠**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7절)

- ㉠** (1) 여기서 ‘사자’는 바벨론을 비유한 것으로 이는 사자가 먹이를 찾기 위해 수풀에서 나오듯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그들의 본토를 출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49:19; 50:17, 44).
- (2)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자’에 비유하신 이유는 바벨론이 사자처럼 잔인하게 괴롭힐 것이기 때문이다.
- (3)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심하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상상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국은 영·육의 고통뿐이다.

8. **㉠** ‘굶은 베를 두르고 애곡하라’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죄를 회개하여야 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사 22:12). 이스라엘의 풍습으로는 슬픈 일을 만난 자들은 굶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는 것이 통례였다(참조, 창 37:29; 수 7:6; 삼하 13:19; 욥 1:20).
- (2)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통곡하며 회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노(怒)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푸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간절히 회개해야 할 것을 교훈해 준다(고후 7:12).

9. **㉠** ‘왕과 방백들은 실심(失心)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는 말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9절)

- ㉠** (1) 이것은 당시의 사회 지도자들이 모두 바벨론의 침입으로 놀랄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그런데 이들이 놀라는 이유가 각기 다른데 먼저 왕과 방백들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국난을 당함을 보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격렬함을 보고, 거저 선지자들은 직업적으로 ‘평안하리라’고 했던 그들의 예언이 맞지 않으므로 각각 놀랄 것이다.
- (3) 이처럼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징계인 외세의 침입을 보고도 깨닫

지 못한 채 그저 놀라기만 하는 정도로 영적 둔감(鈍感) 상태에 있었다.

(4)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딘 자는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지경에 놓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참조, 눅 12:13-21).

10. **㉠**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0절)

㉠ (1) 이것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하며 백성을 속인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6:14).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미혹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순종치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시에 치시기 위해서였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분명 사회에는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만한 분위기에 불구하고 죄가 없고 평안한 사회라고 가르치는 거짓 목회자들과 정치인들이 날뛰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며 근신해야 한다(벧전 5:8).

11. **㉠** 광야 자산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은 어떤 바람인가? (11, 12절)

㉠ (1) 이 바람은 팔레스틴의 가장 고약한 동풍인데 이 바람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밀려오는 것으로 열기가 대단하여 초원의 초목을 말려 버릴 정도이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언급하신 이유는 멀지 않아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입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괴롭히게 될 것을 그들이 더 효과적으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채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욕심은 끝내 사망으로 인도하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참조, 약 1:15).

12. **㉠**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란 말들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1) 이것들은 이스라엘로 침입해 오게 될 바벨론의 군대의 전력이 완벽함을 가리킨다.

(2)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군대의 전력이 완벽함을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꿈쩍 못하고 그들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다.

13. **㉠**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14절)

㉠ (1) 그것은 그들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는 일이었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고 하신 이유는 외적으로 들어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 퇴폐는 마음이 사악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이었다.

(3)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제를 끊이지 않아야 하겠다(시 119:9).

14. **㉠** '단' 과 '소리를 선포하며' 가 각각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5절)

㉠ (1) 여기서 '단' 은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도시를 말하며 '소리를 선포하며' 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을 가리킨다(참조, 사 20:1).

(2) 즉 이 말은 이스라엘 최북단 도시에서 바벨론의 침입을 알리라는 뜻이다.

(3)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가 가까운 줄 깨닫지 못하였기에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였다.

15. **㉠**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5절)

㉠ (1)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함락 직전에 놓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왜냐하면 에브라임 산은 예루살렘 근교(대하 19:4)에 있는데 그곳에서까지 재앙을 공

포하게 되었다면 잠시 후이면 예루살렘도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함락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3) 이것 역시 이스라엘에게 미칠 바벨론 군대로 인한 화가 가까웠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다.

16. **Q** '에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 A** (1) 이것은 북방에 살던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입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열방에 고하라고 하셨는데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입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무시하였기 때문이었다.
 (3) 즉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는다면 열방에게라도 그 예언을 알려 그 예언이 성취될 때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을 그들이라도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을 열방에 고하라고 하신 것이다.

17. **Q**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나니'란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17절)

- A** (1)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철저히 에워싸도 바벨론의 침입을 막을 수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그들이 성을 철저히 막아도 성과가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입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서 찾아야 했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어려운 화가 닥칠 때 다른 사람이나 환경, 물질 등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와 같은 내적 문제의 해결함을 통해 그 화를 그치게 해야 한다(계 18:4).

18. **Q** '이 일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18절)

- A** (1) '이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2) 그런데 그와 같은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었다.
 (3)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얻어지는 많은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경건의 생활이 필요하다(시 107:17).

19. **Q** '슬프고 아프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A** (1) 이것은 예레미야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묘사한 말이다.
 (2) 그런데 그가 이같이 큰 슬픔을 느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3) 이것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미래에 당할 고통을 생각하고 크게 슬퍼할 만큼 자기 민족을 사랑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4) 이 같은 예레미야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도 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며 민족의 죄를 아파하는,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다(눅 7:5).

20. **Q** '천막은 홀연히 파열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간에 열파되도다'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0절)

- A** (1) 이것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가 순식간에 파괴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눈에 보이는 소유물들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 있다

는 의미를 갖고 있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소유물에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실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이다(시 18:18).

21. **Q** '저 기호를 보며 나팔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 A** (1) 이것은 예레미야의 슬픔에 찬 예언으로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고통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4:14).
 (3)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범한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참조, 눅 18:7). 죄의 축적은 결코 그 당사자를 이롭게 할 수 없다(약 1:15).

22. **Q**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2절)

- A** (1)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를 나타내는 말이다.
 (2) 이처럼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시 14:1).
 (3)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내재해 있는 죄를 뿌리채 뽑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사 1:3; 호 6:3).

23. **Q** '혼돈(混沌)하고 공허(空虛)하며'란 말이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는가? (23절)

- A** (1) 이 말은 천지 창조 이전의 혼돈된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 모세가 언급한 적이 있다(창 1:2).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신 이유는 당신의 진노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징계의 결과가 창조 이전의 혼돈된 상태와 맞먹을 정도로 크고 심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3)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당할 징계가 얼마나 혹독한 것이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무질서와 부조화로 일관하게 된다.

24. **Q**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4절)

- A** (1) 이 말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온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이것은 뿌리를 바위에 내리고 있는 산들조차도 요동할 정도로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한 혼란은 클 것이기 때문이다.

25. **Q**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란 말들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가? (25, 26절)

- A** (1) 이것은 이스라엘의 자연이 모두 황폐하게 됨을 나타내는 말들이다.
 (2) 이렇게 처참하게 이스라엘의 자연이 황폐하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에 대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忿)을 발하셨기 때문이다(사 51:20).
 (3)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노를 발하시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의 기력이 쇠하여지고 결국 인간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다.
 (4)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노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정의대로 행하신 사실을 가리킨다.

26. **Q**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7절)

- A**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지만 그들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그중에서 택하신 자들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자신들의 국토를 재건했다(스1:2).
- 27. C**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8절)
- A** (1) 이것은 바벨론의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며 그 작정은 반드시 실행되고야 만다는 뜻이다.
 (2)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내려지리라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돌이키지 않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이다(민 23:19).
 (3)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 때문에 죄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
- 28. C**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29절)
- A** (1)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기병과 활쏘는 자가 몰려올 때의 소리를 듣고 놀랐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이것은 바벨론의 기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3) 이처럼 그들이 외세에 의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다다른 것은 그들의 국방력이 약해서라기 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을 떠나버린 민족과 인격은 소망이 없다.
- 29. C**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丹粧)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0절)
- A** (1)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군대를 자신들의 힘으로 회유(懷柔)해 보려 해도 그 일은 아무 소용도 없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군대를 회유하려 해도 소용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 침략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꿈쩍없이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절감할 수 있다(참조, 욕 9:12). 하나님의 의지를 꺾어 놓을 사람은 이 땅에 하나도 없다.
- 30. C**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초산(初産)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등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1절)
- A** (1) 이것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고통이 산고(産苦) 가운데 있는 여인의 고통 만큼 심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대해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참조, 욕 9:28).
 (3) 이것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4) 그러므로 죄는 인간의 친구가 아니라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책임을 명심하여 날마다의 경건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 5 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

답락구분 1-9 유다 가운데는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 / 10-19 유다 백성이 당할 재난 / 20-29 유다 백성이 재난을 받게 된 원인

1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2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3 여호와여 주의 눈이 성실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거의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 얼굴을 반석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4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5 내가 귀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그 멩을 쥐고 결박을 끊은지라

6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보느니라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오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패역이 심함이니라

7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8 그들은 살지고 두루 다니는 수말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9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10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휘파하되 다 휘파하되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느니라

12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제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13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시니라

14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불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15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보라 내가 한 나라를 원방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나라이라 그 방언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시니라

16 그 전통은 열린 묘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17 그들이 네 자녀들의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 떼와 소 떼를 먹으며 네 포도 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의뢰하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1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

19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20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21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2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제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제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시니라

23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패역하는 마

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4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지 말하지도 아니하니
 25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26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군의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27 조롱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28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29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30 이 땅에 기피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1. **㉠** 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모두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음을 선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범죄를 간과(看過)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 (3) 즉 본장은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시니 죄를 짓지 말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자신이 범죄한 자리에 있다면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참조, 히 12:4).

2. **㉠**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城)을 사(赦)하리라’란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1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다.
- (2) 이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다 백성 모두가 죄를 범한 악인이므로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재난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다(참조, 창 18:23-33).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국가의 국민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불의한 삶을 살 때 그들에게 재난을 보내실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4)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나 자신부터 의롭게 살도록 노력하면서 사회 구석 구석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국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불의하게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마 5:14; 눅 14:34).

3. **㉠** ‘여호와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이 말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고백하면서도 실제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데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일쑤이다(딤후 1:16).
-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두어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삶에서 표현되지 못한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참조, 약 2:17).

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고 거진 멸하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인가? (3절)

- ㉠** (1) 그들은 아픈 줄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멸망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했기 때

문에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 (2)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던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참조, 딤편 4:2).
- (3) 그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을 때 그렇게 된다.
-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자의 설교나 개인적으로 갖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접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남에게 적용시키기 보다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

5. **㉠** ‘비천하고 우준(愚蠢)한 것뿐이라 여호와와 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이것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의 유다에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다.
- (2)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자들이라 늘 음식과 의복에만 신경을 쓰고 염려하느라고 말씀을 생각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39:10;40:7).
- (3) 즉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난한 자들이 가난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또 듣지도 않았던 것을 가르쳐 준다.
- (4) 사실 이런 현상은 빈부의 격차가 나날이 심해져 가는 오늘날에도 뚜렷이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가난한 자들은 막상 닦친 생계 문제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 이것은 가난한 당사자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교회 전체가 풀어야 할 숙제이다.

6. **㉠** 예레미야가 귀인(貴人)들에게로 간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그가 귀인들, 즉 부자들에게 갔던 이유는 부자들이 생계의 염려가 없는 자들이니 가난한 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 아니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2) 그런데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가 만난 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해도 그 말씀을 지키지는 않았다.
- (3) 여기서 ‘멍에’와 ‘결박’은 모두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과 규례들을 의미한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했던 것이다. 인간이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제한된 존재이다(참조, 마 6:24).
- (4) 즉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건 부자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음을 가르쳐 준다(참조, 호 4:6).

7. **㉠**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 ‘사막의 이리’, ‘표범’ 등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 (1) 이것들은 유다 백성을 공격할 바벨론 군대를 가리킨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이처럼 사나운 맹수들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유다가 바벨론 군대를 통해 당할 고통이 클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였다.
- (3) 이처럼 큰 고통을 유다 백성이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의 죄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 (4)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그 고통의 정도는 죄가 크면 클수록 크다는 것을 깨우쳐 준다.

8.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사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 (1) 그 이유는 그들이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고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자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유다 백성이 범한 두 가지 범죄를 언급한 것인데 하나는 우상을 숭배한 죄악이

고 다른 하나는 간음을 행한 죄이다.

- (3) 오늘날의 우리도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마음에 두거나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을 때이다(시 115:8; 마 5:28).
- (4)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등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정욕적인 일에 몰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9. **Q**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報讐)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9절)

- A** (1) 이것은 '이 일들', 즉 우상 숭배와 음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유다가 징계받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 (2) 하나님께서 그같이 유다가 징계받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이같이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눈앞에 보이는 인간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보다는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롬 2:2).

10. **Q** '다 훼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0절)

- A**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그 성의 기초는 그대로 두고 성의 윗부분만 파괴할 것을 명령하신 것을 가리킨다.
- (2) 이 명령의 의미는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방어물로 사용하려고 해도 소용없게 성을 파괴하라는 것이다.
- (3) 이것은 유다 백성이 어쩔 수 없이 바벨론의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마 27:46).
- (4)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 버린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고야 만다.

11. **Q** 유다 백성이 심히 패역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11-13절)

- A** (1) 그들이 '여호와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饑饉)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고 말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 (2) 그런데 이 말 가운데서도 그들의 패역을 가장 명확히 알 수 있게 만든 것은 '여호와와는 계신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다.
- (3)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인데 광야 시절과 가나안 정복 시절 그리고 왕정 시대를 경험한 조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았던 그들이 이같이 말한 것은 그들이 심하게 패역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는 증거이다(시 14:1).
- (4)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찾아 볼 수 있다. 즉 많은 사상가와 패역한 자들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어리석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다.

12. **Q** '선지자들은 바람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13절)

- A** (1) 이 말은 예루살렘에 살던 주민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선지자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하던 말이다.
- (2)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보내신 신실한 선지자들을 조롱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신실한 사역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그렇게 된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진지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범했던 죄를 반복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대하 36:16).

13. **Q**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과 ‘이스라엘 백성’을 각각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14절)
- A**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과 ‘이스라엘 백성’을 ‘불’과 ‘나무’에 각각 비유하셨다.
 (2) 이 비유는 나무가 불에 대항한다면 소멸(燒滅)될 수밖에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3) 즉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참조, 민 14:35).
 (4) 사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행위도 우리의 삶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만약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 일부분이라도 발견된다면 속히 그러한 죄악의 자리에서 빠져 나와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는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께로 마음과 행동을 돌려야 할 것이다.
14. **Q**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보내신 한 나라는 어떤 나라이었는가? (15절)
- A** (1) 그 나라는 강하고 오랜 역사를 가졌으며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바벨론이었다.
 (2) 여기서 ‘강하고 오랜 역사를 가졌다’는 것은 ‘강하고 포악한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가리키고,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말이 통하지 않아 유다 백성이 크게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3) 즉 이것은 유다 백성이 강하고 포악한 성품을 가졌으며, 언어가 다른 바벨론 민족에게 크게 고통과 어려움당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신 28:49).
15. **Q** ‘전통(箭筒)은 열린 묘실(墓室)이요’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 A** (1) 이것은 바벨론의 용사들은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을 다 멸할 수 있을 만큼 화살을 잘 쏘는 자들임을 가리키는 말이다(사 5:28).
 (2) 우리는 이것을 통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유다의 많은 백성이 죽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세력들은 자신들이 가진 힘의 대부분을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힘을 사용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의 죄악을 징계하시려고 했던 것이다.
 (4) 이것은 그 범 죄자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도 큰 피해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희생을 치루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이 바른길 가기를 원하신다.
16. **Q** ‘내가 너희를 진멸치는 아니하리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18절)
- A**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지만 그들 백성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을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2) 즉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 본토에 돌아와 국가를 재건하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대하 30:9).
 (3)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애 3:22).
17. **Q** ‘이 모든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인가? (19절)
- A** (1) ‘이 모든 일’이란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쳐들어와 그들을 죽이고(16절) 그들의 생계 수단을 빼앗아 가는 것(17절)으로 인해 유다 백성이 큰 고통당한 것을 말한다.
 (2) 그들이 이 같은 일을 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인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께 항의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하여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딤후 4:4).

18. **Q**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어떤 자들이라고 하셨는가? (21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둔하여 지각(知覺)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라고 하셨다.
- (2) 이 말은 유다 백성이 영적으로 우둔하였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적으로 우둔하다고하신 이유는 그들이 여러 번 회개할 것을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참조, 4:22; 호 7:11).
- (3)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되지는 못한다. 단지 들은 그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하는 자만이 참된 복의 소유자이다(계 1:3).

19. **Q**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제한(界限)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제한을 삼고'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2절)

- A**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바다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모래 사장을 뛰어넘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가리킨다(시 93:3, 4).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같이 자연 현상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것을 잊고 내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가 많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그와 같은 잘못을 회개하여 다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벗어나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엡 5:17).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20. **Q**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3절)

- A** (1)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 (2)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 버린 것은 그들 가운데 배반하여 패역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 (3) 여기서 '배반하여 패역하는 마음'이란 '교훈받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 (4)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받기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간 것이다(참조, 습 3:2).
-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기 싫어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교훈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도록 해야 한다(습 22:22). 말씀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21. **Q** '이러한 일들'이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말인가? (24, 25절)

- A** (1) '이러한 일들'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것을 말한다.
- (2)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란 각각 10.11월과 3,4월에 팔레스틴 지방에 내려 그 땅의 곡식이 풍성히 열리게 하는 귀중한 비이다(신 11:14).
- (3) 그런데 그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연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비들을 내리시지 않았기 때문이다(3:3).
- (4)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는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릴 때 그분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참조, 시 136:25).

22. **㉠** ‘새 사냥군의 매복(埋伏)함같이 지키며 덮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6절)

㉠ (1)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의 재물을 취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들이 이와 같이 행동했던 이유는 그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3) 이처럼 탐심이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참조, 골 3:5).

(4) 이처럼 탐심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몰아내는 악한 영향력이다. 즉 탐심은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에서 솟아나는 탐심을 제거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23. **㉠**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7절)

㉠ (1) 이 말은 남을 속여 부당하게 빼앗은 재물이 이스라엘 부자들의 집에 가득하다는 의미이다.

(2) 이것은 그 당시 유다 사회의 공의가 땅에 떨어진 것을 가리킨다.

(3) 이처럼 공의가 땅에 떨어진 국가와 백성을 공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리 만 무하다(삼하 23:3).

24. **㉠**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정히 판결치 아니하니’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8절)

㉠ (1) 이것은 유다의 재판관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재판권(件)을 공정히 하지 않아 그들을 괴롭게 했던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재판관들이 재판을 공정히 하지 않아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괴롭게 한 행위는 커다란 죄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기 때문이다(잠 14:31).

(3) 그러므로 현시대에 사는 재판관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재판권을 공정히 해결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공정한 재판에 힘써야 한다.

(4)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서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

25. **㉠** ‘내가... 앉겠느냐’란 말은 어떤 말씀인가? (29절)

㉠ (1)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완고함(20-22절)과 하나님께 대한 배신(23-25절)과 부자와 재판관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불법적으로 착취한(26-28절) 죄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2) 하나님께서 이같이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요 8:3).

(3)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바로 알고 힘없고 가난한 이웃을 자신의 가족처럼 돌보아 줄 때 바로 거기에 참된 경건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맛볼 수 있는 기쁨이 있다(약 1:27).

26. **㉠**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1절)

㉠ (1)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당시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대로 백성들을 가르쳤을 때 백성들은 이의(異意) 없이 그 가르침에 순종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릇된 가르침에 순종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신령한 분별력이 없으면 그릇된 이단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빠질 수밖에 없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 신령한 분별력을 얻어 이단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참조, 고전 2:13).

화보자료

새를 잡는 사냥꾼들.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5세기의 그림이다. 새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덮으려 하는 두 사냥꾼의 모습이 적나라(赤裸裸)하게 표현되어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B.C. 586)이 멀지 않던 예레미야 당시 유다 사회의 부패는 극심하였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방 신을 섬기는 일에 골몰해 있었으며(2:6-13) 관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여 자신의 부(富)를 쌓기에 급급하였다. 그중에서도 이웃을 착취하는 행위는 마치 새 사냥꾼이 덮을 놓아 새를 잡는 것과 같은 간교한 짓이다. 이에 예레미야는 본장에서 어찌 하나님께서 보수하시지 않겠느냐(26-29절)고 역설하고 있다.

제 6 장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말씀하시다

단락구분 1-8 북방에서 온 이방 군대가 유다를 유린(蹂躪)하다 / 9-15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 백성이 당할 재난 / 16-21 유다의 멸망을 통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 / 22-26 당할 재난으로 유다 땅에 슬픔이 가득하게 되다 / 27-30 예레미야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1 베냐민 자손들이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러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학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이니라

2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3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도다

4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별 그늘이 길었구나

5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들을 헐자 하도다

6 나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흥벽을 쌓으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중에는 오직 포박한 것뿐이니라

7 샘이 그 물을 솟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발하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8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9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갱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 처럼 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니라

10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와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11 그러므로 여호와와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파 늙은이가 다 잡히리도다

12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13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4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5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17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군을 세웠으니 나 팔소리를 들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18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19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20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는 어쩔이노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21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2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 끝에서부터 펼쳐 일어나나니

23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은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항오를 벌이고

딸 시은 너를 치려하느니라 하시도다

24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25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니라

26 딸 내 백성이 굶은 베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잃음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홀연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니라

27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28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눈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29 풀무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남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니라

30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 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와 그들을 버렸음이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 백성이 북방에서 온 이방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다.
- (2) 그런데 유다 백성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들에게 선포된 죄를 회개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게 된 것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조, 레 4:13).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의 죄를 지적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생활했으며 죄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3) 그러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바르게 지적하여 줄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한다.
- (4) 만약 이러한 외침이 없다면 그것은 성도들을 위하는 일이라기 보다는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큰 죄악이다.

2. ㉡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벧학게렘에서 기호를 들라'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1절)

- ㉡ (1) 이것은 예루살렘 남부 지방인 드고아(대하 11:16)와 벧학게렘(느 3:14)의 주민들에게 북방에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게 하라는 뜻이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남부 지방 주민들에게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적이 북쪽에서 쳐들어오지만 남쪽 지방에까지 쳐내려올 것이었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범죄한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을 최후까지 돌아보시는 참 사랑을 베푸셨다. 만일 이때에라도 백성들이 자신의 허물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는 곧 용서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다(요 13:1).

3.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름답고 묘(妙)한 딸'에 비유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하고 안일한 생활을 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하나님께서 이같이 평안하고 안일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滅絶)시키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생활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생활이 어려움 없이 평안한 상태가 계속될 때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 사실 평안하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평안할수록 더 긴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삶을 진행시켜야 한다(살전 5:3).

4. ㉣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풀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유다 성 사면에 진(陣)을 치고 포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을 가리킨다.

(2) 이 예언대로 시드기야 왕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옴으로 이루어졌다(왕하25:1-3).

5. **Q** '너희는 그들 치기를 준비하다'란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가? (4절)

- A** (1)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전쟁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이다.
- (2) 그런데 이같이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인 바벨론 군대를 들어 유다를 치시는 이유는 그들이 너무 큰 죄를 짓고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이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할 때 믿지 않는 자를 들어 쳐서라도 그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당신의 품으로 이끄시려는 당신의 사랑의 한 표현이다(히 12:17).
- (4)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는 가장 큰 이유는 다름아니라 인간의 범죄이다.

6. **Q** 바벨론 군대가 밤에 유다를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 5절)

- A** (1) 그것은 그들이 낮부터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공격했지만 아직 완전히 유다를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바벨론 군대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유다를 공격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열심히 유다를 공격했는지를 짐작케 된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무리들은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그들이 목적인 바를 수행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빚어진 슬픈 역사였다.

7. **Q**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에게 무엇을 쌓으라고 하셨는가? (6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흉벽'(胸壁)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이 '흉벽'이란 전쟁할 때 더 유리한 입장에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 만든 성벽을 말한다(삼하20:15).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로 하여금 흉벽을 쌓게 하여 그것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케 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 가운데는 죄악만 가득했기 때문이다.
- (3) 이는 계속 죄를 범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그 진노를 내리시는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의미를 잘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거나 그 숨긴 죄를 쌓아 가지 말고 바로바로 회개해야 하겠다(롬2:4, 5).

8. **Q** '셈이 그 물을 솟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발하니'란 무슨 의미인가? (7절)

- A** (1)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새로운 악을 행한 것을 셈에서 계속 물이 솟구치는 것에 비유해서 밝히신 말씀이다.
- (2) 이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악행을 밝히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계속되는 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계속되는 죄악은 그를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신 양이 차면 곧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악인의 형통함은 그 한계가 분명하다.

9. **Q**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당신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8절)

- A**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당신의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그들을 싫어하시게 될 뿐 아니라 그 땅을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다.
- (2) 이 말씀은 그토록 다양하고 악한 유다의 범죄를 보시고도 그들이 이제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 주는 말씀이다(잠4:13).
- (3) 우리도 이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범죄하면 즉시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자

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눅 15:11-31). 체면과 아집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같이 어리석은 자는 없다.

10. **Q** '포도를 꺾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갱게 주우리라'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9절)

- A** (1) 이것은 하나님께서 포도를 따는 자가 추수시(時)에 포도송이를 깨끗하게 따고 땅에 떨어져 있는 포도송이까지 싹 쓸어 줍듯이, 바벨론 군대가 유다 백성을 철저히 유린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 (2) 이 예언은 유다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 남은 자들은 바벨론 군대가 모조리 잡아감으로써 성취되었다(52:12-16).
- (3) 이상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범죄자에 대한 징계를 철저히 가하심으로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만드신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어리석은 죄를 생각하기 보다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1. **Q**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0절)

- A** (1) 이것은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했을 때 유다 백성이 그 말을 자신들에게 하는 욕으로 생각하고 받지 않았던 것을 가리킨다.
- (2) 유다 백성이 그같이 했던 것은 그들의 악한 본성을 따라 세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다(참조, 딤후 4:3, 4).
- (3) 이처럼 성도들도 세상적인 것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말씀을 전할 때 자신에게 하는 욕으로 생각할 뿐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게 된다(참조, 요 12:25).

12. **Q**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구에게 붓겠다고 했는가? (11절)

- A** (1)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분노를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붓겠다고 했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분노가 아이들에게까지 임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어린아이들까지 어른과 똑같은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유다 사회는 어린아이까지 타락한 악한 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이처럼 사회 전체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밝은 빛(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진 때는 항상 악과 부패가 성행한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삼상 3:1).

13. **Q**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집과 토지가 타인의 소유가 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2, 13절)

- A** (1) 그것은 유다 백성이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물질에 대한 욕심이 큰 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마저 잃을 수가 있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소유에 만족하고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겠다(약 1:15). 만족과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 하나이다(참조, 살 5:16-18).

14. **Q** '그들이 었드러지는 자와 함께 었드러질 것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14, 15절)

- A** (1) 이 말은 예레미야 당시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그들의 백성들이 죽을 때 선지자들도 함께 죽을 것이라는 뜻이다.
- (2) 그들이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유는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서도 지적해 주지 않고 도리어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말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4:13).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신자들의 죄악을 보고도 지적해 주지 않으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주님의 심판 때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참조, 겔 13:6).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진리이다.

15. **㉠** ‘옛적 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16절)

- ㉠** (1) ‘옛적 길’이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던 것을 가리킨다(참조, 창 4:4;5:24;6:8, 9; 12:9).
-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삶을 살도록 권하셨는데 그것은 그 같은 삶을 살아야만 그들이 참변영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삶을 살도록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요구대로 순종하여 참변영과 평강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참조, 사 8:20).

16. **㉠** ‘당할 일’이란 어떤 일을 말하는가? (17, 18절)

- ㉠** (1) ‘당할 일’이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멸망당할 것을 말한다.
- (2)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와 같은 일을 열방에 선포하시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아 그 같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 많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였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신 한 행동을 통하여 어리석은 인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신다(참조, 눅 23:46-49).

17.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그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당시의 유다 백성이 종교 의식을 행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들의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았던 것을 가리킨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배에 참석해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딤후 1:16).
- (4) 그러므로 우리는 법사에 하나님을 찾고 그를 인정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천국에서의 삶을 뜻한다.

18. **㉠** ‘시바에서 유향과 원방(遠方)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이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0절)

- ㉠** (1)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쓰는 물건인 유향과 향품을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400km나 떨어진 시바나 그곳보다 더 먼 인도 같은 곳에서 가져올 정도로 그들의 종교 의식을 위해서는 성의를 다했던 것을 가리킨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성의를 다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예배를 위한 외적 준비에는 열심이 있었지만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었다(삼상 15:22).
- (3) 이것은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의 외적인 의식이나 열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따라 예배드릴 때에 예배 의식이나 겉치레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요 4:24).

19. **㉠** ‘거침’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21절)

- ㉠** (1) ‘거침’이란 히브리어로 <믹솔립>으로서 ‘넘어지게 하는 거침돌’이란 뜻인데 이는 유다 백성이 겪게 될 전쟁을 가리킨다(1:14).

- (2) 여기서 유다 백성이 전쟁을 겪게 되는 것은 그들이 지은 죄(10-20절) 때문이었다.
 (3) 이처럼 인간의 죄는 인간을 이롭게 하기 보다는 인간을 파멸로 이끌 뿐 아니라 속한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린다.

20. **㉠** 유다 북방에서 올 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22, 23절)

- ㉠** (1) 그 나라는 '바벨론 군대'로서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殘忍)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흉용함 같은 자들이다.
 (2) 이것은 유다에 쳐들어올 바벨론 군대가 상당히 무서운 존재임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서운 존재를 그들에게 보내시는 것은 그들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초래하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징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도 하신다. 이것은 당신의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는 당신의 지혜요 사랑이다(롬 6:23).

21. **㉠** '그 소문을...여인 같도다'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4절)

- ㉠** (1) 이것은 유다에 침입해 올 바벨론 군대가 아주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침입 소식만 들어도 손에 힘이 빠지고 그들의 침입으로 당할 고통은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과 같을 정도로 심할 것을 가리킨다.
 (2) 우리는 이것을 통해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에게 당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다(38:4; 49:24).
 (3) 그런데 유다 백성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수준 이하의 자세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 군대의 위용을 통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철저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세력들에 연연해 있었던 것이다.
 (4)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난리와 소문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마 24:6-14).

22.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밭에도 나가지 말고 길로도 행치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 (1) 그것은 대적 바벨론 군대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 이것은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유다 집 사방에 두려움과 죽음이 가득할 것을 가리킨다(49:29).
 (3) 이와 같은 지시는 마치 옛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 은 땅에 임한 장자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묻힌 후 문 밖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흡사하다(출 12:22).

23.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통곡하라고 하셨는가? (26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굶은 베를 두르고 재에서 굴며 독자를 잃음같이 슬피하며 통곡하라고 하셨다.
 (2) 당시에 굶은 베를 두르고 재에서 구른다는 것은 아주 심한 슬픔을 나타내던 행위인데 거기에서가 독자를 잃고 당하는 슬픔까지 첨가된 것을 볼 때 유다가 당할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참조, 겔 27:30; 암 8:10).
 (3) 하나님께서 이러한 슬픔을 요구하신 것은 그들의 단순한 감정적인 안타까움을 표시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회개를 하라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죄 때문에 방황하는 심령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고 계신다.

24.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했는가? (27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당시의 살피는 자와 요새로 삼으셨다고 하셨다.

- (2) 여기의 '살피는 자'와 '요새'는 당시의 어려운 시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져야 할 '폭넓은 영적 안목'과 '불굴의 용기'를 가리킨다.
- (3) 이것은 시국이 어려운 때에 살며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소양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 (4) 주님의 재림이 가까와 사단의 역사가 심한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세대의 죄를 정확히 보는 영적 안목과 어떤 악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다.

25. **㉠** '그들은 놋과 철이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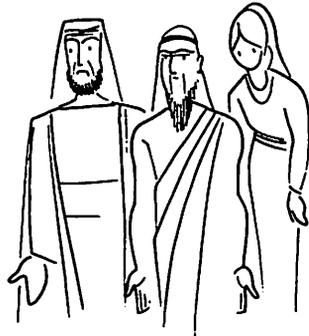
- ㉠** (1)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무가치하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가리킨다.
- (2)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시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여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무가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 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 (참조, 엡 6:18).

26. **㉠** '플무를...헛되게 되느니라'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29, 30절)

- ㉠** (1) 이것은 은을 정제(精製)하려고 은과 납을 한 도가니에 넣고 불을 쬐면 사람의 일이 헛되게 되어 버린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즉 은을 정제하기 위해 은과 납을 넣고 끓일 때 은이 나쁜 것일 경우 납은 타 버리고 은은 정제되지 않은 채 남게 된다.
- (3)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불과 같은 말로 유다 백성이 정제되기를 바랬지만 은을 정제하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듯이 그의 말은 헛되이 되어 버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고 말았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도록 어려움을 주실 때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버리시는 자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사 55:6).

본장의 요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24절).



제 7 장 계속해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단락구분 1-7 유다 백성이 해야 할 참회개 / 8-11 헛된 거짓말을 고발하다 / 12-15 회개치 않는 자들이 받을 재앙 / 16-20 하나님의 진노 / 21-28 유다 백성의 불순종 / 29-34 유다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극한 형벌

1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너는 여호와와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4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와 전이라 여호와와 전이라, 여호와와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5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6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7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에니라

8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9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10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12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1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14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15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6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17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 자식들은 나무를 줌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느니라

19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격노케 함이나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냐

20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한을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 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1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회생에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22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회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23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24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악한 마음의 꾀와 강퍽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25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며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26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

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27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28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29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니라

30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장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

으며

31 힌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32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륙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함을 인함이니라

33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좇을 자가 없을 것이라

34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1. ㉠ 본장의 요지(要旨)를 말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한 큰 죄를 지적하면서 그 같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형벌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처럼 우리도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열심을 다하면서도 정작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이 범한 것과 동일한 죄를 짓는 것이 된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외적인 경배와 봉사에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하나님을 중심(中心)으로 사랑하기에 더 큰 열심을 내도록 해야 한다(참조, 삼상 15:22).

2.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디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는가? (1,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문, 즉 성전 문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 성전 문에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리라고 생각하며 성전을 출입했던 당시의 유다 백성의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신 것이다
- (3) 더우기 성전 문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은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내용이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3.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면 그 성전에 거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 성전에 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 (2) 여기에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속으로부터 사랑하고 그 사랑이 생활 속에서 나타나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는 것’을 가리킨다.
- (3)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타인에게 끼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좋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4)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대한 예배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타인도 유익하게 하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참조, 약 1:27).

4. ㉠ ‘이것이 여호와와의 전이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전임을 강조했던 자들은 누구인가? (4절)

- ㉠ (1) 그들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백성에게 가르치기 위해 이 같은 말을 하였다.

- (2) 이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이사야 시대, 즉 B. C. 701년 무렵 예루살렘을 포위한 앗시리아 왕 산헤립의 대군(大軍)이 하룻밤 사이에 기적적으로 패주(敗走)한 사건(왕하 18:13; 19-37)을 근거로 하고 있다.
- (3) 결국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이같이 말함으로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신뢰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 (4) 사실 성전은 그 자체가 거룩하거나 영광스럽지는 않다. 성전이 영광스러운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다(참조, 왕상 9:3).
- (5) 만약 하나님을 무시한 채 성전이라는 건물만을 흠모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이다.

5. **㉠** 유다 백성이 회개해야 할 네 가지 죄는 무엇인가? (5-7절)

- ㉠** (1) 그것은 이웃에게 공의를 행하지 못한 것(참조, ㉠ 3),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와 같은 약한 자를 압제한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 등이다.
- (2)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범했던 죄를 말한다(참조, 22:3; 25:6).
- (3) 이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버린 인간은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도 크나큰 오점을 남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 삶의 척도라 할 수 있다.

6. **㉠** '무익한 거짓말'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8-10절)

- ㉠** (1) '무익한 거짓말'이란 외식적인 의식이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가리킨다.
- (2) 유다 백성들은 이 같은 말을 믿고 첫째 들비의 두번째 계명과 두번째 들비의 여섯, 일곱, 여덟번째 계명(9절)을 범하고도 하나님 전에 들어와서는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라고 말했다(10절).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외적인 의식을 너무 중요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그분을 만족시켜드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계명인 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다(요 15:12).

7.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았다고 하셨는가? (10,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전을 도적의 굴혈(窟穴)로 만든 것을 보았다고 하셨다.
- (2)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어기고 제사하기 위해 성전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오늘날도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헌금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 (4) 이러한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빌 1:27).

8.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어디로 가 보라고 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실로'에 가 보라고 하셨다. 그곳은 에브라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성막을 고정적으로 설치한 곳이고(수 18:1) 왕권이 들어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절기를 지켰다(삿 21:19; 삼상 1:3).
- (2)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 보라고 하신 것은 그곳이 성막이 있는 곳이라고 해도 적의 공격을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다.
- (3) 즉 그곳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폐허가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까지도 그들의 손에 빼앗겼던 곳이었다(삼상 4:1-11).
- (4)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것도, 심지어 성막이나 법궤도, 인간을 구원하고 보호하

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실로로 가 보라고 하셨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시 18:1-6).

9. **Q** '실로에 행함'과 '에브라임 은 자손을 쫓아냄'이 가리킨 것은 무엇인가? (13-15절)

A (1) '실로에 행함'이란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 실로가 폐허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과 '에브라임 은 자손을 쫓아냄'이란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열 지파를 대표하는 에브라임 족속이 B. C. 722년 앗시리아에게 멸망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을 가리킨다.

(2) 이 같은 재난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도 허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13절)하여 그들이 정신차리고 회개하도록 하게 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행 28:27).

(3)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경고에 청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생명과 죽음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10. **Q**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는가? (16절)

A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다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

(2)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유다 백성의 죄(5-10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시며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참조, 느 9:17)조차 인내하시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3)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쌓아 두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깨닫게 된다. 죄의 결국은 사망이다(참조, 롬 5:17).

11. **Q** 예레미야 때에 유다 백성들의 아이들과 아버지들 그리고 부녀자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17, 18절)

A (1) 그 당시 아이들은 나무를 줌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웠으며 부녀자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자를 만들었다.

(2) 이것은 우상에게 바칠 떡을 만들기 위해 온 가족이 동원된 것을 묘사한 것이다.

(3) 이처럼 당시의 백성들은 공공연하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타락해 있었다.

(4) 결국 이토록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이다(시 119:126).

12. **Q** '하늘 황후'란 무엇을 말하는가? (18절)

A (1) '하늘 황후'란 앗시리아와 바벨론에서 경배한 여신 아스다룟을 말한다(참조, 44:17).

(2) 그런데 이 여신(女神)에 대한 숭배는 므낫세 왕 때 유다에 전래되어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 때 일단 금지되었다가 여호야김 왕 때부터 다시 성행되었다(참조, 왕하 21:5).

(3)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던 유다 백성이 이처럼 이방에서 수입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그 신이 자신들에게 풍요한 삶을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4) 이와 같이 사람들은 흔히 자신에게 직접적이며 현실적인 이익을 가져온다고 믿어지는 것에 대해 자신의 전인격을 맡겨 버리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순간적인 안락을 제공할지 모르나 궁극적으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야는 항상 먼 훗날에 두어야 한다(참조, 고후 4:16-18).

13. **Q** '나를 격조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羞辱)을 자취함이 아니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9, 20절)

A (1) 이것은 유다 백성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어떤 손실을 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큰 재난을 당하게 됐다는 뜻이다.

(2) 여기의 재난은 유다 백성과 그들의 짐승과 들 나무 그리고 땅의 소산까지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큰 화(禍)를 당하는 것을 가리킨다(20절).

(3)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은 죄대로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을 깨닫는다(참조, 삼상 3:13).

14. **Q** '너희 희생에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21절)

- A** (1) 이것은 '너희가 바친 희생 제물에 번제물들을 더하여 그 고기를 먹으라'는 의미이다.
 (2) 율법에 희생물로 바친 제물은 그 피와 기름을 제외하고 먹되 하나님께 번제로 바친 제물은 먹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레 1:9)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당신을 떠나 불의를 행하면서도 의식적 예배의 규칙을 지키는 유다 백성의 위선(僞善)을 비난하시기 위해서였다.
 (3) 이처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방임은 악인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게 만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워 주신 책무에 대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

15. **Q**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22절)

- A** (1)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은 번제물을 원해서가 아니라 제사드리는 자들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임을 말한다.
 (2) 여기서 사람이 예배드릴 때 의식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진실한 마음이 그에게 받쳐지도록 해야 한다(롬 12:1).

16. **Q**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23, 24절)

- A** (1) 먼저 그들은 그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나중에는 자신들의 등을 하나님께 돌렸다.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자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즉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되었다는 사실이다.
 (3) 이것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고자 하는 자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그분의 말을 청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준다(롬 10:17).
 (4)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요일 2:5).

17. **Q**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 그들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셨는가? (24-26절)

- A** (1)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자 그때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어 그것을 지키게 하도록 권고하셨다.
 (2)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시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게 하셨다(행 3:26).
 (3) 이 같은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며 그들 백성을 사랑하셨는가를 깨닫게 된다.
 (4)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악용하여 그것을 우리의 게으름의 근거로 삼아서 안 된다.

18. **Q** 유다 백성을 회개시키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실패로 끝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7절)

- A** (1)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요'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
 (2)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같은 불행한 결과를 알고서도 계속 자신의 사역을 감당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자신들이 전하는 교훈이 바라는 대로 성취되지 않고 악한 것만이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으니 낙심치 말고 인내하며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후 4:1).

19. **㉠** '진실'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8절)

- ㉠** (1) '진실'이란 히브리어로 <하에무나>로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2) 그러므로 '진실이 없어졌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 사라졌음을 가리킨다.
 (3)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상실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도 상실한 것이다.

20. **㉠**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머리털을 베었는가? (29절)

- ㉠** (1) 그들은 비탄과 참회(懺悔) 가운데 있을 때(욥 1:20; 미 1:16)나, 하나님께 대해 헌신을 맹세했다가 그 맹세를 깨뜨릴 때 머리털을 베었다(민 6:9-12).
 (2) 본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머리털을 베어 버리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이제 바벨론이라는 대국의 군대에게 괴로움을 당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서였다.
 (3) 한편 이스라엘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머리를 민다는 것은 대단한 수치로 여겨졌다(참조, 고전 11:5).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머리털을 베라고 하신 것은 그들로서는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인간은 결국 자기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수치밖에 없다.

21. **㉠**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한 범죄는 어떤 것인가? (30절)

- ㉠** (1) 이것은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그 집을 더럽힌 죄이다.
 (2) 즉 그들이 성전 사면 벽에 각종 곤충과 가증한 짐승을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에 앉아 바벨론 신에게 경배하고 성전 마당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해, 달, 별에게 경배한 사실을 가리킨다(왕하 21:4, 5; 겔 8:9, 10, 14, 16).
 (3) 그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같이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3:17).

22. **㉠** '헌놈의 아들 골짜기'란 이스라엘의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31절)

- ㉠** (1) '헌놈의 아들 골짜기'란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한 계곡을 가리킨다(수 15:8; 왕하 23:10; 대하 26:9).
 (2) 유다의 백성들은 바로 이곳에 음란한 사당(祠堂)을 세워 놓고 거기서 자기의 자녀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불살랐다(왕하 23:10).
 (3) 이와 같은 행위는 아라비아인, 페니키아인, 모압인 사이에서는 일찍부터 행해졌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므낫세 왕 때 시작되어 나라 전체에 만연하였으며 요시야 왕 때 잠시 금지되었다가 여호야김 왕 때에 다시 성행하였다(참조, 19:5; 32:25; 겔 20:25).

23. **㉠** 성전을 더럽히고, 헌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자식을 불사른 죄를 범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것인가? (32-34절)

- ㉠** (1) 바벨론 군대를 통해 그들이 죄를 범하던 헌놈의 골짜기에서 떼 죽음을 당하도록 허용하는 일이다.
 (2) 그때에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어도 그 새와 짐승을 쫓아 줄 사람은 없게 되고 나라에 기쁨과 경사스러운 일은 아주 끊어지고 땅은 황폐하게 될 것이다.
 (3) 이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끔찍하며 슬픈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 (4) 또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어떤 종교적 행위에 힘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멸망을 앞당기는 처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5) 더우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하찮은 짐승들의 식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연구자료

힌놈의 골짜기(Valley of Hinnom). 이 골짜기는 일명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31, 32절; 19:2, 6; 수 15:8; 왕하 23:10)로도 불리운다. 그런데 이 골짜기 이름에 붙여진 ‘힌놈’ 또는 ‘힌놈의 아들’이라는 말은 이곳에 최초로 거주했던 여부스족(Jebusites) 땅 임자의 이름에서 유래된 듯하다. 이 골짜기는 왕정(王政) 시대 말기에 이르러 그렇게 평판이 좋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자신의 자녀를 바알(Baal)과 몰렉(Molech)에게 바치기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도벳(Tophet) 사당이 있었기 때문이다(31, 32절). 이처럼 사악한 우상 숭배 행위를 일삼던 자들 중에는 유다의 아하스(Ahaz, B. C. 742-725)와 므낫세(Manasseh, B. C. 697-642) 같은 왕도 포함되었다(대하 28:3; 33:6). 그러나 요시야(Josiah, B. C. 640-609)와 같은 왕은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이곳에 있는 도벳 사당을 더럽히기까지 하였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힌놈의 골짜기에 대하여 본장에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이 골짜기는 가증하고 패역(悖逆)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어 황폐케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는 장차 ‘살륙의 골짜기’로 알려지게 될 것이다(31-34절). 그런데 이와 같은 예언이 있기 이전부터도 이곳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소각(燒却)하는 장소였으며 죽은 죄인들과 동물들의 시체를 태우는 장소였으므로 일반적으로 죄와 형벌, 고통의 처소로 상징되었다. 이러한 상징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지옥’(헬, 게헨나)의 개념에도 영향을 미쳤으니 죄인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처소인 ‘게헨나’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말인 히브리어(게벤흐놈)이 전와(轉訛)된 것이다(참조, 막 9:43-49). 한편 이 골짜기의 위치에 대하여서 명확한 성경적 언급이 없기 때문에 여러 학설로 그 위치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기드론, 두로베온 그리고 와디 에르 라바비(Wadi er-Rababi) 이 세 골짜기가 모두 힌놈 골짜기와 동일시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서편에 있는 와디 에르 라바비 골짜기가 힌놈의 골짜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 8 장 유다가 받을 심판

단락구분 1-3 유다 백성이 받을 극심한 고통 / 4-7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유다 / 8-12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 범한 죄 / 13-17 유다 백성이 고통으로 신음하다 / 18-23 에레미야의 애가

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2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복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못 별 아래 찌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3 이 악한 족속의 남아 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 나서 각처에 남아 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4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와 그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5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이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6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악을 뉘우쳐서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7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와 그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8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와 그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들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9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받으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와 그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10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11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 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12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

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1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14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15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16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중의 거민을 삼켰도다

17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슬픔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18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19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앙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20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21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도다

22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인고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당신에게로 돌아오지 않은 사실과 그들이 징계를 받아 심하게 고통받을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그들이 받게 될 고통은 너무 심한 것이어서 그들이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3) 이 같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죄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

2. **㉠** ‘그때’에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1절)

- ㉡** (1) ‘그때’는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략하여 그 백성들을 살륙(殺戮)할 때를 가리킨다.
 (2) 그때에 그 군대는 유다 백성의 묘지에서 시신(屍身)을 끌어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범죄하고 죽은 자들로 사후(死後)에도 수치를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암2:1).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버린 유다 백성이 얼마나 흉칙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인지를 알 수 있다.

3. **㉠**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糞土) 같을 것이며’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유다 백성의 시체들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땅 위에 노출되게 될 것을 의미한다.
 (2)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이상으로 어떤 것을 사랑하고 섬기며 순종하여 구하면 언젠가는 그 사실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사실 그들은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아무런 안내자 역할도 할 수 없는 피조물(해, 달, 별 등)에게 자신들의 전 삶을 맡겨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었다.
 (4) 그러나 그들에게 남는 것은 허무와 죽음뿐이었다. 이처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소망을 둔 자는 결국에 가서 영원한 멸망과 수치만 있을 뿐이다.

4. **㉠** ‘이 악한 족속의 남아 있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3절)

- ㉡** (1) ‘이 악한 족속의 남아 있는 자’란 유다 백성 중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을 가리킨다.
 (2) 그들은 그곳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괴로와 차라리 죽기를 원했다.
 (3) 이것은 극도로 악한 자들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아 마치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은 정도의 괴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제9:6).

5. **㉠** ‘사람이 없드리면...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이것은 사람이 넘어지면 즉시 일어서는 본능을 가졌고 그가 집을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뜻이다.
 (2)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다시 돌아오지 않음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다.
 (3) 이와 같이 유다 백성은 극도로 교만하여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하였다.
 (4)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징계의 채찍(삶의 고통)을 내리셔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품에 기어오르게 만드신다.

6. **㉠**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무엇을 고집하고 있었는가? (5절)

- ㉡** (1)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거짓을 고집하고 있었다. 여기서 ‘거짓을 고집하고’란 말은 ‘하나님을 속이고’라는 뜻이다.
 (2)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솔직하지 못하여 오랫동안 그에게로 돌아오지 못한 것을 가리킨다.
 (3) 이것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준다(참

조, 요 3:20).

- (4)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의롭다고만 인정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없다(요일 1:8-10).

7. **㉠**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시는 분이신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사람 가까이에 계셔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시다.
- (2)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이라고 말씀하셨다.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귀를 기울이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되게 회개하는지를 아시기 위해서였다.
- (4)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갔다.
- (5) 우리는 이것을 통해 우리 가까이에 늘 계시는 하나님께 진실되이 고백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함을 깨닫게 된다(참조, 시 51:17; 사 57:15; 66:1, 2).

8. **㉠**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미물까지도 자신의 삶에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즉 여기에 언급된 학, 반구, 제비, 두루미와 같은 새들이 기후의 변화에 따라 옮겨 다니는 것을 통해 하찮은 미물마저도 올바른 삶의 방향을 안다고 강조하셨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사실을 말씀하신 것은 새 같은 하등 동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을 순종하는데 유다 백성은 그것만도 못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
- (4) 이것을 통해 우리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등 동물만도 못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잠 12:1).
- (5)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과 은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9. **㉠** '지혜있는 자' 는 어떤 자인가? (8, 9절)

- ㉠** (1) '지혜있는 자' 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다(참조, 욕 28:28).
- (2) 유다의 거짓 서기관들은 율법에 명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기는 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 (3)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경황(驚惶) 중에, 즉 갑자기 침략자 바벨론에게 사로잡혀 그들에게 끌려가 수치를 당했다.
- (4) 이와 같이 참된 지혜는 입술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 아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혜야말로 자신의 생명과 명예를 지켜 주는 참된 지혜이다.

10.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집과 토지가 타인의 소유가 되도록 허용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유다 백성의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 (2) 자세한 내용은 본서 6장의 **㉠** 14를 참조하라.

11. **㉠**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1, 12절)

- ㉠** (1) 이 말은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그들의 백성들이 죽을 때 그들도 함께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뜻이다.
- (2) 그들이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도 지적해 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안한 세대가 계속될 것이라고 거짓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목회자들도 사람들의 죄는 지적하지 않고 사람의 귀만을 만족시키는 복음 외에 것을 전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겔 13:6; 계 21:27).

12. **㉠** '우리가 어찌...거기서 멸망하자'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3, 14절)

㉠ (1)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고, 동시에 바벨론이 침입해 양식(糧食)이 꺾절(乏絶)하게 된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은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레 26:20; 습 1:2).

(2)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는 했어도 그것을 회개하지는 못하였다(14절).

(3)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범한 죄를 깨닫기는 해도 회개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의 죄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에 대해 당신으로부터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겔 33:11).

13. **㉠** 유다 백성이 바랬던 것은 무엇이고 실제로 발생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15절)

㉠ (1) 유다 백성이 바랬던 것은 평강과 안전이었으나 실제로 그들에게 닥친 것은 재난과 공포였다.

(2) 즉 그들에게 닥친 일은 그들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과 안전만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기 때문이었다(11절).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짓 선지자들인 이단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현혹(眩惑)되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 타락할 수 있으니 이단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배격(排擊)해야 한다(참조, 딤후 3:10; 벴후 2:1).

14. **㉠**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6, 17절)

㉠ (1) 여기의 '뱀'과 '독사'는 주로 죄값으로 당하는 환난을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는 아주 극심한 환난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사 59:5).

(2) 즉 이것은 보통 뱀은 술법을 써서 잡을 수 있지만 독성이 매우 강한 뱀은 그럴 수 없듯이(시 58:4, 5) 유다에 밀어닥칠 바벨론의 침입은 유다의 어떤 노력으로도 막을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16절).

(3) 유다 백성이 이렇게까지 끔찍할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4) 사람들은 흔히 자신들에게 불어 닥친 환난의 바람이 외부의 환경이나 자신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자이면 그 환난의 근본 원인이 자신의 허물과 죄였음을 곧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참조, 약 1:14).

15. **㉠** 예레미야 선지가 슬퍼한 이유는 무엇인가? (18, 19절)

㉠ (1) 그것은 자기의 백성들이 먼 땅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이다.

(2) 이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불평한 것을 가리킨다.

(3) 이와 같이 자신들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도움이 되어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만 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를 보여 준다.

(4)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마땅히 제거해야 할 죄악은 숨겨둔 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똑같은 축복을 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반역이며 죄악이다.

16. **㉠**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0절)

- Ⓐ (1) 유다 백성이 추수할 때는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는데도 그들의 동맹국인 애굽이 도와 주러 오지 않기 때문이다.
- (2)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외부 세력에 의해 위협을 당할 때 애굽인들이 도와 주었듯이 (참조, 사31:1) 바벨론의 침입으로 자신들이 그들의 포로가 되었을 때도 애굽인들이 도와 주리라고 기대하였지만 그것이 헛일이 되어 버리자 이 같은 한탄을 한 것이다.
- (3) 이처럼 세상의 물리적인 힘을 의지하는 자는 그 힘에게서 용기와 삶의 보람을 얻기 보다는 좌절과 실망만을 얻게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서 찾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와 후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다(시 107:19;119:146).

17. Ⓢ ‘딸 내 백성이 상(傷)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 Ⓐ (1)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동포들이 바벨론에서 심하게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같은 고통을 느끼며 슬퍼한 것을 가리킨다(14:17).
- (2) 이처럼 백성의 영적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이 아픔을 당할 때 함께 그 아픔을 나누며 그들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 (3) 더우기 성도들의 영혼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조그마한 어려움과 기쁨마저도 놓치지 말고 거기에 동참할 줄 알아야 한다(고후 11:29).

18. Ⓢ ‘길르앗’ 과 ‘유향’은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 (22절)

- Ⓐ (1) ‘길르앗’은 요단 강의 동쪽, 모압의 북쪽 산지에 위치한 이스라엘의 한 동네인데 ‘유향’은 그곳에서 많이 나던 상체에 바르는 의약품이었다(창 37:25).
- (2) 예레미야가 이 두 명칭을 언급한 것은 길르앗에 가서 유향을 바른다고 해도 유다 백성이 전화(戰禍)에서 받은 영적인 상처는 치료될 수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다.
- (3) 왜냐하면 그 상처는 하나님께 회개하여야만 치료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사 38:16;말 4:2).

본장의 요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斑鳩)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7절).

제 9 장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는 유다

단락구분 유다 백성이 허로 범죄하다 / 10-16 유다가 멸망되는 것은 당연하다 / 17-22 유다 백성이 몰이라 / 23-24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이다 / 25-26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다

1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륙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곡읍하리로다

2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으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됴이로다

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4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5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거늘

6 네 처소는 케홀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케홀로 인하여 나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나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8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9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와 의 말이니라

10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11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시랑의 굴혈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12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와 의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타서 지나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3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14 그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좃았음이라

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16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헤치고 전멸되까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18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19 이는 시온에서 호곡하는 소리가 들려 이르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헐었음으로다 함이로다

20 부녀들이여 여호와와 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21 대저 사상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22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와 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못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2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

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5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26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1. **㉠** 본장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자만이 지혜있는 자라는 것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을 강한 어조(語調)로 기록하고 있다.
 (2)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살아 계신 분임을 깨닫는 것을 가리킨다.
 (3) 즉 본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시는 살아 계신 분임을 깨달아야만 멸망당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2. **㉠**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1절)

- ㉠** (1) 이것은 유다 백성의 파멸이 너무나 엄청나서 아무리 통곡해도 충분하지 않을 정도인 것을 가리킨다.
 (2) 예레미야가 이 같은 표현을 한 것은 조금도 뉘우침이 없이 강박한 자기 백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움직여 보기 위해서였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동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동포의 파멸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구원할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조국애이다.

3. **㉠**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을 떠나가고 싶은 심정이 있음을 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자기 백성이 행음하였고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2) 여기서 행음하였고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 모두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께는 신실하지 못한 자가 되었던 것을 가리킨다.
 (3) 즉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모두 우상을 숭배할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의 동리에서 멀리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겔 18:28).
 (4) 여기서 우리는 진리를 간절히 사랑하는 자의 고독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만을 소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와 같은 외로움을 느껴야만 할 것이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원한다면 세상과 환경의 일부분 또는 전체를 포기할 줄 아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다(참조, 마19:29).

4. **㉠**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혀를 눌러 거짓을 말하였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3절)

- ㉠** (1)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즉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조절하여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였던 것이다.
 (3) 이것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로 아는 자라야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바로 알아 거짓을 말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겠다(잠 12:22).

5. **㉠**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이웃과 친하지 말고 자기 형제도 믿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절)

- A** (1) 당시의 백성들이 형제끼리도 속이며 이웃 사람을 비방하였기 때문이다.
 (2) 이것은 당시의 유다 백성들 사이에는 성실함이란 조금도 없고 심지어 형제들 사이에도 부당한 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을 가리킨다.
 (3) 이따금 질도, 강도, 사기 같은 악이 활개치더라도 가까운 사람들과의 인간 관계는 존중되기 마련인데 이처럼 유다 백성에게는 그것마저도 파괴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악했는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

6. **Q**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 결과 그들은 어떤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5, 6절)

- A** (1) 유다 백성은 거듭되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끝내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게 되었다.
 (2) 여기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삶의 전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3) 이처럼 습관적으로 악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그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마저 없어지기 때문에 마침내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몰아내게 된다.
 (4)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나라에서 몰아내신 것이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시는 타율적(他律的)인 분이 아니시다.

7. **Q** 마음에는 악한 생각이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평화를 말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7-9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유다 백성을 녹이고 연단하시겠다고 하셨다.
 (2) 이것은 그들을 바벨론의 침입이라는 시련 속에 던져 연단하여 죄를 깨닫게 하시는 당신의 정의로우신 계획을 가리킨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결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의 소유자들을 싫어하시며 또한 그들을 끝내 심판하신다.
 (4) 그러므로 거짓은 인간에게 순간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았을 때 오래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만을 바라볼 뿐이다(잠 19:5).

8. **Q** 예루살렘으로 ‘시랑(豺狼)의 굴혈이 되게 하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A** (1) 그것은 예루살렘이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이다.
 (2) 즉 이것은 예루살렘이 아주 심한 전쟁을 겪게 되어 조그마한 희망조차도 남지 않은 폐허가 될 것을 예고하신 것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로우신 팔을 한번 뻗치시지만 하면 죄악된 세력은 그 흔적조차도 남지 않고 사라지게 될 것이다.

9. **Q** ‘이 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12-14절)

- A** (1) ‘이 일’이란 장차 유다 민족이 환난을 당해야 하는 원인을 말한다(12절).
 (2) 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세우신 법을 버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가르친 바알을 좇은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 보다는 세상과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의 결국은 큰 환난과 그에 따른 멸망이다.

10. **Q** 유다 백성은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숭배했는가? (14절)

- A** (1) 유다 백성은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좇았다.
 (2) 즉 그들은 가나안과 페니게(Phoenicia, 행 11:19)에 살던 사람들이 숭배하던 ‘바알’이란 남신(男神)을 받아들여 대대로 숭배해 왔던 것이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을 사사 시대에 받아들여 신당까지 지었고(삿 2:13; 6:28-

32) 아합 왕 시대에는 그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열심히 이 신을 숭배하기도 하였다(참조, 왕상 16:31, 32; 18:17-40).

- (4)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후 때에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이 신을 숭배하였다(참조, 왕하 11:18; 21:3; 대하 17:3; 21:6).
- (5) 이처럼 그들은 뿌리 깊은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서 멸망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자녀에게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지나친 보호만을 일삼는 오늘날의 잘못된 부모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11. **㉠**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겠다고 하셨다.
- (2) 여기서의 '썩'은 그 수액(水液)이 몹시 쓴 팔레스틴 광야에서 나는 식물이고 '독한 물'은 히브리어로 <메로쉬>로서 '양귀비 잎의 즙'을 말하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벌을 가리킨다(참조, 23:15; 애 3:19).
- (3)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유다 백성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겠다고 하신 것이다.

12. **㉠**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6절)

- ㉠** (1) 그것은 바벨론 침략 때에 그 군대를 피해 도망가는 모든 유다 백성을 그 군대가 따라가서 진멸할 것을 가리킨다.
- (2) 즉 이것은 유다 백성이 철저히 살육당할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 (3) 이처럼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 전혀 없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당신의 정의를 실현하신다(참조, 은 1장).

13.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 중 어떤 자들을 불러오도록 하셨는가? (17-20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중에 곡하는 부녀, 즉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울어 주는 여자들과 지혜로운 부녀, 즉 마땅히 울어야 할 때에 울 줄 아는 여자들을 불러오도록 하셨다(참조, 마 9:23).
- (2) 그런데 그녀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이제 멸망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며 슬프게 울어 자신들을 데려온 자들이 자신들과 함께 울도록 하는 것이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우는 여인을 동원해서까지 강박하여 멸망이 눈앞에 있음을 알지 못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려 하신 것이다(눅 6:21).
- (4) 오늘날도 양심이 무디어져 제아무리 외부의 충격과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태연하게 지내는 사악한 인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날마다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진리를 외치게 하신다.
- (5) 그러므로 구원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수용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있는 자이다.

14. **㉠** '사망이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 ㉠** (1)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있어도 또한 근위병(近衛兵)들이 궁전을 철저히 방위해도 바벨론의 강한 군대는 부수고 들어와 그 안에 있는 자들을 죽일 것을 가리킨다.
- (2) 그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유다의 보호막이 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파멸을 허용하셨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범죄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조용히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참조, 마 11:28).

15. **㉠** 사람의 시체가 '분토', '거두지 못한 못'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2절)

- ㉠** (1) '분토'와 거름을 '거두지 못한 못'은 추수 뒤에 배어 쌓아 놓은 곡식 더미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바벨론의 침입이 있는 후 하나님을 배반하던 유다 백성들이 천하게 들에 뒹굴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2) 이것은 전쟁을 통해 유다 백성이 참혹한 꼴을 당하게 될 것을 묘사한 것이다.
- (3) 사실 이스라엘에서 시체가 아무렇게나 방치되는 것은 그 죽은 사람의 과거가 얼마나 사악했는가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조처였다(참조, 왕하 9:37; 사 5:25).
- (4)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 교만히 행하는 자는 그가 죽은 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수욕을 면치 못한다.

16.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 그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그것들, 즉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고 도리어 그것들로 인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을 자신들이 높아지고 유익되는 곳에 쓸 것이 아니라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만 쓰도록 해야 한다(참조, 전 9:11; 암 2:14,15).

17.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자랑하라고 하셨는가? (2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을 아는 것과 그분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하셨다.
- (2)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그분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이심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3) 또한 그분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다는 것은 신실한 자기 백성을 옹호하시며 불쌍한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이 부당하게 억압당할 때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말한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날까지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깨달은 자만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다.

18.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셨는가? (25, 26절)

- ㉠** (1) 하나님께서는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다 벌하시겠다고 하셨다.
- (2) 여기서 할례받은 자란 유다 백성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할례받은 그들과 할례받지 않은 자, 즉 이방인을 함께 다 멸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유다 백성이 외적인 할례의 표는 있어도 내적인 할례의 증표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참회개가 없고 당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유다 백성을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과 동일시하여 그들을 벌하신 것이다(참조, 롬 2:28, 29).
- (4)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외적인 증표, 즉 세례와 같은 것이 아닌 내적인 증표, 즉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경외하여 그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다(삼상 16:7).

19. **㉠**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26절)

- ㉠** (1)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이란 머리의 들레를 네모 반듯하게 깎았던 아라비아 광야에 살던 아라비아 족속(참조, 왕상 10:15)을 가리킨다.
- (2) 그렇게 머리의 들레를 깎는 행위는 이방 신을 섬기는 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모세 율법에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엄히 금하고 있다(레 19:27).

제 10 장 참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멸망당할 유다

단락구분 1-5 우상은 헛되다 / 6-10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 11 거짓 신은 멸망하고 만다 / 12-16 창조자이신 하나님 / 17-22 유다의 멸망 / 23-25 예레미야의 탄원

1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열방의 길을 배우지 말라 열방인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 말라

3 열방의 규례는 헛된 것이라 그 위하는 것은 삼림에서 벤 나무요 공장의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요동치 않게 하나니

5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메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셨느니라

6 여호와여 주와 같은 자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인하여 크시니라

7 열방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치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열방의 지혜로운 자들과 왕족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음이 나이다

8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

9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감으로 그 옷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어니와

10 오직 여호와와 참하나님이시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열방이 능히 당치 못하느니라

11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12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3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공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4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다 금 장색마다 자기의 조카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16 야곱의 분깃은 이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17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네 꾸러미들이 땅에서 수습하라

18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거하는 자를 이번에는 내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달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9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도다

20 내 장막이 훼파되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21 목자들은 우준하여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행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 떼는 흩어졌도다

22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풍성이 오니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사랑의 거처가 되게 하리도다

23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24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나로 없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25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씌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케 하였나이다

1. **㉠** 본장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우상과 자신에 대해 설명하신 후 유다 백성이 자신보다 이방 우상을 더욱 섬기므로 멸망받게 된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유다 백성이 택하여 섬긴 우상은 그들이 멸망받게 되었는데도 그들을 위해 아무 도움도 주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시 115:4-9).
- (3) 이같이 본장은 우상의 헛됨을 알려 주어 우리로 하여금 살아 계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만 섬기도록 교훈한다.

2. **㉠** '들을지어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들을지어다'란 히브리어로 <쉬메우>로서 '귀로 듣고 순종하라'는 뜻이다.
-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 즉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그같이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무익한 우상을 섬겼기에 그것을 엄하게 가르쳐 금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 (3)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참조, 약 1:22-24).
- (4) 그러나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향유한 자라 할 수 있다(계 1:3).

3. **㉠** '열방의 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절)

- ㉠** (1) 이것은 고대 이집트나 바벨론 사람들이 하늘의 해, 달, 별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아 그 같은 천체에 정조가 나타날 때마다 그 천체(天體)에게 제사를 드렸던 것을 가리킨다.
- (2) 즉 이것은 이방인들이 참으로 섬겨야 할 하나님은 모른 채 그분이 만드신 해, 달, 별 같은 것을 섬긴 죄를 지적하는 말이다.
- (3)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의 말씀으로 온 우주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 우주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보다는 훨씬 열등한 존재이다(창 1:1-2:3).
- (4)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달은 자는 지금까지 두렵게 생각하고 섬겨 오던 피조물에 대하여 인식을 달리하고 더우기 그 피조물을 창조했으며 또한 그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할 것이다(참조, 롬 1:18-23).

4. **㉠** 우상의 특징을 설명하라 (3-5절).

- ㉠** (1) 우상은 삼림에서 벤 나무를 공장(工匠)이 다듬어(3절) 다시 은과 금으로 장식하고 못과 장도리로 고정시킨 것으로서 이것은 살아 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4절).
- (2) 또한 그것은 말도 못하며 걸어도 다니지 못하니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 (3)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셨다.
- (4) 이와 같이 인간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무인격체에게 자신의 의지와 삶을 맡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일 뿐 아니라 멸망받아 마땅한 자이다(참조, 시 15:4-8).

5. **㉠** 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6, 7절)

- ㉠**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권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 (2) 즉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열방, 즉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이방인들이 그 권능, 즉 그들의 역사나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것은 죄로 인해 그들의 영안(靈眼)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고전 2:14).

(4) 그러므로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에게 내재해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6. **Q**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도는 나무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8절)

A (1) 이것은 우상이야말로 단순한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다만 무지하고 어리석을 뿐이라는 말이다.

(2) 자세한 내용은 본장 **Q** 4를 참조하라.

7. **Q** '다시스에서...만들었고'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9절)

A (1) 그것은 이방인들이 광물 교역이 활발했던 지중해 서쪽의 한 도시(겔 27:12)인 다시스와 금 산지이며 금을 제련하는 제련소가 있었던(참조, 단 10:5) 우바스(Uphaz)에서 은과 금을 가져와 우상 제조업자들에게 맡겨 우상을 만들었던 것을 가리킨다.

(2)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우상이란 인간의 손을 통해 만들어진 살아 있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이다(참조, **Q** 4).

(3) 이처럼 살아 있지 않은 물건에 의미를 부여하여 자신의 신으로 삼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있어진 마음의 공허를 없애기 위한 어리석은 행동이다.

(4)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 교제를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에 귀의한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생명과 평안을 소유할 수 없다(참조, 사 55:2).

8. **Q**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10절)

A (1) 본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 '영원한 왕'으로 말하고 있다.

(2) 그런데 '참 하나님'이란 열방의 헛된 우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만 진리를 소유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며, '사시는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생명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란 하나님만이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뜻이다.

(3) 우리가 신앙 생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9. **Q**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11절)

A (1)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고 하셨다.

(2) 본서에서 특이한 것은 다른 곳과는 달리 본절만은 갈대아어, 즉 바벨론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

(3) 따라서 이 말씀에는 유다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함과 아울러 많은 우상을 숭배하던 바벨론 사람들을 각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거듭하고 있는 이방 세계에까지 그 주권을 행사하시는 온 우주의 왕이시다(롬 11:36).

(5)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불의한 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듯한 이 땅의 역사마저도 그 배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를 주도해 가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

10. **Q**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12, 13절)

A (1)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의 목소리로 인하여 하늘과 땅에 물이 생기고 비가 내리며 바람이 불었다.

- (2) 여기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섭리적인 통치를 보여 준다.
- (3) 세상의 창조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사역(창1장)인 것과 같이 땅이 물 위에 있게 하는 것(시 14:2) 과 하늘을 펴시는 것(사 40:22; 시 104:2)도 신적 지혜와 총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참하나님은 오직 '한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참조, 마 16:16).

11. **㉠**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한 자의 행위와 그들이 당할 징벌은 어떠한가? (14, 15절)

- ㉠** (1) 그들은 우준하고 무식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으므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께 징벌받아 멸망할 것이다.
- (2) 어리석은 인간들은 본성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여(참조, 롬 1:20-23)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된다.
- (3) 그러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출 20:5; 신 4:24; 수 24:19)이시므로 사랑을 빼앗아 간 우상과 그것을 숭배하는 자를 진멸하신다고 하셨다.
- (4)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외형적인 우상은 없으나 내면적인 우상을 많이 갖고 있다. 정욕, 탐욕, 권세욕 등(골 3:5). 이런 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

12. **㉠** 야곱의 분깃은 무엇인가? (16절)

- ㉠** (1) 야곱의 분깃은 우상이 아니라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이다.
- (2)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자의 복됨을 보여 준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서로 언약을 맺었기에 야곱의 분깃은 이방인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이다(신 32:31).
- (3)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렇게 되면 그 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께서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가 되신다는 사실이다(참조, 50:32; 신 34:9; 시 16:5).

13. **㉠** 하나님께서 에워싸인 자들에게 짐을 싸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7, 18절)

- ㉠** (1)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이 땅에 거하는 자를 내어 던져 괴롭게 함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 (2) 이는 유다 전체가 적들이 약탈하는 장소가 되고 폐허가 될 것이기 때문에 모을 것들을 모으라고 하신 것이다.
-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우둔함을 지적하시기 위해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도 행구를 준비하여 이사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는 패역한 백성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였다(참조, 겔 12:3).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 권고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는데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즉시 돌이키는 지혜가 필요하다(참조, 시 119:67, 71).

14. **㉠** 유다 백성이 당한 어려움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19, 20절)

- ㉠** (1) 그들은 중상을 당하였고 장막은 훼파되었고 그들의 모든 줄이 끊어졌고 자녀들은 떠나갔으며 장막을 세울 자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은 유다 백성이 스스로 얻은 고난이었다.
- (2) 먼저 유다 백성이 당할 큰 환난을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벨론에게 당할 침략을 가리킨다.
- (3) 그래서 예레미야는 비통함을 느끼면서 '슬프다 내 상처여'라고 하였다. 즉 자신이 예언한 모든 내용을 백성이 같이 느끼고 슬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느끼지 않았다.
- (4) 이제서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나 때문이라고 원인을 돌릴 때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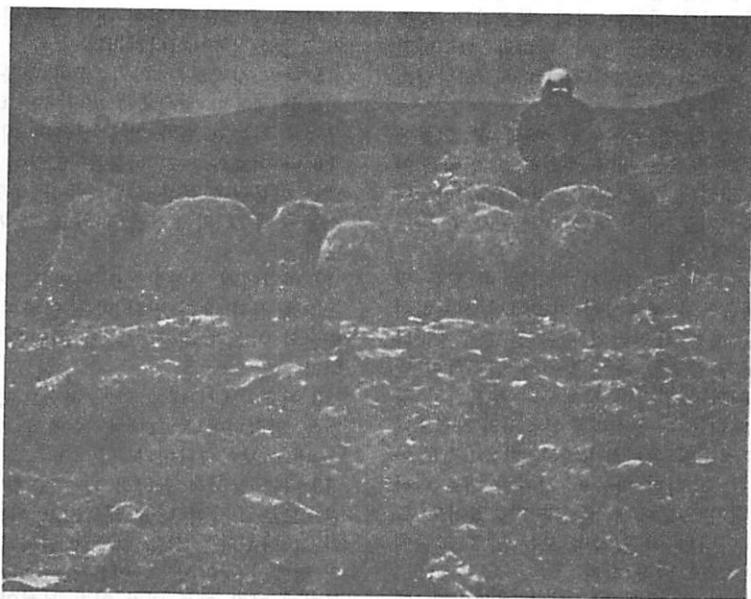
어날 수 있고(참조, 은 2:2-9; 3:5-8)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은 3:10).

15. **㉠** 목자들, 즉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그들이 우준하였기 때문인데 '우준하다'란 히브리어로 <니브아루>로서 '짐승과 같다'는 뜻이다.
- (2) 당시의 지도자들은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것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 (3) 지도자들은 존경받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요 7:18; 롬 12:16; 고전 4:18).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도구가 된다.
16. **㉠** 북방에서 들려 오는 풍성(風聲), 즉 소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22절)
- ㉠** (1) 그 소문은 유다 성읍이 황폐하게 되어 시랑, 즉 승냥이의 거처가 된다는 것이다.
- (2)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으나 그것이 아무 소용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새 교사가 와서 그들을 다른 방법으로 깨닫게 할 것이다.
- (3) 이것은 유다 성읍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심하게 멸망할 것을 가리키는데 그 성읍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그 성읍에 거하는 자들의 죄 때문이다.
- (4) 이것을 통해 우리는 범죄의 결과가 단순히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참조, 욥 15:34; 시 34:21; 마 23:38).
17. **㉠**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23절)
- ㉠** (1) 인생의 길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스스로 걸음을 지도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 (2) 본질은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고백한 말씀이다.
- (3) 예레미야는 이 같은 신앙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사로잡혀 가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 (4) 그러므로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환난을 비롯한 모든 슬프고 기쁜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겠다(잠 16:9; 살전 5:16, 18).
18. **㉠**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되 어떻게 하시도록 간구하였는가? (25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되 진노로 하지 마시고 너그러이 하시도록 간구하였다. 왜냐하면 진노로 징계하실 때 생명을 이어갈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기억하여야 할 사실은 예레미야는 일개인의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대표한 자로서 자기 민족의 죄상(罪相)을 알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진노를 품은 재앙이 안 되기를 간구하였다는 점이다. 즉 그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되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였던 것이다(참조, 시 118:18).
- (3) 그러므로 회개의 참된 특성과 본질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버이다운 것임을 전제로 하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징계를 감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삼하 7:14; 시 89:33, 34).
19. **㉠**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방 민족에 대하여 어떻게 해주시도록 간구하였는가? (25절)
- ㉠** (1) 그는 주를 알지 못하는 열방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어 주시도록 간구하였다.
- (2) 그 이유는 그들이 유다 민족을 침략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3) 여기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다. 물론 유다 민족도 패역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지만 그보다 더 패역한 민족들(시 75:8; 79:6, 7)도 있음을 들어 유다 민족의 징벌을 감(減)해 보려는 의도인 것이다.

- (4) 예레미야의 이런 기도는 B. C. 539년 11월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므로 성취되었다(단 5:30, 31).
- (5)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비록 나라의 정치와 모든 사회가 부패하였을지라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한다.

화보자료

양(羊)치는 목자. 가나안 정복 후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였던 땅인 한 산지(山地)에서 양들을 몰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있는 목자의 모습은 감동적이다.



구약 시대 선지자들의 사명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들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도 남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대신 자신의 말로써 백성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참조, 23:9-32).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안타까와하였으니 그러한 그의 심경은 21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제 11 장 유다가 언약을 파괴하므로 심판을 받게 되다

단락구분 1-6 예레미야가 여호와와의 언약을 경침하다 / 7-8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유다 / 9-13 그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재앙 / 14-17 얼굴을 숨기시는 여호와 / 18-23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의 음모

1 여호와께서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가라사대

2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

3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쇠뿔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5 내가 또 너희 열조에게 한 맹세 곧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날이 그것을 증거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6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준행하라

7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부지런히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 하였으나

8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하였어도 그들이 행치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말로 그들에게 응하게 하였느니라 하라

9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10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좇아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도다

11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12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곤액 중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13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의 수효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효대로 그 수치되는 물건의 단 끝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도다

14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곤액을 인하여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을 듣지 아니하리라

15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서 떠났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시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16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17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18 여호와께서 내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19 나는 끌려서 잡히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산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으로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20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정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21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22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

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23 남의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이니라

1. **㉠** 본장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조상처럼 당신과 맺은 언약, 즉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신 사실과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로 한 음모를 꾸미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 이유는 그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듣기 싫었기 때문이다.
- (3)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약속을 파기한 자들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서약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 (4) 한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사단의 세력으로 인하여 미움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런 위협을 이기고 끝까지 말씀을 전해야 한다.

2.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말하라고 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언약의 말을 듣고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고하라고 하셨다.
- (2) 그리고 이 언약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3)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은 그것이 책망이든 칭찬이든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것이었고 말씀과 일치하였다. 따라서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했다.
- (4)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울무이며 부자유한 것 같지만 이것이 참된 자유이며 (참조, 눅 1:74, 75) 그 안에 참평안이 있다(시 131:2, 3).

3. **㉠** 예레미야가 받은 언약의 내용은 어떠한가? (4, 5절)

- ㉠** (1) 그 언약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명령을 좇아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약속의 땅을 주리라'는 것이다.
- (2) 이 언약은 출애굽 당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출 19:5-9; 신 7:9)을 가리키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까지 소급된다(참조, 창 17:7).
- (3) 한편 이 언약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복음을 수용한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방인들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4. **㉠**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가? (4절)

- ㉠** (1)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말로 언약을 맺으셨다.
- (2)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의 심한 압제 속에서 구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다(참조, 함 1:12; 마 22:31). 그리고 그것에 딸린 조건은 단 하나 '순종'뿐이었다.
- (3)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고 또 우리의 생명을 보장받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권위만 내세우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총을 보여 주시며 큰 상급까지 약속하신다.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다.
- (2) 이런 표현은 모세가 자주 사용하였는데(출 3:8, 17; 13:5; 33:3; 레 20:24)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얻게 될 땅이 본래부터 비옥하였음을 말한다(참조, 민 13:23).
- (3) 이 약속의 땅은 곧 가나안이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수많은 시련(참조,

민 13:33)과 긴 시간(창 15:13)이 필요했으나 그것은 그들의 성숙을 위한 훈련에 불과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어 그들에게 가나안이 주어지게 되었다.

6. **㉠** 하나님께서 간절히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셨을 때 그들이 보인 태도는 어떠했는가? (6-8절)
- ㉡** (1)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였다.
 (2) 이것은 몇몇 사람의 패역함이 아니라 전체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받을 때부터 패역하고 반역함(출 14:11; 민 20:2-5)을 가리킨다.
 (3)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거절하고, 그분의 권위에 불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
 (4)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그분을 멸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런 자들이 당할 심판은 죽음과 패배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추방되는 것이다(참조, 민 14:26-39; 사 2:2, 11-15; 롬 5:12-19; 뱀전 2:7, 8; 3:20).
7. **㉠** '반역'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9절)
- ㉡** (1) '반역'이란 유다 백성이 요시아 왕의 종교 개혁 후 얼마 동안 우상을 섬기지 않았으나 여호야김 시대에 다시 우상을 섬긴 것을 가리킨다(왕하 23:3, 35-37).
 (2) 요시아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당시의 개혁이 형식적이며 외적인 개혁에 그쳤기 때문이고 그 결과 백성의 마음은 개혁되지 못하였다.
 (3) 따라서 참된 개혁은 외적인 제도나 의식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마음을 찢는 데 있다(을 2:13). 우리도 이런 개혁이 전인격적으로 있어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참조, 은 3:5-10).
8. **㉠**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는가? (10, 11절)
- ㉡** (1) 그들이 하나님 말씀듣기를 거절한 선조들의 뒤를 따라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破)하였기 때문이다.
 (2)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한 행위는 출애굽 당시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과 모압 여인과 행음하고 왕족이 여러 우상을 섬긴 것 등 그 예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다(참조, 출 32:4; 민 25:2; 사 3:7; 왕상 12:32; 왕하 17:12).
 (3) 따라서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B. 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앗수르에 멸망한 것(왕하 17:23, 24)과 B. 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52:12)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4)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받아야 한다(빌 2:12).
9. **㉠** 예레미야 때에 예루살렘에서는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겼는가? (13절)
- ㉡** (1)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성읍의 수와 같이 많고 예루살렘 거리의 수효대로 바알에게 분향하는 단을 쌓았다.
 (2) 그러나 어느 곳이나 똑같은 형태의 미신을 섬기지 않았고 모든 곳에서 바알에게 분향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본절에서 말하는 의미는 지역적 바알 신들이 여럿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복수 어형(語形)〈바알림〉으로 부르게 되었다.
 (3) 여기에서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이 완연하게 나타난다. 즉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기면 편하고 문제 해결이 될 줄 알았으나 참하나님, 증보자는 한 분임을(참조, 고전 6:8; 딤후전 2:5) 잊고 있었다.
 (4) 그들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11절)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존재와 우상의 허됨을 알았다.

(5)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을 통하여 참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께만 기도해야 함을 배울 수 있다.

10.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명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이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실 것이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
- (2)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참조, 출 34:6; 느 9:17; 롬 9:22)이지만 참으시는 기간이 지나고 죄인들이 더 이상 돌이키지 않을 때 심판하신다(창 18:22-32).
- (3)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은 처지를 당한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데 있었다. 오늘날 우리들 주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무엇인가. 물질, 명예, 권력 그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11. **㉠** 유다 백성의 범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15절)

- ㉠** (1) 그들이 많이 행음하였으므로 거룩한 제육(祭肉)이 그에게서 떠났다.
- (2)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의 최악이 크므로(참조, 사 1:1-17; 겔 16:24) 그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는 뜻이다.
- (3)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순수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참조, 요 4:23, 24; 롬 12:1). 더우기 우리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제사임을 명심하여 경건에 힘써야 한다.

12. **㉠** 우상을 숭배한 유다는 하나님의 재앙으로 어떻게 되었는가? (16, 17절)

- ㉠** (1)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들을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 라고 하였으나 이제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다.
- (2)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는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섭리와 연관지어 볼 때 유다 민족 전체에 적용될 수 있다.
- (3)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므로 특권들을 박탈당하고 침략자들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 (4) 이와 같이 위선자들은 망하게 되고 오히려 진실하고 신실한 자들만 남아 푸른 감람나무의 축복(참조, 시 52:8; 호 14:6)을 받게 된다.

13. **㉠** '순한 어린 양'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 (1) '순한 어린 양'이란 히브리어로 <케베스 알루프>로서 '사람에게 길들여져 사랑을 받는 양'이란 뜻이다.
- (2) 예레미야가 자신을 '순한 어린 양'이라고 말한 이유는 당시 집에서 기르는 양은 죽이지 않았는데 마찬가지로 자신도 가족들에게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참조, 삼하 12:3).
- (3)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심 전력하는 일편 단심의 행동을 했다.
- (4) 그러나 진리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일을 할 때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 (5)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아갈 때 생명의 위협과 기타 다른 위협들이 닥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14. **㉠** '그 나무와 과실을 함께 박멸하자'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9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가리킨다.
- (2)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에 대한 반감(反感) 때문에 죽이려 했는데 그들에게서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패역한 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 (3) 이와 같이 참선지자는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참조, 요 15:18-21; 딤후

3:12). 한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는 자라면 말씀을 듣고 애통하는 회개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참조, 행 2:37, 38).

15. **㉠** '나의 원정(冤情)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수를 내가 보리이다'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0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가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잘못이 없는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가리킨다.
 (2)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억울한 사연을 아뢰는 것은 그분께서는 피고와 원고(原告)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공정하게 판단을 내려 주는 유능한 재판관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다(시 7:9).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참조, 은 2:2; 빌 4:6).

16. **㉠** 하나님께 호소하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는가? (22, 23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재앙을 내리사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2) 이런 심판의 이유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고 위협하였기 때문이다.
 (3) 그러나 이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나돗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결과 예레미야는 원수들의 멸망을 보게 될 것이다(참조, 시 92:11; 112:8).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참조, 롬 2:2) 이런 자들은 성령을 훼방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다(참조, 마 12:30-32).

연구자료

아나돗(Anathoth).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참조, 1:1)이다. 이곳은 예루살렘 북쪽 약 4.8Km 지점에 위치하였는데 오늘날의 아나타(Anata)라는 마을이다. 그러나 혹자는 아나타 근처에 있는 라스 엘 하루베(Ras el Harrubeh)가 옛날의 아나돗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예레미야는 이곳에서도 예언 활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 아나돗 사람들로 부터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21절). 이러한 아나돗은 본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서 레위 지파를 위하여 할당된 48개 성읍 중의 하나가 되었다(수 21:18). 이곳 출신으로서 뛰어난 자는 예레미야 외에도 다윗의 용사였던 아비에셀(Abiezer, 삼하 23:27)과 예후(Jehu, 대상 12:3)가 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Adonijah)를 도와 반역을 꾀하였던 아비아달(Abiathar)을 이곳으로 추방하기도 하였다(왕상 2:26).

제 12 장 예레미야의 불평과 하나님의 응답

단락구분 1-4 예레미야가 악인의 길이 형통한 이유를 묻다 / 5-13 하나님께서 거역한 유다 백성을 멸망 시키실 것을 선포하시다 / 14-17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 구원받는다

1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이까

2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 마음은 머니이다

3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한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4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5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6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7 내가 내 짐을 버리며 내 산업을 내어던져 내 마음의 사랑하는 것을 그 대적의 손에 붙였노니

8 내 산업이 삼람 중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발하는 고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라

9 내 산업이 내게 대하여는 무늬 있는 매가

아니나 매들이 그를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10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훼손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11 그들이 이를 황무케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무함은 이를 개의하는 자가 없음이로다

12 꺾멸하는 자들이 땅아 모든 자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와 같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무릇 혈육있는 자가 평안치 못하도다

13 무리가 밭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와 분노를 인함이니라

14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15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16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움을 입으리니와

17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1. ㉠ 본장의 개괄적(概括的)인 내용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이 멸망받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길이 형통한 이유를 묻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직접 답하지 않고 유다가 머지 않아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당장 벌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다(롬 2:4; 벰후 3:9, 15).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그들이 회개치 않을 때는

결국 멸망케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2. **Q**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임을 고백하였는가? (1절)

A (1) 그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하였다.

(2)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이고 불변하다(참조, 스9:15; 시 51:4; 애 1:18; 단 9:7).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

(3) 어떤 어려움이나 혹시 의심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참조, 욥 9:3).

3. **Q** 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예레미야는 무엇을 불평하였는가? (1절)

A (1) 예레미야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연고인지를 불평하였다.

(2) 이런 문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실망시키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인데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해야 한다.

(3)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기에(참조, 시 36:6; 97:2) 악인의 평안을 끝까지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을 뿐이다(참조, 시 37:1, 2; 약 4:14; 벧후 2:17).

4. **Q** 예레미야는 악한 자들의 어떤 모습을 지적하였는가? (2절)

A (1)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으셨기에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으나 오히려 악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입으로만 그분을 찾는다고 하였다.

(2) 예레미야는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적 주권을 강조한다. 즉 악인이 풍성해지고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3) 그렇지만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

(4) 그리스도인들은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 그분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차지할 분깃이 이 땅의 것뿐이기 때문이다(참조, 시 17:14; 49:14; 마 5:45; 눅 16:25).

5. **Q**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내세워 악인들의 심판을 원하였는가? (3절)

A (1)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원하였다.

(2) 예레미야는 자신이 얼마나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완수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다.

(3) 이런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다. 즉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행동하지 않는 신앙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지체 없이 임할 것이다(참조, 살전 5:3; 약 5:5).

6. **Q** 예레미야는 유다 땅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이 멸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4절)

A (1) 예레미야는 그것이 그 땅의 지면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고 하였기 때문이라 하였다.

(2)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고 한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들은 이미 위험을 벗어났다는 것이다.

(3) 이 말은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그들은 단지 사면의 성벽을 튼튼히 쌓아서 요새를 만들면 하나님의 재앙의 손길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4)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인간들의 패역함은 그들 생활 뿐 아니라(참조, 암 8:11) 자연까지도 황폐하게 만들고 말았다(참조, 창 3:18).

7. **㉠** ‘평안한 땅’과 ‘요단의 창일(漲溢)’이 각각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5절)

㉠ (1) ‘평안한 땅’은 보통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을 가리키는데 이곳에는 선지자의 친척과 친구들이 살고 있으므로 조용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요단의 창일’은 홍수로 인한 요단 강의 범람을 가리킨다(수 3:15).

(2) 그러나 여기서 ‘평안한 땅’은 약탈당하도록 노출되고 무방비한 상태의 땅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요새화된 곳은 ‘전쟁의 땅’이라고 부른다. ‘창일하다’는 것은 평안한 땅에 몰아 닥칠 재난을 가리킨다.

(3)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하여 멸망하게 될 큰 환난(25:9-11; 왕하 25:6-12, B. C. 586)을 이런 비유로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4) 한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장래의 일을 미리 알게 하신 이유는 회개하게 함과 아울러 닥치는 환난을 이겨 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이다(참조, 롬 5:4).

8.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믿지 말라고 하셨는가? (6절)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하셨다.

(2) 이것은 예레미야가 겪어야 할 어려움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동족과 친구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그와 대적할 것을 보여 준다.

(3)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 또는 혼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위의 모든 사람이 원수임을 가르쳐 준다(참조, 미 7:5, 6; 마 10:34-39).

(4)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과 진리를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보상하시고 위로해 주신다(참조, 딤후 4:7, 8).

9.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1)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집’과 ‘산업’을 버려 대적들의 손에 붙이셨다.

(2) 여기서 ‘내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고 ‘내 산업’은 유다 민족을 가리킨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민족이 그 대적, 즉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허용하신 것은 유다 민족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자처럼 대들었기 때문이다.

(4)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께 대항하면 그를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시 78:19, 40, 56).

10. **㉠** ‘무늬있는 때’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9절)

㉠ (1) 그 때는 이방의 우상을 받아들여 우상 숭배 행위에 몰든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길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늬있는 때’라고 하였다.

(2) 그런데 그들이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습관에 몰들어 버린 것은 그들이 자신들보다 강한 그 이방 나라에 아부하기 위해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3)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세력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그 어떤 세력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어떤 세상적인 강한 세력에 의지하거나 또한 그것과 타협해서도 안 된다(참조, 시 146:3; 잠 3:5).

11. **㉠** ‘맑은 목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0절)

㉠ (1) 그들은 예레미야가 들짐승이라고 비교했던 자들로서 유다를 침략하여 진멸시킨 바벨론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2) 본래 하나님께서 유다의 목자로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유다인들의 패역함이 지나쳐 하

나눔께서 감당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목자를 보내신다는 말씀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악한 통치자를 보내셔서 더 큰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참조, 사9:8-1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즐거워하고 사모해야 한다(참조, 시97:1).

12. **㉠ 황무지가 슬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 (1) 목자가 낙토를 황무지로 만들었으며 그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 (2) 유다 백성은 포악한 목자, 즉 바벨론으로 인해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멸망당할 것을 말한다.
- (3)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선포되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비웃었다.
- (4) 또한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였다.
- (5) 결국 그들의 죄가 자연계까지 영향을 주어(창 3:17, 18) 토지가 황폐해지므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인식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13. **㉠ 혈육있는 자들이 왜 평안치 못한가? (12절)**

- ㉠** (1) 궤멸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자산(赭山)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기 때문이다.
- (2) 그들은 여러 경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여로 어려움에 겪게 될 것을 말한다(참조, 레 26:33).
- (3) 그래서 ‘여호와의 칼’, 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혹독한 방법으로 징계하신다.

14. **㉠ ‘그 소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 (1) ‘그 소산’은 농부가 밭을 심었으나 가시를 거두고 수고하였으나 아무 소득이 없는 것을 말한다.
- (2) 이는 유다가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애굽과 동맹하고 그들을 의지하였으나 실제로 어려움에 부딪히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을 말한다.
- (3)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애굽은 B. C. 605년 갈그미스에서 대패하여 유다를 돕지 못하였다(46:2).
- (4) 결국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인간, 호흡이 끊어지면 흩으로 돌아갈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시 146:3-5).

1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산업을 다치게 하는 악한 이웃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 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에서 뽑아 버리겠다고 하셨다.
- (2) 그 ‘악한 이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을 가리키는데(참조, 민 21:24; 22:1) 이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참조, 48:4-8; 49:1-22).
- (3) 이 의미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즉시 심판하시지 않고 기다리시고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신 후 때가 차면 심판을 행하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이다(참조, 출 23:22).

16. **Q**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 내리라'가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 (15절)

- A** (1)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이다(신 30:3).
 (2) 그런데 이 같은 예언은 B. C. 537년 유다 백성들이 본토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참조, 스 1:5-11).

17. **Q**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게 공물을 베푸신 이유는 무엇인가? (15, 16절)

- A** (1)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유다 백성의 도를 배우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다.
 (2) 이 귀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하여 품으셨던 증오를 버리고 자비를 베푸사 화해하실 것을 선언하신 말씀이다.
 (3)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참된 예배를 반대했던 이방인들이 율법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것을 내세웠다.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 복음에 순종하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신다(참조, 롬 4:11, 12; 갈 3:7, 14).

18. **Q** 하나님의 공물을 거부하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7절)

- A** (1) 하나님의 공물을 입은 자들이 그분의 조건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뽑아 멸하실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물을 받아들이면 이방인에게도 확실한 구원이 있는 반면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당한다고 선포하셨다.
 (3) 이는 신약 시대에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방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을 얻게 해주시는데(참조, 마 8:5-10; 요 4:5-26) 그 구원의 조건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임을 가르쳐 준다(참조, 함 2:4; 막 1:15; 롬 1:17; 10:9).

화보자료

먹이를 찾아날아 온 독수리. 미끼용으로 던져 놓은 고기 냄새를 맡고 날아온 독수리들이 먹이 주변에 내려앉고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첫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출 20:3)는 것이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을 섬기기에 골몰하였으니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수리의 먹이감같이 이방 족속들에게 내주리라고 선언하셨다(9절).

제 13 장 유다 백성에게 주신 비유와 경고

단락구분 : 1-14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을 두 비유를 통해 설명하시다 / 15-21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시다 / 22-27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 이유를 설명하시다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베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2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3 여호와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4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5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6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7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8 여호와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9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10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좇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의 쓸데없음같이 되리라

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2 그러므로 너는 이 띠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였사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즙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라니

13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14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

자간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5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6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밭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17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곱할 것이며 여호와와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18 너는 왕과 왕후에게 고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19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20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네가 받았던 때, 네 아름다운 양 떼는 어디였느뇨

21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네 위에 수명으로 세우실 때에 네가 무슨 말을 하였느냐 너의 고통에 잠힘이 구로하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22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는고 하였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네 치마가 들리고 네 발뒤꿈치가 상함이니라

23 구스인이 그 피부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4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초개같이 흠으리다

25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응득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네게 준 분 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연고라

26 그러므로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에까지 들쳐서 네 수치를 드러내리라

27 내가 너의 간음과 사특한 소리와 들의 작

은 산 위에서 행한 네 음행의 비루하고 가증한 |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1. **㉠** 본장에 기록된 비유와 그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두 비유로 설명하신 후 유다 백성이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2) 즉 그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띠를 썩게 하신 일과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주에 취하여 서로 싸우게 한 것으로, 유다 백성이 당신의 뜻을 잘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
 (3)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적이나 징조 등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마 16:3).

2. **㉠** 본장에 나오는 '베띠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라(1-7절).

- ㉡** (1) 본장에 나오는 '베띠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전자는 '베띠 사건'을 하나의 계시로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Graf)는 예레미야가 유브라테(Euphrates)까지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베띠 사건'은 그가 계시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3) 후자는 '베띠 사건'을 하나의 사실로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것을 주장하는 학자들(Keil, Delitzsch, Lange 등)은 본장에 '유브라테'라는 단어가 네 번씩이나 반복되는 것은 실제 예레미야가 그곳에 갔었다는 증거이고 또한 강박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를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도 그가 것처럼 먼 거리(560km)를 여행했다는 것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4) 그러나 당시의 시대 상황과 예레미야의 위치를 보아 후자의 주장을 사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그는 자기 백성의 교사로서 일을 했기에 오랫동안 백성을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백성에게 이런 비유로 깨달음을 주려고 하였다.

3.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베띠를 사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띠를 사서 그의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2) 그것은 베띠가 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령하신 것으로 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교훈을 명확히 깨닫게 하기 위한 의도였다.
 (3) 즉 베띠는 물기가 묻으면 금방 자연적으로 썩어 버리므로 예레미야가 그 띠를 유브라테 바위 틈(4절)에 넣었다가 얼마 후에 다시 꺼냈을 때(6절) 그 띠가 썩은 것(7절)이 자연 현상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인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 '베띠'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절)

- ㉡** (1) '베띠'는 원래 대제사장이 착용하던 허리띠이지만(출 28:39-42) 여기서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2) 그런데 그 베띠를 허리에 두른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완전히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의미이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신하고(10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말았다(52:12, 13).
 (4)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현재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심판을 행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악인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참조, 겔 18:21-24; 33:12, 13).

5. **㉠** 하나님께서 베띠를 사서 허리에 띠라고 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보인 태도는 무엇인가? (2절)

- Ⓐ (1)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디의 질문이나 불평도 없이 띠를 사서 자신의 허리에 둘러 순종하였다.
- (2) 예레미야같이 하나님의 요구에 아무런 조건 없이 순종한 대표적 인물은 아브라함이다. 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독자 이삭을 바치려 했었다(창 22:2, 3).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의 메시지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킬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것에 묵묵히 순종해야 한다(히 5:8).

6. Ⓞ ‘유브라데’란 어느 곳을 가리키는 말인가? (4-7절)

- Ⓐ (1) ‘유브라데’ (히, 페라)는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1:1)에서 북동쪽으로 5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갈대아 지방의 유브라데 강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으며 아나돗 북동쪽 5km 지점에 있는 바위 계곡 ‘파라’를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 (2)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의 표현으로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예레미야가 단시일 내에 그토록 멀리 떨어져 있는 갈대아 지방의 유브라데 강까지 두 번이나 왕래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 (4)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띠를 유브라데에 감추는 행위는 유다의 멸망을 예표하는 행위였으므로(참조, Ⓞ7) 굳이 갈대아에까지 갈 필요도 없다.
- (5) 그러므로 유브라데란 히브리어 <페라>에서 유래한 ‘파라’ 곧 아나돗 북동쪽 5km 지점에 있는 바위 계곡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7. Ⓞ 하나님께서 1절에 이어 두번째로 예레미야에게 하신 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에 가서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셨다.
- (2) 베띠는 유다 백성을 가리키는데 ‘유브라데의 바위 틈’에 감추라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되어 당할 환난을 의미한다.
- (3) 유다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고 그 나라도 패망하여 쓸모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8. Ⓞ 예레미야는 자신의 베띠를 어느 곳에 감추었는가? (5절)

- Ⓐ (1) 그는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장소는 유브라데의 바위 틈이었다(4절).
- (2)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와 동일하지 않은 장소로 예레미야가 간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3) 왜냐하면 4절의 유브라데의 바위 틈은 유브라데 물가와 동일한 장소로 히브리어 원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9. Ⓞ 하나님께서는 언제부터 베띠 비유를 통한 가르침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는가? (6, 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신의 세번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교훈을 주시기 시작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당신께서 되풀이하시는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면 그가 귀한 교훈을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되풀이해서 명령하실 때 그것에 말없이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보여 주시기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눅 5:4-8).

10. Ⓞ 하나님께서 썩은 베띠를 통해 보여 주시려고 하신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8-11절)

- Ⓐ (1) 그것은 썩은 베띠처럼 유다 백성의 교만이 썩게 될 것이라는 교훈이었다.
- (2) 여기서 ‘교만’은 히브리어로 <게온>인데 ‘영광’, ‘매혹적인 장식물’ 등을 뜻한다. 이것은 모든 민족 중에서 유다 민족이 뛰어나고 그들이 다른 민족에게 높임을 받는 것을 가리킨다(11절).

- (3) 유다 백성은 이처럼 높임을 받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업신여겼기 때문에(10절) 그같이 귀한 대접받는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썩은 배뿔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축복(참조, 신 26:19; 삼상 12:22; 시 78:52)을 잃게 된다.

11. **㉠**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셨으며 백성의 반응은 어떠한 것인가? (12절)

- ㉠** (1)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고 하면 그들은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라고 할 것이다.
- (2) 술병의 목적은 포도주의 보관에 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은 자기들이 술병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 (3)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그들을 택하실 때 고상한 목적이 있었으나 이제는 자기들의 연약성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탁월성을 망치므로 쓸모없게 되었다.
- (4) 이는 유다 백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포도주 병에 포도주가 차듯이 죄악이 관영하므로(참조, 류 1:24, 26, 28)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됨을 의미한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말씀의 교훈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데, 지도자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민중이 그 진노의 대상이 된다(참조, 출 20:5).

12. **㉠** 하나님께서 술취함의 비유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주신 경고는 무엇인가? (13, 14절)

- ㉠** (1) 그것은 유다의 모든 백성이 서로 충돌하여 자멸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다.
- (2) 이것은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치기 전 유다 백성의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므로 쉽게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 멸망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참조, 사 7:19; 삼상 14:20).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경고하시는 것은 그 백성들이 마치 술에 취한 자처럼 앞뒤를 구별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악한 죄(10절)를 반복했기 때문이었다.
- (4)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한 것같이 죄의 결과는 죽음뿐이라는 사실(참조, 롬 6:23)을 다시 가르쳐 주고 죄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13. **㉠**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5절)

- ㉠** (1)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권면(16, 17절)을 하시기 전에 유다 백성이 가져야 할 태도를 지시하신 말씀이다.
- (2)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귀가 닫혀 있으면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고 그 결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 (3) 또한 그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취해야 할 태도이기도 하다.
- (4)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즉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참조, 사 6:1-8; 눅 15:17-21; 18:13, 14; 빌 3:4-7).

14. **㉠** 16절에 나타난 세 가지의 흑암은 무엇인가?

- ㉠** (1) 본절에는 먼저 ‘흑암을 일으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심을 뜻한다.
- (2) 그 다음엔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재앙이 증복되므로 유다 백성이 헤쳐 나갈 수 없게 된 것을 의미한다.
- (3) 마지막으로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된다’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불가항력적인 재앙으로 멸망하게 됨을 의미한다.
- (4) 즉 이것은 점점 재앙의 정도가 심하여져서 결국엔 그 재앙으로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

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인데 그들이 이런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15. **㉠** ‘은근히 곡(哭)할 것이며’, ‘통곡(痛哭)하리라’라는 말들은 무슨 뜻인가? (17절)
㉠ (1) 그것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16절)을 듣지 않은 유다 백성을 위해 예레미야가 계속 기도하며 슬퍼할 것을 가리킨다.
 (2)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자기 민족, 즉 유대인들을 매우 사랑하셨다.
 (3) 그분은 자기 민족이 로마인에게 멸망(A. D. 70) 당할 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으며(눅 19:41),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자기 민족을 사랑하셨다(눅 23:34).
 (4) 선지자 예레미야나 예수께서 민족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민족을 사랑하며 이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한다(참조, 눅 10:27).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게으르게 되면 그 나라는 패망케 된다.
16. **㉠** 하나님께서는 왕과 왕후에게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18, 19절)
㉠ (1)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冠)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남방의 성읍들이 봉쇄되고 열 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갔다’는 말을 전하게 하셨다.
 (2) 이것은 여호야긴 왕과 왕비 느후스다에게 닥칠 슬픔을 가리킨다(왕하 24:8). 즉 왕과 왕후는 당시의 지도자들과(왕하 24:15)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갈 것을 의미한다.
 (3) 한편 여기서 ‘남방의 성읍’은 애굽의 도성들을 말한다. 유다 백성들은 앗수르나 갈대아의 침입을 받을 때 애굽으로 도피했으며 애굽을 그들의 망명국으로 생각했다.
 (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 것을 권유하셨다(참조, 42:15-17, 19).
 (5) 그러나 이런 권유를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애굽으로 가려던 자들이 실패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잔피와 지식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동일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17. **㉠**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유다 백성의 수령(首領)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는가? (21절)
㉠ (1)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친구 관계에 있던 자를 그들의 수령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동맹을 맺고 있던 바벨론의 왕을 통해 유다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시겠다는 뜻이다.
 (3) 이것은 갈그미스(Carchemish) 전투에서 애굽에게 대승을 거둔 바벨론(46:2)에게 조공을 바치며 동맹을 맺었던 유다가,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을 배신(왕하 24:1, 2)하므로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며 그들의 지배를 받았던 사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18. **㉠** ‘치마가 들리고 발뭇뭇치가 상함’이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2절)
㉠ (1) 그것은 유다 백성이 심한 능욕을 당하며 맨발로 먼 길을 걸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것을 가리킨다(참조, 사 22:4).
 (2) 그런데 그같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은 그들이 너무 강박하여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한편 예레미야는 강박한 유다 백성의 마음 상태를 ‘구스인의 피부’, ‘표범의 반점’에 비유하였는데(23절), 이는 구스인의 검은 피부와 표범의 반점은 아무리 씻어도 지울 수 없음을 예로 든 것이다.
 (4) 이와 같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패역하고 강박한 마음이 굳어져 변할 수 없으며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19.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응득(應得), 즉 몫은 무엇인가? (24, 25절)
㉠ (1) 그것은 그들이 사막 바람에 불려 가는 초개(草芥)처럼(욥 21:18; 시 83:13) 흩어짐을 당

하는 것으로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가는 것을 가리킨다.

- (2) 유다 백성이 받을 몫이 이렇게 나쁜 것은 그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 진정한 충고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8:11).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분별하여 배격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된다(참조, 딤후 3:10; 벰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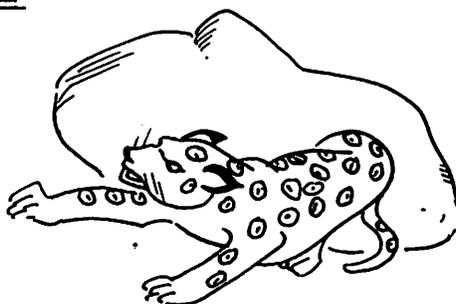
20. **Q**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받을 몫으로 인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26절)

- A** (1) 하나님께서 그들의 치마를 얼굴에까지 들춰서 수치를 드러내실 것이다.
- (2) 이는 범죄자들이 당할 수치를 말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창 3:10) 그리고 밧세바를 범한 다윗(시 44:15)도 그들의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느꼈다.
- (3)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과거의 육신을 위한 생활을 즐거워하여 구원받은 후에도 그 생활을 따르면(참조, 롬 6:21) 이러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
- (4)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부끄러움이 없게 생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참조, 고후 2:14, 15; 빌 1:20; 벰전 4:16; 요일 2:28).

21. **Q** 예루살렘에 화가 미치는 원인이 무엇인가? (27절)

- A** (1) 그들은 간음과 사투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행한 음행의 비루(卑陋)하고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던 죄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우상 숭배나 다른 힘을 의지하는 행위를 음행이라고 표현하였다(참조, 사 8:33; 사 23:17; 젤 16:20; 23:8, 17, 20, 49).
- (3) 이런 죄 때문에 예루살렘이 화를 당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오랜 시간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을 늦춘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간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이다(참조, 마 24:42, 43; 눅 12:40).

본장의 요절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 진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23절).

제 14 장 유다가 재난을 당하다

단락구분 1-6 유다에 기쁨이 임하다 / 7-9 예레미야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다 / 10-12 예레미야의 기도가 거부되다 / 13-18 기도가 거부되는 이유 / 19-22 예레미야가 두번째 기도를 드리다

1 기쁨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곤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3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풀을 길으라 하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풀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4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5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어버리며

6 들 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사랑같이 험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하여 하는도다

7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8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9 어찌하여 놀라 병병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10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리친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나 여호와와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라 하시고

11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그들을 멸하라

13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

회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제사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15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16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입을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17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18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다 땅에 두루 다니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도다

19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려도 놀람을 보나이다

20 여호와여 우리가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느니라

21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위를 욕되게 마옵소서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

22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

음이니이다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예레미야가 자기 백성이 큰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응답지 않으실 뿐 아니라 도리어 멸망을 당하게 된다고 선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랐기 때문이다(13-16절).
- (3)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백성들의 귀만 달콤하게 하는 말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13절).
- (4)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거짓 예언은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치료하기 보다는 그것을 감추고 걸만 화려하게 하므로 속은 써게 만든다. 결국 오감(五感)만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2. **㉠ 유다 땅에 임한 가뭄의 정도는 어떠한가? (1-6절)**

- ㉠** (1) 유다 땅에 임한 가뭄은 아주 심했는데 그것은 백성이 부르짖고(2절), 귀족의 하인들이 물을 구하려 우물에 가나 빈 그릇으로 돌아오고(3절), 땅이 갈라지고(4절), 가축이 먹 을 물과 풀이 없어 고통(5,6절) 당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 (2) 원래 이 땅엔 가뭄이 많았는데 그것은 기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왕상 8:37).
- (3)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한 죄악에 대한 징계로 내려졌다(레 26:19; 신 11:17; 28:23). 예레미야가 사역한 당시의 가뭄도 바로 이 경우에 속하였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3. **㉠ 가뭄이 왔을 때 유다 백성들은 어디에서 애통해 했는가? (2절)**

- ㉠** (1) 그들은 성문 앞에 모여 앉아 애통했다.
- (2) 원래 성문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모여들던 곳이었고(창 23:10), 그들 생활의 중심지였으며(창 34:20), 민간의 소송이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였던 장소였다(수 20:4, 룖 4:1; 삼하 15:2).
- (3) 한편 '성문'이란 성문이 있는 성과 도시 전체를 대표하여 말한 것이다. 그래서 본절은 '유다 왕국의 모든 성읍이 쇠약해지거나 흩어진다'는 뜻이다.
- (4) 이와 같이 전체 성읍이 가뭄의 고통에 빠져 있으므로 그곳에 기쁨이 그치고(참조, 호 2:11,12) 괴로움만 넘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것을 알리는 것이 예레미야의 목적이었다.

4. **㉠ 우물에 갔어도 물을 구하지 못한 유다 사환(使喚)들은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가? (3절)**

- ㉠** (1) 그들은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고 돌아왔다.
- (2) 이런 모습은 깊은 슬픔을 표시하는 방법이다(참조, 삼하 19:4). 다말이 압논에게 강간을 당한 뒤(삼하 13:19),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당한 뒤(삼하 15:30) 부끄러움으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
- (3) 그러므로 사환들이 '머리를 가리웠다'는 것은 유다에 임한 가뭄이 견딜 수 없는 수치를 당한 괴로움과 같이 심했음을 보여 주는 말이다.

5. **㉠ 가뭄을 당한 동물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5, 6절)**

- ㉠** (1) 들의 암사슴은 낡은 새끼를 내어 버렸고(5절) 들나귀들은 헐떡였다(6절).
- (2) 사슴은 본래 자기 새끼에 대한 본능적 사랑이 많은 동물이기에 늘 새끼들과 어울려 다

닐 정도이지만 새끼들을 먹일 풀이 가뭄으로 없어졌기에 남은 새끼를 버리게 된 것이다(참조, 사 35:6).

- (3) 또한 들나귀들은 헐떡였는데, 이것은 마치 여우나 늑대가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마시려고 애쓰는 듯이 필사적으로 호흡을 했다는 뜻이다.
- (4) 이런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자연적인 원인으로 돌리기 보다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도를 넘는 가뭄, 또는 환경의 변화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은 대부분이 하나님께 대한 죄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6. **㉠ 환난을 당한 자기 백성을 위해 예레미야가 시작한 기도의 첫마디는 무엇이었는가? (7절)**

- ㉠** (1) 그는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거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라며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였다.
- (2) 여기서 '우리의 죄악이...증거한다' 는 말은 죄에 대한 겸손한 고백을,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고백을 가리킨다.
- (3) 즉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그들이 죄는 지었지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출 32:32; 롬 9:3).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은 민족이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을 포함한 백성이 지은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참조, 삼상 12:23).

7. **㉠ 예레미야가 말한 '거류하는 자', '하룻밤을 유숙(留宿)하는 행인', '구원치 못하는 용사' 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8, 9절)**

- ㉠** (1) 이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치 못하시는 분으로 비유한 말이다.
- (2) 예레미야가 그 같은 표현들을 한 이유는 유다 땅에 가뭄이 너무 심함을 보고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급히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환난이 심할 때 하나님의 자비로 그것이 빨리 해결되기를 너무 원하므로 인해 그분을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는 분으로까지 착각하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 (4) 그러나 어려울 때나 어렵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참조, 삼상 22:23; 전 8:15; 마 28:20).
- (5)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임을 깨닫고 묵묵히 그에게 간구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벰전 1:11; 5:6; 계 2:25).

8.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벌하시기로 결심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 발을 금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지 않으시고 그 죄를 기억하고 벌하시기로 하셨다.
- (2) 하나님께서는 자기와의 언약을 파기하고 우상만 따르며 당신을 버린 유다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잔피로 살아가다가 피곤해진 자들을 책망하셨다(사 47:13).
- (3) 이것은 불신 행위이며 신성 모독이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국의 힘만 의지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뢰 대상이 바뀌면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당하여 버림을 받게 된다(참조, 마 25:30).

9. **㉠ 당신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여 숭배한 유다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서 취하신 태도가 지 태도는 무엇인가? (11, 12절)**

- Ⓐ (1) 첫째로,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을 면제받지 못할 것을 규정하시는 말씀이다.
- (2) 둘째로, 유다 백성의 금식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금식 기도를 마음에서부터 나온 회개로써가 아니라 다만 형식적인 태도로 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 (3) 세째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제사에 따른 순종의 태도는 없이 단지 제사드리는 형식만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삼상 15:22).
- (4) 네째로,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참회개치 않고 참다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5) 이 같은 하나님의 태도는 우리에게 일상 생활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또한 범죄한 후에 진정한 회개(시 34:18; 51:17; 고후 7:10)가 있어야 함을 가르쳐 준다.

10. Ⓒ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의 특징은 무엇인가? (13절)

- Ⓐ (1) 그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칼과 기근으로 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마 7:15; 24:11; 막 13:22)이 많은데 그런 자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겠다.

11.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셨다.
- (2)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혼합하여 전하는 것인데(참조, 계 22:18, 19)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사욕(私慾)을 채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롬 16:18; 고후 11:13; 엡 4:14; 딤후 3:13).
- (3)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잘 깨닫고 그들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참조, 엡 4:13, 14; 벧후 3:16-18).

12. Ⓒ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을 따른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15, 16절)

- Ⓐ (1) 그들 모두 기근과 칼로 멸망당하였는데 이것은 그들이 가뭄(1-6절)과 바벨론 군대의 침입(대하 36:17-20)으로 완전히 멸망되었던 것을 가리킨다.
- (2) 거짓 선지자들은 온갖 감언 이설(甘言利說)로 백성을 속였기에 형벌이 당연하고, 백성은 고의적으로 거짓을 따르며 진리에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그들이 형벌받는 것 또한 당연하다(참조, 롬 1:28).
- (3) 따라서 그들은 결코 생각지도 못했던 ‘칼’과 ‘기근’ (13절)으로 멸망받게 된 것이다.
- (4) 마찬가지로 거짓을 사랑하는 자들이 거짓 스승을 따르게 되면(살후 2:10-12) 그들은 그 거짓 스승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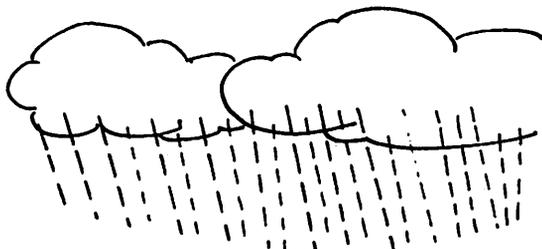
13. Ⓒ ‘이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7, 18절)

- Ⓐ (1) 그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성안이나 밖에서 칼에 맞아 죽고 부상당한 자들이 널려 있고 유다가 큰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말이다.
- (2) 최악이 관영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말을 전하게 하신 것은 그들이 이런 재난을 깨닫고 니스웨 성의 사람들처럼 회개하기를(참조, 온 3:5-10) 원하셨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인들을 사랑하시사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심판의 시기를 늦추어 주신다(참조, 출 34:6; 시 78:38; 엡 2:7

; 뱀후 3:8, 9).

14. **㉠**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예레미야의 두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19-22절)
- ㉡** (1) 먼저 그는 자기 민족의 죄악을 대신 지고 회개했는데 (20절) 이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잠 28:13).
- (2) 이어서 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도와 주시기를 구했는데 (21절) 이것은 그가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시 130:3, 4).
- (3) 계속해서 그는 '주의 영광의 위'를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21절) 이것은 예루살렘이 원수들에게 더럽힘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구한 것이다.
- (4) 마지막으로 그는 주의 '언약을 기억' 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는데 (2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은혜의 언약(롬 4:13-16)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구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 (5) 이같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가 약속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
- (6) 한편 과거에 모세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같은 증보 기도를 드렸다(신 9:25-29).
- (7) 이와 같은 두 영적 지도자들의 본을 따라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도 민족이 크게 범죄하며 하나님의 길을 떠날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참조, 출 32:32; 삼상 7:5; 대하 30:18).
15. **㉠** 예레미야가 주를 앙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 ㉡** (1) 그것은 그가 인간이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 (2) 즉 인간들 사이에서 어떤 세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자연의 현상이나 천재(天災)에는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느낀 것이다.
- (3) 따라서 인간이란 분명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앙망, 즉 섬기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참조, 애 3:25; 미 7:7).

본장의 요절



'열방의 허무한 것 중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22절).

제 15 장 유다가 받을 심판과

예레미야가 받을 축복

단락구분 1-4 유다 백성이 받을 심판 / 5-9 유다 백성이 심판받는 이유 / 10-11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 12-18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베푸시기를 기도하다 / 19-21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권고하시다

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 내치라

2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나아가고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로 됴므로 나아갈지니라 하라

3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4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바를 인하여 내가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흠으리라

5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고향 자 누구며 돌이켜 네 평안을 물을 자 누구뇨

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네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염증이 났음이라

7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가 불러 그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8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내가 대낮에 휘멸할 자를 그들에게로 데려다가 그들과 청년들의 어미를 쳐서 놀람과 두려움을 그들에게 줄지에 임하게 하였으며

9 일곱 자식을 생산한 여인으로는 쇠약하여 기절하게 하며 오히려 백주에 그의 해로 떨어져서 그로 수척과 근심을 당케 하였느니라 그 남은 자는 그 대적의 칼에 불이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10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통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뛰어 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뛰어지지도 아니하였건마는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1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네 대적으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네게 간구하게 하리라

12 누가 능히 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쥐으리요

13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네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14 너로 내 대적과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니라

15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권고하시라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17 내가 기뻐하는 자의 회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18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증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19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20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21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

1. **㉠** 본장에서는 예레미야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심판받게 될 것과 그 심판 때까지 예레미야가 계속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특별히 본장에서 예레미야는 박해자들의 위협 때문에 소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기 어려움을 고백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박해자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 (3) 예레미야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힘든 것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을 기억하고 담대히 사역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

2. **㉠** 모세와 사무엘은 어떤 선지자들이었는가? (1절)

- ㉠** (1)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가장 두드러지게 중보 기도를 한 선지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보 기도를 모두 이루어 주셨다(참조, 출 32:11-14; 민 14:13-24; 신 9:18-20, 25-29; 삼하 7:5-9; 12:19-25).
-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우수한 중재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도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3) 왜냐하면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모세나 사무엘이 사역하던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강박한 자들이기 때문이었다(16:12).
- (4)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무조건 끝없이 참으시는 분이 아니다. 죄의 도가 지나치면 노아의 시대(창 7:11-13)나 의인 열명이 없어 망한 소돔과 고모라처럼(창 18:27-32) 그분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 (5) 따라서 우리는 이런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그 사랑에 속하고 그분의 노를 격동시켜서는 안 된다(참조, 히 3:8).

3. **㉠**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라고 묻는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대답해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사망할 자는 사망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포로 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다.
- (2) 이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과의 전쟁 그리고 가뭄으로 죽거나 심히 고통을 당한 후 바벨론 땅으로 포로되어 잡혀갈 것을 가리킨다(겔 5:12).
-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유다 백성이 숙명적으로 죽거나 고통받거나 포로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느끼면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된다(참조, 잠 11:19).

4.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으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심판하실 수 있음을 보여 준다(참조, 신 28:25, 26).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범죄한 자들에게 당신의 보복과 끝없는 형벌을 주셔서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참조, 레 26:21, 22).

5. **㉠** 느닷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은 무엇인가? (4절)

- ㉠** (1) 느닷세(B. C. 697-642)는 경건한 아버지 히스기야(왕하 20:21)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지만 유다 왕 중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
- (2) 그의 악한 일을 보면 먼저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 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고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일월 성신(日月星辰)을 숭배했다(왕하 21:3).

- (3) 또한 그는 점(占) 치는 것을 좋아했고 무당을 신임하기도 했으며 백성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 우상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참조, 대하 28:3).
- (4) 그런데 그가 행한 가장 큰 악은 자신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선한 선지자들을 무수히 죽여 버린 것이다(왕하 21:16).
- (5) 이 같은 그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인간이 피흘림 당하는 것을 간과(看過)하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창 9:5; 벰전 2:23).

6. **㉠**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5, 6절)

- ㉡** (1) 그들이 얻은 것은 슬픔과 멸망뿐이었다.
- (2) 그들의 조상들이(삿 10:13; 삼상 8:8) 죄를 지었을 때도 그러하였고 또한 예수의 제자였던 가롯 유다(마 27:5)도 그랬었다.
- (3) 현대를 사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약하고(눅 8:13)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고(요 6:63, 64) 세상을 지나치게 사랑할 때 그렇게 된다(답후 4:10).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르침을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7. **㉠**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유다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표현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키로 까불러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셨다.
- (2) 이것은 농부가 키질하여 곡식의 겉테기를 훑달려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표현하신 말씀이다.
- (3) 오늘날의 우리도 장차 하나님께 키질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 때이다(마 3:12; 눅 3:17).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은혜로 우리를 택하셨기(참조, 엡 2:8; 답후 1:9) 때문에 마지막 때에 알곡으로 키 안에 남게 될 것이다.

8. **㉠** ‘과부가... 많아졌느니라’, ‘일곱 자식을 생산한... 당케 하였느니라’와 같은 표현들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8, 9절)

- ㉡** (1) 그 같은 표현들은 바벨론의 침입으로 유다의 여인들이 당할 고통이나 피해가 클 것을 의미한다.
- (2) 즉 전자(前者)는 전쟁 때문에 유다의 장정(壯丁)들이 사망하므로 그들의 부인들은 과부가 될 것을 의미한다.
- (3) 또한 ‘일곱 자식...’은 많은 자녀를 둔 어머니는 강해 보이는데 그 어머니가 자녀를 다 잃고 기가 막혀 수치와 괴로움을 겪는 모습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하여 등을 돌리고 배반하는 자들에게 이런 비참하고 감당할 수 없는 형벌로 보응하신다.

9. **㉠**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의 징계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신다고 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졸지(卒地), 즉 갑자기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징계하시는 한 방법(참조, 시 35:8)이다.
- (3) 또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같이 임하실 주님을 생각하고 항상 깨어 근신(謹愼)하여 살도록 경고를 주는 말이기도 하다(벰전 4:7).

10. **㉠**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게 다름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란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가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며 심한 핍박을 당하게 되자 잠시 자신의 사역에 대해 회의를 느꼈던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 (2)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다가 어려운 고비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

어 달라고 간구하였었다(참조, 왕상 19:4, 14).

- (3) 또한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매를 맞고(행 14:5, 19) 옥에 갇히기도 했으며(행 16:22, 23) 죽을 고비도 넘겼다(행 21:36).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행 14:20-22).
- (4) 이런 역경 가운데서 예레미야나 엘리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지만 담대히 그 사역을 지속해야 한다(참조, 엡 6:19).

11. **㉠** 예레미야가 핍박받는 자신의 신세를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었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를 강하게 할 것이고 복을 얻게 할 것이며 그의 대적이 재앙과 환난의 때에 그에게 간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당시에는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지(支持)하시므로 결국에는 그의 핍박자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도와 달라고 간청까지 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다.
- (3) 그 이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고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어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막아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그에게 부탁함으로써 이 말씀은 성취되었다(21:1, 2).
- (4)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있다고 해도 극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

12. **㉠**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유다 백성이 당할 일은 무엇인가? (12-14절)

- ㉠** (1) 그들은 북방의 철, 즉 바벨론 군대에게 재산과 보물을 탈취당한 후(13절) 알지 못하는 땅, 즉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다(14절).
- (2) 그들이 이러한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민 32:10-15)도 아론과 미리암(민 12:9-15), 발람(민 22:21, 22)이나 웃사(삼하 6:7)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 (3) 그러므로 이 같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誘發)한 자들의 종말을 보면서 우리들은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였는가? (15절)

- ㉠** (1) 그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계속 인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처벌해 줄 것과 자신이 치욕당하는 것을 알아 달라고 구했다.
- (2) 이것은 예레미야가 심한 핍박을 받자 그 핍박에서 벗어나도록 구한 것을 가리킨다.
- (3)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핍박이 닥칠 때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참조, 벰전 4:4).

14. **㉠** 예레미야가 그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16절)

- ㉠** (1)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었기 때문인데 여기서 얻어 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일방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 (2) 구약 시대에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즐거워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다(시 119:103).
- (3)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려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아야 한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했다(히 4:2).
- (4)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맛을 느끼고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갖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15. **㉠**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노로 채우셨으므로 어떻게 생활하였는가? (17절)

- A** (1) 예레미야는 기뻐하는 자의 회(會)에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을 인하여 홀로 앉았다.
- (2) '기뻐하는 자의 회'란 시편에 기록된 것과 같이 '오만한 자의 자리'와 같은 의미이다(시 1:1). 즉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따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선지자를 멸시하는 악한 자들의 모임이다.
- (3)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홀로 있었던 것은 그들 무리와 타협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과는 어차피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것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사 52:11; 요 15:19).

16. C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18절)

- A** (1)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시내'에 비유하였다.
- (2) '속이는 시내'란 '마른 시내'를 말하는데 만일 목마른 여행자가 물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 가까이 가서 볼 때 물이 없으면 크게 실망하여 불만을 터뜨릴 것이 분명하다(참조, 욥 6:15).
- (3)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을 구원자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에게 미움 받았을 때(10절) 하나님의 위로가 없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속이는 시내라고 말하며 불만을 털어 놓은 것이다.
- (4) 욥도 받는 재앙이 너무 크자 불만을 표시했고(욥 10:1; 23:2) 다윗도 주위 친구들이 배신했을 때(시 55:12, 13) 불만을 표시했다(시 55:2).
- (5)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재앙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더 연단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잠 17:3; 단 11:35).
- (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시려고 허용하시는 환난이나 핍박을 기쁨으로 잘 견디도록 해야 한다(롬 5:4; 벧전 1:7).

17. C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면 그를 다시 이끌어서 당신 앞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는가? (19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당신 앞에 세우시겠다고 하셨다.
- (2)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였었지만(18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사명자로 다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의미이다.
- (3)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핍박받을 때문에 잠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었다면 회개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참조, 사 19:22; 눅 15:20).

18. C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 세 가지는 무엇인가? (20, 21절)

- A** (1) 첫째는 그가 백성 앞에서 견고한 놋 성벽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그를 치는 자들의 손이 이기지 못하게 함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 (2) 예레미야가 잠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에(18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 (3)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완벽한 위로의 약속을 주시어 그들이 대적에게 승리하도록 하셨다(참조, 수 11:23; 사 7:14; 삼상 14:6; 17:45).
- (4)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고통스러운 세상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고후 1:3).

제 16 장 유다의 재앙과 이방 구원

단락구분 1-9 유다 백성에게 임할 흑독(酷毒)한 재앙 / 10-13 유다가 재앙을 받는 이유 / 14-15 포로지에서 본국으로 다시 돌아올 유다 백성 / 16-18 하나님이 보신 유다의 은밀한 죄 / 19-21 이방인들의 각성

1 여호와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3 이곳에서 생산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미와 그들을 낳은 아비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4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고 슬퍼함을 입지 못하며 대장함을 얻지 못하며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리라
 5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상가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긍휼을 제한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6 너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7 슬플 때에 떡을 떼며 그 죽은 자를 인하여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비나 어미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울 자가 그들에게 없으리라
 8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9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라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10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고할 때에 그들이 네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광포하심은 어쩔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하거든
 11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열조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

려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12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13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열조의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14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15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1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과 암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17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함이라
 18 내가 위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산업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니라
 19 여호와 나의 힘, 나의 보장, 환난날의 피난처시여 열방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20 인생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21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 ㉠ 본장에는 어떤 예언을 기록하고 있는가?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심한 재앙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시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방 나라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21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11, 12절)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뿐 아니라 이 같은 징벌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분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2. **㉠**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시면서 그의 말씀을 시작하셨는가? (1,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시작하셨다.
- (2) 이것은 예레미야가 독신으로 지낼 것을 명령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신 것은 앞으로 그 땅에 환난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딤후 4:3).
- (3) 바울도 주님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했고(고전 7:8)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품이 너무 음란하여 자기 아내를 버릴 정도인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다고 했다(마 19:10).
- (4) 그러나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이자 축복(창 2:18-24)이다. 그러므로 위에 언급한 세 경우의 사람을 제외하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은 좋지 않다.

3. **㉠** 유다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그의 부모들, 즉 온 유다 백성은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인가? (3, 4절)

- ㉡** (1) 그들은 독한 병과 칼과 기근으로 죽어 매장(埋葬)되지도 못한 채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참조, 15장 **㉠**4).
- (2) 이것은 그들이 가뭄을 겪던 중(14:1-6) 바벨론 군대의 침입으로 큰 때 죽음을 당하면서 설상 가상(雪上加霜)으로 전염병까지 돌아(14:12) 아주 크게 멸망할 것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그들의 죽음을 살펴보면 그들은 묘비도 남기지 못하고 순식간에 몰살(沒殺)하게 되는데 이것은 악인들의 죽음의 특징이라고 시편 기자(시 37:36)와 이사야(사 17:14)는 말하고 있다.
- (4) 이 같은 악인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잠 5:23) 성도다운 죽음(살전 4:14; 계 14:13)을 맞이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4. **㉠**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죽을 자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죽은 자의 집에 들어가지 말며 그들을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다.
- (2)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것이 하나의 미풍 양속(美風良俗)이었다(전 12:5).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금하신 것은 죽은 자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들의 죽음이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5. **㉠** '몸을 베거나 대머리 되게 하는 자'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6절)

- ㉡** (1) 그것은 당시에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의 표로 살을 베거나 살에 무늬를 놓거나(레 19:28) 혹은 눈썹 사이 이마 위의 털을 밀던 자들을 가리킨다(신 14:1).
- (2) 이것은 원래 바알 신을 섬기던 이방인들의 풍속이므로 율법에서는 금하고 있다(참조, 레 19:27; 왕상 18:28).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은 이 풍속대로 행하였다.
- (4) 그러나 앞으로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이교적 행위조차도 할 수 없게 된다.

(5)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고 무섭게 임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안전하다 평안하다고 부르짖지만 말고 경성하여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한다.

6. **㉠** ‘슬플 때에 떡을 깨며’란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7절)

- ㉠** (1) 그것은 당시 유대 지방에서는 장사(葬事)를 지낸 후 죽은 자의 친한 친구가 그 유족들에게 떡을 대접하던 풍습을 가리킨다(참조, 호 9:4).
- (2) 다윗도 자기의 친척 아브넬이 죽음을 당해서 슬퍼할 때(삼하 3:27-34) 못 백성들로부터 떡을 들도록 권함을 받았다(삼하 3:35).
- (3) 그런데 이같이 역사 깊은 풍속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죽은 자들의 유족까지 죽음을 당할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 (4) 그처럼 슬픈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경고를 듣고도 유대 백성들은 조금도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보아(10절) 그들이 얼마나 강퍅했는지를 알 수 있다.
- (5)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께 돌아와 화목하기를 원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의 생활 양식까지 잊게 하실 만큼 무서운 징계로 다스리신다.

7.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혼가(婚家)에 대해선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8, 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랑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가 그 집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니 그곳에 들어가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고 하셨다.
- (2) 원래 혼인한 남자는 일 년 동안 군대에도 가지 않고 신부를 즐겁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신 24:5) 결혼하는 자의 집은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질 리가 없었다.
- (3)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므로 신혼의 집에서 기쁨이 끊어지는데(참조, 사 24:11)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역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참조, 겔 26:13; 호 2:11; 암 8:10; 계 18:23).

8. **㉠** 자신들이 재앙받는 이유를 묻는 유대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대답해야 할 두 가지는 무엇인가? (10-12절)

- ㉠** (1) 그는 첫째는 저희 열조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며, 둘째는 그들의 열조보다 더 악행을 일삼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해야 한다.
- (2) 전자(前者)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신을 섬겼던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신 29:25, 26) 예레미야 시대의 전유대 백성들이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겼던 것(왕하 22:17; 대하 34:25)을 가리킨다.
- (3) 또한 후자(後者)는 유대 백성이 열조들의 그 같은 행위를 그대로 답습(踏襲)하여 가나안 도처에서 열심히 우상을 섬겼던 것을 가리킨다(참조, 3: 6-10).
- (4) 그런데 유대 백성이 회개했다라면 그들은 멸망받지 않았을 것이지만(참조, 31:29, 30; 겔 18:1-4)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출 20:5; 34:7; 신 5:9) 조상들의 죄값까지 함께 담당해야 했다.

9. **㉠**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은 유대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13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므로 그 땅에서 쫓아내어 그들과 그들의 열조가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러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 (2) 이는 사람들이 거짓 신(神)인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들 스스로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3)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임을 인식하고 감사와 찬양을 그분께 들려야 한다(참조, 시 106:47).

10. **㉠** ‘날’은 언제를 말하는가? (14절)

- ㉠** (1) 그것은 유대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본토로 돌아오기 시작한 때(B. C. 536)를 말한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포로된 후 70년이 지나면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알려 주시고(29:10) 확증시켜 주는 말이다.
- (3) 그러므로 바사 왕 고레스(참조, 사 44:21-28; 45:1, 5)가 유다 백성을 귀환하도록 허락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이다(대하 36:22; 스 1:1).
- (4) 그 왕의 명령으로 유다 백성은 다윗의 후손(대상 3:19)인 스룹바벨(Zerubbabel)의 인도를 따라(스 2:2) 본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11. **Q**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들의 본토로 인도하실 것을 어떻게 맹세하셨는가?(14, 15절)
- A**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시고 북방 땅과 그 모든 쫓겨 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 사심으로 맹세하셨다.
- (2) 이는 유다 백성이 애굽에서보다 바벨론에서 더 큰 탄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 말씀이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밝히신 이유는 포로로 잡혀갈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임을 깨닫게 하고 또한 어려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다(시 119:49).
- (4)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다.
12. **Q**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16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많은 어부’와 ‘많은 포수(捕手)’에 비유하셨다.
- (2) 전자(前者)는 많은 어부가 그물을 풀어 쉽게 고기를 잡듯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을 것을, 후자(後者)는 사냥군이 숨어 있는 짐승을 추적하여 잡아내듯이 바벨론 군대가 숨은 유다 백성을 찾아내 죽일 것을 가리킨다.
- (3) 이것은 유다의 본토에 사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멸망당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다.
-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사랑이 많은 분이지만 그것에 반하여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때는 무자비할 정도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13. **Q** 유다 백성의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숨기우지 못하고 드러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17절)
- A** (1) 그것은 그들이 숨기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감찰하셨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의 행위(참조, 욥 34:21)와 그들의 악(참조, 창 6:5; 출 3:9; 삼하 22:28; 잠 15:3)을 감찰하신다.
- (3) 그러므로 인간들은 어느 곳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악을 행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피할 수 없다(참조, 시 139:7-12). 따라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실을 바로 가다듬어야 한다(참조, 시 119:9).
14. **Q**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란 어떤 말씀인가? (18절)
- A**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가증스러운 우상(11:13)으로 당신께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수 11:23) 땅을 더럽힌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시체라고 부르신 것은 우상은 생명력이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10:3-5).
- (3) 그러므로 이런 우상들을 섬기는 행위는 곧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과 같다.
15. **Q** 열방이 땅 끝에서 하나님께 외친 고백은 무엇인가? (19, 20절)
- A** (1) 그들은 ‘우리 열조의 계승한 바는 허무하고 망탄(妄誕)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인생이

어저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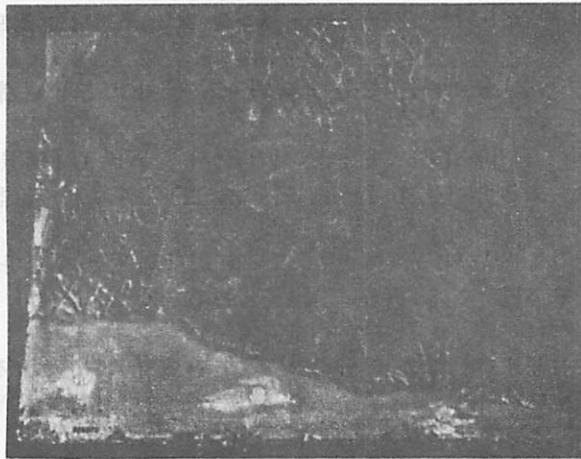
- (2) 이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이 신뢰했던 우상들에 대하여 속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참신 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 (3) 이 예언은 다른 측면에서 이방인들의 개종을 의미하는데 창 22:18과 다윗의 시(시 22: 27)와 이사야의 예언(사 49:6) 중에도 나타나 있다.
- (4) 그런데 이방인의 개종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선포하시고(마 8:11)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심으로 그 실현을 눈앞에 두게 되었다(행 1:8).
- (5) 이처럼 역사 속에서 예언되고 구체화된 온 이방인의 개종은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가(一家)와 그의 친구들(행 10:24)에게 복음을 전하여(행 10:34-43) 그들이 개종함으로써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16. ㉠ ‘이번에’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1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잡혀가도록 허용하셨다가 70년 후에 (B.C. 605-536, 25:11, 12; 29:10; 대하 36:21) 그들을 구원하실 때까지를 말한다.
- (2)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며 당신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 (3) 이것은 믿음이 약해진 성도에게 장기간에 걸친 환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깨닫게 하시려고 허용하신 때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잠 21:12).

화보자료

고기를 낚는 어부. 아래 사진은 앓수르(Assyria)에서 출토된 진흙 판으로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낚고 있는 어부의 모습이 부조(浮彫)되어 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자기 민족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이다. 본장에도 그 같은 예언 중의 하나가 기록되어 있는데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이용하여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유다를 멸절시키리라는 것이다 (16절).

제 17 장 구원자이신 하나님

단락구분 1-4 우상을 섬긴 유다가 받을 심판 / 5-8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 9-11 마음이 거저된 자의 종말 / 12-14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 15-18 핍박당한 예레미야의 기도 / 19-27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거늘

2 그들의 자녀가 높은 메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3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4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5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6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의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7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9 만물보다 거저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10 나 여호와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11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을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12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흠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시니이다

14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닳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15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이 어

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16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좇았사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 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17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18 나를 박해하는 자로 수욕을 당케 하시고 나로 수욕을 당케 마옵소서 그들로 놀라게 하시고 나로 놀라게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19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의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20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너희는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2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22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23 그들은 청종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24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청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아무 일이든지 하지 아니하면

25 다윗의 위에 앉는 왕들과 방백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영히 있을 것이며

26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들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남방에서 이르러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의 회생을 가지고 여호와와의 집으로 오려니와

27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

룩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 **㉠ 본장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 ㉠**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헛된 우상을 의지하다가 멸망하게 된 유다 백성을 언급하시므로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원래 그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이다(9절; 롬 1:21-23).
 (3) 그러므로 마음이 부패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으니(참조, 롬 3:23) 그분의 도움을 기다려야 한다(시 121:1, 2).

2.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죄가 무엇으로 기록되었다고 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鐵筆)로 기록되었다고 하셨다.
 (2)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철필과 금강석 끝으로'란 의미이다(참조, 욥 19:24).
 (3) 여기서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 유다 백성의 죄가 지워질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여 회복될 수 없었는데 마치 구스인의 피부와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 없는 것과 같다(참조, 13:23)는 뜻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모두 하나님께 기억되어 있으므로 지울 수 없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회개를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모두 이런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벧후 3:9).

3. **㉠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가 어느 곳에 새겨졌다고 말씀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 판과 그들의 단 뿔에 새겨졌다고 하셨다.
 (2)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지은 죄를 그들 자신의 양심이 송사하여 죄를 지적하며(참조, 롬 2:15) 또한 그들이 신뢰하던 이방 신들도 그들의 죄를 지적한다는 뜻이다.
 (3) 그러므로 범죄한 유다 백성은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정당화하지 못한다. 그의 죄가 너무나 명백히 드러나므로 그 결과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참조, 겔 7:8; 36:19; 벧전 1:17).
 (4)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그 죄의 결과대로 심판을 받게 되므로(참조, 계 14:18)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4. **㉠ 유다 백성의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2절)**

- ㉠** (1) 그들은 높은 산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던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했다.
 (2)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부모들처럼 숲 속에 있는 산당(왕상 11:7; 왕하 17:9)에서 그 산당 제단 곁에 세워졌던 이방 여신상(참조, 신 16:21)인 아세라 신상에게 절하며 그것을 숭배하였던 것을 가리킨다.
 (3) 이것은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가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본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4)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행동을 비롯한 언어 사용이나 생각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엡 6:4).

5. **㉠ '들에 있는 나의 산'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 4절)**

- ㉠** (1) 그것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
 (2) 물론 문자 그대로 본다면 그것은 평야 한가운데 있는 산 위에 축성(築城)된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된다(수 15:8).
 (3) 그러나 3절과 4절에 계속하여 언급된 재난과 포로 생활을 감당해야 할 상대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들에 있는 산'을 예루살렘 성에 사는 유대 백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자신들의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山堂)을 노략(虜掠) 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히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온 지경이 그들의 범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2) 그들의 범죄란 그들이 위에 언급된 재산과 모든 보물과 산당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을 가리킨다.
 (3) 이것은 한 국가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마음에 두면 그 백성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요일 5:21).
 (4)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본을 보여 불신자들도 그대로 따르게 함으로써 국가가 멸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마 5:13).

7. **㉠**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5절)

- ㉠** (1)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려 했던 유다 백성을 가리킨다.
 (2) 즉 이것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애굽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던 사실(사 31:1)을 의미하는 것이다.
 (3) 그런데 그들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려 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다(대하 36:17-20).
 (4)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과 그 인간이 가진 세력이나 재물을 의지하려는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사 31:3).
 (5)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잠 3:6).

8. **㉠** 예레미야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를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6절)

- ㉠** (1) 그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를 사막의 떨기나무에 비유하였다.
 (2) 이는 유다 백성이 범한 죄의 치명적 결과를 비유로 설명한 것으로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아무 쓸모 없는 자가 될 것이란 의미이다.
 (3) 유대인들은 불모지를 말할 때 소금기가 있는 땅이나 사해처럼 염분이 많은 바다를 비유로 말하는데 바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이 그런 결과를 당하게 된다.
 (4)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여기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 기쁨과 소망을 잃은 비참한 모습이라고 말하였다(시 39:5-7).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9. **㉠**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7, 8절)

- ㉠** (1)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물가에 심기운 나무에 비유하였다.
 (2) 이 나무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그 잎이 푸르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8절).
 (3) 여기에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여 영적인 양분을 계속 섭취하는 것을 가리킨다(시 1:2).
 (4) 또한 더위가 와도 그 잎이 푸르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견디어 내는 것(사 43:22)과 그것으로 인한 유익을 말한다(롬 5:3, 4).
 (5) 마지막으로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과 타인들에게 혜택과 이익을 주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의미이다(참조, 갈 5:22, 23).
 (6)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매일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 한다.

10. **㉠**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이 어떠하다고 했는가? (9절)

- ㉠** (1) 그는 인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하였다.
 (2) 이것은 인간의 마음이 심히 악하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구제 불능의 상태를 의미한다.
 (3) 이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인간의 마음을 미친 생각을 품는 곳(전 9:3)이라고 했고 예수님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마 23:25), 도적질, 살인 등의 악한 생각이 나오는 곳(막 7:21)이라고 하셨다.
 (4) 이처럼 인간의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 역시 추하고 악할 수밖에 없다.
 (5) 이러한 인간의 참모습을 깨닫는 자마다 더 이상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자신의 전의지를 하나님께 내맡길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패하고 거짓된 인격을 치유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보내셨다(요일 1:7).

11. **㉠**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인간의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들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는 자라고 하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의 심중의 생각을 보시고 그것이 악한지 아니면 선한지를 따라서 판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다(욘 34:11; 시 62:12; 렘 11:20).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로서 결코 우리의 판단 기준인 외모로써 우리를 측정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인간의 외모에서는 진실을 찾아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10:24; 13:1-23).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 당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모습을 교정해야 할 것이다.

12. **㉠** '자고(鷓鴣)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같이'란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인가?(11절)

- ㉠** (1) 그것은 자고새, 즉 팔레스틴 지방에 많이 사는 메추라기와 비슷하게 생긴 새가 자신이 낳지도 않은 다른 새의 알을 품는 습관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런데 그 새가 품은 알은 부화(孵化)가 되면 모두 다른 곳으로 달아나 버린다.
 (3) 예레미야가 이 같은 자고새의 생태(生態)를 예를 들어 말하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 중에는 불의로 남의 것을 빼앗아 치부(致富)하는 자가 많았는데(22:13) 그같이 얻은 그들의 재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4) 이것은 우리에게도 불의하게 남을 속이거나 학대하여 혹은 부자에게 아부하여 재산을 모으지 말라는 가르침을 준다(잠 21:6; 22:16).

13. **㉠** '영화로우신 보좌여 원시(元始)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란 말의 뜻은 무엇인가? (12절)

- ㉠** (1)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옛부터 영광스럽고 높은 보좌는 우리의 성소가 되기에 합당한 곳이며'라는 뜻이다.
 (2)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고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과 교제하게 될 예루살렘을 두고 한 말이다.
 (3) 더우기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다.

14. **㉠**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였는가? (13절)

- ㉠** (1) 그들은 흙에 기록이 된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흠에 기록이 됨'이란 문자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3)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신 28:20).
- (4) 이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서 인정하려 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소외되어 멸망을 기다리는 자로 전락하게 된다.

15. **㉠** 14절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하며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가?

- ㉠** (1) 그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며 자신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
- (2) 그런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란 말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찬송의 대상이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는 말이다. 그리고 '나를 고치소서'란 말은 그가 당시에 자신을 괴롭히던 자들에게 입은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쳐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이다(참조, 11:19).
- (3) 즉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마음의 고통을 해결할 자는 하나님뿐이심을 깨닫고 그분께 매달렸던 것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위하는 일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다. 그러나 이런 상처는 성도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시 51:17; 147:3).

16. **㉠** '여호와와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라는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5절)

- ㉠** (1)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권위와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위를 멸시한 악한 말이다.
- (2) 즉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전쟁, 기근, 전염병)이 전혀 성취되지 못한 데 대해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합작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뜻으로 예레미야의 예언 활동을 비난하였다.
- (3) 이와 동일한 상황으로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이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하며 예수님을 조롱한 사건이 있다(막 15:31, 32).
- (4) 이처럼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던 유다 백성과 유대인들은 B. C. 586년, A. D. 70년에 각각 바벨론과 로마에게 멸망하고 말았다(참조, 52:12, 13).
- (5)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17. **㉠**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주를 쫓았다고 고백했는가? (16절)

- ㉠** (1) 그는 자신이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쫓았다고 했다.
- (2) 이것은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소명을 주셨으므로 그것을 끝까지 잘 감당한 것을 가리킨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의 목회자들도 소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깨닫고 어려움이 닥쳐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겔 33:7).
- (4)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자신에게 불어 닥친 잠깐의 어려움 때문에 그가 양육하는 양떼를 버리고 세상으로 발길을 옮기는 나약한 교역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8. **㉠**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란 어떤 말인가? (17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시면 하나님은 자신에게 친근한 분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상대가 되니 자신을 버리지 말기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 (2) 그런데 그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지 않았는가 하는 의혹 가운데 있었던 것은 계속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하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조, 15:18).
- (3)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도중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의혹할 수 있다.
- (4) 혹시 그런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종들에게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지키시며 도우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의혹에서 벗어나야 한다(참조, 41:6).

19. **㉠**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권위와 예레미야 자신을 조롱하는 백성을 향해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였는가? (18절)

- ㉠** (1)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수욕과 놀라움과 재앙을 내리셔서 결국 멸망하게 하시고 자기는 그러한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하였다.
- (2) 그런데 그가 그 같은 기도를 했던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다(참조, 15절).
- (3) 이와 마찬가지로 엘리야가 바벨론의 우상인 바알세불(Baal-Zebub, 왕하 1:3)을 참신이라고 주장하던 자들에게 저주한 것이나(왕하 1:6)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고 비웃던 자들에게 저주했던 것(느 4:5)은 그 저주받은 상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었다.
- (4) 이처럼 우리들도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어 하나님께 호소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되는 것을 안타까와하고 그것의 복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더우기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에 합당한 삶(정의를 위한 희생 등)을 살아야 한다.

20.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디에 서서 외치라고 하셨는가? (19,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외치라고 하셨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 외치라고 하신 것은 유다의 모든 백성의 생활 무대가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왕하 14:13; 대하 25:23).
- (3)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가장 많이 모이고 흠어지는 곳에서 그들 모두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를(23절) 선포하도록 하신 것이다.
- (4) 이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단순히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만 진리를 외칠 것이 아니라 불의가 판을 치고 위선이 통용되는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진리를 말하고 부정을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

21. **㉠**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는가? (21-23절)

- ㉠** (1) 그것은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거나 집에서 짐을 지고 나가는 것이었다.
- (2)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입하는 것이나(출 34:21), 나무를 하는 것(민 15:32)이나, 음식을 만드는 것(출 16:23), 오락(娛樂)하는 것(사 58:13) 등을 금하였다.
- (3) 그런데 이 같은 명령들은 율법의 다른 어떤 명령들보다 지키기 쉬운 것이었는데도 그들의 열조들이 지키지 않은 것을 보아(23절) 그들의 열조가 얼마나 강팍했는지를 알 수 있다.
- (4) 우리는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얼마나 훌륭한 봉사를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규례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는가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2. **㉠**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유다 백성이 반계 될 축복은 무엇인가? (24-26절)

- ㉠** (1) 그것은 유다의 왕들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성도(聖都) 예루살렘이 번영하며 영원히

계속 있게 되는 것(25절)과 방방 곡곡에 흩어져 살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 땅의 소산물들을 들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26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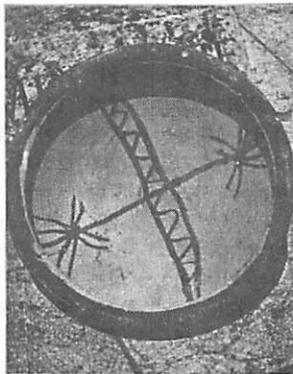
- (2) 즉 이것은 안식일을 지키면 유다의 왕권 제도가 계속 유지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걷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축복을 제시하시기도 하셨다. 특별히 당신의 날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위와 같은 제시를 하셨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정은 항상 당신의 백성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게 만드시려고 애쓰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읽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23.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27절)

- ㉠** (1) 하나님께서는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되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 (2) 이러한 말씀은 B. C. 586년 바벨론 군대의 침입 때 예루살렘 성과 그 성안에 있던 귀족들의 집이 모두 불타 없어지게 만드심으로 온전히 성취되었다(52:13).
- (3) 이 사실을 보아 우리는 유다 백성이 결국 하나님이 명하신 안식일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主日)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에게는 항상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골 2:16, 17) 당신의 날을 하찮게 생각하는 무리들에게는 당신의 관심에서 제외시키신다.
- (5) 왜냐하면 당신의 날을 지키는 것이 당신을 경배하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화보자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강변을 중심으로 나무와 강물에 비친 그 그림자가 그려져 있는 이 그릇은 게셀(Gezer)에서 발견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므로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뿌치고 더위가 와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이 해에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8절)과 갖게 될 것이다.

제 18 장 토기장이의 교훈

단락구분 1-4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다 / 5-11 토기장이의 집에서 주신 하나님의 교훈 / 12-17 열방도 놀랄 유다의 악한 범죄 / 18-23 예레미야가 자신을 해롭게 하려는 음모자들을 고발하다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2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3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5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6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7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8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10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케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11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제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자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2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자기 악한 마음의 강박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13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가 열방 중에 물어 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14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

며 원방에서 흘러 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15 대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나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결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케 하여

16 그들의 땅으로 놀랍고 영영한 치소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 머리를 흔들리라

17 내가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흠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18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아무 말에도 주의치 말자 하나이다

19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로 더불어 다루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20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 서서 그들을 위하여 선한 말씀한 것을 기억 하옵소서

21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 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붙이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사망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 주께서 군대로 줄지에 그들에게 임하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취하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치려고 음무를 베풀었음이니이다

23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락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시며 그 죄를 주의 목전에서 도말치 마시고 그들로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의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1. **㉠** 본장에서 예레미야가 받은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시어 그곳에서 교훈을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빚거나 파손하듯이 당신께서도 유다 백성을 당신의 의지에 따라 세우거나 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다.
- (3) 이처럼 본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운명에 대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게 한다.

2. **㉡** '토기장이의 집'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2절)

- ㉠** (1) 그것은 토기 그릇을 만드는 공장을 가리킨다.
- (2) 이 공장은 예루살렘 남쪽에 기드론 시내의 물이 빠져 나가는 곳(삼하 15:23)이며, 실로암 못에서 가까운 힌놈 골짜기에 있었다(참조, 19:2; 느 2:13).
- (3) 이처럼 그곳은 좋은 흙과 물이 있었으며 토기를 건조할 수 있는 적당한 기후 지역이었기 때문에 토기 제작에 적합한 곳이었던 것 같다.
- (4) 이곳의 토기 공업은 융성하여 하시드 문, 즉 토기문(土器門)까지 생길 정도였다(참조, 19:2).

3. **㉢** '늑로' (轆轤)란 무엇인가? (3절)

- ㉠** (1) '늑로'란 히브리어로 <오브나임>으로서 '두 바퀴'란 뜻이다.
- (2) 이것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에 사용되는 기구를 의미한다.
- (3) 이 기구는 한 축(軸)을 중심으로 아랫 것은 무겁고 위의 것은 가벼운 두 돌바퀴가 달려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 (4) 이 기구로 그릇을 만드는 요령은 먼저 토기장이가 아래 바퀴를 발로 돌리면 진흙을 얹은 윗 바퀴가 회전하며 그 진흙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데 그 부풀어 오른 진흙으로 원하는 그릇을 마음대로 만들었다.
- (5) 이 같은 원시적인 토기 제조 기구는 지금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

4. **㉣**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서 본 것은 무엇이었는가? (4절)

- ㉠** (1) 그것은 토기장이가 진흙이 자기 생각대로 빚어지지 않자 그 진흙을 다시 망가뜨려 새로운 그릇을 만드는 모습이였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모습을 그에게 보도록 하신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실 교훈을 효과적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 (3) 예수께서도 공중에 나는 새나 들에 핀 백합화 등을 가리키시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시곤 했다(마 6:28; 막 6:26; 8:20).
- (4) 물론 오늘날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물들을 가리키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자연 속에서 아니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분께서 은밀하게 가리키시며 들려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들을 줄 알아야겠다(참조, 고전 2:14).

5. **㉤** 토기장이가 그릇 빚는 것을 보고 있던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첫마디는 무엇이었는가? (5, 6절)

- ㉠** (1) 그것은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는 말씀이였다.
- (2) 이것은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외쳐야 할 말씀으로 유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가리킨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잘못 만든 그릇을 부수어 흙덩이로 만들고 다시 새 흙으

로 그릇을 빚듯이 당신께서는 유다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멸망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 (4)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운명을 쥐고 계신데 그 같은 사실은 다윗이나 욥 등과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 말한 신앙 고백이나(대상 29:12; 욥 9:12; 시 29:10; 83:18)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마 6:13) 등에 잘 나타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참다운 신앙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매사에 인정하는 것이다.

6. **㉠ 7, 8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선한 행실을 보시고 당신이 하시려던 일을 멈추시기도 하신다는 것이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한 악한 국가를 멸망시키려고 하셨어도 그 국가의 백성들이 그 악을 회개하면 그들을 멸망시키려던 계획을 취소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 (3) 이것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의 유다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회개시키시려고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알 수 있다(참조, 시 51:1; 54:8; 63:15; 애 3:22).

7. **㉠ 한 국가의 흥망 성쇠(興亡盛衰)를 좌우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9,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의 중흥과 멸망을 당신의 의지에 따라 주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국가의 구성원들이 당신의 뜻을 무시하고 악을 행하면 이미 그들을 위해 작정해 두신 훌륭한 계획마저 취소하신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들어 쓰시려 했던 자라도 그가 악해지면 그를 버리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해준다.
- (3) 이 같은 하나님의 품성은 사사 시대로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당신이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기근에 처하도록 허용하신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참조, 사 2:11; 3:7; 6:1; 왕상 14:22; 16:7; 왕하 8:27; 24:9).
- (4) 또한 신약 시대 때에 예수의 제자이기까지 했던 가롯 유다가 죽음을 당하도록 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같은 품성을 알게 해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참조, 마 27:5).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과거의 제사와 희생 그리고 봉사 등을 원하지 않고 항상 현재에 있어서의 우리의 온전한 삶을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만과 악행으로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8. **㉠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노를 자아내게 한 유다 백성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려고 하시니 모두 악한 행위를 회개하고 그들의 길(삶)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는 것이었다.
- (2) 이것은 당시의 유다 백성이 준비된 재앙을 피할 길은 자신들의 악한 행위, 즉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사실 그 당시 유다에서는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떠나 바알이라는 이방 우상에게 경배하는 일이 성행하였다(참조, 왕하 24:9).
- (4) 그런데 이 같은 경고의 말씀에 대해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도모하던 대로 계속 행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12절).
- (5) 이처럼 죄악에 깊이 몰든 자들은 양심이 무디어져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습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자들의 허세는 결코 얼마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

므로 우리는 항상 사랑에 근거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잠 16:20; 28:13).

9.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무어라고 호칭(呼稱)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처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다.
 (2) 그런데 ‘처녀 이스라엘’이란 말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이 그에 합당하게 순결해야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느 누구보다도 친근하고 사랑스런 존재로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시며 그들과 더불어 생활하기를 즐겨하셨다(참조, 호 2:16).
 (4)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슨 큰 반응을 보이기 보다는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순결만 지키면 그만이었다.
 (5) 이와 같은 요구 조건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순결을 유지해야 한다(빌 2:15; 살전 5:23).

10. **㉠**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반석을 떠나겠으며’와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란 말들이 각각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전자(前者)는 레바논의 눈, 즉 레바논 산 꼭대기를 덮고 있는 눈이 들의 반석, 다시 말해서 레바논 산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으니 이는 레바논 산 위에는 늘 눈이 있다는 뜻이다.
 (2) 후자(後者)는 원방에서 흘러내리는 찬물, 즉 레바논 산의 눈 녹은 물이 땅 속으로 흐르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자연계의 현상들을 말씀하신 것은 것처럼 무생물인 자연도 변하지 않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신부인 유다 백성들이 변하여 하나님을 저버린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4)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찮은 무생물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신부의 위치에 머무르기를 원하신다.

11. **㉠** 유다의 땅이 치소(嗤笑), 즉 비웃음 당하는 땅이 된 이유는 무엇인가? (15, 16절)

- ㉠** (1) 축복의 땅(출 3:8)인 유다 땅이 그와 같은 땅이 된 것은 그 땅에 거하는 유다 백성이 ‘옛길’을 가지 않고 ‘결길’로 갔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옛길’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을 말하며(참조, 시 16:11; 23:3; 잠 2:9) ‘결길’이란 허무한 것에게 분향(焚香)하는, 즉 우상 섬기는 행위를 가리킨다.
 (3) 이처럼 축복의 땅인 유다 땅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열방에게 조롱을 당하는 땅이 된 것이다.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의 조롱을 받게 된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삶 가운데서 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야 한다(참조, 마 5:16).

12. **㉠** 하나님께서는 옛길로 가지 않고 결길로 간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셨는가?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흘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하시겠다고 하셨다.
 (2) 여기서 원수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고 ‘동풍’은 인간을 징계하거나 교훈을 주실 때에 사용하셨던 근동 지방에서 부는 타는 듯한 열기를 동반하는 바람을 말한다(참조, 창 41:6; 출 10:13; 은 4:8).
 (3) 이 바람은 팔레스틴의 농작물에게 많은 피해를 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눈병과 같

은 질병들을 안겨다 준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혹독하게 멸망당할 것을 동풍에 비유하셔서 표현하신 것이다.

13. **㉠** 유다 백성의 재난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등을 보이시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학정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여 주시지 않고 내버려두신 사실을 가리킨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태도를 취하신 것은 오랫동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시어 그들이 악한 행실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었다(2:27).
 (4)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반한 자는 그가 어려움을 당해도 돌아보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해 등을 돌린 자에게 당신도 등을 돌리시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 주셨다.

14. **㉠** 예레미야를 치려던 자들이 낸 '피'의 내용은 무엇인가? (18절)

- ㉠** (1) 그것은 자신들의 혀로 예레미야를 치고 그의 말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2) 여기서 예레미야를 치려는 자들이란 유다 왕 여호야김(대하36:5-8)과 당시의 제사장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3) 또한 혀로 예레미야를 치고 그의 말에 주의치 않는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거짓을 말하는 선지자라고 소문을 퍼뜨려 백성들이 그의 말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한 것을 가리킨다(참조, 9:3, 8).
 (4) 즉 예레미야의 박해자들이 생각해 낸 피는 거짓말로 선한 선지 예레미야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거짓 목회자들은 선한 목회자들을 말로 헐뜯고 위협하는데 이런 악인들 때문에 교회가 소란하고 분파 의식이 팽배해진다.

15. **㉠** 예레미야는 자신을 해치려는 무리들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19, 20절)

- ㉠** (1)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배은 망덕(背恩忘德)한 당시의 왕과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였다(참조, ㉠14).
 (2) 그런데 그가 자신에게 유다 백성들이 배은 망덕했다고 생각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내리시려 하심을 돌이키기 위해 자신이 중보 기도(참조, 출32:32)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참조, 14:19-22)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기 때문이었다(참조, 18절).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4)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나라를 향해 예레미야가 행했던 기도와 같이 저주의 간구를 입술에 담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16. **㉠** 예레미야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하였는가? (21-23절)

- ㉠** (1)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기근과 전쟁으로 멸망시키시기를 간구하였다. 또한 이 간구는 하나의 예언이기도 했다.
 (2)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유다 백성이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꾸몄기 때문이라고 하였다(22, 23절).
 (3) 즉 유다 백성이 기근과 전쟁으로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12절) 그 말씀을 전하는 자마저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다.
 (4)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힘쓰는 자들을 해롭게 하는 일이 단순히 개인

에 대한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한 반역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참조, 벰전 5:5).

- (5)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신 일을 당신이 직접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그 일을 맡기실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마땅하다.

연구자료

토기장이와 녹로(轆轤). 성경에는 토기장이 비유를 사용하여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 부분이 많다(19:1; 사 29:16; 30:14; 41:25; 45:9; 64:8; 롬 9:21). 본장에도 이와 같은 비유가 나오는데 곧 범죄한 민족을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음을 교훈하기 위해 제시되었다(1-12절). 그런데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보다 분명히 깨닫기 위하여 팔레스틴인들이 토기를 제작하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라 하겠다. 성경 시대에 제작된 대부분의 질그릇은 녹로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녹로'(potter's wheel)란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레를 의미한다. 그런데 성경에서 녹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곳은 본장뿐이다(3절). 녹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손으로 회전시키는 녹로와 발로 회전시키는 녹로이다. 손으로 회전시키는 녹로는 두 개의 평원반(平圓盤)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래에 위치한 무거운 원반은 위에서 회전하고 있는 가벼운 원반의 운동량을 유지시켜 주며 질그릇은 위에 있는 원반에서 제작된다. 발로 회전시키는 녹로는 토기장의 발로써 회전시키는 아랫 부분의 큰 원반과 축으로써 연결되는 윗 부분의 작은 원반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 토기장은 미리 준비한 진흙을 이 녹로 위에 놓고서 질그릇을 만든다. 녹로가 회전하게 되면 그 위에 있는 진흙은 원심력을 받게 되며 토기장은 능숙한 손재주로써 진흙의 가소성(可塑性)이 남아 있는 한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질그릇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자신이 만든 질그릇을 부순 후 다시 진흙을 반죽하여 다른 모양의 질그릇을 만들어 내는 장면을 목도하고 본장에서 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4절). 이처럼 토기장이가 힘들여 만든 질그릇을 부순 후 새로 만들게 되는 이유로는 진흙이 나쁘다거나 불순물이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진흙 반죽이 적당치 못했거나 진흙 덩어리를 녹로의 정중앙에 놓지 못할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축복을 내리실 수도 있고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 것과 흡사하다(6-11절). 그러므로 우리는 토기장이 비유의 교훈을 깊이 명심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질그릇이 되기를 힘쓰자.

제 19 장 깨어진 오지병의 교훈

단락구분 1-5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이 재앙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다 / 6-9 유다가 받을 재앙의 내용 / 10-13 예레미야가 오지병을 깨뜨리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다 / 14-15 예레미야가 유다에 내릴 재앙에 대하여 성전 뜰에서 다시 예언하다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의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2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3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4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 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5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6 그러므로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륙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7 내가 이 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효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8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 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9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곤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10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11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12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13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14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와 말씀하시되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끈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1. ㉠ 본장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행동과 그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힌놈의 골짜기에 가서, 들고 간 오지병을 깨뜨리며 유다의 멸망을 선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오지병을 깨뜨리며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 예언의 말씀을 받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멸망을 실감나게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 (4)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레미야 때와 같은 심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접근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마다 자신의 그릇된 삶을 교정하는 데 성실해야 할 것이다.

2. **㉠** ‘오지병’이란 어떤 물건인가? (1절)

- ㉠** (1) 그것은 목이 좁고 오징어를 발라 구어 만든 것으로서 윤이 나는 병이다.
 (2) 이 병은 히브리어로 <딱딱>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이 병의 목이 좁아 그 속에 담긴 물이 쏟아지는 소리에서부터 생겨 난 듯하다.
 (3) 그런데 일단 구어진 오지병은 부분적으로 고칠 수 없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마음먹은 대로 구어지지 않은 것은 깨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3.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누구와 함께 힌놈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셨는가? (1, 2절)

- ㉠** (1)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그리로 가라고 하셨다.
 (2) 여기서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이란 당시 유다 사회의 정치·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참조, 출 3:16; 수 23:2; 사 21:16; 왕상 21:8).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가라고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나라의 흥망 성쇠(興亡盛衰)가 자신들과 같은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다(참조, 23:5).
 (4) 흔히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신의 머리에 구상한 것들이 곧 그 나라의 법인 양 착각하는 때가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의미에서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참조, 롬 13:1-4).
 (5) 그러므로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은 나라의 흥망 성쇠가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치를 해야 한다(참조, 출 15:18).

4. **㉠** ‘하시드 문’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절)

- ㉠** (1) ‘하시드 문’이란 ‘태양 문’,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도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의 동편 문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이 문을 ‘질그릇 조각의 문’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이 근방에 토기장이 공장이 있어 그 문 옆에 질그릇 조각을 많이 쌓아 두었기 때문이다(참조, 18:1-4).
 (3) 즉 가마에서 꺼낸 토기 중에서 깨진 것, 금간 것, 잘못되어진 것, 열을 많이 받았거나 적게 받은 것 등을 버리는 곳으로서 그 폐기물이 많이 쌓여 붙여진 이름이다.
 (4) 저수지가 팔레스틴 지방에 건설됨에 따라 버려진 질그릇은 땅아서 가루로 만들어 회반죽을 첨가하여 저수지의 바닥과 벽에 방수용으로 바르는 데 사용되었다.

5. **㉠** ‘힌놈의 골짜기’란 이스라엘의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2절)

- ㉠** (1) ‘힌놈의 골짜기’란 예루살렘 주변에 위치한 한 계곡을 가리킨다.
 (2) 더 자세한 것은 7장 **㉠** 22를 참조하라.

6. **㉠** 하나님께서 힌놈 골짜기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3-5절)

- ㉠** (1) 그것은 유다 백성이 그곳에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이방 신, 즉 바알을 숭배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산당(山堂)을 건축했을 뿐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드렸기 때문이다.
 (2) 그런데 이처럼 흉악한 악은 유다 왕 므낫세가 이것을 적극 장려하면서부터(대하 33:1-9) 시작되었다.
 (3) 즉 유다 백성들은 선왕(先王)이 뿌린 악의 씨앗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다.
 (4) 이처럼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갈 6:7, 8).

7. **㉠** 하나님께서는 도벳, 즉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어떤 명칭으로 불리우게 된다고 말씀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 골짜기가 살륙(殺戮)의 골짜기로 불리우게 된다고 하셨다.
 (2) 이것은 유다 백성이 많이 죽어 그 골짜기가 그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을 뜻한다.

- (3) 즉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무죄한 사람들(참조, 왕하 21:16)을 죽이고 태웠기 때문에(5절) 똑같은 징계를 당하게 된 것이다.
- (4) 이것은 남에게 악을 행한 자는 그 악을 행한 만큼의 손해를 당하게 되므로 남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준다(참조, 창 9:5).

8. **㉠**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謀計)를 무효케 하여'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7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계획을 실패하도록 하신 것을 가리킨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 자신들의 신변을 보장하려 했던 계획이 수포(水泡)로 돌아가게 하신 것이다(참조, 사 31:3).
- (3) 이것은 사람이 그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가르쳐 준다.

9. **㉠**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8절)

- ㉡** (1) 그것은 지나는 자, 즉 이방인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놀라고 또한 그 성의 멸망이 종교적인 타락으로 인한 것을 알고 비웃으며 모욕할 것을 가리킨다.
- (2)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하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조롱을 받게 된다(참조, 마 5:13).
- (3)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바로 잘 믿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이 타락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한다(참조, 마 5:16).

10.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대적, 즉 바벨론 군대에게 포위당하여 먹을 것이 없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의 고기 그리고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 (2) 그런데 이처럼 사람의 고기를 먹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가 받게 되는 저주의 일부인데 그 같은 사실은 이미 광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되었다(레 26:29; 신 28:53).
- (3) 이 예언이 선포된 이후 첫번째로 사람이 사람의 고기를 먹은 사건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 발생했으며(왕하 6:24-28) 두번째는 9절에 나타났듯이 유다 말기에 발생했다.

11. **㉠** 예레미야가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함께 간 자들의 목전(目前)에서 오지병을 깨뜨리면서 선포한 말은 무엇인가? (10, 11절)

- ㉡** (1) 그것은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파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레미야로 오지병을 깨뜨리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미래 일을 실감나게 깨닫고 회개시키기 위해서였다.
- (3)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유다 백성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나 주위의 상황들을 통하여 깨닫도록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한다.

12. **㉠** '이 성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란 어떤 말인가?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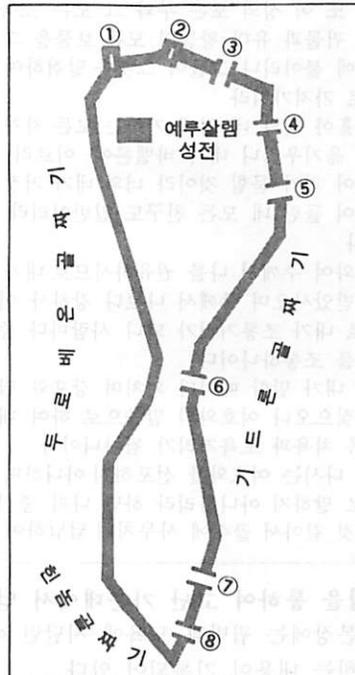
- ㉡** (1) 그것은 예레미야가 도벳, 즉 힌놈의 골짜기에 시체가 많이 되듯이(6절) 예루살렘 성도 시체가 많은 곳이 될 것을 예언한 말이다.
- (2) 이 예언은 도벳이 도살장으로 변한 것처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도 전쟁으로 인하여 도살장과 같은 살육을 면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 (3) 결국 이 예언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성취되었다(52:12).

13. ㉠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萬象)에 분향하고’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그것은 유다 왕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집 옥상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가리킨다.
- (2) 즉 유다 왕들이나 백성들은 평평한 자신들의 집 옥상에서 하늘의 해나 달 그리고 별들과 같은 자연을 숭배했던 것이다(참조, 32:29).
- (3) 본질은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께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자들이 아무런 부끄러움도 없이 자기들의 집 옥상에서 공공연히 우상을 섬긴 사실을 지적하였다.
- (4) 우리들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유다 백성보다 더 패역한 행위를 뻔뻔스럽게 행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고 회개해야 한다.
14. ㉠ 하나님께서는 도벳에서 예언을 마친 예레미야를 어디로 가게 하셨는가? (14,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를 여호와의 집 뜰, 즉 예루살렘 성전 뜰로 가게 하셨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신 것은 도벳에서 선포한 예언을 다시 선포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 (3) 이것은 당시의 유다 백성이 목이 굳아서, 즉 패역하여 마음이 강박해져서 예언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신 것을 가리킨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사람들이 강박하여 자신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겔 2:7).

지도자료

하시드 문(Harsith Gate). 이 문에 대한 언급은 신·구약 성경을 통털어 오직 본장에만 나온다(2절). 이 기록에 의하면 하시드 문은 힌놈 골짜기를 향해 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렵다. 일부 학자들은 분문(糞門)이 하시드 문인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 ① 하나넬 망대 ②함메아 망대 ③양문 ④함밧갓 문 ⑤마문 ⑥ 수문 ⑦ 샘문 ⑧ 분문(하시드 문?)



제 20 장 고뇌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

단락구분 1-6 예레미야를 때린 바스홀이 당할 재앙 / 7-10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마음의 고통을 아뢰다 / 11-13 예레미야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 14-18 예레미야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원망하다

1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스홀은 여호와와 집 유사장이자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2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와 집 베냐민의 윗 문에 있는 착고에 채웠더니

3 다음날 바스홀이 예레미야를 착고에서 놓아 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바스홀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밋사빔이라 하시니라

4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에 었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5 내가 또 이 성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물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6 바스홀아 너와 네 집에 거하는 모든 자가 포로 되어 옮기우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내가 거것 예언을 하여 들린 네 모든 친구도 일반이리라 하셨느니라

7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8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었으니 여호와와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대답하여 건

딜 수 없나이다

10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흑시 유혹을 받으리니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11 그러하오나 여호와와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지 못하므로 큰 수욕을 당하오리니 그 수욕은 영영히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12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13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14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더면,

15 나의 아버지께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16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훼파하시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던면, 그로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면,

17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연고로다

18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1. ㉠ 본장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핍박과 모욕에 시달린 예레미야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원망할 정도로 괴로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것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를 보여 준다.

- (3)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찬양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겠다.

2. **㉠** ‘바스홀’ (Pashhur)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1절)

- ㉠** (1) 그는 성전 제사 때 봉사한 아론 자손의 24반열 가운데 16번째 반열에 속했던 제사장 임멜(Immer)의 아들이었다(대상 24:4).
 (2)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전과 성전 뜰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성전 안에서의 모든 규례와 질서를 책임지는 유사장(有司長)의 직분을 맡고 있었다(참조, 눅 22:52; 행 4:1; 5:24).
 (3) 그런데 그가 예레미야를 구타(毆打)한 사실(2절)을 미루어 보아 그는 악한 성전 관리자였던 것을 알 수 있다.

3. **㉠** ‘예레미야를 때리고’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절)

- ㉠** (1) 그것은 악한 성전 관리자 바스홀이 예레미야에게 40대의 매(참조, 신 25:3; 고후 11:24)를 가했던 사실을 가리킨다.
 (2) 그런데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같이 폭행한 것은 예레미야가 재앙에 대해 예언했기 때문이었다.
 (3)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였던 것이므로 바스홀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한 것이 된다.
 (4)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할 때이다(살전 5:20).
 (5)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또한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들을 존경해야 한다(고전 16:18).

4. **㉠** 바스홀은 예레미야에게 매질을 한 후 그를 어떻게 했는가? (2절)

- ㉠** (1) 그는 예레미야에게 매질을 한 후 그를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착고(着網)에 채웠다.
 (2) 여기의 ‘여호와의 집 베냐민의 윗문’이란 ‘에브라임 문’이라고도 불리우는(참조, 왕하 14:13; 느 8:16) 예루살렘 성의 북쪽 문을 가리킨다.
 (3) 또한 ‘착고’란 몸을 구부리게 하여 손발과 목을 구멍이 뚫린 판자로 채우던 당시의 형구(刑具)를 가리킨다(참조, 대하 16:10).
 (4) 즉 바스홀은 예루살렘 성의 북쪽 문 앞에 있던 형구에 예레미야를 채웠던 것이다.
 (5) 그것은 예레미야가 그 성문을 드나드는 많은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다(참조, 7절).

5. **㉠** 하나님께서는 선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한 바스홀에게 어떠한 새 이름을 주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마골밋사빕’ (Magormissabib)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2) 그의 원래 이름인 ‘바스홀’은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란 뜻이고 새 이름인 ‘마골밋사빕’은 ‘네가 사방에 두려움이라 불리울 것이라’는 뜻이다. 즉 두려움에 둘러싸여 도망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3) 또한 이 새 이름의 의미는 앞으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할 때 그가 무서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자신이 자기 나라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환난의 원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4-6절).

6. **㉠**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란 어떤 말씀인가? (4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스홀에게 그가 무서운 환난을 당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그의 친

구들까지 동일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것처럼 무서운 선포를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선한 종 예레미야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핍박하는 사람은 자신 뿐 아니라 자기의 가까운 친구까지 큰 해를 당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참조, 시37:2; 벧후2:17).
- (4) 경건한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같다(참조, 민 12:1-8).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이다.

7. **㉠** 6절에서 누가 바벨론으로 잡혀가 그곳에서 죽는다고 하였는가?

- ㉠** (1) 바스홀과 그의 집에 거하는 자 그리고 그와 함께 거짓 예언을 한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2) 여기의 바스홀과 함께 거짓을 예언한 친구들이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 (3) 즉 이 6절 말씀은 악을 행하는 자의 옆에는 그와 비슷한 악을 행하는 친구가 있으며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비참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악해지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잠 29:16).

8. **㉠**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란 어떤 말인가? (7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자신을 선지자 삼았던 사실(1:5-9)을 회상하며 그것을 불평하는 말이다.
- (2) 그런데 그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지자 삼으셨던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예언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너무 자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사역자들도 사역하는 중에 환난이나 핍박이 크게 밀려오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을 후회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된다.
- (4) 그러나 그럴 때라도 친히 고난당하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롬 8:34)을 기억하고 힘을 내어 계속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롬 8:35).

9. **㉠**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 것이라고 고백했는가? (8, 9절)

- ㉠** (1) 그는 자신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은 감정이 골수(骨髓)에까지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 (2) 즉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다가 치욕과 모욕을 당하여(8절) 말씀 전하는 일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거운 것이 마음을 눌러 다시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한 말이다.
- (3)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다(참조, 민 11:25; 삼하 23:2).

10. **㉠** 예레미야 주위의 악한 무리들은 무어라고 서로 말하였는가? (10절)

- ㉠** (1) 그들은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는 말을 서로 나누었다.
- (2)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에 대하여 흠을 잡으려 했으나 결코 착지를 못하고 언젠가 예레미야에게서 조그만 잘못이라도 발견되면 서로 알려 줄 것을 약속하는 것을 가리킨다.
- (3) 이것은 당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었었나를 말해 주고 있다.
- (4) 그러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다니엘처럼(단 6:4, 5, 10-23)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리도 비록 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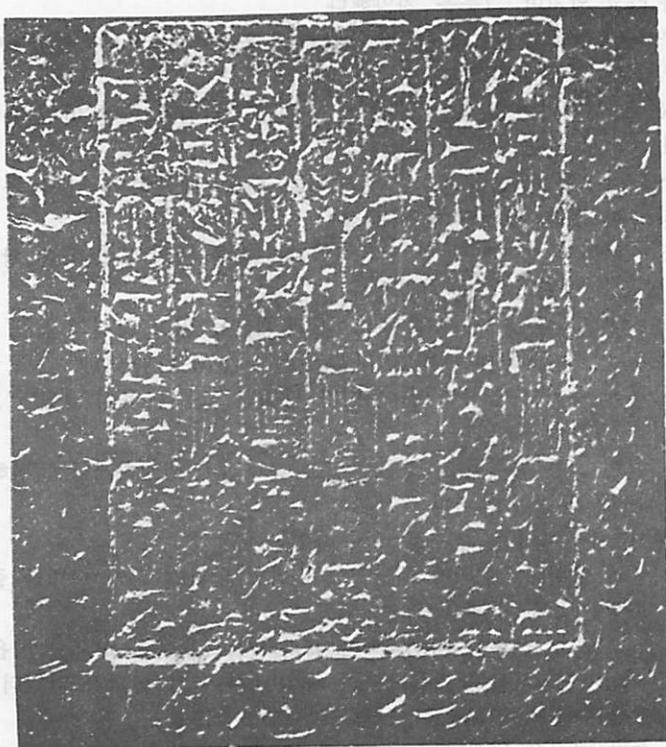
운 역경이 있다 해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는다면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다.

11. ㉠ '여호와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란 어떤 말인가? (11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가 사방에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증거하는 말이다.
- (2) 구약 시대엔 예레미야처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강했던 사람들이 많았다.
- (3)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자신을 위협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였고(시3:6) 하박국 선지는 전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남김없이 사라진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고 고백했다(합3:18).
- (4) 이 같은 구약 시대의 인물들을 본받아 우리도 어려울 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다.
12. ㉠ 12, 13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핍박받는 사실을 아뢴 후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 ㉠ (1) 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생명, 즉 핍박받는 자신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외치며 그분을 찬양했다.
- (2) 이것은 예레미야 자신이 아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응답된 것으로 믿었던 것을 가리킨다.
- (3) 이 같은 예레미야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께 한번 아뢴 후엔 그 간구가 이미 응답된 것으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겠다(막 11:24).
13. ㉠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던면, 나의 어머니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이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 인간이었기에 심한 핍박과 모욕을 당했을 때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했던 것을 가리킨다.
- (2) 예레미야 뿐 아니라 갑자기 집과 자식들과 재산을 잃고 자신의 몸에 심한 질병까지 얻었던 욥도 이 같은 고백을 하였다(참조, 욥3:20;6:11;7:6).
-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당시에 예레미야가 당했던 고통은 욥이 당했던 고통 만큼이나 심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 (4) 그러나 이런 고통 중에서도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
14. ㉠ 15, 16절에서 예레미야는 누구를 저주하였는가?
- ㉠ (1) 그는 자신의 아버지께 '네가 생남하였다' 라고 말하여 그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 즉 자신의 출생을 도운 산파를 저주하였다.
- (2) 계속해서 그는 그 산파가 여호와께서 훼파하시고 후회치 않으신 성읍, 즉 소돔과 고모라(참조, 창 19:25)처럼 되기를 바랐는데 이것은 그가 산파가 없었다면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하는 심정을 표현한 말이다.
- (3) 이처럼 그가 자신을 낳아 준 부모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단지 산파에게만 그 저주를 국한시킨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가 회의와 깊은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 잃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15. ㉠ 17, 18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고생과 슬픔을 보면서 수욕의 나날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는가?
- ㉠ (1) 그것은 산파가 자신을 태에서 죽이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로 자신의 무덤이 되게 하지 않았던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 (2) 이것은 산파가 태 속의 아이를 출산시키는 것이 정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 가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일시적이거나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을 가리킨다.
 (3) 이것을 통해 우리는 대선지자 예레미야도 완벽하지 못한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을 알게 된다(참조, 약 5:17).

화보자료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새겨진 점토판. 점토판에 새겨진 썩기 모양의 기호는 바벨론인들이 사용하였던 설형 문자(楔形文字)이다. 이 문자를 해독해 본 결과 점토판에 새겨진 것은 느부갓네살 2세(Nebuchadnezzar II, B. C. 605-562)의 이름임이 밝혀졌다.



느부갓네살 2세는 갈대아 왕조(신 바벨론 제국)를 창시한 나보폴라살(Nabopolassar, B. C. 625-605)의 장자(長子)이다. 성경에서 몇 차례나 유다를 침략하였으며 결국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왕으로 언급되고 있는 느부갓네살(참조, 21:1; 왕하 25장)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2세이다. 이처럼 느부갓네살에 의해 유다가 멸망당할 사실은 본장에도 예언되어 있다(4절).

제 21 장 바벨론의 침입을 받은 유다

단락구분 1-2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받은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의 기도를 청하다 / 3-7 하나님께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시드기아에게 알려시다 / 8-10 유다가 실질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뿐이다 / 11-12 유다 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 / 13-14 지리적 조건을 의지한 유다 백성이 당할 재앙

1-2 시드기아 왕이 딸기야의 아들 바스훈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3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아에게 이같이 말하라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 들이리라

5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6 내가 또 이 성에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7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아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궁핍히 여기지 아

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8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9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략한 것같이 얻으리라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로 사르리라

11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12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끝 자가 없으리라

13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거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네 대적이라

14 내가 너희 행위로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 의 말이니라

1. ㉠ 본장의 주요 내용과 그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침입하자 당시의 왕인 시드기아가 사람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기도를 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참조, 15:11).
-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청을 거절하시고 도리어 유다 땅이 멸망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드기아가 스스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본장은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스스로 회개하여야 그 죄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2. ㉡ '시드기아'는 어떤 인물인가? (1, 2절)

- ㉡ (1) 그는 요시야의 아들이며 유다 최후의 왕이었다(대상 3:15).
- (2) 바벨론 왕에 의해 여호야긴을 계승하여 유다의 왕이 된 그는(왕하 24:17, 18) 11년 동안 치리(治理)하면서(B. C. 597-586), 자기 고집대로 나라 일을 처리해 국민에게 많은

해를 주었다.

- (3) 특히 그는 애굽과 맺은 동맹(겔 17:11-21)을 끊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경고(9절)를 무시하다가 에스겔 선지의 예언(겔 12:13)대로 바벨론에서 죽었다.
- (4) 즉 그는 자신의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두 눈이 뽑힌 후 사슬로 결박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왕하 25:7).

3. **Q** ‘스바냐’는 누구인가? (1, 2절)

- A** (1) 그는 제사장인 마아세야(Maaseiah)의 아들이며 시드기야 때에 성전에서 부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사람이다(52:24).
- (2) 부제사장이었던 그는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의해 선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기도 했다(29:24-28).
- (3) 또한 그는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심부름군으로서 두 번 예레미야에게 간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에 관하여 묻기 위해, 또 한번은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였다(37:3).

4. **Q** 시드기야 왕이 바스훈과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1, 2절)

- A** (1) 이유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쳤기 때문이다.
- (2) 1, 2절에 나타난 바벨론의 침입은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3차 침입의 전초전(前哨戰)을 가리킨다.
- (3) 이때에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왔던 것은 유다가 계속 친(親)애굽 정책을 써서(겔 17:11-21) 자신들을 멀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유다는 계속 같은 정책을 썼기 때문에 결국 그로부터 2년 뒤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말았다(52:3-13).

5. **Q**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은 그 모든 기사(奇事)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 2절)

- A** (1) 그것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에 침입했을 때 사자(使者)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 전한 말로서, 그가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의지했던 것을 가리킨다.
- (2) 즉 그는 하나님께서 큰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全能者)임을 알았지만 국난(國難)을 당했을 때 스스로 그분께 아뢰고 의지하기 보다는 인간인 예레미야를 의지하려 했던 것이다.
- (3) 이것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인간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시 146:3; 잠 3:5).

6. **Q**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들이리라’라는 말씀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3, 4절)

- A**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밖으로 나가 적 바벨론 군대의 싸우는 유다 군사들을 예루살렘 성안으로 후퇴하게 하실 것을 가리킨다.
- (2)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 군대에게 패배(敗北)케 하실 것을 선언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시드기야가 원했던 바(1, 2절)와 반대된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같이 응답하신 것은 유다 백성과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1, 2절) 자신들의 죄(참조, 대하 36:13, 14)를 회개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 (4) 이것은 사람에게 환난과 고통이 닥칠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시 7:12; 눅 13:3).

7. **Q** ‘내가 든 손과 강한 팔’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5절)

- A** (1) 그것은 악한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드신 하나님의 손을 의미한다.
- (2) 그 손은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던 손이며(사 30:3)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 민족

을 방해한 그 땅의 족속을 멸하신 손이며(신 2:15) 당신의 언약궤를 빼앗았던 블레셋을 치셨던 손이다(삼상 5:6).

- (3) 또한 그 손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제하셨던 손이며(출 6:6) 험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손이며(신 7:19) 재림 때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손이다(사 51:5).
- (4) 이처럼 하나님의 손은 악한 자에게는 슬픔을 그리고 선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신다.
- (5)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선한 자가 되어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만을 느끼며 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참조, 요삼 1:11).

8. **㉠** 하나님께서는 유다 땅의 모든 사람과 짐승을 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치신 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가? (6,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겠다고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입과 전염병과 기근이 있는 후에까지 남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이다.
- (3) 그런데 이 예언은 B. C. 586년 바벨론의 세번째 침입 때 유다가 멸망하고 눈이 뽑힌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전쟁에서 살아 남은 자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감으로써 성취되었다(52:11-15).

9. **㉠** 8, 9절에서 예레미야는 적군의 포위 속에 있는 동포들을 향해 무엇이라 외쳤는가?

- ㉠** (1) 그는 항복은 생명의 길이며 저항은 사망의 길이라고 외쳤다.
- (2) 사실 유다가 항복하는 것은 비애국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려는 것이었다.
- (3) 왜냐하면 당시에 유다는 애굽과 동맹을 맺고(겔 17:11-21) 그들을 의지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었는데 만일 바벨론에 항복하면, 즉 애굽과의 동맹을 끊으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4) 예레미야는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살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다.

10. **㉠** 하나님께서 이 성, 즉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이유는 무엇인가? (10절)

- ㉠** (1) 그것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다.
- (2) 이것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
- (3) 그러므로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그들과 맞서서 싸우는 일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된다.

11. **㉠**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집권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셨는가? (11,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고 명령하셨다.
- (2) 즉 이것은 유다의 백성들을 재판할 권리를 가진 유다의 집권자들이 뇌물 같은 것에 마음이 어두워짐이 없이 약자의 편에 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재판 업무를 감당해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 (3) 그런데 유다의 집권자들이 그와 같이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 위에는 그들에게 판결할 권리를 주신 분이요 또한 그들의 상전(上典)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골 4:1).
- (4) 그러므로 오늘날의 종교계나 정치계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상전(上典)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모든 일을 의롭게 판결해야 한다.

12. **㉠**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대적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거민, 즉 작은 산들이 이룬 골짜기와 평원들이 산재해 있는 팔레스틴 땅에 사는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대적이 되겠다고 선포하셨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같이 유다의 대적이 되겠다고 선포하신 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지리적인 이점을 생각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누가 우리를 치리요’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세상적인 조건에 너무 빠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의 대적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참조, 나 1:2).
13. ⓐ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살던 마을에 바벨론 군대의 침입을 허용하여 그곳이 불 바다가 되게 할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불 심판을 의미하는데 구약 시대엔 이 같은 심판이 여러 번 있었다(레 10:2; 민 11:1; 왕하 1:10).
- (3) 그중의 대표적인 예는 강포가 가득하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의 심판을 당한 것이 그것이다(창 19:24).
- (4) 그런데 이 같은 심판은 미래에도 있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의 재림시 불신자들에게 내릴 것이다(벧후 3:10).
- (5)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같은 최후의 불 심판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두려움 없이 맞이해야 한다.

연구자료

염병(染病). 성경에는 염병(pestilence)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온다. 그런데 이러한 염병은 크게 자연 발생적인 것과 하나님의 형벌에 의한 것,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6절; 14:12; 레 26:25; 대하 7:13; 겔 28:23). 하지만 성경에는 염병의 증상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야 그 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흑사병(peest), 티푸스(typhus), 콜레라(cholera), 천연두(smallpox) 등이 성경에서 말하는 염병에 속한다. 이 같은 염병은 구약 시대 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던 병 중의 하나였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병에 걸리면 대개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출애굽 후 광야에서 배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이러한 염병의 형벌을 네 차례나 받았었다(민 11:33; 14:37; 16:46; 25:9). 그 뿐 아니라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로써 임할 염병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다(7절; 14:12; 24:10; 겔 7:15; 12:16). 하지만 경건한 시편 기자는 이 같은 병으로부터 지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있기도 하다(시 91:3, 6). 한편 신약 성경에서는 이 염병이 그리스도에 의한 종말론적 고난의 한 전조(前兆)로 묘사되어 있다(눅 21:11).

제 22 장 강포를 행한 유다의 왕들이 받을 심판

단락구분 1-9 예레미야가 성문 앞에서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다 / 10-12 살룸(여호아하스 왕)이 당할 심판 / 13-23 여호야김 왕의 악행과 그가 당할 심판 / 24-30 고니야(여호야긴 왕)가 당할 심판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2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니라

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4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5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와 말이니라

6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내가 정녕히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7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자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8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하고 하겠고

9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0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올라 그는 다시 돌아와서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니라

11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12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3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4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15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경하므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16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7 그러나 네 눈과 마음은 탐람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18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19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밖에 던지우고 나귀 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20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니라

21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22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에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을 인하여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23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의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라

24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

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너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의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떼어
 25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의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26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미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에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고
 27 너희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28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한 파기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나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 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29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여호와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30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유다 왕들의 행적과 그 결말은 어떠한가?

- ㉠** (1) 본장에는 예레미야가 유다 말기의 왕들인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이 세 왕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많은 백성들에게 강포(強暴)를 행하였기 때문이다.
 (3) 이것은 오늘날의 집권자들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괴롭히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2. **㉠**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서 왕과 그의 신하와 그 문으로 들어오는 백성들을 향해 무엇을 들으라고 외쳤는가? (1, 2절)

- ㉠** (1)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자신의 말이 아닌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고 외쳤다.
 (2)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같이 외친 것은 자신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인 사실과 그들이 복종해야 할 상대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3) 이것은 오늘날의 말씀 선포자들에게 자신들은 말씀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전할 때 자신들이 아닌 하나님만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3. **㉠**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다(참조, 왕하 19:14; 23:2).
 (2) 즉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정치에 간섭할 것을 명하신 것이다.
 (3)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같이 하신 이유는 당시의 유다 왕들이(26:10; 36:11, 12) 불의를 행하였기 때문이다(3절).
 (4) 이것은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집권자가 불의를 행할 때에는 그를 찾아가 담대하게 그것을 지적해 주어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4. **㉠** '다윗의 위'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2절)

- ㉠** (1) 그것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므로써 시작된 이스라엘의 왕조를 가리킨다(삼하 2:4).
 (2) 그런데 이 왕조의 존속은 르호보암 때 그가 강제 노동과 명예를 가볍게 해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왕상 12:4)를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강경책을 발표하자(왕상 12:14) 여로보암을 지도자로 하는 열 지파(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제외한) 족속들이 세력으로 나가 새 왕국을 세움으로써 그 위기를 맞았다(왕상 12:25).
 (3) 그러나 유다와 베냐민 족속들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유다 왕국을 세움으로써 그 왕조는 명맥(命脈)을 유지하게 되었다.
 (4) 그 이후 이 왕조는 르호보암을 포함한 20명의 왕들로 유지되다가 B. C. 586년 바벨론의 침입으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써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왕하 25:7-12).

5. **㉠** 3절에 언급된 유다의 지배 계급이 행해야 할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은 무엇인가?

- ㉡** (1) 첫째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당하는 자를 압박 자의 손에서 건지는 일인데 이것은 정사(正邪)를 잘 구분하여 각 사람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과 권리들을 되찾아 주는 것을 의미한다(7:5, 6; 21:12).
- (2) 둘째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확대하지 않는 일인데 이것은 먼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 않아 불편해 하는 이방인과 불쌍하고 외로운 처지에 있는 고아와 과부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약 1:27).
- (3) 세째는 이곳, 즉 성문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김 왕이 당신의 선지자 우리야를 칼로 죽인 사실(26:20-23)을 상기시키시면서 그와 같은 죄를 다시는 짓지 않기를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 (4)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하신 것은 그들의 왕국이 계속 유지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4절).
- (5)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유다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

6. **㉠** 유다 백성이 3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때 맞게 될 상황은 각각 어떠한가? (4, 5절)

- ㉡** (1) 그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집 문, 즉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오게 되지만 불순종하면 그 성은 황무하게 된다.
- (2) 여기서 전자(前者)는 유다 왕국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가리키고 후자(後者)는 그 왕국이 멸망하는 것을 가리킨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그 앞길이 험통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시 1:1-6).

7. **㉠** ‘길르앗’은 어떤 곳인가? (6절)

- ㉡** (1) 그곳은 암몬의 북쪽, 바산의 남쪽에 위치한 요단 강 동편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서 지금의 길벳 엘아드(Khirbet Jel'ad)에 해당하는 지역이다(민 32:1; 삿 10:4; 삼상 13:7; 대상 5:9).
- (2) 그곳은 질푸른 수목이 우거진 아름다운 목장지로 뿐 아니라 그곳에서 생산되는 포도, 감람 열매, 그 외의 유실수(有實樹)들로도 유명하다.
- (3) 또한 그곳은 약초가 많이 나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길르앗’의 유향(遺香, 8:22; 창 37:25)이라는 말까지 생겨 났다.

8. **㉠** ‘레바논의 꼭대기’란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 (6절)

- ㉡** (1) 그것은 두 줄기 산맥으로 구성되는 팔레스틴 북방의 레바논 산을 가리키는 것으로 현재의 레바논 국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참조, 신 3:25).
- (2) 이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함께 정복했기 때문에(수 11:16) 그 이후 이곳은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하는 지역이 되었다(신 1:7).
- (3) 또한 이곳엔 철따라 비가 고루내려 고원(高原), 구릉(丘陵) 등으로 이루어진 산간 지방에는 곡물이, 해안 지방의 평야에는 각종 채소와 견과(堅果)와 주요 농산물인 포도, 올리브 등이 풍부하다.
- (4)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백향목, 소나무, 화석류나무 등을 주종(主種)으로 하는 삼림이 무성하였는데 그 정도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목재와 석재를 이곳에서 가져다가 썼을 정도이다(왕상 5:5, 6, 14, 18).
- (5) 끝으로 이 산의 전체 경관(景觀)은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기 때문에 다윗을 비롯한 구

약의 저자들은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산을 여러 번 등장시켰다(시 29: 6; 104:16).

9. **㉠**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의 집, 즉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변화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은 그 성을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다.
- (2) 여기서 ‘길르앗’이나 ‘레바논의 꼭대기’는 아름답고 기쁨이 가득하고 생산이 풍부한 곳을,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이란 쓸쓸하고 기쁨이 없고 생산이 없는 곳을 비유하신 말씀이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의 궁전을 처음에는 아름답고 번영하게 하셨으나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후에는 참혹하게 하실 것을 비유로 설명하신 것이다.
- (4) 우리는 이것을 통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가를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롬 6:23).

10.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위해 어떤 자를 준비하겠다고 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파멸할 자를 준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 바벨론을 준비하신 것을 의미한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신 것이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신 28:50, 51; 눅 19:43).

11. **㉠** 8, 9절에서 여러 나라 사람, 즉 이방인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 ㉠ (1) 그들은 멸망해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이 그같이 된 것은 그곳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
- (2) 이것은 예레미야가 장차 이방인들이 유다 민족의 죄악을 지적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들을 가리킨다.
- (3) 구약 시대엔 이처럼 불신자의 책망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참조, 신 29:25, 26)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요나로서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그는 불신자인 선장에게 책망을 들었다(욘 1:6).
- (4)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이나 책망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에 그렇게 된다.
- (5)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조롱이나 책망을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해야 한다(마 5:13, 16).

12. **㉠** ‘죽은 자’와 ‘잡혀간 자’는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10-12절)

- ㉠ (1) ‘죽은 자’란 B. C. 608년 브깃도에서 애굽 왕 느고와 싸우다가 전사한 요시야 왕을 가리키며(왕하 23:29), ‘잡혀간 자’란 재위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 왕위에서 쫓겨난 후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요시야의 네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가리킨다(왕하 23:29-35).
- (2) 그런데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보다 여호아하스를 위하여 슬피 울라고 한 것은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포로로 끌려간 후 그곳에서 고국 팔레스틴으로 돌아올 수 없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13. **㉠** ‘요시야’란 누구인가? (11절)

- Ⓐ (1) 그는 B. C. 640-609년까지 31년 동안 통치한 유다 16대 왕이다(대상 3:14).
 (2) 앗수르 왕의 신하였던 그는 앗수르가 B. C. 626년 나보폴라살(Nabopolassar)이 바벨론의 왕으로 등장한 이후 약해져 가는 과정을 엿보다가 B. C. 622년 드디어 앗수르 제국의 신(神)에 대한 숭배 조약을 공식적으로 파기(破棄)하였다.
 (3) 이어서 그는 벨엘과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들에게까지 확장하여 우상 파괴령을 내리는 등 대종교 개혁을 감행하였다(왕하 23:4-20).
 (4) 또한 그 해(B. C. 622)에 앗수르의 치하에 있었던 이유로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잔치를 거국적으로 일으켜 국민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왕하 23:21-23).
 (5) 그러나 애굽의 바로네고(Pharaoh-necho)와 전투 중이던 앗수르 왕을 돕기 위해 므깃도에 올라갔던 그는 바로네고의 칼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말았다(왕하 23:29).

14. ⓐ '살룸'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1절)

- Ⓐ (1) 그것은 유다의 17대 왕이었던 요시아의 네째 아들(대상 3:15)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는 세 형을 제쳐 놓고 백성에게 옹립(擁立)되어 유다 왕이 된 후 '여호와와는 곳곳하게 견지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여호아하스'로 자신의 이름을 바꾸기도 하였다(왕하 23:30).
 (3) 그러나 그는 반(反)애굽 정책을 수행하다가 그의 열조들이 행하던 악을 그대로 답습하여 재위 3개월 만에 애굽 의해 왕 느고에 왕위에서 쫓겨 나아만 했다(왕하 23:32-34).
 (4) 그 후 그는 애굽에 포로로 끌려가 고국 팔레스티인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죽고 말았다(왕하 23:34).

15. ⓐ 13, 14절에는 어떤 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가?

- Ⓐ (1) 13, 14절에는 광대하고 광활한 집을 짓고도 그 집을 지은 일군에게 품삯을 주지 않은 자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2) 이것은 유다 왕 여호야김의 폭정(暴政)의 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실 그는 재위 기간 동안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사치스러운 왕궁을 지었다(참조, 미 3:10).
 (3)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권세잡은 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올바른 정치는 하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만 채우려는 자들을 방관하지 않으시며 또한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참조, 약 5:4) 당신의 공의로 반드시 보우하신다.

16. ⓐ '백향목'이란 어떤 나무인가? (15절)

- Ⓐ (1) '백향목'이란 '굳건히 뿌리 박힌 강한 나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팔레스틴 북쪽 레바논 산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이다(참조, 시 92:12; 사 2:13).
 (2) 이 나무는 충분히 자라면 36m정도까지 자랄 수 있으며 그 몸통 둘레는 9-12m까지 성장할 수 있는데 자라기 시작해서 땅에서부터 2.7-3m가 되면 그 가지는 원뿔형으로 넓게 퍼지게 된다.
 (3) 또한 이 나무는 그 모습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향기가 대단하며 해충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로 내구성(耐久性)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4) 이같이 이 나무는 목재로서 손색이 없었기 때문에(겔 27:24) 구약 시대 때에는 솔로몬을 비롯한 많은 왕들이 성전과 궁전을 지을 때 이 나무를 즐겨 사용하였다(삼하 5:11; 왕상 5:5, 6).

17. ⓐ 네 아버, 즉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요시아 왕은 왜 형통하였는가? (15, 16절)

- Ⓐ (1) 그는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고 공평과 의리를 행했기 때문에 매사가 순조롭고 평탄하였다.
 (2) 여기서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금식했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절제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평과 의리를 행했다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소송을 옳게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그가 이같이 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이 참재판장되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이다(시 7:11).
- (4) 이것은 오늘날의 법관들도 검소한 생활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특히 그분이 재판장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난한 서민(庶民)들의 재판권(件)일수록 공정하게 처리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

18. **㉠**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란 말은 어떤 말인가? (17, 18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가 여호야김에게 그와 그의 아내인 왕후가 적군인 애굽에 끌려가 죽게 되어도(참조, 왕하 23:34) 유다 백성들은 슬퍼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말씀이다.
- (2) 그런데 백성들이 그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여호야김이 그들을 착취하기 위해 압박과 강포를 행하였을 뿐 아니라(참조, 13, 14절) 부죄한 의인들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왕하 24:4).
- (3) 이것은 자신의 안락을 위해 많은 국민들을 불의하게 다스리고 그 국민들의 피를 흘린 폭군은 슬퍼하는 자가 없는 가운데 죽게 될 것을 가르쳐 준다.

19. **㉠**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고 예언하였는가? (19절)

- ㉠** (1) 예레미야는 그가 끌려가서 예루살렘 문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당하는 최후를 맞게 된다고 예언하였다.
- (2) 여기서 나귀같이 매장당한다는 말은 무덤 없이 그의 시체가 버려질 것을 가리킨다.
- (3) 이 예언대로 그가 죽은 뒤 그의 시체는 성 밖으로 끌려나와 쓰레기 더미 위에 버려졌다(왕하 24:6에 '장사하니'라는 귀절이 없는 것에 유의하라).
- (4) 이것을 통해 우리는 비록 살았을 때는 왕인 자라도 그가 악하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악에 물들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20. **㉠** '바산'이란 어느 곳을 가리키는 말인가? (20절)

- ㉠** (1) '바산'이란 갈릴리 바다에 이웃해 있고 상(上) 요단 강 동쪽에 위치한 비옥하고 넓은 고(高)지대를 가리키는 곳이다(민 21:33-35).
- (2) 이곳은 북쪽으로는 헤르몬 산과 동쪽으로는 살르가(Salecah), 남쪽으로는 길르앗 땅과 그리고 서쪽으로는 그술과 마아가(Maacah) 지역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 (3) 또한 이곳은 고도 480-700m에 달하는 넓은 고원 지역이기는 하지만 적당한 목축지가 있어(시 22:12) 양과 염소의 산지로 유명하며(신 32:14) 상수리나무 숲이 무성한 곳으로도 유명하다(사 2:13; 겔 27:6).

21. **㉠** '아바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0절)

- ㉠** (1) 아바림은 요단 강 동편 모압 평원에 있는 산악 지대를 가리킨다.
- (2)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진(陣)을 치고 머물렀던 곳이며(민 21:11; 33:48),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르우벤 지파가 모세에게 요구하여 그들만 차지하기로 결정된 땅이었기도 하다(민 32:2-7).
- (3) 또한 이곳은 모세가 그의 생애 말기에 자신은 밟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대로 올랐던 산으로 유명하다(민 27:12; 신 32:49).

22. **㉠**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어디에 올라가서 여호야김 왕의 가족과 그의 근친(近親)이 멸망할 사실을 외치라고 하였는가? (20절)

- ㉠** (1)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레반 산과 바산과 아바림 산에 올라가 외치라고 하였다.
- (2)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세 산에 올라가라고 한 것은 그 세 산 꼭대기에서는 유다 백성

이 사는 전(全)팔레스틴 땅이 보이기 때문이다.

- (3) 즉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악한 여호야김 왕의 일가(一家)가 멸망할 것을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여 그들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하려 했던 것이다.

23. ㉠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키울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란 말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21, 22절)

- ㉠ (1) 그것은 여호야김 뿐 아니라 그에게 거짓 말씀을 전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을 가리킨다.
 (2) 그런데 그들이 그 같은 수치를 당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는 여호야김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기 때문이다.
 (3) ‘네가 어려서부터...네 습관이라’는 말은 여호야김의 불순종이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반복했기에 일종의 습관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다.
 (4)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통치자들이(욘 13:1)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통치하지 못하고 그에게 불순종할 때 그들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까지 그 화(禍)가 미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5)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국민을 다스려야 한다(시 2:10, 11).

24. ㉠ ‘레바논에 거하여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23절)

- ㉠ (1) 그것은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지칭하는 말이다.
 (2)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은 대부분의 건물을 레바논에서 들여온 백향목으로 지었다.

25. ㉠ 24,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김 왕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 ㉠ (1) 하나님께서는 그가 당신의 오른손의 인장 반지(印章斑指)라 할지라도 빼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주겠다고 하셨다.
 (2) 여기의 인장 반지는 그 소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보물로서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때 사용되는 도장이었다.
 (3)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갈대아인의 손에 주겠다는 것은 여호야김 왕이(참조, 24:1) 바벨론 군대에게 잡혀 그들의 땅으로 끌려갈 것을 가리킨다.
 (4) 즉 하나님께서는 24, 25절들을 통해 예전에 당신께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여호야김 왕을 이방 군대인 바벨론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용하실 것을 밝히신 것이다.
 (5)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한번 들어 쓰기로 하셨던 자일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치 아니하면 언제라도 버리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전 9:27).

26. ㉠ ‘너를 낳은 어미’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6, 27절)

- ㉠ (1) 그것은 여호야김의 아내이며 여호야김의 모친인 느후스다(Nehushta)를 가리킨다(왕하 24:8).
 (2) 그녀 역시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여호야김의 아내들과 내시와 관료들과 함께 그곳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다(왕하 24:12, 15).

27. ㉠ ‘이 사람 고니야는 천(賤)한 파기(破器)나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나’란 어떤 말 씀인가? (28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가 비록 한 나라의 왕이었으나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여호야김의 비참한 운명을 깨진 그릇에 비유한 말이다.
 (2) 이 비유는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 세상 지위의 고하(高下)에 관계 없이 엄정하게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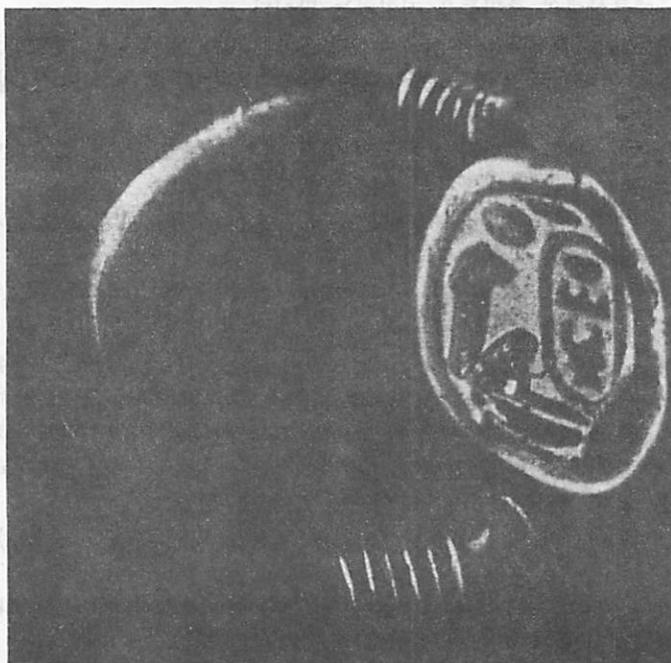
(3) 그러므로 오늘날의 통치자들도 이 교훈을 명심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28. **Q** '이 사람이 무자(無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란 어떤 말씀인가? (30절)

- A**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야긴 왕의 자손은 누구도 형통치 못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2) 이 예언대로 그에게 일곱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지만(대상 3:17) 그들 중의 누구도 아버지를 계승하여 왕이 된 자는 없었다.
 (3)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면 그의 후손까지도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욘 27:14; 시 21:10; 마 12:34).

화보자료

인장 반지(印章斑指). 아래 반지는 이집트에서 발견된 투트모스 3세(Thutmose III, B. C. 1482-1448)의 인장 반지이다. 현재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인장 반지'란 쉽게 설명해서 손가락에 끼고 다니도록 만든 도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도장은 곧 개인의 권위와 권한을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장으로 비유되기도 하였다(잠조, 24절; 학2:23).

제 23 장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범한 죄

단락구분 1-4 하나님께서 들어진 양 띠의 회복을 약속하시다 / 5-8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한 왕 / 9-22 거짓 선지자들이 행한 악과 그들이 받을 재앙 / 23-32 말씀하시는 여호와와 / 33-40 예언의 말씀을 조롱한 유다 백성이 수치를 당하게 되다

1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흠은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2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흠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3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물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4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5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6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7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8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방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거하리라 하시니라

9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잠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10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다 저주로 인하여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다 사탄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2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3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14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름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15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16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의 강퍽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 누가 여호와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19 보라 나 여호와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0 나 여호와와의 노는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21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

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23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
 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나

24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
 만하지 아니하나

25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26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
 을 예언하느니라

27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
 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
 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28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
 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
 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29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
 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나

30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1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
 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
 리라

32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
 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
 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

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
 호와의 말이니라

33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
 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34 또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
 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
 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35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
 제에게 물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랴 응답하였
 으며 무엇이랴 말씀하셨느뇨 하고

36 다시는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증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
 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니라 하고

37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랴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
 이랴 말씀하셨느뇨

38 너희는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
 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
 게 보내어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
 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와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39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
 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어
 버려

40 너희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
 치를 당케 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 **㉠** 본장에서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횡포와 그들이 받을 재앙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유다 백성과 함께 재앙을 받게 될 것을 선포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범한 죄란 하나님의 말씀대신 자신들의 말을 백성에게 전한 것을 가리킨다.
- (3) 즉 본장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말을 전하면 그들 뿐 아니라 그 말을 듣고 따른 사람들까지도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4) 그러므로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평신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을 구별할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숙해야 한다.

2.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화(禍)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는가? (1, 2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장 양무리를 멸하며 흠는 목자에게 화가 있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의 흠는 목자란 하나님을 찾지 않고(10:21) 유다 백성을 바른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예레미야 때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거짓 목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지각(知覺)이 없고 쾌락을 좋아하며(사 56:10-12) 평신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뿐 아니라(50:6) 그들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겔 34:2, 3).

(4) 만일 이 같은 목자가 있다면 그는 화를 당하기 전에 깊이 회개해야 하며 평신도들은 그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한다.

3. **㉠**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몰아내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란 어떤 말씀인가? (3절)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과의 전쟁 후 그들의 땅으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을 다시 본토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2) 이 예언은 B. C. 536년 스룹바벨의 인도를 따라 유다 백성이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기 시작함으로써 성취되기 시작했다(스 2:1, 2).

(3) 그런데 하나님께서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용하신 것은 그 포로 기간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였다(참조, 약 1:3; 벨전 1:7).

(4)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자비를 깊이 깨닫게 된다.

4. **㉠** 포로 시대 이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기르는 새 목자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그것은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縮)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2)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과 포로 시대의 와중(渦中) 속에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피곤하고 불안한 유다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새 목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을 가리킨다.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과 이단들이 날뛰어 영적으로 평안함이 없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선한 목자들(창 31:38-40; 삼상 17:34-36; 눅 15:3-6)을 우리에게 보내 주시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5. **㉠** '가지'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인가? (5절)

㉠ (1) '가지'는 히브리어로 <체마크>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나뭇가지가 아니고 줄기를 잘랐기 때문에 뿌리만 남아 있는 곳에서 돌아난 싹을 말하며 다른 성경에서는 순이라고 하였다(참조, 슥 3:8; 6:12).

(2) 여기의 싹은 B. C.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멸망한 다윗의 왕조에서 새 왕이 탄생하여 통치하실 것을 가리키는데(참조, 사 11:1-5)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3) 즉 예레미야는 5절에서 그리스도를 베어 버리고 남은 뿌리에서 돌아난 싹에 비유하여 다윗의 왕조는 멸망했지만 유다 왕국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지배받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다.

6. **㉠** 그의 날, 즉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때에 유다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6절)

㉠ (1) 그때에 유다는 구원을 얻고 평안히 거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

(2) 여기의 구원은 단순히 바벨론으로부터의 정치적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의미한다.

(3) 또한 평안히 거한다는 것은 전쟁이 그쳤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영원한 평안을 뜻한다(롬 5:1).

(4)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과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시 91:10; 요 14:6).

7. **㉠**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가지가 어떠한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셨는가? (6절)

㉠ (1)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가지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았다고 하셨다.

- (2) 여기서 ‘여호와 우리의 의(義)’란 장차 유다에 임할 의로운 그리스도가 가지인 다윗의 왕조를 이어받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인간까지도 의롭게 하실 수 있다(참조, 고전 1:30).

8. **㉠** 7, 8절에 나타난 두 가지 맹세들은 무엇인가?

- ㉠** (1) 그것들은 출애굽 사건에서 연유(緣由)하는 맹세와 장차 일어날 바벨론에서 풀려 날 사건에서 연유하는 맹세인데 이 두 사건은 모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참조, 16:14, 15).
- (2) 그런데 7, 8절엔 날이 이르면 유다 백성들이 전자(前者)가 아닌 후자(後者)로 맹세하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후자의 맹세가 나오게 된 사건, 즉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은 사건은 전자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왜냐하면 그 사건은 미래에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에 대한 일종의 서곡(序曲)이기 때문이다.

9. **㉠** 9절에는 예레미야의 어떤 상태가 묘사되어 있는가?

- ㉠** (1) 9절에는 예레미야가 그의 중심이 상했으며 뼈가 떨리며 취한 사람처럼 되어 버린 상태가 묘사되어 있다.
- (2) 그런데 그가 이와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당시의 악한 거짓 지도자들의 악행(10-15절)으로 멸망하게 될 유다의 미래를 생각하고 의분(義憤)이 북받쳤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그가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며 백성들이 당할 고통엔 마음 아파하는 참된 지도자의 면모를 지닌 사람인 것을 가르쳐 준다.
- (4) 이 같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일반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의를 행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그들이 자신들 때문에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조, 겔 34:2,3; 요 10:12).

10. **㉠**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草場)들이 마르나니’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0절)

- ㉠** (1) 그것은 가뭄으로 유다의 전땅이 마르고 초목이 말라 버렸던 비참한 사실을 가리킨다(참조, 14:1-9).
- (2) 그런데 그 땅과 그 땅의 초목이 그와 같은 가뭄을 당한 것은 그 땅 위에 거(居)하는 백성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의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했다는 말은 악한 일에 열심을 낸다는 뜻이다.
- (3) 즉 유다 땅은 그 땅에 사는 유다 백성이 악을 행하는 데에 열심이었기 때문에 가뭄을 당한 것이다(9:2).
- (4) 이것은 한 나라의 백성이 열심으로 악을 행하면 그 백성이 거하는 땅까지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11. **㉠** ‘이 땅에 행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0, 11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이 모두 다 영적(靈的)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유다 백성 모두가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른 것은 당시의 선지자와 제사장이 모두 사특(邪惡)했기 때문이다.
- (3) 여기의 사특했다는 것은 그들 자신들의 집에서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까지 우상을 섬겼던 것을 가리킨다.
- (4) 즉 유다 백성들은 영적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를 본받아 자신들도 우상을 숭배하므로써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었던 것이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재물이나 사회적 신분 등

을 더 중요하게 여겨 그것을 자신의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들을 바라보는 성도들도 자신들 나름대로의 우상을 갖게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영적 지도자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2. **㉠**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한 유다의 선지자와 제사장의 길이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하셨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흑암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침을 받아 그 위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하셨다.
 (2) 이 말은 악을 행한 사는 위태로움 가운데서 불안해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멸망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참조, 잠 11:5).
 (3) 사실 하나님을 떠나 버린 악인은 매순간이 멸망의 순간이며 그가 지금 당장 멸망하지 않는 것은 멸망을 유보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참조, 전 10:8).

13. **㉠**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13절)

- ㉠** (1) 그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킨다.
 (2)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참조, 사 2:11, 12)인 바알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였다(왕상 12:27-33).
 (3) 이러한 악하고 거짓된 선지자들의 타락으로 인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은 B. C. 722년 앗수르에게 멸망하고 말았다(왕하 17:1-6).

14. **㉠**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선지자들, 즉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고 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소돔이나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다고 하셨다.
 (2) 소돔 사람과 고모라 사람은 그들 중에 단 열 명의 의인이 없을 정도로 악했기 때문에(창 18:32) 불 바다가 되어 버린 소돔과 고모라 땅의 거민들을 가리킨다(창 19:24, 25).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의 거민과 다름이 없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 것과 악한 정치 지도자들의 폭정(22:17)을 두둔한 악이 불 바다가 된 소돔과 고모라 땅의 거민의 악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4) 그러므로 유다 땅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불 바다가 될 수밖에 없었다.

15. **㉠**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먹이고 마시우겠다고 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겠다고 하셨다.
 (2) 여기서 '썩'은 그 수액(水液)이 몹시 쓴 팔레스틴 광야에서 나는 식물을, 독한 물은 양귀비 잎의 즙을 말하는데 이 둘은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을 의미하는 말로 자주 사용되었다(8:14; 9:15; 잠 5:4; 애 3:19).
 (3)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릴 것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분께서 것처럼 가혹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로 자신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까지 범죄케 하였기 때문이다.
 (4) 민수기에 보면 광야 시대 때 발람이란 사람도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고 또한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다가 그 자신 뿐 아니라 많은 백성까지 죽게 하였다(참조, 민 25:1-3; 31:16, 17).
 (5) 이 같은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과 발람의 예를 경고로 받아들여 오늘날의 지도자들도 범죄하지 않으려고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

16. **㉠** 하나님께서 들지 말라고 하신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하겠다'라고 한 것과 자기의 마음이 강

פק한 대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겠다’ 라고 한 것이다.

- (2) 이 예언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과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정반대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참조, 8:11).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단들이다(벤험 2:1).
- (4) 우리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같은 이단주의자들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여야 한다.

17. **㉠**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에 참여(參與)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가? (18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
- (2) 여기의 ‘회의’는 히브리어로 <쓰드>로서 ‘친숙한 교제’를 의미하는 말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실 일을 비밀리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종에게 알리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이다(암 3:7).
- (3) 즉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당신이 행할 바를 알리신 적이 없음을 나타내시어 그들이 거짓 선지자임을 강조하신 것이다.

18. **㉠** 하나님께서는 마치 무엇처럼 거짓 선지자들의 머리를 치겠다고 하셨는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의 머리를 치겠다고 하셨다.
- (2) 여기서 ‘폭풍과 회리바람’은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무서운 환난이 닥칠 것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이처럼 심한 환난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퍼부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교만한 중에 어렵고 힘든 미래를 평안하다고 거짓 예언을 하여 백성을 미혹했기 때문이다(17절).
- (4)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주님의 재림과 같은 지구의 종말의 때를 함부로 예언하거나 세상에서의 삶을 영원한 것으로 말하는 거짓 목회자들이나 이단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심한 징계를 받게 된다(참조, 마 7:15; 24:11; 막 13:22).

19. **㉠** ‘그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0절)

- ㉠** (1) ‘그것’이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즉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유다 백성의 거짓 선지자들이 회개하도록 하시려는 의도를 가리킨다.
-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이 말일(末日)에야 당신의 그 의도를 완전히 깨닫게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일이란 그 징계가 끝난 뒤를 말한다.
- (3) 즉 거짓 선지자들은 징계가 완전히 끝이 난 뒤에서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자신들에게 내리신 징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이다.
- (4) 이것은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매했는가를 보여 주는 예이다.

20. **㉠**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달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이란 어떤 말씀인가? (21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당시의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지자로 보내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자신들 나름대로 예언을 선포했던 것을 지적하신 말씀이다.
- (2)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닐수록 더 열심을 내어 자신이 만들어 낸 말을 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이단주의자들일수록 더 열심히 자신들의 교리를 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그 같은 헛된 열심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갈 1:14).
- (4) 또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데도 그토록 열심을 내는 것을 깨

닫고 참복음을 가진 우리는 그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한다(갈 4:18; 벰전 3:13).

21. **㉠**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으셨는가?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यो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라고 물으셨다.
 (2) 하나님께서 이 물음을 하신 이유는 당신께서는 어디든지 계심을 강조하시기 위해서였는데 그 같은 사실을 강조하시게 된 동기는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들의 주관적인 관념대로 하나님은 제한된 지역에만 존재하시는 분으로 간주하였었기 때문이다.
 (3)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이나 계신 분임을 깨닫고 우리는 개방된 곳에서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동해야 한다(참조, 시 139:8).

22. **㉠** '내가 몽사(夢事)를 얻었다 몽사를 얻었다'란 어떤 말인가? (25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유혹(誘惑)하기 위해 떠들던 말이다.
 (2) 말하자면 그들은 몽사, 즉 꿈을 통한 특별한 계시를 얻었다고 말한 것인데 당시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우매하여 그 말을 받아들여 그들이 참선지자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데 영적으로 우매한 자는 그 말에 현혹(眩惑)될 수 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기록된 성경을 일점 일획도 틀림이 없는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딤펴전 6:3).

23. **㉠** '그 생각인즉'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7절)

- ㉠** (1) 여기서 '그'는 거짓 선지자들이 몽사를 말한 것을 가리키고 '생각'은 히브리어로 <하라브>로서 '계획하다'라는 뜻이니 '그 생각인즉'이란 '거짓 선지자들이 몽사를 말하기로 계획한 목적은'이란 뜻이 된다.
 (2)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몽사를 말하기로 계획한 목적은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였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즉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본 환상이나 체험한 신비스러운 일만 자랑하는 자들이다.
 (4) 우리가 이러한 자들을 좋게 여겨 따르다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됨을 깨닫고 그와 같은 자들을 멀리하고 말씀과 더욱 친근한 삶을 살아야 한다(딤펴 3:10).

24. **㉠** 28, 29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비유되었는가?

- ㉠** (1) 이 두 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 '밀', '불', '방망이' 등으로 비유되어 있다.
 (2)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에 비유된 것은 그 말씀이 '도가니에서 단련한 은'같이 흠이 없고 완전한 진리인 것을 가리킨다(시 12:6).
 (3)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밀'에 비유된 것은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자는 그의 영혼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마 4:4; 히 5:12-14).
 (4)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방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정계의 도구가 된다는 말이다. 즉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불과 방망이로 심판을 하신다는 의미이다(50:23).
 (5)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대로 순종하면 한없는 유익이 되지만 거역하면 멸망을 가져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25.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치시겠다고 하셨는가? (30-32절)

- ㉠** (1) 하나님께서는 세 종류의 사람을 치시겠다고 하셨는데, 첫째는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

지자'를, 둘째는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세째는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백성을 미혹(迷惑)하게 하는 자'를 가리킨다.

- (2) 여기서 첫째의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끼리 모여 계획적으로 음모를 꾸민 뒤 통상적 방법에 따라 허구(虛構)를 퍼뜨리는 자를 말한다.
- (3) 둘째의 사람은 거짓 교사들의 오만함을 보여 주는데 그들의 말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지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미사 여구(美辭麗句)로 인간적 사상을 각색한 뒤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다.
- (4) 세째의 사람은 꿈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로 유혹하는 자들이다.
- (5) 이런 자들을 통상적으로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내지도 않았고 명하지도 않으셨다고 하였다.
- (6)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이런 부류 가운데 한 곳에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불'과 '방망이'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26. ㉠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 (33, 34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다.
- (2)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의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나고 물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무엇이나고 물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재앙에 대한 예언을 비웃은 것을 가리킨다.
- (3) 그같이 하나님의 예언을 비웃은 자들을 향해 예레미야는 그들과 그들의 집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선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자는 징벌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왕하 2:23-25).

27. ㉠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알려 주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취해야 할 태도와 버려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35, 36절)

- ㉠ (1) 먼저 그들이 버려야 할 태도는 '여호와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경건과 업신여기는 태도이며 취해야 할 태도는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라고 묻는 태도이다.
- (2) 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겠다는 겸손한 태도를 가리킨다.
- (3) 이것은 현대를 사는 우리도 취해야 할 태도인데 우리가 그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할 이유는 그런 태도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망령되어 행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출 20:7).

28.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계속해서 당신의 말씀을 조롱하면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셨는가? (38-40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란 바벨론의 침입을 통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유다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다(왕하 25:8-12).
- (3)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는 완전히 멸망당하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일에 대해서 철저히 그 일을 규명해서서 당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시고야 만다.

제 24 장 예레미야가 본 무화과 환상

단락구분 1-3 예레미야가 본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환상 / 4-7 좋은 무화과가 뜻하는 의미 / 8-10 나쁜 무화과가 뜻하는 의미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나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2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니이다

4 여호와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6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

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7 내가 여호와와인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같이 버리되

9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흠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치욕을 당케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10 내가 칼과 기근과 열병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로 내가 그들과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1. ㉠ 본장에 기록된 환상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종류의 무화과를 환상을 통해 보여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두 종류의 무화과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말하는데 전자(前者)는 유다 백성이 포로 귀환을 그리고 후자는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자들의 멸망을 각각 상징한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종류의 무화과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과 잡혀가지 않은 채 남아 있던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의 운명을 명백히 알게 하신 것이다.

2. ㉠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환상을 통해 예레미야에게 보이신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나, 즉 여호야긴(참조, 28:4)과 유다 방백(方伯)들과 목공들과 철공 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였다.
- (2) 이것은 여호야긴 왕의 재위 3개월이 못 되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와(B. C. 597) 여호야긴이 항복하므로 각계 각층의 유다 백성과 함께 그가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제 1 차 포로 때를 가리킨다(왕하 24:12; 대하 36:10).

3. ㉠ ‘철공들’이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 (1절)

- ㉠ (1) ‘철공들’은 히브리어로 <마섹겔>인데 자수를 놓거나, 조각을 하고, 보석 세공의 기술을

지닌 자들을 의미한다.

- (2) 그러나 본절에서는 ‘철공’이 갑옷이나 화살 같은 무기를 만드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 여호야킨을 비롯한 국가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이들도 함께 잡혀가는 것을 허용하셨다.
- (4) 그 이유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이 그들과 같은 무기 제조자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었다.
- (5)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대상을 빼앗아 버리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사3:1,2).

4. **㉠** ‘무화과’란 어떤 과일인가? (1절)

- ㉠** (1) ‘무화과’란 가나안 땅의 특산물로서(신8:8) 6월에 첫 열매가 익고(사28:4), 늦은 열매들은 8월부터 익기 시작한다.
- (2) 이 과일은 즙이 많고 속이 빈 꽃받이가 있고 그 빈 꽃받이 안에 꽃이 있기 때문에 그 꽃을 보려면 열매를 잘라야만 한다.
- (3) 또한 이 과일이 달리는 무화과나무는 무성하고 커다란 잎사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물 옆에 많이 심기워져 물길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 (4) 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할 때나 그들의 번영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는데(왕상4:25; 미4:4) 본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쓰여졌다.

5. **㉠**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 주신 두 광주리에는 각각 무엇이 들어 있었는가? (2절)

- ㉠** (1)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다른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었다.
- (2) 여기의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을, 악한 무화과는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에 남아 있던 자들과 애굽으로 도망하여 다시는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자들을 비유하는 말이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실제 물건을 보여 주시는 것은 당신이 주시려는 교훈을 예레미야가 실감나게 그리고 명확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6. **㉠** 하나님께서 좋은 무화과를 지적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의 첫마디는 무엇이 있었는가? (4,5절)

- ㉠** (1) 그것은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 (2) 여기서 ‘보아 좋게 할 것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을 좋게 보신다는 뜻이니 첫마디 말씀 전체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자들을 좋게 여기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악했던 유다 백성 중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좋게 여기시는 것은 그들이 포로지에서 회개했기 때문이다.
- (4) 이것은 아무리 지은 죄가 중한 자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좋게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눅15:11-24).

7. **㉠**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란 어떤 말씀인가? (6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백성들이 장차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다.
- (2) 그런데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이 택하셨기 때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짓고 타락하여 사단의 자녀처럼 오랫동안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단 택하신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롬8:23).

8. **㉠** 어떻게 할 때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을 주실 때 그렇게 된다.
 (2) 여기의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이란 구원받게 되는 마음을 가리킨다(롬 10:10).
 (3) 즉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자신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엡 2:8, 9).
9. **㉠**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에 비유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거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한 자들을 악한 무화과에 비유하셨다.
 (2)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악한 무화과에 비유하신 것은 사람이 악한 무화과는 먹지 않고 버리듯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 재앙받게 하실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
 (3) 그런데 그들을 그같이 버려 재앙받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임했을 때 겸손하지 않고 도리어 포로가 되지 않은 것을 자기들의 공로나 의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4) 이것은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 어떤 재앙이 닥칠 때 그 재앙을 인간적인 술수나 방법을 동원해 피한 후 그 피한 것을 자기의 의(義)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더 큰 재앙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참조, 눅 13:1-5).
10. **㉠** 하나님께서는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9,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계 열방에 흩으셔서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하셨다.
 (2)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들이 당해야 할 수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대항하였을 때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셨다(참조, 신 28:37; 왕상 9:7).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무리 완전하다고 자랑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우(愚)를 범하면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본장의 요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5절).



제 25 장 유다와 이방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

단락구분 1-11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예언하다 / 12-14 바벨론의 죄후를 예언하다 / 15-26 하나님께서 열국을 징벌하실 것이다 / 27-29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징벌 / 30-38 이방 열국의 죄후

1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사 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고하여 가로되

3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십 삼 년부터 오늘까지 이십 삼 년 동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4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5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악한 길과 너희 악행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옛적에 주어 영원히 있게 한 그 땅에 거하시니

6 너희는 다른 신을 좇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을 인하여 나의 노를 격동치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8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9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이 놀랩과 치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영한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라

10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땃들소리와 등 불빛이 끊쳐지게 하리니

11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랩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칠십 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칠십 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히 황무케 하되

13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니

14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의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시니라

15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16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시기로

17 내가 여호와와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18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방백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랩과 치소와 저주를 당함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19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20 모든 잡족과 우스 땅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와

21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22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저편 섬의 왕들과

23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털을 모지게 깎은 모든 자와

24 아라비아 모든 왕과 광야에 거하는 잡족의 모든 왕과

25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26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 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27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라 하셨다 하라

28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29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먼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30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부르시며 그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며 그 양의 우리를 향하여 크게 부르시며 세상 모든 거민을 대하여 포도 밭은 자같이 외치시리니

31 요란한 소리가 땅 끝까지 이름은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붙이심을 인함이라 하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32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대풍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33 그 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륙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본토가 되리르다

34 너희 목자들이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 떼의 인도자들이 재에 굴라 이는 너희 도륙을 당할 날과 흠음을 당할 기한이 참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의 떨어짐같이 될 것이라

35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 떼의 인도자들은 도피할 수 없으리르다

36 목자들의 부르짖음과 양 떼의 인도자들의 애곡하는 소리여 나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으로 황폐케 함이로다

37 평안한 목장들이 적막하니 이는 여호와와의 진노의 연고로다

38 그가 사자같이 그 소혈에서 나오셨도다 그 잔멸하는 자의 진노와 그 극렬한 분노로 인하여 그들의 땅이 황량하였도다

1. ㉠ 본장에 언급된 두 가지 예언을 설명하라.

- (A) (1) 본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행하던 유다 백성을 징벌하실 것과 악한 죄를 범한 이방 열국을 진멸하실 것에 대해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셨으나(출 20:4-6; 레 26:1; 신 27:15; 시 97:7), 그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그들에게 적용시키셨고 결국(출 34:14; 신 4:24; 6:15; 수 24:19) 그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 (3) 한편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한 이방 열국들도 그들의 죄(50:29; 51:24)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하고 말았다.
- (4)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들의 죄값을 찾으신다(참조, 갈 6:7).
- (5) 따라서 성도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2. ㉡ 여호야김은 어떤 인물인가? (1절)

- (A) (1) 여호야김은 B. C. 608-597년을 통치한 유다의 18대 왕이었다.
- (2) 그는 동생의 왕위를 계승한 자로서, 요시아의 둘째 아들인데 반(反)애굽 세력인 동생 여호아하스가 애굽 왕 느고(Necho, B. C. 610-595)에 의하여 폐위(廢位)되고 대신 친(親)애굽 세력인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 (3) 한편 그의 본명은 엘리야김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리라'는 뜻인데 왕위에 오르면서 여호야김으로 바뀌었다. 바뀐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셨다'이다.
- (4) 그는 25세 때 왕위에 올라(대하 36:5) 친애굽 정책을 펴왔으나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 전투(B. C. 605)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므로(왕하 24:1-7)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었다.
- (5) 그의 정치는 백성에게 압제를 행하고 사치하며 강포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비난을 받았다(22:13-19).
- (6) 또한 그는 징계를 내린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우는

불경한 죄를 범했다(36:23).

- (7) 한편 여호야김은 그의 말년에 바벨론에 대하여 반역하였기에 B. C. 597년 2차 포로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잡혀갔다(대하 36:6).
- (8)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예언(22:19;36:30)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그분의 공의(公義)를 증명한 것이다.

3. **㉠** 유다 백성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 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B. C. 605)이었다.
- (2) 또한 예레미야가 예언을 시작한지 23년째 되던 해였다. 즉 요시야 왕 13년에 그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아(1:2) 요시야 왕 때에 19년(참조, 왕하 22:1)을 그리고 여호야김 치하에서 4년을 활동하였으므로 23년이 된다.
- (3) 이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B. C. 605년에 유다를 침공하여 다니엘과 유다 백성을 1차로 잡아간 해이기도 한데 단 1:1에 여호야김 3년이라고 기록한 것과 차이가 있다.
- (4) 그런데 여기서 1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자의 역사적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 (5) 즉 바벨론에서는 왕이 즉위한 다음해를 재위 1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벨론식 계산법으로 여호야김이 즉위한 다음해부터 계산하여 3년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4. **㉠**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누구에게 전했는가? (2절)

- ㉠** (1) 그는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 (2) 즉 본질은 말씀을 받아야 할 사람이 특정한 일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임을 보여 준다.
- (3)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따라서 그 말씀을 받고 깨달아 회개한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참조, 은 3:5-10) 수용(受容)하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된다(참조, 창 6:5-7; 마 24:37-39).

5. **㉠**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유다에 보내어 경고하셨으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당신의 종들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 (2)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선지자들을 계속 파송하시며(7:13; 29:19; 대하 36:15),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여전히 패역한 생활을 지속하였다.
- (3)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위해 파송하신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위시하여 우리야(B. C. 609, 26:20)와 스바냐(B. C. 630, 습 1:1), 그리고 하박국(B. C. 합 1:1 626) 등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당신의 종들을 보내사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권고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순종하는 패역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야 한다.

6.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이키면 무엇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악행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에 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 (2) 여기서 보여진 하나님의 요구는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친 말씀이다(참조, 18:11; 왕하 17:13; 겔 18:30; 33:11).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창 17:7) 이어서 여러 번 그 약속의 계속성을 확인해 주셨다(7:7; 시 105:10, 11).
- (3)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함을

보여 준다.

7.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 대하여 노를 발하시는 원인은 무엇인가? (6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였으므로 노를 발하셨다.
 (2)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이며 또한 금지시키신 행위이다(출20:3-6; 신5:7-10; 왕하17:35).
 (3) 왜냐하면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출20:5;34:14; 수24:19; 나1:2)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사랑이 우상에게 바쳐질 때 그분께서는 노를 발하시게 된다. 여기서 노를 발한다는 것은 인간의 감정처럼 파괴적이고 편협한 감정을 폭발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공의를 실현하신다는 말이다.
 (4)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그치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수하고 진실된 사랑을 바쳐야 한다.

8.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그칠 때 어떻게 한다고 약속하셨는가? (6절)

- ㉠** (1)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를 그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다.
 (2) 바꾸어 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유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 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사례는 많다.
 (3) 그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 당시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3,000명이 죽임을 당한 사건(출32:1-6, 25-29)과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우상을 숭배하므로 기근(왕상17:1)과 전쟁과 정치적 혼란(왕하15:8-31)이 끊이지 않았음을 들 수 있다.
 (4)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히스기야나 요시아는 안정된 정치를 할 수 있었다(왕하18:1-8;22:1-23:25).
 (5)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여 완전한 신앙 생활을 한다면 그분의 진노를 피할 뿐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으로 평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9. **㉠**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만든 결과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하였는가? (7절)

- ㉠** (1) 그 결과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므로 해를 받았다.
 (2)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돌아서지 않고 계속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므로 진노하셨다.
 (3)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한 기회를 놓친 자들에게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신다(참조, 갈6:7)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0. **㉠**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어떻게 될 것인가? (8, 9절)

- ㉠** (1) 그들이 불순종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국을 유다에 보내셔서 그 땅을 진멸하시고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실 것이다.
 (2)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보여 준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불순종하는 자들을 징계하시는데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27:6;43:10;사10:5;44:28) 하셔서라도 징계하시며 또한 불순종하는 자들과 동맹한 자들까지도 진멸하신다(참조, 사3:1, 2).
 (3) 그런데 유다와 동맹하여 바벨론에 대적한 나라는 애굽(37:5;겔29:19), 모압, 두로(겔29:19), 그리고 수리아 등인데 그들 역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46-49장).
 (4)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주위의 어떤 세력을 의지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5)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이나 건강, 미미한 지혜 그리고 권력 등을 의지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11. **㉠ 불순종한 유다 백성의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 ㉠** (1) 그 땅은 하나님의 진노로 영영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2) 즉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자연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창3:17, 18)과 같다.
 (3) 하나님의 진노는 이와 같이 당신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가 자연 뿐 아니라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받는다(참조, 출20:5).

12. **㉠ 느부갓네살은 어떤 인물인가? (9절)**

- ㉠** (1) 그는 갈대아 왕조의 창시자인 나보폴라살(Nabopolassar)의 장자로서 B. C. 605-562년 동안 바벨론을 통치한 왕이었고 느부갓네살 2세(Nebuchadnezzar II)로 불리어졌다.
 (2) 한편 그는 갈그미스(Charchemish) 전투에서 애굽의 느보에게 대승을 거두고(46:2) 애굽과 팔레스틴 지역의 통치권을 장악하였고 4 차례 걸쳐 유다를 침공하여 많은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갔다(B. C. 605, 단 1:1; B. C. 597, 왕하 24:14; B. C. 586, 왕하 25:6-12; B. C. 581, 왕하 25:22-26).
 (3) 그래서 그는 자기의 왕권이 커지자 두라 평지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자기의 주권 아래 있던 모든 백성들에게 참배하도록 하는 교만한 행동을 하였다(단 3:11).
 (4) 그렇지만 이렇게 큰 왕권으로 인하여 교만했던 그에게도 '리간드로삐'라는 지병(持病)이 있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동물로 여기는 일종의 정신병이었다. 그래서 그는 소처럼 들에서 풀을 먹으며 7년을 지냈다(단 4:19-33).

13. **㉠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유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혼인의 기쁜 소리와 땃들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2)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즐거운 일이 없어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 궁핍할 것을 가리킨다.
 (3) 그런데 유다에 대하여 이런 경고가 계속하여 주어졌음에도(7:34; 16:9; 전 12:4; 사 24:11, 12; 겔 26:13)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으므로 결국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주어졌다(11절).
 (4)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더 강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속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14. **㉠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땅이 황폐해지고 또한 70년 동안 바벨론을 섬길 것이라고 하셨다.
 (2) 이 70년이란 기간은 유다 백성이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한 B. C. 605년(단 1:1)부터 바사 왕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 유다 백성의 귀환을 허락하여 1차로 귀환한 B. C. 536년(대하 36:22, 23; 스 1:1-4) 까지를 가리킨다.
 (3)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국 유다 땅은 전쟁터가 되어 농사를 짓지 못하므로 황무지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감으로 경작할 사람이 없어 토지가 황폐해졌다.
 (4)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대한 그분의 징벌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무서운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발견해야 한다.

15. **㉠ 유다의 70년 포로 생활이 지나면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 13절)**

- ㉠** (1)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계획하신 징계의 기간이 지나면 바벨론은 그들의 죄로 인해 그분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망하게 될 것이다.

- (2) 즉 70년 후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 의해 망하고 유다가 회복이 된다는 말인데 이러한 사실은 다리오가 갈대아 왕 벨사살을 죽이고 왕권을 잡음으로 (단 5:30) 성취되었다.
- (3) 이는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참조, 사 10:5)에 불과함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통해 성도들이 죄를 깨닫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16. **㉠**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의하여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 ㉠** (1) 바벨론은 자신의 죄로 인해 징벌을 받아 다른 나라와 큰 왕들의 역군(役軍)이 될 것이다.
- (2) 이 말씀은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한 것으로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되었다(B. C. 539).
- (3) 바벨론은 자기들의 세력이 크게 확장되자 스스로 교만해졌고(단 3:1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셨다(50:29-32).
- (4)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스스로 멸망의 무덤을 파는 것과 다를 바 없다(참조, 잠 16:18).

17. **㉠**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잔을 선지자에게 주셨다.
- (2) '진노의 잔'이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다. 그것은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이런 비유를 사용하였다(사 51:17, 22; 젤 23:31-35; 함 2:15).
- (3)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 큰 벌을 준비하셨으나 예수께서 그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잔의 고통을 아시고 피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셨다(마 26:39).
- (4)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잔을 선지자에게 주신 이유는 당신의 뜻을 펴는 데 그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다. 즉 바벨론을 진노의 잔으로 삼아서 당신의 뜻을 실천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18. **㉠**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잔을 받은 선지자는 무엇을 하며, 그 잔을 마신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5, 16절)

- ㉠** (1) 선지자는 진노의 잔을 받아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할 것이고, 그것을 마신 자들은 비틀거리며 미칠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게 주신 권세로 자신이 징계하시기로 작정하신 나라를 멸망시키시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 (3) 결국 부패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로 인하여 부끄러움과 패망의 쓰라림을 맛보게 될 것이다(참조, 시 75:8; 사 51:17; 애 4:21; 제 14:10).

19. **㉠**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노의 잔을 누구에게 먼저 주었는가? (18절)

- ㉠** (1) 선지자는 먼저 그 잔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방백들에게 마시게 했다.
- (2) 이처럼 진노의 잔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먼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벧전 4:17)되며 택한 백성이라도 그들이 범죄할 때 형벌을 면할 수 없음을(참조, 잠 11:31; 롬 11:21) 보여 준다.
- (3)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일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이뤄 나가야 한다(참조, 시 32:6; 딤후 4:7, 8; 벧후 2:9).

20. **㉠** 진노의 잔을 받은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18절)

- ㉠** (1) 그들은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저주를 당할 것이다.

- (2) 이 말씀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律法)을 범하고,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므로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것을 가리킨다(단 9:11, 12).
- (3) 그런데 그들이 당한 재앙은 여호야김부터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당한 침략을 말한다.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이들이 당했던 이런 극심한 재앙을 받은 곳이 없었다(단 9:12).
- (4)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그분의 경고를 청종(聽從)치 않을 때 유다 백성들처럼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21. ㉠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어 누구에게 진노의 잔을 주셨는가?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진노의 잔을 주셨다.
- (2)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어 하나님께서 애굽에 진노의 잔을 주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애굽을 자기의 동료로, 또한 자기들의 소망으로 삼았기 때문이다(참조, 46:25).
- (3) 따라서 유다의 후원자가 된 애굽은 유다와 동일한 자들로 취급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다(43:10-13).
- (4)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불의와 함께 하지 않고, 또한 불신자와의 비신앙적 관계도 끊어야 한다(참조, 고전 10:21; 고후 6:14-16; 엡 5:11; 요 일 1:6).

22. ㉠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 어느 도시에 진노의 잔을 주셨는가? (20절)

- ㉠ (1)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에게 진노의 잔을 주셨다.
- (2) 이들도 역시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다(암 1:6-8).
- (3) 한편 이 도시들은 블레셋의 대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 도시에게 진노의 잔을 주신다는 것은 블레셋 지역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23. ㉠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은 자는 누구인가? (26절)

- ㉠ (1)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으로 받은 자는 세삭 왕이다.
- (2) 여기서 세삭은 바벨론을 가리키는데(참조, 51:41) 마지막으로 바벨론이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유다와 이방 열국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도 열방과 마찬가지로 당신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들이었기 때문이다(50:9).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이 흉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죄의 결과로 죽음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시 37:1, 2; 잠 24:1, 19-22).

24. ㉠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는가? (27절)

- ㉠ (1)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
- (2)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칼을 보내셨기 때문이다(25:16; 겔 38:21).
- (3) 이 진노의 잔을 마시는 자는 자기가 또한 더러움 속에서 뒹굴고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25:15, 16; 사 19:14; 28:8). 하나님의 진노는 최악이 관영한 나라에 반드시 임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25. ㉠ 진노의 잔을 안 마시려고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28절)

- ㉠ (1) 진노의 잔을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반드시 마시게 될 것이다.
- (2) 이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결코 없다는 말이다(참조, 시 67:4; 98:9).
- (3)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창 2:17) 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49:12).
- (4) 따라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외부 세력을 등에 업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 해도 그분의 작정하신 것은 바꿀 수 없다.

26. **Q**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자가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셨는가? (29절)

- A** (1)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내리시기 때문이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소중히 여기시는 자를 심판하시는데 하물며 이방 열국들이야 재앙을 피할 근거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 (3)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므로 순종치 않은 자들이 받아야 할 심판이 더 크다는 것(벧전 4:17, 18)을 우리는 알 수 있다.
- (4)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도 자신의 위치에 너무 자만하여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망각한다면 그분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참조, 잠 11:31; 사 10:12; 암 3:2; 롬 11:21)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7. **Q**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어떤 예언을 하라고 하셨는가? (30, 31절)

- A**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장래에 있을 진노에 대한 예언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 예언은 진노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에 이르게 될 것에 관한 경고이다.
- (2) 즉 여호와께서 높은 곳,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발하시는데 요란한 심판의 소리가 양의 우리에서부터 세상 모든 거민에게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 (3)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땅 끝까지 이르게 되므로(사 66:6; 율 3:16; 암 1:2)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사 66:16; 율 3:2)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자 하는 자는 이런 진노가 임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참조, 마 3:2).

28. **Q**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32, 33절)

- A** (1) 그때에 재앙이 온 세상에 있을 것인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 (2) 그래서 재앙의 바람으로 인해 하나님께 살륙(殺戮)을 당한 자가 땅 끝까지 있을 것인데 그들은 슬퍼함을 받지 못하고 염습함을 입지 못하여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땅 위에서 흙이 될 것이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이 각 나라 사이에 전쟁으로 나타나(참조, 대하 15:6; 눅 21:10)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사 34:2) 그들은 결코 매장당하지 못하고 공중의 새들의 먹이가 되며 마침내 그들의 시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말 것을 가리킨다(참조, 8:2; 9:22; 16:4; 겔 39:4-20; 계 19:17).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당할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수 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시체가 매장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것을 가장 수치스러운 일중에 하나로 취급되었다(참조, 삼상 31:8-13).

29. **Q**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34절)

- A**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애곡하며 재에서 구르라고 하셨다.
- (2) 여기서 목자는 나라의 지도자를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미리 경고를 주셨다(22:22). 그런데 이 말씀은 경고를 무시한 목자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므로 피로워할 것을 묘사한 것이다.
- (3) 따라서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더 가혹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지도자들에게 충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약 3:1).

30. **Q** 목자들은 왜 애곡하며 재에서 구르는가? (34-36절)

- A** (1) 그 이유는 그들이 도륙과 흠음을 당할 기한이 왔기 때문이다.
- (2) 그날에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고 그들의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며 초장(草場)은 황폐케 될 것이다.
- (3) 그것은 목자들에게 이미 주어진 경고의 기한이 왔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잘못

된 목자들(참조, 속 11:5)은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다(참조, 시 139:7; 암 2:14)는 말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하시되 무작정 심판하시지 않고 반드시 돌아올 기회를 주신다(벧후 3:9). 그러나 그 기회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반드시 당하고 말 것이다.

31. **㉠** 목장들이 적막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37절)

- ㉠** (1) 목장들이 적막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2) 이전까지는 그들이 거하던 땅에서 평안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특권을 다 누렸으나 이제 는 그런 것을 박탈당하고 거처가 파괴되어 몰락할 것이다.
 (3) 즐거운 곳에는 언제나 요란한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기쁨의 소리가 없어지고 적막해진 것은 기쁨이 떠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기쁨의 찬송과 기도가 끊어져 적막하 다면 역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참조, 사 32:14).

32. **㉠** 여호와께서 사자같이 그 소혈(巢穴, 소굴, 거처)에서 나오심으로 그 땅은 어떻게 되 었는가? (38절)

- ㉠** (1) 하나님께서 떠나신 땅은 잔멸(殘滅)하는 자의 진노와 극렬한 분(忿)으로 황량하게 되 었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떠나시면서 그들이 대적들에 의해 약탈당할 것을 허용 하신 것이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백성은 원수들에 의해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 의 노략거리가 될 뿐이다(참조, 삼상 4:1-11).

화보자료

술마시다 싸움하 는 사람들. 술을 마 시다 감성(感性)이 흐트러져 서로 싸움 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은 15세기경의 작품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는 술 취한 자와 같다. 그 들은 감성과 지성이 마비 된자로서 부끄러움을 모 르고 죄악을 범한다. 멸 망 직전의 유다 백성들 도 역시 그러하였다. 하 지만 이들에게는 장차 하 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인즉 그들은 스스로 잔 을 기울이고 있다 하겠다 (15-18절).

제 26 장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설교하다

단락구분 1-7 예레미야가 회개를 촉구하다 / 8-9 예레미야가 체포되다 / 10-15 예레미야가 심문받다 / 16-19 방백과 백성이 예레미야를 변호하다 / 20-24 선지자 우리야의 예언과 죽음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와 그의 집 뜰에서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 그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기를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3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4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5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6 내가 이 집을 실로 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7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들더라

8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9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10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와 그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와 그의 집 새 문 어귀에 앉았대

11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12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13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교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14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15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녕히 무죄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16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17 때에 그 땅 장로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18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래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발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 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으나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교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20 또 여호와와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랴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매

22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22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23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24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 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유다 백성에게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 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온 세상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3) 그러나 제사장파 선지자와 온 백성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경고하는 선지자를 잡아 심문하고 죽이려 하였다.
- (4)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백들과 백성을 통하여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므로 예레미야의 생명은 보존되었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해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의 일꾼들을 보호하신다.

2. **㉠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즉위 초이다(B. C. 608).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을 보여 준다.
- (3) 즉 여호야김이 25세에 즉위하여 11년을 다스렸기 때문에(대하 36:5) 최소한 그 기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여유가 주어진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범죄하였다고 할지라도 일정 기간을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속히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참조, 신 30:8; 사 31:6; 호 14:7; 율 2:13).

3. **㉠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되 어떻게 전하라고 명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와 집 뜰에 서서 외치되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한 당신의 말씀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명하셨다.
- (2) 여기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겔 3:10).
- (3)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참조, 계 22:18, 19).
- (4)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종들은 어떤 탄압과 방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참조, 신 4:2; 12:12; 겔 3:17)을 따라 진리를 바로 증거해야 한다.

4.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3절)**

- ㉠** (1) 만약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것이라고 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하여 좋은 약점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를 보여 준다.
- (3) 즉 그분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진노하시지만(4:4) 오히려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는 자는 사랑으로 맞아 주신다(참조, 대하 30:9; 겔 33:11).
- (4)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돌아와 우리의 사랑을 바쳐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요일 1:9).

5.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당신의 말을 청종하지 않고 법을 행치 않으면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가? (4-6절)

-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당신의 법을 행치 않으면 그들의 집을 실로같이, 그들의 성을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로 만드시겠다고 하셨다.
 (2)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신 28:15)를 지키지 않으면 비록 실로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삼상 1:3, 24)이라 할지라도 황폐해지고 이방 민족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24:9; 49:13; 느 2:17; 사 43:28) 하셨다.
 (3) 이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도 그분의 법을 행하지 않고 말은 바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버림을 받아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참조, 마 5:13, 14).

6. **㉠** 하나님의 저주에 포함된 실로는 어떤 곳인가? (6절)

- ㉠** (1) 실로는 에브라임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쪽 32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2) 이곳은 여호수아 때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참조, 사 21:19; 삼상 1:3).
 (3) 한편 실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점령한 후 길갈에 이어 두 번째 진을 친 곳인데(수 14:6; 18:1) 그는 이곳에서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일곱 지파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
 (4) 그런데 실로는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법궤를 빼앗기므로(삼상 4:1-11) 그때부터 그곳은 중요성을 상실하였다.
 (5) 따라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실로와 같이 비참한 운명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7:12, 14).

7. **㉠** 어떤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7절)

- ㉠** (1) 예레미야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이었다.
 (2)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에게 그들을 향하여 당신의 말씀을 외치라는 명령을 하셨다(2절).
 (3)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들을 힐책(詰責)하며(23장) 그들의 양심을 자극하였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미혹하는 그들(23:32)을 향하여 명백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요일 4:1-6).

8. **㉠**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8절)

- ㉠** (1) 예레미야가 말을 마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죽이려 했다.
 (2) 왜냐하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참조, 대하 6:41, 42; 시 132:14)이 있었기에 그곳이 실로같이 된다는 말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그를 거짓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3) 이것은 진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인간의 본성(참조, 창 3:1-13)을 악으로 가려 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다(참조, 행 7:54-58).
 (4)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마음에 부딪힐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선입견을 버리고 진리에 굴복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9. **㉠**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떤 이유로 예레미야를 잡아서 죽이려 하였는가? (9절)

- ㉠** (1) 그들은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예언하였기 때문에 죽이려 했다.
 (2) 즉 그들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憑藉)한 거짓 선지자로 여겼고 그가 그들이 우상처럼 숭배하는 예루살렘 성전(7:4)을 모독했기 때문에 죽이려 했다.

- (3)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진실을 전해 주며 충고하는 사람을 배척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 미가야도 진실을 말하다가 옥고를 치르게 된 사건(왕상 22:8-28; 대하 18:6-27)이 있었다.
- (4) 따라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된 충고를 받을 때 그것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해도 믿음으로 수용하여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야 한다.

10. **㉠** 유다 방백들은 예레미야가 체포된 소식을 듣고 어디로 모였는가? (10절)

- ㉠** (1) 그들은 예레미야가 체포된 사실을 알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 여호와의 집 새문 어귀에 앉았다.
- (2)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던 재판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분쟁이 생겨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가 재판을 하였는데 그들은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였다(참조, 창 23:10, 18; 잠 31:23).
- (3) 그래서 선지자들은 통치자들에게 정의를 존중하고 공의를 행하도록 요구할 때 '성문에서 진실을 행하라'고 외쳤다(참조, 암 5:10-15; 숙 8:16).
- (4)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한다(참조, 롬 13:1-3). 그러나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을 때는 말씀에 입각한 충고와 정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 **㉠**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고소한 내용은 무엇인가? (11절)

- ㉠** (1) 그들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저주의 예언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 (2) 그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에 대하여 반성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기들의 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세웠다.
- (3)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지속하려고 하면 자기들을 불리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한다. 비록 그것이 정의의 외침일지라도 묵살시키려고 한다. 이는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고소한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명백하다(마 26:66; 27:12).
- (4) 그렇지만 반대로 지도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죄를 지적받을 때 겸손히 죄를 인정한다(삼하 12:7, 13)의 모습을 볼 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12. **㉠**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고소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무엇인가? (12절)

- ㉠** (1) 예레미야는 자신이 말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 (2) 여기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확고한 소명 의식(召命意識)을 밝히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전한다는 자신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3) 오늘날에도 말씀을 듣고 외치는 자들에게는 예레미야와 같은 동일한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 비록 생명에 위협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죽음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
- (4)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소명 의식이 있을 수 없고 거짓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참조, 계 19:20; 20:10).

13. **㉠** 자신을 고소한 자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4, 15절)

- ㉠** (1) 예레미야는 자신이 비록 그들의 손에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무죄하다. 그러므로 자기를 죽이면 무죄한 피의 대가를 이 성과 거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 (2)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었다. 비록 지금 억울하게 잡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 주실 것을 확신하였다.

- (3)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이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다고 해도 도우시는데 베드로가 억울하게 투옥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를 구해 주신 것을 통해 볼 때 그분의 능력을 느낄 수 있다(참조, 행 12:5-11; 16:24-34).
- (4)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잡혔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은 우리 육신의 생명만 해하지만 진리의 영이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관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마 10:28, 29).

14. **㉠ 예레미야를 변호해 준 자들은 누구이며 또한 어떤 말로 변호를 하였는가? (16절)**

- ㉠** (1)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말한 선지자를 죽일 수 없다고 변호하였다.
- (2) 예레미야에 대하여 반대 견해를 보인 자들은 당시 교권을 잡고 있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었고 오히려 그를 변호해 준 자들은 평민들이었다.
- (3)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종교를 악용(惡用)했으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참된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다(참조, 왕상 22:8-28; 행 7:54-60; 고후 11:23-33).
- (4) 그러나 방백들과 백성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22:17; 26:9, 23).
- (5)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참조, 삼상 15:23; 롬 13:1) 권력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박탈시키실 것이다.

15. **㉠ 유다의 장로는 어떤 사람들인가? (17절)**

- ㉠** (1) 장로는 각 성읍이나 총회의 지도자들이다.
- (2) 그들은 지방 통치자의 역할과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출 24:1, 9; 레 4:15) 했으며 또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때 재판관으로 성문에 앉아 판결을 하기도 했다(신 22:15). 따라서 예언자들은 그들을 향하여 공의의 재판을 하라고 요구하였다(암 5:10-12; 습 8:16).
- (3) 그리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으며(뫓 4:4), 국가의 왕을 선택하는 일에도 관여하였다(삼상 8:4, 5; 삼하 3:17; 5:3).

16. **㉠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인가? (18절)**

- ㉠** (1) 그는 모레셋 사람 미가였다.
- (2) 모레셋은 예루살렘 남서쪽 32km에 위치한 가드의 땅이다.
- (3) 그런데 이곳 출신인 선지자 미가는 요담 왕(B.C. 751-736)부터 히스기야 왕의 통치기간(B.C. 728-725-697) 동안 이사와와 함께 활동하였다.
- (4) 한편 그는 귀족 출신이었던 이사와와는 달리 농민 출신으로서 민중적 선지자였지만 같은 민족의 불신앙을 안타까와하며 유다의 멸망을 외친 것은 이사와와 같았다.

17. **㉠ 히스기야 시대의 선지자 미가는 무엇을 외쳤는가? (18절)**

- ㉠** (1) 선지자 미가는 시온이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聖殿)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될 것이라고 외쳤다.
- (2) 그런데 미가가 활동하던 시대는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연합하여 유다와 전쟁을 했고 아하스는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던 불안정한 때이었다.
- (3) 바로 이런 시기에 선지자 미가는 자기 백성의 죄를 지적(미 3:8)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였다.
- (4)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민족에게 짓밟혀 황폐해질 것이고 그 결과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5) 결국 이 예언은 남·북 왕국의 멸망과 후대에 로마 티투스(Titus)에 의해 A.D. 70년

에 성취되었다.

18. **㉠** 직언(直言)을 한 선지자 미가를 히스기야와 유다가 어떻게 하였는가? (19절)

- ㉠** (1) 히스기야 왕과 온 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외친 선지자 미가를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뉘우쳐 재앙을 피하였다.
 (2)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대한 경외(敬畏)가 있었으며 또한 회개할 마음들이 있었다(대하 29:2-7).
 (3)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내리시기로 하신 재앙을 중단시키셨다(참조, 출 32:14; 삼하 24:16; 대하 32:26; 은 3:10).
 (4)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 역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적이 있을 때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다(참조, 요일 1:9).

19. **㉠**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인가? (20절)

- ㉠** (1) 그는 기랴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2) 우리야의 출신 지역인 기랴여아림은 예루살렘의 서북쪽 13km 지점에 위치한 삼림(森林)이 우거진 성읍이다.
 (3) 이곳은 블레셋 지방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와 다윗의 성읍으로 옮겨지기 전까지(삼상 6:1-15; 대상 13:5-14; 15:2-28; 대하 1:4) 머물렀던 곳이다(삼상 6:19-7:2).
 (4) 한편 이곳 출신 선지자 우리야는 예레미야와 함께 유다에 대하여 예언했던 사람인데 방백들의 압력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하였다.

20. **㉠**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야는 어떻게 되었는가? (21-23절)

- ㉠** (1) 그는 여호야김과 방백들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했으나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보낸 엘라단에 의하여 잡혀와 살해당하고 평민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2) 여기서 우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분의 경고를 전하기는 했으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였음을 보게 된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약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약점을 우리의 힘이 되시며 반석이 되신 하나님(시 18:1-3; 31:3; 46:1)으로부터 도움을 얻도록 해야 한다.

본장의 요절

'나 여호와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2절).



제 27 장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경고하시다

단락구분 1-11 하나님께서 이방 열국에 대하여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요구하시다 / 12-15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시드기야에게 권고하시다 / 16-22 유다 백성에게 항복을 권고하시다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니라

2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줄과 멩에를 만들어 내 목에 엮고

3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붙여 에돔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4 그들에게 명하여 그 주에게 이르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같이 고하라

5 나는 내 큰 능과 나의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땅을 사람에게 주었노라

6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부리게 하였나니

7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기리라 그의 땅의 기한이 이르면 여러 나라와 큰 왕이 그로 자기를 섬기게 하리라마는

8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국민이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멩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은 내가 그의 손으로 진멸시키기까지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벌하리라

9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너희 복술이나 너희 꿈꾸는 자나 너희 술사나 너희 요술객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 하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10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서 너희로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나로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하게 하느니라

11 오직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멩에를 매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서 밧을 갈며 거기 거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2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과 백성은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멩에를 매고 그와 그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살리이다

13 어찌하여 왕과 왕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같이 칼과 기근과 염병에 죽으려 하나 이까

14 왕과 백성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하나이다

15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며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을 멸망시키기에 이르리라 하셨나이다

16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집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들려오리라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17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18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을진대 그들이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 가지 않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19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돛바다와 받침들과 밧이 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20 이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족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21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22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내용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열국과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2)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백성들도 그들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다.
 (3)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4) 이것을 외친 예레미야는 외형적으로 반역자이며 거짓 선지자같이 보였겠지만 그는 진정으로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런 말씀을 외칠 수 있었다.
 (5) 그러므로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정의가 위축되지 않도록 진실을 외쳐야 할 의무가 있다.

2. **㉠**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때는 언제였는가? (1절)

- ㉠** (1) 그때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은 때였다.
 (2) 그러나 3절과 12절을 볼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는 시드기야 왕의 즉위 초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즉 여호야김을 계승(繼承)하여 유다의 왕이 된 시드기야에게 알리라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이다.
 (4)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유다 백성은 B. C. 605년(단 1:1-6)부터 시작하여 4 차례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다(B. C. 597, 왕하 24:14; B. C. 586, 왕하 25:6-12; B. C. 581, 왕하 25:22-26).

3.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어떤 모습으로 경고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멩에를 만들어 목에 얹고 경고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셨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당해야 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신 것이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상징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경우는 많이 있었다(참조, 겔 4:1; 12:3; 24:4).
 (4)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속박과 노예의 상징을 통하여 유다 백성에게 깨닫고 돌아설 기회를 주신 것이다.
 (5)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 뿐 아니라 오감(五感)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6) 그러나 우리가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심한 저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4. **㉠** 유다 왕 시드기야는 어떤 인물인가? (3절)

- ㉠** (1) 그는 B. C. 597-586년까지 남쪽 유다를 다스린 20대 최후의 왕이었다.
 (2) 그는 요시야의 세째 아들(대상 3:15)로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B. C. 597년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당시 18세이었던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대신하여 왕위에 맞다니아울 올렸다(왕하 24:8-17).
 (3)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맞다니아울을 왕위에 올린 후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었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의 정의'이다.
 (4) 한편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위에 올라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왕하 24:18) 그는 하나님보다 유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여(38:19) 하나님의 경고를 순종하지 않았다(참조, 33:17-23).

(5) 그리고 그의 통치 9년이 되던 해, 즉 B. C. 589년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고 애굽과 화친하였는데 그 결과로 자기의 아들들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처형당하고 자기도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감옥에서 죽고 말았다(52:1-11).

5. **㉠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느 왕들에게 전달하였는가? (3절)**

- ㉠** (1)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경고를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왕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왕에게 보냈다.
- (2) 그런데 그 경고는 유다에 대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것이다.
- (3) 한편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그들에 관한 경고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들에게 기울어질 것이라는 말씀(25:21, 22)이었다.
- (4)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유다와 동맹하여 바벨론과 싸우다 망하고 말았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자들은 결코 그분의 진노를 피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경고가 주어졌을 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야 한다.

6. **㉠ 하나님께서는 여러 왕들에게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셨는가? (4, 5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능력과 든 팔로 땅과 그 위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당신의 소견대로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전하라고 하셨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자로 밝히시면서 교만한 왕들에게 세계가 당신의 손에 의해 좌우된다고 말씀하셨다.
- (3)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든 팔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참조, 출 6:6; 신 4:34; 시 136:12; 사 52:10).
- (4) 우리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참조, 고전 1:27-29).

7. **㉠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땅의 권세를 주시므로 열방은 어떠한 것인가? (6, 7절)**

- ㉠** (1) 하나님께서 모든 땅과 들짐승을 그에게 주시므로 열방이 그와 그 아들과 손자를 섬길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권세를 주시면(롬 13:1-3) 반드시 그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 한편 하나님께서 들짐승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은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강대할 것인가를 암시한다.

8. **㉠ 그런데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7절)**

- ㉠** (1) 그때에 그(바벨론)가 여러 나라와 큰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그 권세가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3) 그런데 그 기한에 대하여 25:12에 70년이라고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은 벨사살 왕 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를 죽이고 왕위(王位)에 오름(단 5:30)으로 성취되었다.
- (4) 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권고하셨기에(29:10) 이루어졌지만 한편 바벨론의 큰 죄악의 결과(25:14)로 인한 것이기도 했다.

9. **㉠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8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의 손에 진멸되기까지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차별 없이 모든 나라에 임한다는 뜻인데 유다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들의 잘못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참조, 잠 3:12).
- (3)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자에게는 당신께서 진노하시는데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임한다. 이러한 진노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징계의 방법(16:4;32:24;겔 14:21)이다.

(4)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그 사랑에 순응하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이다.

10. **㉠** 하나님께서는 왜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셨는가? (9, 10절)

- ㉠** (1) 거짓말하는 자들은 유다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자기들의 땅에서 쫓겨 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 (2) 여기서 예레미야는 비록 가슴 아프지만 진실을 외쳐 유다 백성의 회개를 촉구했으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나 점치는 자들의 말을 더 들었다.
- (3) 이와 같은 사건은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할 때 시드기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여 아람과의 싸움에서 아합 왕을 죽게 한 것(왕상 22:5-36)과 유사하다.
- (4)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거스리고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라 해도 그 말씀을 순종하면 위와 같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다.

11. **㉠**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에 순종한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 경고에 순응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땅에 머물며 밭을 갈고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 (2) 이 말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 순간은 괴롭과 슬픔만 남는 것 같으나 모든 평화와 환난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므로 당신께서 반드시 도움을 주사 그들을 과거의 상태로 회복시킨다는 뜻이다.
- (3) 그러므로 비록 현재가 불만스러워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사실은 세상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종하지만(참조, 창 1:28)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연까지도 거부 반응을 나타낸다(창 3:18).

12. **㉠**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바벨론 왕을 섬기라고 말하였는가? (12절)

- ㉠** (1) 그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 '왕과 유다 백성은 바벨론 왕과 그 백성을 섬기라'고 말하였다.
- (2) 드디어 여기에서 경고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 민족까지 그 경고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 (3) 그러나 실제로는 주요 목적이 유다 백성에게 있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경고를 전해야만 했다(겔 2:7).

13. **㉠**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예언하는 자와 그것을 듣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하는 자를 멸망시키시고 그 말을 듣는 자도 몰아내신다고 말씀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헛된 교훈을 좇는 어리석은 자도 함께 멸망시킨다는 말씀이다(참조, 계 19:20;20:10, 13;21:8).
- (3) 그러므로 다른 교훈을 가르쳐서도 안 되지만(딤후 1:3) 그것을 따르지도 말아야 한다(히 13:9).

14. **㉠** 거짓 예언을 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15절)

- Ⓐ (1) 그들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한다(23:21).
- (2) 예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털을 쓰고(마7:15)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미혹한다(막13:21-23)고 말씀하셨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베뢰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통해 판단의 근거를 얻어(행17:11)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詐稱)하는 이단을 물리쳐야 한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된 종의 모습이 어떠함을 보여 주기 위하여 이단을 세우기도 하신다(고전11:19).
15. Ⓒ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어떤 말을 하였는가? (16절)
- Ⓐ (1) 그들은 여호와의 집 기구(器具)를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올 것이라고 말하였다.
- (2) 이 말씀은 이미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이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탈취하여 자기들의 산당에 둔 것(왕하24:13; 대하36:7)을 가리킨다.
- (3) 그런데 그 예언이 거짓이란 것은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가 멸망(대하36:11-21)하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한 것(25:12; 29:10; 사23:15; 단9:2)을 통해 증명되었다.
16. Ⓒ 거짓 예언을 한 선지자들의 모순된 행동은 무엇인가? (18절)
- Ⓐ (1)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들에게 있다면 그들은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가 바벨론으로 옮겨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 (2) 이것은 이미 바벨론에게 빼앗긴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 아니고 지금 남아 있는 것까지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을 의미한다.
- (3)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위선적인 것을 알고 남아 있는 것이라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구하였다.
- (4) 따라서 우리는 말과 행동의 모순을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가장 충실해야 한다(참조, 행6:2-4).
17. Ⓒ ‘놋바다’는 무엇을 말하는가? (19절)
- Ⓐ (1) ‘놋바다’는 놋을 부어 만든 커다란 그릇인데 제사장들의 성결 의식을 위한 것으로서 두로의 히람이 그것을 만들었다(왕상7:13, 14, 23).
- (2) 한편 대상18:8에 의하면 솔로몬은 놋바다를 다윗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놋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 (3) 이 그릇의 크기는 지름이 약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으로 용적이 2,000 밧(약1,100갈론) 정도의 둥근 모양이다(왕상7:23).
- (4) 그런데 놋바다가 회막의 놋 물두멍과 같이 있었다면(참조, 출30:18) 성전 입구와 제단 사이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

본장의 요절

‘너희는 그들을 듣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으로 황무지가 되게 하겠느냐’ (17절).

제 28 장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동시에 예언하다

단락구분 1-4 하나님과 거짓 예언을 하다 / 5-11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거짓을 밝히다 / 12-15 쇠 멩에의 예언 / 16-17 하나님의 죽음

1 이 해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않은 해 곧 사 년 오 월에 기브온 맛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님과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바벨론 왕의 멩에를 꺾었느니라

3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옮겨 간 여호와와 집 모든 기구를 두 해가 차기 전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게 하겠고

4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멩에를 꺾을 것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셨다 하는지라

5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와 집에 선 제사장들의 앞과 모든 백성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할새

6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되 아멘 여호와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와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7 그러나 너는 이제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8 나와 너 이전 선지자들이 자고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열병을 예언하였느니라

9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옳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와 보내신 선지

자로 알게 되리라

10 선지자 하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취하여 꺾고

11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멩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12 선지자 하나님과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멩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3 너는 가서 하나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나무 멩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멩에를 만들었느니라

1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쇠 멩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신다 하라

15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님에게 이르되 하나님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든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느도다

1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하는 말을 하였음이라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 선지자 하나님과 그 해 칠 월에 죽었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밝히고 그의 생명이 짧을 것을 말하였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 (2) 선지자 하나님과 바벨론에서 탈취해 간 성전의 기구들이 2년 내에 회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25:11)이라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예언은 거짓이었고 예레미야에 의하여 그의 거

것이 밝혀졌다.

- (4) 한편 예레미야는 하나나가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의 죽음을 예언하였는데 예언대로 그 해 7월에 하나나는 죽고 말았다.
- (5) 이와 같이 이땅에는 한순간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共存) 하지만 결국에는 진리만 남을 것이다.

2. **㉠** 하나나 선지자가 제사장과 백성들 앞에서 예언을 한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시드기야 왕 4년 5월이었다.
- (2) 시드기야는 11년간 통치했는데 그의 4년이면 B.C. 594년이다.
- (3) 그런데 통치한 지 4년이나 지났는데도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은 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왕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 (4)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총독을 유다에 보내려 했으나 유다인의 반발을 의식하여 시드기야를 세웠기 때문에 그가 유다 백성을 처음부터 통치할 수 없었다.
- (5) 그러므로 앞의 3년은 혼란한 상태로 권력을 잡을 수 없었기에 통치 4년째 되는 해를 즉위 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

3. **㉠** 하나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는가? (2절)

- ㉠** (1) 하나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 예언을 전하였다.
- (2) 그런데 하나나와 예레미야는 모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누가 참선지자인지 구별하기 어려웠다. 단지 결과를 보아서 예레미야가 참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 (3) 이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예수께서도 경고하셨다(마 24:4, 5).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영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영을 분별해야 한다(참조, 고전 12:10; 벧후 1:5). 영을 쉽게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열매(행동과 메시지 등)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참조, 마 7:16-18).

4. **㉠** 하나나가 예언한 내용은 어떤 것인가? (3, 4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탈취해 간 여호와의 집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가져올 것이며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모든 포로를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예언하였다.
- (2) 이러한 하나나의 예언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대하여 항복하라고 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70년 동안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셨다(25:11; 27:7, 8).
- (3)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예레미야가 백성들의 원성(怨聲)을 산 것은 당연하였다.
- (4) 그렇지만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예언을 한 하나나는 반대로 그들의 환영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 역시 잘못된 말씀이 전해져도 그들의 귀만 만족되면 아무런 정화 작업 없이 수용하는 폐단이 있다.

5. **㉠** 거짓 예언자 하나나는 바벨론에서 누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는가? (4절)

- ㉠** (1) 그는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2) 하나나의 이런 예언은 온 백성들의 마음을 끄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왕하 24:8-17)이었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에 맞을 수 없었다.
- (3) 이런 처지에 자기들의 왕위를 계승할 왕자가 돌아온다는 것은 기쁜 소식임에 틀림없

었다. 이렇게 하나나는 대중들의 마음을 끌기 위한 말만 하였다.

(4) 이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의 마음만을 흡족케 하여 인기와 영합하려는 거짓 종들이 있으므로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력을 소유해야 한다.

6. **㉠** 하나나의 예언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6절)

㉠ (1) 예레미야는 하나나의 예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대답했다.

(2) 즉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네 예언대로 이루사 여호와와 그의 집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옮겨 오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다.

(3)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사악함을 폭로하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므로 약속의 땅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외쳤다(25:4-11).

(4)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진심은 백성들이 참평안을 누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자신의 외침이 취소되기를 바랐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실한 종은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7. **㉠** 예레미야와 그의 전(前)선지자들은 무엇을 예언하였는가? (8절)

㉠ (1) 그들은 옛부터 내려오면서 여러 나라와 큰 국가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災殃)과 열병(染病)을 예언하였다.

(2) 이와 같은 예언은 호세아(호 4:1, 2)와 이사야(사 1:4) 그리고 미가(미 1:3, 4) 등 많은 선지자들이 외쳤다.

(3) 그런데 선지자들이 이런 예언을 한 이유는 유다 백성들이 징벌당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겔 18:23, 30).

(4) 그러나 이런 회개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들이 걸었던 우상 숭배와 악행의 길을 바꾸지 않았다.

(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70년을 바벨론에서 방황하게 하셨다(참조, 대하 36:21; 슥 7:5).

8. **㉠** 어느 때에 가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알 수 있는가? (9절)

㉠ (1) 그 선지자가 외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임을 알 수 있다.

(2)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근원(사 65:16; 요 14:6) 이시라면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일을 예견하시며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분이 자신이고(참조, 사 44:7), 당신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참예언만 한다고 말씀하셨다(참조, 신 18:18).

(4) 따라서 성도들은 진실과 거짓을 쉽게 분별할 수 없을 때, 한편을 맹종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결과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9. **㉠** 예레미야의 반론에 대한 하나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0, 11절)

㉠ (1) 그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상징적인 멍에를 빼앗아 쥐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두 해가 차기 전에 열방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고 하였다.

(2) 여기서 하나나가 자신의 예언은 정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예레미야의 멍에를 빼앗아 쥐는 행동을 나타냈다.

(3) 이것은 거짓 선지자인 하나나가 거짓된 자신의 예언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인간의 힘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 준다.

(4) 여기서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포악한가를 발견한다. 이와 같이 사단은 처음에 가면을 쓰고 나타나지만 본래 모습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

팥을 상징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파괴한다.

10.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나무 멩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멩에를 만들었느니라'고 말하라고 하셨다.
- (2) 비록 하나님이 나무 멩에를 빼앗아 꺾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선언이 바뀐 것이 아니다.
- (3) 도리어 하나님의 선언을 더 명확하게 보여 주시기 위하여 꺾인 나무 멩에 대신 꺾이지 않는 쇠 멩에를 예레미야가 준비했다.
- (4)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인간들의 계획으로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응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11. ㉠ 쇠 멩에를 목에 걸고 나온 예레미야는 어떤 말을 전했는가? (14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내가 쇠 멩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 (2)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헛된 말이 아니라 당신의 종을 통하여 신중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입증하셨다.
- (3) 만약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목에 쇠 멩에만 걸고 나왔다면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므로 사악한 자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오직 그분의 진노뿐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선언하실 때 우리는 겸손하게 그것을 면하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12. ㉠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들짐승도 주셨다.
- (2) 즉 느부갓네살이 소유한 권한은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섭리에 의한 것임을 이성이 없는 짐승들조차 알았다는 말이다.
- (3) 그런데 패역한 유다 백성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복종하기 보다는 오히려 더 오만(傲慢)해졌다.
- (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를 징계하도록 하셨다.
- (5) 이런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無知)하고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떠나 버린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남아 있지 않다.

13. ㉠ 하나님의 예언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5절)

- ㉠ (1) 예레미야는 그가 하나님께서 보낸 자가 아니므로 그의 예언이 백성을 현혹(眩惑)하는 거짓이라고 하였다.
- (2)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다'는 예레미야의 말은 하나님의 거짓 예언을 일축(一蹴)하는 말이었다.
- (3)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이름으로 예언을 하므로 백성들에게서 위기 의식을 제거시켜 자신들의 문제를 잊게 하였다고 비난했다.
- (4) 따라서 성도들은 사단의 종이나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신뢰의 근거가 문제시될 때 사악한 위선자들처럼 공허하며 사라지는 허무한 것을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14. ㉠ 거짓 예언을 한 하나님은 어떻게 되었는가? (16, 17절)

- ㉠ (1) 그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금년에 죽으리라'고 예언한 대로 그 해 7월에 죽었다.

- (2)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가 그 해 5월에 예언했는데 (1절) 그 예언대로 2개월 만에 죽었다.
- (4) 그렇지만 유다 백성은 이런 확실한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극에 다달았는지 알 수 있다.
- (5) 이제 성도들은 나타나는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롬 1:20) 할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

화보자료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 버리는 하나냐(Hananiah). 프랑스 아미앵 대성당의 정면 현관에 새겨진 이 부조는 본장 10절 내용을 묘사한 것이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멘 것은 장차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표하는 행위였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결코 그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백성들을 기만하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예레미야의 멍에를 꺾어 버렸다(10, 11절). 하지만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변개치 않을 것이었으니 거짓을 유포한 죄로 하나냐는 그 자신이 먼저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16, 17절).

제 29 장 예레미야가 포로된 백성에게 편지를 보내다

단락구분 1-14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키다 / 15-23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주의를 주다 / 24-29 포로 된 백성들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반발하다 / 30-32 거짓 선지자 스마야에 대한 저주

1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2 때는 여고니야 왕과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3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라의 손에 위탁하였더라 일렀으되

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5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않게 하라

7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8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곧 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9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0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칠십 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12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

나리라

14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 않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5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들을 일으키셨다 하므로

16 여호와께서 다윗의 위에 앉은 왕과 이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17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열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로 악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 같게 하겠고

18 내가 칼과 기근과 열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열방 중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보낸 열방 중에서 저주거리와 놀람과 치소와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19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0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나 여호와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21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22 너희 바벨론에 있는 유다 모든 포로가 그들로 저주거리를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같이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라

23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니

라 나는 아는 자요 증거인이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였더라

24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네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하세야의 아들 스바냐의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26 여호와께서 너로 제사장 여호야단을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와의 집 유사로 세우심은 무릇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며 칼을 메우게 하심이어늘

27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자칭 선지자라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28 대저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때가 오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29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 들릴 때에

30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31 너는 모든 포로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32 그러므로 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 이 백성 중에 거할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말하라.

- ㉠ (1) 본장에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확인시키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예레미야가 이런 편지를 쓴 이유는 포로된 유다 백성을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으므로 그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하기 위함이었다.
- (3) 그런데 포로된 백성들은 이런 격려의 편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에 대하여 반발하고 그를 옥에 가두도록 답장하였다.
- (4) 결국 이렇게 반발한 대표자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저주를 받았다.
- (5)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자의 최후는 형태만 다르지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의 최후(참조, 시 1:4,5)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배울 수 있다.

2. ㉠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1절)

- ㉠ (1) 그는 바벨론에 옮겨 간 포로 중 남아 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다.
- (2) 즉 바벨론에 생존해 있는 모든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쓴 것인데 특히 장로는 ‘백성의 장로’ (참조, 출 18:13)를 말한다. 이들은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이지만 아직 생존해 있는 자들이다.
- (3)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이 남녀 노소(男女老少)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4)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총과 사랑과 공의를 모든 사람에게 고루 베푸시듯(참조, 마 5:45) 당신의 약속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3. ㉠ ‘장로’는 어떤 자들인가? (1절)

- ㉠ (1) 그들은 백성 중 연장자들로 재덕(才德)이 겸전(兼全)한 자들(출 18:13)이다.
- (2) 장로의 원어는 <자켄> 혹은 <셉>인데 ‘턱수염’이나 ‘백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인품이나 용모, 용기 등을 갖춘 자를 말한다.

- (3) 이러한 장로의 임명에 대하여 세 가지 기원이 있는데 먼저 출 18:13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충고로 뽑은 자들이고 다음에는 신 1:15에는 '두령'이라고 나오는 자들이 있으며 끝으로 민 11장의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장로와 유사 70인을 모으는 기사이다.
- (4) 이들의 역할은 전시에 지휘관이고, 싸움에서는 재판관이며 정치에 있어서는 충고자이며 모사(謀士)였다.

4. **㉠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때는 언제인가? (2절)**

- ㉠** (1) 그때는 유다 왕 여고니야와 국모와 환관들과 및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이었다.
- (2) 또한 이때는 느부갓네살이 B. C. 597년에 2차로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후 시드기야가 왕위를 계승한 시기이다.
- (3)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 예레미야는 2차로 바벨론에 잡혀간 3,023명의 유대인(참조, 52:28)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다.

5. **㉠ 예레미야는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냈는가? (3절)**

- ㉠** (1) 그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사신으로 보낸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그마라의 손에 위탁하여 보냈다.
- (2) 예레미야가 왕의 사신들에게 위탁하여 편지를 보냈다면 그는 왕의 허락 아래 행해졌을 것이다.
- (3) 그런데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사신을 보낸 이유는 그로 인하여 왕위에 올랐으므로 그의 호의를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 (4) 이 당시 시드기야는 여고니야가 돌아오면 그가 당연히 왕위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여고니야의 귀환을 원치 않았다.
- (5) 그래서 그가 귀환하기 전에 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의 호의가 필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여고니야가 귀환하면 즉시 포로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시드기야가 편지를 사신들이 가지고 가도록 허락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순응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6. **㉠ 예레미야는 편지를 통하여 그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을 권고했는가? (5, 6절)**

- ㉠** (1) 그는 유다 백성에게 집을 짓고 전원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며 가정을 꾸미고 번성하라고 하였다.
- (2) 포로된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서 잠잠하며 본국에서처럼 자연스럽게 생활하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에게 포로 생활로 정해진 기간이 70년이기 때문이다(25:11; 대하 36:21, 22).
- (3) 즉 이것은 그들이 갖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풀지 말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70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귀환할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훈련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 5:3, 4).

7. **㉠ 예레미야는 포로된 유다 백성에게 평안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였는가? (7절)**

- ㉠** (1) 예레미야는 성읍의 평안과 그들의 평안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하였다.
- (2) 왜냐하면 그들의 사로잡힘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3) 단지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손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기도하라는 것이다.

- (4) 이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참조, 요 19:11; 롬 13:1) 때문에 경솔하게 통치권에 반역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 (5)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원인을 바로 분석하여 하나님께 범죄한 이유 때문(참조, 잠 29:6;箴 18:4)이라면 회개하여 길을 돌이켜야 한다.

8.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믿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8, 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나 복술(卜術) 그리고 자신의 꿈도 믿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한 거짓 예언, 즉 모든 사람과 성전 기구들이 2년 후에 돌아오리라는 예언(28:3, 4)을 받아들여 그릇된 확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 (3) 여기서 예레미야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반복(23:21)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빙자하기 때문에 쉽게 분간할 수 없다는 뜻을 말하였다.
- (4)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교리를 제시했으며 더 나아가 그들의 입을 봉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권면한다(참조, 딤편 1:9).

9. **㉠**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면 어떻게 약속을 이행하신다고 하셨는가? (10절)

- ㉠** (1)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실행하시어 유다 백성을 이곳, 즉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창 12:1, 5; 히 11:9)하시고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지속적으로 주어졌으며(창 46:3, 4; 출 3:8)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에게도 주어졌다(25:12;箴 20:6).
- (3)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고 불변하시는 분이기에 언제나 그 분을 의지할 수 있다.

10. **㉠**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11절)

- ㉠** (1)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며 그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뜻이다.
- (2) 예레미야는 포로된 상태에서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의 마음을 소생(蘇生)시키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을 많은 어휘로써 증거하고 있다.
- (3)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하신 뜻이 항상 건설적이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격려했다(참조, 사 55:8, 9).
- (4)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도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로서의 친절과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었다.
- (5) 따라서 이런 약속을 받은 유다 백성이나 오늘날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로 나아가야 한다(참조, 사 55:12).

11. **㉠**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 대한 그분의 약속은 무엇인가? (12-14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기도하면 들으시고 찾으시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 것으로 회개의 결과로 주어지는 그분의 축복이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 (3) 이런 기도의 모습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발견되는데(단 9:3-11), 다니엘은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단 9:22-27)을 받았다.
- (4)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기도에 대한 교훈들이 많다. 즉 기도의 시기(살전 5:17), 기도의 방법(33:3; 마 7:7), 그리고 기도의 내용(요 14:13) 등 많은 것을 가르쳐 준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겔 11:19)의 도움으로 그분께 기도하는 생활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 기도 응답의 결과는 어떠한가? (14절)

- ㉠ (1) 그 결과 포로된 중에서 돌아오며 흠여졌던 열방 중에서 다시 모아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어 만나 주시는데 그 후에 당신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불변의 약속이다.
- (3) 그런데 흠여진 유다 백성을 모으신다는 약속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에게 선포했으며(신 30:1-3) 시편 기자도 역시 이 말씀에 동조하고 있다(시 147:2).
- (4)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 상태를 인식하고 또한 그 상태를 인정하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다(참조, 눅 15:21).

13. ㉠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이끌린 자들에게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인가? (15-17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칼과 기근과 염병의 재앙으로 인하여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같이 될 것이다.
- (2) 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이 포로된 동포들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될 것을 보여 주면서 간접적으로 유다의 남은 백성을 책망하고 있다.
- (3) 그 이유는 포로된 백성이 2년 안에 돌아오겠다는 하나님의 거짓 예언(28:3)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떨어뜨렸기 때문이다.
- (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그들이 거짓 예언을 확신하였으나 재앙으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 (5)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겸손임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참조, 잠 3:34).

14. ㉠ 무화과는 어떤 나무인가? (17절)

- ㉠ (1) 무화과나무는 열매 속에 꽃받침이 있어 그 안에 꽃이 있기에 열매를 자르지 않고는 꽃을 볼 수 없다.
- (2) 이 나무는 잘 들보면 9m 높이까지 자랄 수 있는데 열매는 5, 6월에 익는 겨울 무화과가 있으며 8, 9월에 익는 여름 무화과가 있다.
- (3) 무화과나무는 히브리어로 <테이나>인데 유대 민족의 번영을 상징(왕상 4:25; 미 4:4) 하였으며 또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이나 죽는 것은 여호와의 심판(참조, 5:17; 5:13; 사 34:4; 호 2:12; 욥 1:7)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15. ㉠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한 염병은 어떤 것인가? (18절)

- ㉠ (1) 염병은 히브리어로 <테베르>인데 보통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의 일종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천벌을 뜻한다.
- (2) 성경에 '염병'이라는 단어가 49회 나타나는데 주로 '재앙'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되었으므로 두 단어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 (3) 그래서 일반적으로 '염병'은 장티푸스나 콜레라와 같은 질병을 말한다.
- (4) 그러나 이런 질병 뿐 아니라 전쟁이나 기근 등도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로서 염병이라고 하였다(참조, 14:12; 21:7; 겔 7:15; 12:16).
- (5) 구약 시대에 '염병'은 애굽에 들었던 역병(疫病)을 묘사(암 4:10)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는 사자들 중의 하나로 보여 주기도 한다(참조, 합 3:5).
- (6) 신약 시대에서 염병은 그리스도에 의한 종말론적 고난의 한 전조(前兆)로 인용하였다(눅 12:11).

16. ㉠ 예레미야가 쓴 편지의 수신자(受信者)는 누구인가? (20절)

㉠ (1)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백성이다.

(2) 이들은 B. C. 605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왕위에 오른 후 유다가 그에게서 등을 돌리자 수차례에 걸쳐 유다를 침공하여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수가 약 4,600명 가량 되었다(52:28-30).

(3) 예레미야는 포로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라는 격려의 편지를 보낸 것이다.

17. ㉠ 하나님께서는 거짓 예언을 한 두 사람이 어떻게 되리라고 하셨는가? (21절)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백성 앞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게 되리라고 하셨다.

(2) 이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이유는 70년이라는 약속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안에 귀환이 있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함으로 빈번한 폭동과 바벨론에 대한 반항을 유도했기 때문이다.

(3) 당시 느부갓네살은 임시로 쓰여진 하나님의 종(25:9;27:6)이므로 그에게 대항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었다.

(4) 오늘날도 단(壇)에서 외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잘못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18. ㉠ 두 예언자에 대한 포로된 유다 백성의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 (22절)

㉠ (1) 유다 백성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할 것이다.

(2) 이런 말들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큰 수치(참조, 신 28:37; 속 8:13)인데 아합과 시드기야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저주이다.

(3)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불에 타서 죽는다(참조, 단 3:20)는 말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통해 아무도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주관자이시며 형벌의 장본인이심을 부인할 수 없게 하신다.

(4) 그러므로 성도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재판받을 때 죄에 대하여 핑계하지 못하고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참조, 고후 9:6; 갈 6:7).

19. ㉠ 아합과 시드기야는 어떤 죄를 범했는가? (23절)

㉠ (1)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행음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았으나 그분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였다.

(2) 선지자 예레미야는 본절에서 그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에 관하여 서술했는데 그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들의 죄는 두 종류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이웃의 아내와 행음한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한 것이다(23:14).

(4)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죄이다(참조, 신 22:21; 시 139:2, 3; 말 3:5).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되 철저히 제거할 것을 요구하신다(참조, 마 18:8, 9).

(5)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성도들은 선지자라고 외모로 표출(表出)되는 것만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올바른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참조, 삼상 16:7).

20. ㉠ 느헬람 사람 스마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썼는가? (24-28절)

㉠ (1) 스마야는 예루살렘의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직무를 다하여 미친 자와 자칭 선지자를 착고에 채우고 칼을 매우게 해야 하는데 어찌 자칭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고 편지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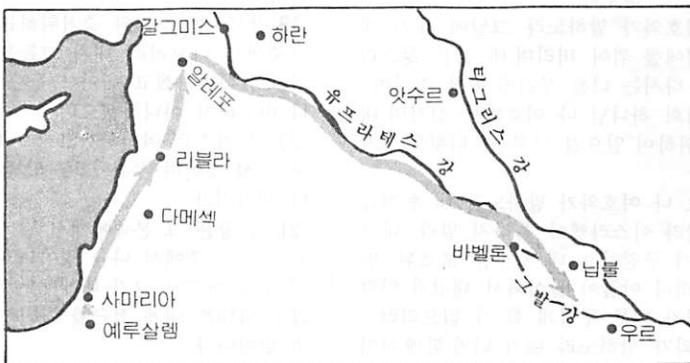
- (2) 그는 이중적인 범죄를 저질렀는데 첫째는, 거짓 예언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으며 둘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장하여 편지가 자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서기관으로 그분의 말씀을 대필(代筆)했다는 것이다.
- (3) 더우기 그는 제사장과 모든 백성이 하나가 되어 예레미야와 대적하도록 하였는데, 힘이 없는 백성들을 충동하기 위하여 그들을 제사장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4)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신(使臣)을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의 행동이다.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워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며 자신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라고 주장한다.

21. Q 거짓 예언을 하고 또한 참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참소한 스마야는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29-32절)

- A** (1) 그는 거짓 예언을 하고 패역한 말을 했으므로 백성 중에 그의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행하려 하신 선한 일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다.
- (2)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저주의 첫번째는 혈통, 즉 자손이 끊일 것(참조, 출20:5; 왕상 14:14)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은 엘리사 때에 사마리아의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므로 저주받은 것과 같다(왕하 7:1, 2, 19, 20).
- (3)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며 살아 있는 종교의 기반인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사람들의 그릇된 확신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만약 우리가 미혹에 빠진다면 우리에게는 신뢰할 근거가 없어지며 동시에 구원에 대한 소망도 사라지게 된다.

지도자료

유대인들의 바벨론 이주 경로



예루살렘 멸망 후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인들은 바벨론과 그발 강 주변에 모여 살았다(참조, 20, 22절; 겔 1:1). 포로된 자의 정확한 수효는 알 수 없지만 52:28-30에는 4,600명에 대한 이주 연도(年度)가 나와 있다.

제 30 장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시다

단락구분 1-3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귀환을 약속하시다 / 4-11 환난 중에 귀환하여 평안을 누릴 것이다 / 12-17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 18-22 약속된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23-24 악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1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2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5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6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 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 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쩔이노

7 슬프다 그 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뉘을 얻으리로다

8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 버리며 네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9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10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흘렸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도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1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증하도다

13 네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네 상처를 싸

땀 약이 없도다

14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네 허물이 크고 네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의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학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어늘

15 어찌하여 네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네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네 최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16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17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 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1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궁홀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19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20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21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므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22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23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4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유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상태에서 회복될 것과 그들을 괴롭히던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되어질 일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 (2) 본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악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 (3) 즉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지만 그들의 죄를 간과(看過)하지 않으신다(11절). 또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그들은 당신에 의하여 보호될 것(16, 22절)임을 분명히 하셨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은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의 대가로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구원받는다(참조, 요 17:12; 18:9).

2. **㉠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1, 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금까지 준 예언의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남겨 두게 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그때까지 믿고 소망을 삼은 말씀이 거짓임을 밝히고 참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 (3) 유다 백성은 너무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서 그들의 포로 상태가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모르고 2년 안에 귀환할 것이라는 거짓 예언만 믿고 있었다.
- (4) 그러므로 유다 백성에게 70년은 너무 긴 세월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엔 헛된 소망으로 낙담하여 좌절하고 말 것이다.
- (5) 이런 그들의 약점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셨다.
- (6) 그것은 유다 백성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실한 예언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한 후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더라도 불변하는 약속을 믿고 낙담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 (7) 이것을 통해 볼 때 비록 우리가 죄가운데 있다 해도 의지할 분은 공의 중에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참조, 함 3:2).

3. **㉠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면 유다의 포로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3절)**

- ㉠** (1) 그때에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한 때를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시며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다(참조, 함 2:3; 뱀후 3:8, 9).
- (3) 이 말씀은 거짓 예언으로 인하여 기만당하고 절망에 빠진 유다 백성을 격려하며 마음의 평정을 주기 위한 것이다.
- (4) 이제 유다 백성에게 남은 것은 그들이 거짓 예언을 따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회개하고 약속의 날에 대한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뿐이다(참조, 겔 33:11).
- (5) 그들 뿐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 역시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도 다시 불러 주시며(참조, 겔 39:25) 그분의 축복도 회복될 것이다(참조, 암 9:15).

4.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4-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 떠는 소리를 내며 각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허리를 짚고 얼굴 빛이 창백하여 보인다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당신의 경고가 아무리 크고 두려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사악함을 버리지 않는 영적 둔감성을 알리시기 위해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셨다.
- (3)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할 고통이 어떠한가를 보여 주셨다(참조, 4:31; 시 41:10; 사 13:8; 욥 2:6; 나 2:10).

(4)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하신 것은 해산 후 있을 기쁨(참조, 요 16:21)을 암시하시기 위함이다.

5. **㉠ 유다 백성에게 슬픈 날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7-9절)**

- ㉠** (1)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내시고 목에서 멍에를 꺾어 버리며 당신께서 세우신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 (2)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란 정해진 때, 즉 유다 백성이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수 있는 그 때를 말한다.
- (3) 그때는 이방인의 지배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왕으로 군림하시어 자기 백성을 통치하실 것이다.
- (4) 그런데 이미 오래 전에 죽은 다윗을 언급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참조, 삼하 7:12-16; 사 55:3, 4; 겔 37:24)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 (5) 따라서 본질의 예언은 다윗 이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모든 왕을 언급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왕으로서 그분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롬 3:23; 6:23) 우리를 구하려고 그리스도께서 대신 멍에를 지셨기 때문이다.

6. **㉠ 하나님께서 포로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약속하신 선언은 어떤 것인가? (10, 11절)**

- ㉠** (1) 하나님의 약속은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시어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하시며 열방은 멸하시지만 그들은 멸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이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기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며 물이나 불 속에서도 택한 자들을 구해 주신다는 말씀이다(참조, 사 43:1, 2).
- (3)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그들이 죄의 소굴에 들어갔다 할지라도(참조, 창 13:10-13) 마지막 심판 때에는 구원받게 된다(참조, 창 19:12-22).
- (4) 그렇지만 성도들은 이런 부끄러운 구원을 면하기 위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살전 5:22) 정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따라야 한다(참조, 마 4:20, 22; 막 1:20; 10:28-30).

7. **㉠ 하나님께서는 야곱 족속을 구원하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는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11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도(公道)로 그들의 죄를 징책하시며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
- (2)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도(公道)로 징책하신다는 것은 10:24에서 의미하듯 이 절제의 의미를 나타낸다.
- (3) 즉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창 18:25; 욥 34:12; 사 30:18; 61:8; 행 17:31; 계 19:7) 이시기에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겔 7:8; 33:20; 계 20:13). 그러나 그 심판이 그대로 행해지면 결코 남을 사람이 없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징책하시되 절제하시므로 그들을 남겨 두신다.
- (5)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살아 남을 수 없으나 그분의 절제 때문에 죽음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8. **㉠ 유다 백성의 상처는 어떠한가? (12절)**

- ㉠** (1) 그들의 상처는 고칠 수 없으며 창상(創傷) 또한 매우 중(重)하다.
- (2)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는 유다 백성이 거짓 예언을 신뢰하다가 그것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마저 잃으므로 당할 해(害)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 (3) 선지자가 여기서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창상은 중하다' 라고 말한 것은 치료가 불가능하여 가망이 없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이 받는 징계는 매우 중하다(대하 36:16; 사 1:5, 6).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주 일어났는데 결코 자신의 힘으로 치료받을 수 없었다(참조, 마 19:26; 고후 12:10).

9. **㉠** 유다 백성이 당한 일에 대하여 그리고 그들의 상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한 일을 송사할 때 변호해 줄 자가 없으며 또한 그들이 당한 상처를 싸매 약이 없다고 하셨다.
- (2) 즉 모든 일에 그들을 도울 자가 없을 것이라고 하셨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자신을 신뢰하였으나 그것이 무너지게 된 것이다.
- (3) 여기서 선지자는 이 한 절에 본장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
- (4)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신뢰하다가 큰 실망에 빠지게 되는데 이처럼 죄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혹심한 책벌을 받게 된다(참조, 출 32:11; 신 10:19).

10. **㉠** 유다 백성이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어떤 것인가? (14절)

- ㉠** (1) 유다 백성은 죄로 인하여 사랑하던 자들을 다 잊고 찾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상함과 징계를 받을 것이다.
- (2) 그리고 유다가 정치적으로 동맹했던 애굽이나 앗수르(참조, 2:36; 절 29:6, 7)와 같은 나라들이 고통당하는 그들을 결코 도울 수 없을 것이다.
- (3) 따라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바다날 때에야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아오게 된다(참조, 눅 15:14-19).

11. **㉠** 징계로 인하여 부르짖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부르짖을지라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므로 그 고통이 낫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으면서 부르짖는 것이 때 늦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치명적인 것이다.
- (3)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참조, 율 1:14) 바로 그분께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요일 1:9).

12. **㉠**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대하시는 태도가 버린 백성을 대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16절)

- ㉠** (1) 택한 자와 버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 (2) 즉 택한 자는 징계하시지만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처벌하신다(11절). 그러나 버린 자들은 그들의 죄값을 그대로 찾아 완전히 멸망의 길로 몰아넣으신다(참조, 10:25; 사 41:11).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징계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패역함을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 (4)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부터 심판하시고 후에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이다(25:12; 사 13:19).
- (5)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실이 가장 놀라운 일이며 또한 소중한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13. **㉠** 12, 13절과 반대되는 말씀을 기록한 본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17절)

- ㉠** (1) 본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료하여 상처를 낫게 하리라고 하셨다.

- (2) 이 말씀은 그들이 너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이다(참조, 시 6:2; 호 6:1; 미 4:6, 7; 습 3:19).
- (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여기저기 주위를 살피지만 결정적으로 절망에 빠졌을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알게 된다.
- (4) 따라서 성도들은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임을 알고 그분께 돌아와야 한다.

14. **㉠** 하나님께서 포로된 야곱 족속을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면 그들의 후손과 성읍은 어떻게 될 것인가? (18-20절)

- ㉠** (1) 그들 중에서 감사와 즐거움의 소리가 나오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케 하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또 그들의 자손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보호하심을 받을 것이다.
- (2) 이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인데 유다 백성은 희망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므로 몇 마디로 회복을 약속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 (3)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창 17:6, 7; 22:17)을 기초로 새롭게 그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 (4) 따라서 성도들에게 당하는 슬픔은 결코 비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그런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께 대한 찬송으로 바뀌며(참조, 시 51:15; 약 5:13) 감사로 바뀌어야 한다.

15. **㉠** 유다 백성의 통치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21절)

- ㉠** (1) 그들의 왕은 같은 민족에게서 날 것이며 그 왕은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통치자가 다윗의 계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다(29:16).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 의미에서 말한 것이었다.
- (3) 그러나 여기서는 종교적 의미로 교회의 회복과 연관되는데 구원 문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평안 역시 그 왕에게 근거하는데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다(애 4:20).
- (4) 선지자 이사야도 역시 다윗을 통한 메시아의 예언에 동참하고 있으므로(사 11:1) 예레미야의 예언을 확증한다.

16.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맺으신 최대의 약속은 무엇인가? (22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된다'는 약속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재차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래 당신의 백성이었고 당신의 소유였던 사실(참조, 24:7; 사 43:1-3; 겔 36:28)을 다시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 (3) 따라서 그분의 소유가 된 성도들은 비록 한때는 하나님을 떠났다 해도 언제인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시 144:15).

17. **㉠**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가? (23, 24절)

- ㉠** (1) 그것은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는데 말일(末日)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2) 택한 백성에 대한 징계가 끝나면 반드시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된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약속하신 말씀(창 3:15)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이심을 확증하는 말씀이다(참조, 빌 1:6).

제 31 장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의 오심이 약속되다

단락구분 1-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다 / 10-14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회복 모습 / 15-20 라헬의 위로와 에브라임의 귀환이 약속되다 / 21-34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오심을 약속하시다 / 35-40 택한 자를 사랑하시며 성지(聖地)의 면적을 정하시다

1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2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려 할 때에라

3 나 여호와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4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5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되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6 에브라임산 위에서 파숫군이 외치는 날이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7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8 보라 내가 그들을 복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되

9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10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와의 말을 듣고 면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출신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 같이 그를 지키시리니라

11 여호와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12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풀낸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니라 할지이다

13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들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니라

14 내가 기쁨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흠족케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케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5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16 나 여호와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7 나 여호와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내로 돌아오리라

18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녕히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명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20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나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1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 표를 세우

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내가 진에 가던 길에 착념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으로 돌아오라

22 패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23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녀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24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 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25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케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26 내가 깨어 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27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28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29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론 아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 하겠고

30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31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론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앎이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35 나 여호와와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36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37 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38 나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넬 땅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39 측량줄이 곧게 가립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40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도른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밤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히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1. **㉠** 본장에서 핵심적으로 기술(記述)한 내용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흠어진 유다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세우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즉 당신이 계획하시는 기간이 끝날 때 유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 전체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3) 결국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남과 북의 구별이 없이 모두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기뻐하며 과거의 고난에 대해 위로받고 그들을 이끌 지도자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주요 내용으로 취급하고 있다.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넓은 사랑이 본장에서 발견되는데 당신의 택하신 자들에 대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요 13:1) 그분을 통하여 성도들은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2. **㉠**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셨는가? (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고 약속하셨다.
- (2) ‘그때’는 30:24의 ‘말일’(末日)을 가리키는데, 즉 이때는 유다가 망한 후 그들이 하나

님의 진노를 깨달은 때이다.

- (3) 한편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란 열 두 지파 전체를 지칭하는데, 솔로몬 이후 분열된 이스라엘과 유다(왕상 12:16-20)에 속했던 모든 백성들을 말한다.
- (4) 선지자 예레미야는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 민족의 구원을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참조, 3:18; 23:6; 켈 37:22).

3. **㉠**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은혜를 얻은 때는 언제인가? (2절)

- ㉠**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가실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것(출 14:8-12; 호 13:4, 5)과 연관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하게 하신 약속의 땅(출 20:12; 신 26:1; 30:20)으로 이끄시면서 보호하신 것을 말한다.
- (3) 본절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의미하고 ‘광야에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 인도받은 것을 암시한다.
- (4)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

4. **㉠**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셨는가? (3절)

- ㉠** (1) 그분은 옛적에 무궁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의 모습을 띠고 나타나셨다.
- (2)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선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항상 계속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이 과거에 한때 있었던 일로 지나쳐 버리는 것이라 느끼고 있었다.
- (3)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과거에 한번 있었던 일로 지나칠 때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잊고 불경건한 행위를 하게 된다.
- (4) 우리의 실수를 깨우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롬 15:4)이라고 말하며 그것을 따라 인내를 배우라고 충고하였다.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어떻게 될 것인가? (4,5절)

- ㉠** (1) 그때에 그들은 다시 소고(小鼓)로 장식하고 즐거운 춤을 추며 포도원에 포도를 심고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은 다시 세워지며 백성은 번영의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 (2) 즉 예레미야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아무리 긴 시간이라 해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해방자가 되실 것이란 약속을 재차 확인시키셨다.
- (3)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흩어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였으나(참조, 시 137편) 이제 그들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대하여 찬미와 감사의 회생을 바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그들이 포로 상태이므로 경작하지 못해 황폐했던 포도원에서 과실이 나와 그들이 먹게 될 것이며 결코 대적들이 꾀파하지 못할 것이다(참조, 사 62:8, 9; 65:21-23).
- (4)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모든 역경을 극복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복된 안식으로 인도하시며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6. **㉠** 파수군은 에브라임 산 위에서 무엇이라고 외칠 것인가? (6절)

- ㉠** (1)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라고 외칠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유다 지파를 회복시키고 포로된 열 지파까지 회복시킬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 (3) 에브라임은 종종 북의 열 지파를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로서 실로 출신이었기 때문이다(왕상 12:15).
- (4) 파수군의 외침은 이전과 같이 백성들 사이에 남과 북의 구별은 없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건축된 성전(대상 22:10)에서 그분께 경배를 드릴 것이라는 말이다.
- (5)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해야 할 것인가이다. 즉 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신앙 안에 일치하여야 하는데 그 신앙의 기초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참조, 시 62:7; 71:3). 따라서 교회가 그 반석 위에 있을 때 결코 분열될 수 없다(참조, 마 16:18).

7. **㉠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 산의 파수군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는가? (7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픔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하라 하셨다.
- (2) 여기서 ‘남은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자들(참조, 숙 12:10-14)인데 그들이 전체 민족을 대표하므로(참조, 사 10:22) 그들의 손에 전체의 운명이 달려 있다.
- (3)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을 외치는 찬양은 간절한 소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4) 이런 소원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는데, 즉 그들의 회복된 기쁨이 믿음을 태만하게 하는 방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기초적 신앙 훈련인 기도에 대한 열심을 갖도록 격려해 준다.

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때 돌아오는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을 것인가? (8절)**

- ㉠** (1)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을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을 불러모으시는데 그곳 뿐 아니라 땅 끝 어디에서나 불러모으신다(참조, 신 30:4).
- (3) 그리고 불러모으실 뿐 아니라 세상의 온갖 장애로 인하여 기동(起動)할 수 없는 자들도 강하게 함으로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참조, 사 42:16; 겔 34:16; 미 4:6; 습 3:19).
- (4)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능가하는 약속을 주실 때 그분의 능력을 과소 평가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승리적임을 확신해야 한다.

9. **㉠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9절)**

- ㉠** (1) 그들은 울며 올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간구할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길로 행할 것이다.
- (2) 이는 그들이 돌아올 때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다(참조, 시 126:6).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모습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지 않았을 때 빠졌던 슬픔을 대치시키고 있다.
- (3)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된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것들을 당신의 능력 아래 굴복시키고 성도들을 구원하심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10. **㉠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는가? (10-12절)**

- ㉠** (1) 하나님께서는 흩으신 이스라엘을 모으시고 목자와 같이 지키시며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시온에서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사로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을 전파하라고 하셨다.
- (2)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벌을 주셨으므로 다시 구하실 수 있으며(참조, 사 52:3) 그런 구속의 은총이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3) 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신적 중심인 성전의 복구도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는 구별된 자로서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참조, 사51:3; 스1:17).

(4)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나그네 길과 같은 이 세상(참조, 창47:9; 히11:13)에 연연(戀戀)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한다(참조, 딤후4:8).

11.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는 말씀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13절)

㉠ (1) 그 말씀으로 인하여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2) 앞에서는 구속의 기쁨이 영원할 시간적인 면을 말했으나 여기서는 공간적 의미로 남녀 노소에게 이를 것을 선포한다.

(3)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는데 이것은 방탕한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기쁨의 표현이다(참조, 삼하6:12-15).

(4)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깊은 사랑을 체험함으로써 기쁨을 표현하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

12. **㉠** 하나님께서는 근심과 괴로움에 있던 당신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13, 14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위로하시며 제사장들의 심령을 기름으로 흡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2)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기들의 소유로 누리지 못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들이 본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암시한다.

(3)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은 히브리어로 <데웬>인데 이는 만물의 풍성함을 뜻한다.

(4) 성도들에게도 이들과 같이 고난이 있을 때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 능력에 굴복하고 그분께 돌아오게 된다.

13. **㉠**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땅이 황폐한 것을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15절)

㉠ (1) 그는 라마에서 슬퍼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2) 그의 이런 비유는 그들의 땅이 황폐하고 삭막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강한 호소력이 있다.

(3) 특히 본절은 신약 성경에 인용되어(마2:18)헤롯에 의하여 죽은 두 살 미만의 갓난아기에 대한 사실과 연관지어졌다.

(4) 왜냐하면 마태는 본절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의하여 나라가 폐허화된 것을 동일한 의미로 보았기 때문이다.

14. **㉠** 라헬의 슬픔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는 어떤 것인가? (16, 17절)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한 일에 갚음이 있을 것이며 대적의 땅에서 돌아올 것이며 또한 최후에 소망이 있는 가운데 그들의 자녀가 경내로 돌아올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

(2) 선지자 예레미야는 라헬의 애곡이 오래 계속할 것이 아니고 그의 슬픔이 결과적으로 상당한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시30:5; 호6:1).

(3)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어야만 했던 온갖 재앙들이 끝나고 해방될 때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한 것으로 남게 된다는 의미로 희망을 심어 준다.

(4) 이러한 희망이 성도들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된다.

15. **㉠**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에브라임의 탄식은 어떤 것인가? (18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로 멍에에 익숙치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를 이끌어 들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라는 말로 탄식했다.
 (2) 이것은 에브라임이 회개하는 모습인데 여기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대표하고 있다.
 (3) 그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더욱 패역해지고 지금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고야 만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4) 이와 같이 성도들도 자신의 무능함과 하나님의 전능(계 19:6) 하심을 인정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라야 한다.

16. Ⓞ 에브라임이 뉘우친 때는 언제인가? (19절)

- Ⓐ (1) 그때는 에브라임이 돌이킴을 받은 후이다.
 (2) 에브라임은 자기가 돌이키고자 원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사역에 의하여 회개하게 된 것이다(참조, 시 51:10; 눅 24:47).
 (3) 언제나 죄악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회개의 영을 구하는 생활(시 51편)이 필요하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다(참조, 신 30:2-8).

17. Ⓞ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 대하여 탄식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20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있어서 에브라임은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자식이므로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고 말씀하셨다.
 (2) 에브라임은 당신께 전혀 멍에나 기쁨의 대상이 되지 못하지만 당신의 특별한 백성이므로 그를 잊지 못하여 사랑의 채찍을 드신 것이다(참조, 욕 7:17, 18; 히 12:6).
 (3) 그러므로 성도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그것을 괴로워하지 말고 도리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18.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소망은 어떤 것인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아오게 될 소망을 주셨는데 그것을 위하여 돌아올 길을 위한 이정표를 세우라고 하셨다(참조, 사 11:12).
 (2) 여기서 이정표를 곧 세우라고 하신 뜻은 눈에 보이는 표식(標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신앙의 길을 기억하라는 말이다.
 (3) 따라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당신의 긍휼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시는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내리시는 징계가 사랑의 표현임을 알 수 있다.
 (4) 이런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였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정표(里程標)를 삼아(참조, 요 14:6) 그분께서 원하시는 참성도의 길을 가야 한다.

19. Ⓞ 하나님께서 패역하여 방황하는 이스라엘에게 대해 새 일을 행하신 것은 무엇인가? (22절)

- Ⓐ (1) 그 일은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는 것이다.
 (2) 이 부분의 말씀은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역사적인 시각에서 어떤 학자(Calvin)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보았다.
 (3) 왜냐하면 '남자'라는 히브리어가 <게베르>인데 그 뜻이 '용맹한 사람' 혹은 '나라를 지키는 용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4) 그래서 유약한 이스라엘을 여자로 비유하고 바벨론을 강한 남자로 나타내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길 것이라는 의미라고 칼빈은 말하였다.
 (5)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참조, 신 10:17)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적이라도 이길 수 있다.

20. ㉠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 내용은 무엇인가? (23-26절)

- ㉠ (1)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유다 땅과 그 성읍에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확인하며 목자가 함께 거할 것이라고 하셨다.
- (2) 여기는 유다에 대하여 재차 언급하는데 그 내용은 간결하지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유다의 재설립과 축복을 확인한다.
- (3)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이 다시 의인이 거하는 거룩한 성읍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전해지는 곳이 된다(참조, 시 128:5; 134:3).
- (4)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다시 그들은 복의 근원(창 12:2)이 될 것이라고 확인하셨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입어 이런 복의 근원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1. ㉠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어떤 상태였는가? (26절)

- ㉠ (1) 그때에 그는 잠자는 상태와 같았다.
- (2)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 계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단 2:1) 그가 진짜로 꿈을 꾸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 (3) 한편 본질의 '잠을 잔'이라는 의미로서 히브리어 <쉐나>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꿈을 꾸면서 잠자는 상태를 나타낸다.
- (4) 그러나 창 2:21의 '깊이 잠들게 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타르데마>를 70인역에서는 '황홀경'이란 뜻의 <엑스타시스>로 번역한 것과 비교할 때 예레미야는 입신 상태에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2.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씨를 뿌리실 때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27, 28절)

- ㉠ (1)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세우며 심으실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유대인의 죄를 징벌하는 재판장의 모습과 또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신다(참조, 삼상 2:6).
- (3) 이제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징계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셨으나 이제 사람 뿐 아니라 짐승까지 번성케 하시는 축복의 신으로 나타나신다(참조, 겔 36:11; 호 2:23; 습 10:9).
- (4) 이런 사건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들을 파괴하는 경우 뿐 아니라 구원 역시 하나님 손길의 능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달았다.
- (5)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아끼시는 동안 어떤 위협도 개의치 않고 범 죄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6)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자신의 패역함과 오만을 버리고 유다 백성과 같이 돌아오게 된다.

23. ㉠ 자신들의 고난을 조상들의 죄로 원인을 돌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29, 30절)

- ㉠ (1) 하나님께서는 '아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고 하셨다.
- (2) 선지자 예레미야는 '아버의 죄가 아들에게 전가된다'(출 20:5)는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자신들이 해야 할 의로운 일들을 수행하지 않고 조상들의 허물만을 탓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다.
- (3) 또 에스겔 선지자도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통이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은 하나의 불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참조, 애 5:7; 겔 18:2, 3).
- (4)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때문에 반드시 죄인들에게 값을 치루신다(참조, 신 24:16; 사 3:11; 겔 3:18; 18:20, 30).

(5) 따라서 타성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다가 신앙 성장을 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경우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2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31, 32절)

- ㉠** (1)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구출될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었는데(참조, 출 24:8; 왕상 8:9) 그들이 먼저 그 언약을 파기(破棄)하였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남편과 같이 보호하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김으로 그분을 배반하였다(참조, 3:14; 출 32:1-6).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적인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통하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생명의 원리를 세우신다(참조, 32:4; 켈 37:26; 히 8:6; 10:16).
- (4) 이 언약은 후에 메시아의 왕국과 필연적으로 연관되는데 신약 시대의 사도들 역시 이를 증거하고 있다(참조, 롬 11:27; 히 8:8-12; 10:16).
- (5) 그러나 '새 언약'은 아브라함(창 17:7)과 모세(출 6:7)에게 주신 언약이 변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데 언약의 본체는 동일하지만 단지 형태만 바뀐 것이다(참조, 호 2:23; 숙 8:8; 13:9; 계 21:7).

2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실 새 언약의 내용은 어떠한가? (33, 34절)

- ㉠** (1)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며 그들은 당신의 백성이 될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다.
- (2)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설명한다. 즉 복음은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켜 의로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함으로써(참조, 롬 7:6; 고후 3:6)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한다.
- (3) 따라서 예레미야는 죄 용서받은 후 세상과 자신을 부인할 것(참조, 마 6:24; 눅 14:26, 27)을 암시적으로 말하였다.
- (4)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있게 된다(참조, 시 119:165; 잠 3:1, 2; 사 54:13).

26.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이 불변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는가? (35-37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물이 자연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 지속되듯이(참조, 창 1:16) 당신의 언약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 (2) 그리고 이 약속이 확고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라고 말씀하셨다(참조, 시 148:6; 사 54:9, 10).
- (3)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므로 유대인들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거짓말장이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롬 3:3, 4).
- (4) 성도들은 이렇게 신실하신 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27. **㉠** 하나님을 위하여 성을 어디까지 건축할 것인가? (38절)

- ㉠** (1)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뿐인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건축할 것이다.
- (2) 하나뿐인 망대는 예루살렘 북쪽 성의 망대 이름으로 양문(羊門)에서 가까운 동북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다.
- (3) 이 망대는 숙 14:10과 본절에서 예루살렘의 경계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 전체를 건축할 것이란 의미를 내포한다.
- (4) 그러므로 이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복구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 (5) 성도들은 이런 영속적인 하나님의 은총 안에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됨으로써 그리스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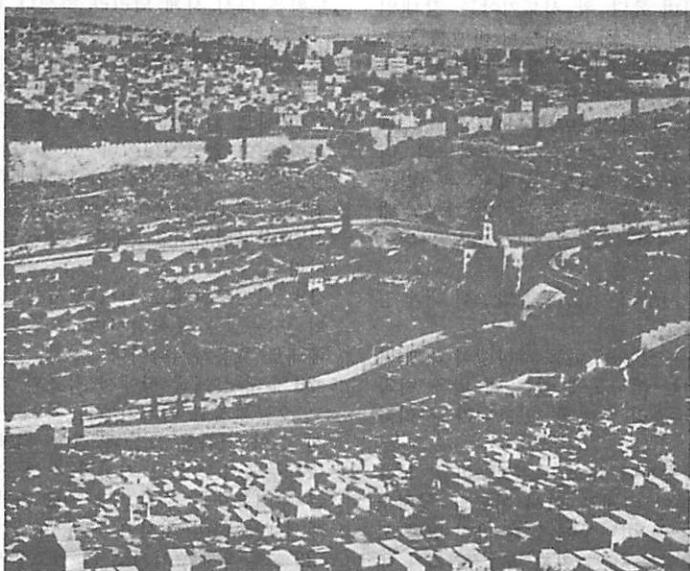
왕국을 소유하게 된다(참조, 속 12:6).

28. **㉠** 여호와와의 성지는 그 범위가 어떠한가? (39, 40절)

- ㉠** (1) 가렙 산에서 고아로 돌아 힌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와 동편 말문(馬門)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이다.
 (2) 힌놈의 골짜기는 본문에 시체와 재의 골짜기로 기록되었는데 그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로 죄와 형벌과 고통의 상징(사 66:24)이 되었다.
 (3) 이런 곳까지 하나님의 성지로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폭 넓은 구속 사역의 성취를 나타낸다.

화보자료

현재의 예루살렘 전경(前景). 멀리 성벽 너머로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선 성읍과는 달리 푸르름으로 잘 단장된 기드론 골짜기의 풍경은 인상적이다.



비록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는 하였지만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소식을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으니 곧 기드론 시내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곳곳에서 성읍 재건의 역사가 시작될 날이 임하리라는 것이다(38-40절).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일차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취되었는데 바벨론 멸망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성읍을 재건하였다.

제 32 장 유다 회복의 상징으로 예레미야가 밭을 사다

단락구분 1-5 예레미야가 갇히다 / 6-15 예레미야가 밭을 사다 / 16-25 예레미야가 기도하다 / 26-35 하나님께서 유다에 대하여 노하신 이유 / 36-44 유다의 회복을 재차 약속하시다

1 유다 왕 시드기야의 제 십 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 십 팔 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3-5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내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6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7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무를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8 여호와와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무를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와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9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십 질 세겔을 달아 주되

10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 주고

11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때에 증서를 내가 취하여

12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

야의 아들 바룩에게 부치며

13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14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뉘는 날 동안 보존케 하라

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짐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16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부친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17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18 주는 은혜를 천만 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지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19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20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21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2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23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24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흠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열병으로 인하여 이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으며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25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26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28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29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러 나를 격노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30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격노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31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하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32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33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34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중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35 힌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물레의 불에 지나

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중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36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열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37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38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39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40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41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녕히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2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같이 험악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43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1. ㉠ 본장의 사건과 그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유다의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고향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신 것과 그가 순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바벨론에 포로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당신께 대한 진실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땅에서 안락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3) 이런 하나님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공의로우시지만 공의 뿐 아니라 무한히 넓은 사랑도 가지고 계심을 발견하므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평안하며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

2. ㉠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 (1, 2절)

- ㉠ (1) 그때는 유다 왕 시드기야 제 10년(B. C. 588)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 18년으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이었다.
- (2) 바벨론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이른 것은 시드기야 왕 9년말경(왕하 25:1, 2) 이었다. 그

해에 예루살렘이 두 달 동안 포위당했고 그 상태가 1년 반 이상 계속되었으나 중간에 애굽 군대가 원군으로 왔기 때문에(37:5, 11) 다소 공백이 있었다.

- (3) 이런 때에 주어진 예언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였다. 즉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약 6, 7개월 전으로 백성들의 패역함이 극심한 때였다.
- (4) 왜냐하면 적군에게 포위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지자를 감금했기 때문이다.
- (5) 예레미야는 무려 40년 동안(B. C. 627, 1:2)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죄에 대하여 경계하고 권면함으로써 회개의 길로 인도하려고 애썼으나 새로운 변화가 그들에게서 일어나지 않았다.
- (6) 결국 하나님의 경고가 막바지에 이르러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데 성도들도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3. **㉠**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 그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2절)

- ㉠** (1) 그때 그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있다.
- (2) ‘시위대’는 사람이나 물건을 보호할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뜻한다(참조, 빌 1:13; 4:22). 예를 들어 보디발은 애굽 왕의 시위대 대장(창 37:36; 41:10, 12)이었고 느부사라단은 느부갓네살 왕의 시위대 대장(52:12; 왕하 25:8)이었다.
- (3) 그렇지만 ‘시위대 뜰’은 흠정역에 ‘감옥의 뜰’로 번역되어 있다. 느 3:25에 시위청으로 나오는 표현을 제외하면 본서에만 나타난다.
- (4) 이 뜰은 궁정 건물 내에 있는 장소로서 죄수 유치를 위해 마련된 곳인데 적어도 예루살렘 포위 기간 동안은 이곳에 죄수가 유치되었다.

4. **㉠**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3-5절)

- ㉠** (1)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의 포로가 되며 유다가 그들과의 싸움에서 질 것이라고 예언하였기 때문이다.
- (2) 시드기야는 이런 예언이 자신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 줄 모르고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 (3)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알고 결비하고 은유한 마음으로 돌아갔어야 했지만 예레미야를 죄인 취급한 것으로 보아 그의 우둔함을 알 수 있다.
- (4) 결국 그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고 말았다(왕하 25:6, 7).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멸망의 길임을 알 수 있다(참조, 잠 13:13; 16:18).

5.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사라고 하셨는가? (6-9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촌의 밭 곧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거할 장소, 즉 당시의 택한 백성을 위해 준비하시기 위함이다.
- (3) 이것은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며 그들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는 구속의 소망을 심어 주시는 말씀이었다.
- (4) 따라서 유다 백성이 그때까지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말씀 중에 나타나 있다.

6. **㉠** 예레미야가 밭을 사게 된 기업의 상속권이란 무엇인가? (7, 8절)

- ㉠** (1) 이 권리는 ‘장자의 상속권’과 의미가 연관되는데 부친의 능력이요, 첫 열매인 장자(창 43:3)는 특권과 보호와 그에 관련된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 (2) 상속권(기업)에 대한 히브리 율법은 우선적으로 아들에게 돌아가지만 만일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딸도 없으면 형제에게,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돌리도록 규정하였다(민 27:8-11).

- (3) 일반적으로 장자는 다른 형제들의 상속분의 두 배를 받을 수 있었다(신 21:15-17).
- (4) 그러나 아들이 없어서 딸이 상속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반드시 자기 지파의 사람과 결혼하여 재산이 다른 지파로 이동되지 않게 하였다(민 36:3).
- (5) 한편 재산 상속에 있어서는 모친의 지위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예로 사라는 여종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장자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추방했다(창 21:10).
- (6) 과부는 재산 상속에 관하여 특별한 보호 규정이 없었다. 왜냐하면 늙기 전에 죽는 것은 재앙이며, 그 재앙이 살아 남은 아내에게까지 미치지 때문이다. 단지 수혼(嫂婚) 규정을 통하여 상속받을 수 있었다.

7. **㉠ 예레미야는 아나돗에 있는 하나넬의 밭을 얼마에 샀는가? (9절)**

- ㉡** (1) 그는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샀다.
- (2) 오늘날 화폐 가치와 과거의 화폐 가치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화폐 명칭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명 칭	가 치	환 제 성 귀
유	게 라 (Gerah)	세겔의 1/20	출 30:13
	베 가 (Beka)	세겔의 1/2	출 38:26
	세 켈 (Shekel)	금 - 은의 15배 은 - 일반 노동자 4일의 품삯	대상 21:25 출 30:24 삼하 24:24
대	므 나 (Minah)	달란트의 1/60	눅 19:13-25
	달 란 트 (Talent)	금 - 은의 15배 은 - 6000 드라크마	대상 29:4 출 38:27 마 18:24
	로	고드란트 (Kodrantēs, 호리)	앗사리온의 1/4
마	앗사리온 (Assarius)	테나리온의 1/16	마 10:29
	테나리온 (Denarius)	하루 품삯	마 18:28
헬	렙 돈 (Lepton)	로마 고드란트의 1/2	막 12:42 눅 12:59
	라	드라크마 (Drachma)	하루 품삯

8. **㉠ 예레미야는 밭을 산 후 어떻게 매매 증서를 작성했는가? (10-12절)**

- ㉡** (1) 그는 증인을 세우고 법과 규례대로 매매 증서를 작성한 후 하나는 인봉(印封) 하고 다른 하나는 인봉하지 않고 자신이 취하였다.
- (2) '증서'는 히브리어로 <세메르>인데 증서라는 의미보다 '책'이나 '명부' 혹은 '문서'라는 의미가 더 크다.
- (3) 예레미야가 가진 증서는 인봉하지 않은 것으로 아마 '사본'을 뜻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9. **㉠ 바룩은 어떤 인물인가? (12절)**

- ㉡** (1) 그는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로써 유다 왕 시드기야의 시종장인 스라야의 형제였다(51:59).
- (2) 그는 B. C. 605, 604년 유다 왕 여호야김 때 관료로서 예레미야의 친구이며 그의 서기였다(36:10; 51:59).
- (3) 유다 왕 여호야김 5년 9월에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이 금지당한 후 바룩은 예레미야의 구전(口伝)의 말을 기록하여 백성들에게 읽어 주었다.
- (4) B. C.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그는 예레미야와 함께 바벨론에 포로가 된 후에 애굽 땅 다바네스로 가서 그곳에 거하였다(43:1-7).

10. **㉠** 예레미야는 매매 증서를 어떻게 보존하였는가? (14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 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2) 예레미야는 그가 증서를 작성할 때 하나는 봉하지 않고 공개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현재적 은혜를 보여 주어 신실한 자들이 말씀을 믿고 포로로 잡혀가게 한 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징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다.
 (3) 그리고 인봉한 증서는 70년의 약속 기간이 지난 후 돌아올 것에 대한 구속의 약속을 경건한 자들에게 줌으로 희망을 잃지 않게 하려는 의미이다.

11. **㉠** 하나님께서 증서를 토기에 담아 보존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그 이유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다.
 (2)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당신의 백성이 회복할 때까지 그들에게 소망을 북돋아 주시려는 것이다.
 (3) 즉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으므로 그들의 재앙이 길지 않을 것을 백성들이 알도록 하시기 위해 이런 말씀을 주셨다.
 (4)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시되 그것에 대한 증거들을 보여 주시는 분(창15:5)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확신한다.

12. **㉠** 예레미야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6-19절)

- ㉠** (1) 하나님은 전능한 우주의 창조자시며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범죄한 자를 보응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2)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창1장)과 모세의 율법(출20:6)을 인용하여 그분의 사랑과 공의, 즉 범죄한 자의 죽음(31:39; 신24:16; 겔18:2, 20)을 선포했다.
 (3) 그가 이런 말씀으로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전하기는 했으나 그분의 깊은 뜻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 예레미야의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다른 생각이 스며들어 신앙을 혼란하게 만들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13. **㉠**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는가? (20,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당신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2) 애굽 땅에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 내리신 재앙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재앙	예고	시행자	성경구절	비고
1	강물이 피로 변함	○	아론	출7:14-25	사람과 짐승
2	개구리	○	아론	출8:1-7	사람
3	이	×	아론	출8:16-19	사람과 짐승
4	파리	○	하나님	출8:20-24	사람
5	악질	○	하나님	출9:1-7	짐승
6	독종	×	모세	출9:8-12	사람
7	우백	○	모세	출9:22-26	사람·짐승·식물
8	메뚜기	○	모세	출10:12-15	식물
9	흑암	×	모세	출10:21-23	사람
10	사람·짐승의 초태생(初胎生)의 죽음	○	하나님	출11:4-9 출12:29-36	유월절의 시작 사람·짐승

(3)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신다(참조, 신 4:34;6:22;느 9:10).

1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땅에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행했는가? (22, 23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다.
- (2)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배은 망덕한 행위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명령(11:7)이 있었으나 그들은 전혀 그 명령을 순종치 않았다(느 9:26; 단 9:10-14).
- (3) 이와 같이 오늘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축복을 잊고 육신적인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일(참조, 눅 15:13)이 많다.

15. **㉠** 유다 백성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떤 것이었는가? (24절)

- ㉠ (1)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었고 또한 칼과 기근과 열병으로 인하여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함락되었다.
- (2) 이런 상황이 있었던 때는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서부터 시드기야 11년까지의 일이었다(왕하 25:1-3).
- (3)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심한 진노는 어느 누구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레 26:16; 신 28:15; 스 9:7; 애 1:8).

16. **㉠** 예레미야가 밭을 샀지만 마음에 의심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 (1)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미 그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기 때문이다.
- (2) 배나민 땅 아나돗은 이미 적의 수중에 있었다. 그곳은 적군이 첫번째 침공할 때 본보기로 희생되어 점령된 곳이었다(참조, 11:23; 34:6, 7).
- (3)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사기는 했으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던 것이다.
- (4)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이처럼 주위의 여건으로 인하여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온전히 자신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참조, 출 3, 4장; 사 6:36-40).

17. **㉠**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6, 27절)

- ㉠ (1) 그 하나님은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며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다.
- (2)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세속적으로 불리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호와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만들어진 칭호이다.
- (3)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칭호(稱號)와 그 뜻을 알아보자.

칭 호	의 미	참조 성귀
야웨 (예호와)	스스로 계신 자.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나타난 본성에 중요성이 있다	출 3:14
엘	하나님, 신성(神性)에 대한 셈어의 일반적 칭호. '힘'을 뜻한다	창 17:1 수 3:10 삼하 12:31, 32
엘 샤다이	'전능자'로 번역된다	창 17:1-20
엘 엘리온	'지고자' (至高者)	사 14:13, 14
엘 을 람	영원한 하나님	사 40:28
엘 벨 엘	벨엘에서 계시된 하나님	
엘 브 릿	계약의 하나님	

엘 엘로헤 -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로 힘	우두머리의 신 70인역에서는 <테오스> (theos)로 번역된다
기타 칭호	아도나이, 쿨리오스, 카도쉬, 압, 파테르, 샤파트, 소테르, 차디크 등이 있다

18. **㉠**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8-30절)
- ㉠** (1)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격노케 하였기 때문이다.
 (2) 예레미야는 남북 왕국을 동시에 언급하면서 남유다도 범죄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3)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분리한 상태로 동시에 언급하면 유다 지파는 영광이나 책망을 위해 이스라엘 왕국과는 별도로 지칭된다.
 (4) 그러나 이스라엘만 언급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을 포함한다.
 (5)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관용하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죄의 보응이 연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하나님을 격노케 했으므로 그분의 위엄이 크다고 해도 지나치다고 말할 수 없다.
19. **㉠**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 동안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는가? (31절)
- ㉠** (1) 그들은 이 성(예루살렘)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다.
 (2)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처음 건설할 때(참조, 삼하 5:5-10)부터를 가리킨다.
 (3) 이스라엘 왕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먼 옛날부터 최악의 행위를 지속해 왔다는 강력한 표현이다(참조, 왕하 11:5; 23:27; 24:3).
 (4)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롬 2:4).
20. **㉠** 하나님께서 성을 옮기려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2절)
- ㉠** (1)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는데 그들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렇게 악을 행하였다.
 (2)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층의 사람을 정죄하시는데 첫째로 '왕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배반하도록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3) 또한 '제사장과 선지자들'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백성들에게 지식을 주어야 할 사람(말 2:7)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나태하여 불경건한 모습을 보였다.
 (4) 이런 일들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신앙적 혼란에 빠졌는데 오늘날 교회나 성직자들도 타락하면 성도들이 그들을 따라가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참조, 약 3:1).
21. **㉠**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는가? (33-35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들 집에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 더럽게 하며 우상의 산당을 건축하고 자녀를 몰락의 불에 지나가게 하였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되어진 율법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집을 가증한 우상으로 채우는 모독 행위를 나타냈다.
 (3) 그들은 선지자를 보내어(신 18:18) 가르치고 엄히 금한 행위(레 18:21; 20:5)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저버렸다(눅 10:16).

(4) 그 결과 백성들의 정신적 기둥이 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폐허가 되었다.

22. **㉠** 바벨론 왕의 손에 붙여진 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36-38절)

- ㉠ (1) 하나님께서는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 내어 이곳으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고 당신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셨다.
- (2)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이유는 그들이 거룩한 약속의 땅을 더럽혔고 성전도 우상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소망을 주셨다(참조, 창 18:22-33).
- (4) 이런 소망에 의지하여 성도들은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아(시 145:15)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합 1:12).
- (5) 만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 명이 있었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의인을 찾고 계신다.

23.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영영한 언약은 무엇인가? (39-41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시어 당신을 경외하게 하시고 그들을 복주시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
- (2) 또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녕히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이 땅, 약속의 땅에 심으리라고 하셨다(참조, 시 80:8; 마 15:13).
- (3) 예레미야가 본질에서 말하는 언약은 율법의 계명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31장에서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불렀으며(31:31) 지금은 '영영한 언약'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4) 과거와 현재의 두 언약은 명백한 차이가 있다. 과거의 언약은 백성들의 귀에 들려지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 (5) 그러나 새 언약은 '영영한 언약'이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결코 변하지 않게 하신다(참조, 50:5; 시 89:34; 사 55:3; 겔 11:19, 20; 16:60).
- (6)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의 배후에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사 30:21):

24. **㉠**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복(福)은 무엇인가? (42-44절)

- ㉠ (1)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고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진 땅을 사고 포로된 자들이 그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추방이 일시적이라고 말씀하신다.
- (3) 이런 일시적 추방과 회복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이 회개하고 또한 추방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신께 대한 기도(祈禱)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 (4)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 확실하듯이 당신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 또한 확실한 것이다(33:10).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성은 모든 악을 초월한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멸하고 은혜를 폐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완성하시며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영적 상속자로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본장의 요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能)과 드신 팔로 전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17절).

제 33 장 메시아의 오심이 약속되다

단락구분 1-9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의 구원을 약속하시다 / 10-13 유다의 회복된 모습 / 14-18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파송을 약속하시다 / 19-26 하나님께서 약속의 신실성을 보증하시다

1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2 일을 행하는 여호와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 아인의 흙벽과 칼을 막아

5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6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부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8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푸는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푸는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10-11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

12 나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

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의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부리를 놓게 할 것이라

13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니라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14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15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자가 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16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었고 예루살렘이 램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17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18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 큰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9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0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21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뭇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22 하늘의 만상은 쉰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23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4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25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26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1. ㉠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설명하라.

- ㉠ (1) 하나님께서는 본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것과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한 의로운 가지, 즉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약속의 신실성을 보증하시기 위해 자연 원리가 불변함을 예로 드셨다.
-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현재와 미래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약속하셨는데 먼저 당신의 백성이 영광스런 상태로 회복될 것이 선언되었고(4-13절), 다음으로 새롭고 지속적인 상태로 왕직과 제사직의 재성립을 약속하셨다(14-26절).
- (3) 패망의 심각한 위협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살아 남을 수 있었던 원인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이처럼 신실하게 지키시며 더 나아가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위대한 소망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 (4)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광스런 상태로 회복시키시며, 또 그 회복에 대한 갱신(更新)된 약속을 제시하시므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 역시 이런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대한 불변의 확신을 견지(堅持)할 수 있다.

2. ㉡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했는가? (1절)

- ㉡ (1) 그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32:2)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 (2) 감옥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에게 감옥은 하나님의 성소였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었다.
- (3) 베드로와 바울도 역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므로 그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하나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다(행 12:5-11; 16:24-34).
- (4) 이제 성도들은 어떤 장소,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무소 부재(無所不在)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을 갖고 그분을 위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3. ㉢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되었는가?

- ㉢ (1) 본절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 라고 표현되었다.
- (2)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 라는 의미(출 3:4)로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 유대인들이 감히 그분을 대항하여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였다.
- (3) 이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모든 것은 무기력해지고 그분의 일을 지연시킬 만한 장애물이 결코 없으리라는 의미이다.
- (4) 따라서 오늘날 성도들은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으며(참조, 빌 4:13)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온갖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참조, 롬 8:37).

4. ㉣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셨는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또한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 주시겠다고 하셨다. 즉 당신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성실히 응답하실 뿐 아니라 그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풍부한 은혜로 채워 주신다고 하셨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도움을 요구하는 모든 경건한 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다.
- (3) 이러한 약속에 따라 예레미야는 언제나 진지하게 기도해 왔으며, 감옥은 그의 기도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4) 따라서 우리가 슬픔과 고통으로 지쳐 있을 때, 일차적인 원인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데 나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의 위로와 능력을 공급 받지 못하는 것이다(참조, 마 26:36-46).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

(5)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23:23; 시 119:151)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참조, 눅 6:12; 행 1:14; 빌 4:6; 살전 5:17).

5. **㉠ 예루살렘과 유다 왕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4, 5절)**

㉠ (1) 그들이 갈대아와 대적하려고 나가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므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여 성에 시체들이 뒹굴 것이라고 하셨다.

(2) 이는 갈대아와 싸우지 말고 항복하라는 선지자의 충고(참조, 27:8, 11, 12)를 무시한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육당하는가를 보여 준다.

(3) 그들이 갖은 노력을 다하여 갈대아의 침입을 막아 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므로 성공할 수 없었다.

(4) 유다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으나 아무리 택한 자라도 하나님의 충고를 거부하면 보호받을 수 없다.

(5)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참조, 시 121:1-8)만 맹신(盲信)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것이다(참조, 시 127:1, 2).

6. **㉠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 하셨는가? (6-8절)**

㉠ (1)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치료하며 그들에게 평강과 성실을 풍성히 나타내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또한 그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당신께 범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고 하셨다.

(2)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대하여 많은 언급이 있었으나 본절에서는 그들의 회복과 함께 죄의 문제까지 원상태로 돌이켜 주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3) 즉 그들이 회복되는 '처음과 같이'란 말을 건물에 비교할 때 과거의 건물 상태란 말이 아니고 건물을 짓기 전의 원자재 상태를 의미한다(참조, 왕상 13:6; 사 1:26).

(4) 그들이 이런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다(참조, 31:34; 시 51:2, 7; 히 9:13, 14).

(5)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참조, 롬 6:23) 대가 없는 하나님의 사죄하심으로 인하여(참조, 사 44:22; 미 7:18, 19) 원상태로 회복됨을 감사해야 한다.

7. **㉠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므로 그 성읍은 어떻게 될 것인가? (9절)**

㉠ (1) 그 성읍은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2) 여기서 그 성읍이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므로 내적, 외적인 혁신이 그 안에서 일어나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읍이 될 것이다.

(3) 따라서 본절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언급할 때마다 그 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영광도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4)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때 비록 아무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참조, 13:11; 사 55:13; 습 3:20).

8. **㉠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처음과 같이 되게 하시므로 그곳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10, 11절)**

㉠ (1) 그곳에는 즐거움과 기쁨과 신랑, 신부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다시

들릴 것이다.

- (2) 고통과 환난의 시기에는 결혼식과 같은 축제를 생각할 수도 없으나(7:34;13:9;시 78:63;사 24:7,8;계 18:22,23)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축제가 다시 열리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도 다시 울려 퍼지게 된다.
- (3) 예레미야는 이런 회복의 시기에 경건한 자들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여 주는데 그들은 무절제하여 방탕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경건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 (4) 성도들은 이런 경건한 자들을 본받아 자신들의 생활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시 34:1;사 63:7;엡 5:20;살전 5:18).

9. **㉠**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동일한 약속을 무엇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는가?
(12, 13절)

- ㉠** (1) 그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하여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였다.
 (2) 즉 폐허가 된 그들의 성읍에 다시 목자의 거할 곳이 있으므로 양 무리가 그곳에 누울 것이고 모든 성읍들에서 양 무리가 제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3)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지만 그것을 의심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 평화로운 목가적(牧歌的) 광경을 비유로 하나님의 은총을 확신시키고 있다.
 (4) 하나님께서는 안전한 곳으로 양을 인도하시는 목자처럼(참조, 시 23편;78:52;사 40:11)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데 오늘날 성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다(참조, 요 10:1-15).

10. **㉠**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누가 나올 것이며 그로 인해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14-16절)

- ㉠** (1)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는데 그는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로 인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2) 이 말씀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23:5,6에서 이미 설명하였다(참조, 23장 ㉠5).
 (3) 성경에서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은 가지 외에도 '싹' (사 4:2), '순' (슥 6:12), '뜨인 들' (단 2:34) 등이 있다.
 (4) 한편 이 메시아는 경건한 자들은 보호하시지만 사악한 자들은 처벌하신다. 만일 이러한 자들이 법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억제되지 않는다면 모든 질서가 파괴될 것이다.
 (5) 그러므로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정의와 공평'은 선한 자들의 보호와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포함한다.
 (6) 최종적으로 그의 공의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인 오늘날의 성도들도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11. **㉠**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므로 하나님께서 유다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
(17, 18절)

- ㉠** (1) 그 약속은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히 끊이지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이다.
 (2) 이 약속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왕권과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3) 그리스도의 왕권은 이미 다윗의 시대에 약속되었다(참조, 삼하 7:16;왕상 2:4;시 89:3,4;눅 1:32,33).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분의 왕권에 복종해야 한다.

- (4) 또한 그의 제사장직도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것이다. 그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직을 계승하였다(참조, 시 110:4; 히 7:1-10).
- (5) 구약에서 다윗의 나라와 레위인의 제사장직은 신정 정치의 두 기둥이며 기본으로서 그곳에 신정 정치의 지속성과 존재 의미가 있다.
- (6) 이런 두 기둥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파괴되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함께 무너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두 제도가 당신의 약속에 따라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고 본절에서 선언하셨다.

12. **㉠** 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불변함을 무엇으로 증명하였는가? (19-22절)

- ㉠** (1)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에 대한 당신의 약정이 불변함을 들어 그 약속을 증명하셨다.
- (2)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 (3) 하나님께서는 창 3:15의 약속과 창 15:4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졌던 메시야의 약속이 결코 변경될 수 없다는 증거로 자연 질서의 불변함을 제시해 주셨다.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적 언약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은 고통과 죄악이 많은 이 세상에서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
- (5) 즉 오늘날 성도들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에 근거하여 그 분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
- (6) 오늘날 성도들과 교회도 이와 같이 확고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되었다.

13. **㉠**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나 그들의 죄를 징벌하심에 대하여 그들은 어떤 불평을 하였는가? (23, 24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방 가운데 버리실 바에는 무엇 때문에 택하셨는가 라고 불평했다.
- (2) 이처럼 현실적으로 부딪힌 고난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을 위축시켜 그분의 축복을 잃고 불평하게 만들었다.
- (3) 오늘날 성도들도 현실적 고난이 그들을 성장시키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참조, 요 16:33; 행 14:22; 고후 4:17)임을 망각할 때가 많다.

14. **㉠** 자연의 약정이 파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25, 26절)

- ㉠** (1) 자연이 그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다윗의 자손을 버려 다윗 자손 중에서 그들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인증(認證)하신 당신의 불변성(20, 21절)을 재확인하셨다.
- (3) 특히 ‘야곱의 자손’이 언급된 것은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셨기 때문이다(참조, 창 26:4; 28:14). 그리고 다윗에게도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었다(삼하 7:12, 13). 이러한 언약은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야에 대한 약속이다.
- (4) 예레미야는 자연 법칙과 다윗 자손이라는 연관 내용을 직절히 연합시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셨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백성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권, 즉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메시야와 분리될 수 없음을 발견한다. 이것이 성도의 영원한 안전이다.

제 34 장 유다의 남녀 종들이 해방되다

단락구분 1-5 시드기야의 포로와 죽음이 예언되다 / 6-7 예루살렘과 유다가 함락되다 / 8-11 유다의 종들이 해방되다 / 12-16 하나님의 언약을 유다 백성이 깨뜨리다 / 17-22 하나님께서 언약을 갠 유다 백성의 징벌을 말씀하시다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예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할 것이라

3 네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네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네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4 그러나 유다 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와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5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네 열조 선왕에게 분향하던 일레로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롱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6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7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 이더라

8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9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대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10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12 그러므로 여호와와 말씀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3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14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칠 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육 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15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든

16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17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염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거

18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19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20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궁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21 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2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할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1. **㉠** 본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 ㉠ (1) 본장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포로됨과 죽음에 관한 예언 그리고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하나님의 규례를 어긴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징벌하실 그분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
- (2) 본장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갈대아 왕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무익한 일이고(1-7절) 유다의 남녀 종들의 해방을 취소한 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8-22절) 내용을 선포한 두 부분으로 대별(大別)된다.
- (3)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다 왕이 범죄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평안한 최후를 약속하시고 한편 유다 백성에게는 동족을 사랑하여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하셨다.
- (4) 이와 같이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참조, 히 13:8)의 사랑이 본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슬퍼하시는 그분의 모습과 그 가운데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은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

2. **㉠**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역사적 근거를 갖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1절)

- ㉠ (1) 그 이유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역사적 사건이나 연도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1:2; 21:1; 24:1; 25:1; 26:1; 27:1; 42:7).
- (2) 본절에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3) 이때는 포로의 첫 기간인 시드기야 9년에 해당한다(참조, 왕상 25:1; 대하 36:17-19).
- (4)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역사 과정을 지배하시는 주권적 감독자가 되심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역사 속의 한 개체인 우리들 중에 그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알 수 있다.
- (5) 비록 모든 개인이나 국가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실상 그 개인과 국가들의 통치는 그분의 주권적 힘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참조, 신 32:8; 사 40:15, 28; 단 2:21; 행 17:26; 롬 9:17, 22, 23).

3. **㉠** 예루살렘과 시드기야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2, 3절)

- ㉠ (1) 그는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에 의하여 불탈 것이고 시드기야는 그에게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 (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아(25:9) 이 예언을 성취시켰다(52:4-11; 왕하 25:1-7).
- (3) 이것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운행하시며 또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힘이 있어 반드시 성취됨을 알 수 있다.
- (4)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 뿐 아니라 오늘날도 자신들에게 그들과 동일한 말씀으로 충고하시고 있음을 깨달아 그분의 의도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

4. **㉠** 바벨론에 포로가 될 시드기야의 죽음은 어떠한 것인가? (4, 5절)

- ㉠ (1) 그는 칼에 맞아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들이 선례(先例)대로 그에게 분향하고 그를 위하여 애통할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왕인 여호야김이 전쟁에서 죽어(B. C. 597) 곡함이 없었고 장사 지내지도 못한 것(22:18, 19)에 비하여 시드기야가 당신의 은혜로 평안히 죽을 것이라는 위안을 주셨다.
- (3) 이런 시드기야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 부르시는 자연적인 죽음으로서 인간들에게 가장 복된 죽음이다.

- (4) 비록 시드기야의 자녀들이 그의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는 고통을 당했으나(52:4-11)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칼에 맞아 죽지 않게 하신 것은 그의 형벌이 어느 정도 감소된 것이었다.
- (5)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중요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히 잠들도록 늘 기도의 준비가 있어야 한다.
5. **㉠**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했을 때 남은 성읍들은 어디인가? (6, 7절)
- ㉡** (1) 폐허화된 유다의 성읍들 중에서 남은 성읍은 라기스와 아세가뿐이었다.
- (2) 본절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시기가 바벨론에 의해 침략을 받았을 때라는 1절의 말씀을 증명하는 귀절이다.
- (3) 무서운 바벨론의 침공 중에도 끝까지 견디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남서 약 45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유다 지파에 배당되었는데(참조, 수 10:3,31-33;12:11;15:39) 후에 르호보암이 견고히 하여 유다의 요새로 만들었다(대하 11:9).
- (4) 또한 아세가는 유다 남서부 세벨라에 있던 가나안 사람의 성읍으로 라기스 동북쪽 16 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여호수아 앞에서 패주한 가나안 다섯 왕이 죽은 곳(수 10:10, 11)이며 라기스와 함께 르호보암이 방비한 곳이다(대하 11:9). 이곳은 라기스와 함께 포로 귀환 후에도 사람이 살았다(느 11:30).
6. **㉠**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에게 자유를 선언한 언약은 무엇인가? (8, 9절)
- ㉡** (1)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대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다.
- (2) 이런 언약을 선언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예루살렘을 구출하기 위해서였다.
- (3) 시드기야는 신 15:12에 기록된 규정대로 노예를 해방하고 6년의 기한을 채우지 못한 자라도 해방시켜 줄 것을 명하였다.
- (4) 신명기에 기록된 규정은 동족이 가난으로 인하여 팔렸을 때 7년간 노예 상태로 있다가 자유할 것을 명하였다. 해방 후에도 신명기 정신과 동일한 맥락을 이루는 출 21:2-6에 정해진 법을 따르게 되어 있었다.
- (5) 한편 구약에 기록된 규정을 보면 이방인은 사유 재산으로 매매가 될 수 있었고(레 25:44-46) 또한 수입하기도 했다(대상 2:34).
- (6) 그러나 자유인을 윤택하여 파는 자는 사형이 선고되었다(출 21:16; 신 24:7).
- (7) 노예의 가격은 천차 만별(千差萬別)이었다. 출 21:32에 의하면 30세 째이지만 레 27:3-7에는 노예의 나이와 성별(性別)에 따라 3세 째부터 50세 째까지로 차이가 있다.
- (8) 대체로 젊은이는 20세 째(레 27:5)인데 요셉이 이 가격에 팔렸다(창 37:28).
7. **㉠** 시드기야가 선언한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백성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0, 11절)
- ㉡** (1) 그들은 처음에 그 언약에 참가하여 종들을 풀어 주었으나 후에 뜻이 변하여 다시 그들을 노비로 삼았다.
- (2) 먼저 유다의 방백들과 백성은 그 언약에 참여했기 때문에 몰라서 언약을 썼다고 핑계를 대지 못하게 되었다(참조, 롬 1:20).
- (3) 노예 해방에 참여했던 자들을 노예로 삼은 때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군이 애굽의 침입으로 잠시 포위를 풀었던 때(37:5)이었다.
- (4)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즉시 순종했으나 곧 의도가 바뀌어 그들이 행한 일을 후회했던 것이다.
- (5)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으로 즉시 순종하지만 자기들에게 실리(實利)가 없으면 곧 태도를 바꾼다.
- (6) 이런 자들에게 예수께서 주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르고 죄를 범한 자보다 더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가르치셨다(눅 12:47).

8. **㉠**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언약은 무엇인가? (12-14절)

- ㉠** (1) 히브리인이 동족에게 노예로 팔렸거든 7년 만에 해방시켜 주라는 것이었다.
 (2)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해 주셨으니 그들도 가난에 처한 자기의 형제를 노예 취급하지 말고 6년간 봉사하게 한 후 석방하라는 것이었다(출 21:2; 신 15:12).
 (3) 그러나 그들의 선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불순종하였다.
 (4) 이런 명확한 선언(참조, 사 45:19)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과 행위가 사악함을 증거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에 대하여 귀를 막고 거부했기 때문이다(7:26; 17:23).
 (5) 오늘날도 성경이나 강단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면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실 것이다.

9. **㉠** 선조가 아닌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 (15, 16절)

- ㉠** (1)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서 정당히 행하여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라는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세웠으나 뜻을 돌이켜 해방시켰던 노비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다.
 (2)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방법으로 형제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요청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범죄한 것은 아니었다.
 (3) 그들은 회개의 증거만 잠시 보여 주었을 뿐 약속을 이행치 않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위선의 죄를 범했다.
 (4) 성도들도 그들과 같이 인간의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참조, 시 11:4; 139:2)을 잊을 때가 많다.
 (5) 이제 성도들은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서로 섬기기 위해 일하고(참조, 막 9:35) 형제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히 13:1; 벧전 3:8).

10. **㉠**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유다 백성에 대한 형벌은 어떤 것인가? (17-22절)

- ㉠** (1) 그 형벌은 전쟁과 질병과 기근이며 원수들의 손에 의하여 망하고 그들의 포로가 되는 것이다.
 (2) 이런 형벌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조 때부터 정하시고(신 28:25) 또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경고하셨다(15:4; 24:9; 29:18).
 (3) 하나님의 경고가 무서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에 그들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두려움이 없어졌다(마 13:15; 행 28:27).
 (4)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것을 결코 피할 수 없게 된다(참조, 눅 21:34).

11.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과 어떤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셨는가? (18,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송아지를 둘로 찢고 그 사이로 지나는 방법을 가지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
 (2) 이런 형태의 언약은 고대 사람들의 의식 중에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도 이런 의식을 행하였다(창 15:10).
 (3) 이것은 유다 백성이 마치 죽은 시체와 같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들이 압박당하는 노예 상태가 곧 죽은 것과 같지만 그런 상태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은 마치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탈바꿈되는 것과 같다.
 (4) 그런데 이런 언약이 폐기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한 일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따

라서 언약을 폐기한 자들은 쪼갠 짐승처럼 죽어야만 한다(20절).

(5)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고 그 언약이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시 15:4) 꼭 지켜야 한다.

12. **㉠**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백성이 받는 징벌은 어떤 것인가? (20절)

- ㉠** (1) 그들이 받는 징벌은 원수들의 손에 죽어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되는 것이다.
 (2) 이것은 언약을 깨뜨린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죽은 후까지 나타나리라는 말씀이다.
 (3) 이런 유(類)의 저주는 하나님께서 당신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한 것(신 28:26)으로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이런 저주를 받았다(참조, 왕상 14:11;16:4;21:24).

13. **㉠**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방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1절)

- ㉠** (1) 그들은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잠깐 떠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의해 피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2) 이처럼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반복되는 중에 징계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3) 여기서 '잠깐 떠난 바벨론 군대'는 애굽과 싸우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난 바벨론 군대(77:5, 11)를 가리킨다.
 (4) 우리는 여기서 왕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우리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진리를 외쳐야 한다.

14. **㉠**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하여 그곳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22절)

- ㉠** (1) 바벨론은 유다의 성을 쳐서 불사를 것이고 하나님은 그 성읍들을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실 것이다.
 (2)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의 전달자로 사용하셨다(50:24-27, 41-43; 사 10:5;13:45). 즉 바벨론이 임의로 유다를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유다를 공략한 것뿐이다.
 (3) 물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거나 봉사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밀스럽게 움직이셔서 패역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신다. 이러한 사실은 당신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의미도 지니게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당신의 백성은 끝까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선하고 바른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본장의 요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불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2절).

제 35 장 레갑 족속이 순종하므로 축복을 받다

단락구분 1-11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 12-17 유다의 불순종을 책망하다 / 18-19 레갑 족속이 받은 축복

1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3 이에 내가 하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사나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은 족속을 데리고

4 여호와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라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한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같ियो 문을 지키는 살롬의 아들 마야세야의 방 위더라

5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7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9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10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11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는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12 때에 여호와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

여 가라사대

1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14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5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좇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6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17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였도다 하라

18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19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 ㉠ 본장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 Ⓐ (1) 본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이 당신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붙순 중하며 패역한 유다 백성에게 보여 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었다.
- (2) 레갑 족속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은 히브리 족속은 아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는 징벌을 받았지만 오히려 이방인인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18, 19절).
- (3) 물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다시 버리시지는 않지만(참조, 요 6:37-39) 그들의 범죄를 묵과(默過)하지도 않으신다.
- (4)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뜻을 돌이켜 구해 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참조, 라합, 수 6:25; 마 1:5; 룻, 신 23:3; 룻 1:4; 마 1:5).
- (5)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사실에 안주(安住)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접근하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통한 신앙 성숙을 다져야 한다.

2. Ⓢ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는 언제였는가? (1절)

- Ⓐ (1) 그때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였다.
- (2) 본절을 통해 본서가 시대의 순서에 따라 기록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된다.
- (3) 이때는 유다 왕 여호야김 4년경인데 11절에 의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이었다. 그러므로 B. C. 606년 여름일 것이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같은 해 9월(태양력 12월)에 느부갓네살에게 처음 정복되었기 때문이다.
- (4) 그렇기 때문에 본장은 시대 순서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라 단지 선지자의 예언을 기록한 사본을 수집하여 편집한 것이다.

3. Ⓢ 레갑은 어떤 족속인가? (2절)

- Ⓐ (1) 그들은 미디안 족속으로 '겐 족속'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대상 2:55).
- (2) 그들의 기원에 대하여는 왕하 10:15-17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장인인 호박도 레갑 족속이었다(참조, 민 10:29).
- (3) 레갑 족속은 전형적인 청교도적 삶을 살았는데(6-8절) 그 이유는 유목민으로서 그들의 삶이 분열 왕국의 여러 도시에서 만연된 생활 방식에 저항하는 종교적 근거에서였다.
- (4) 그렇지만 이런 생활 풍습은 요나답(여호나답)이 세웠는데(6, 14절; 왕하 10:15, 23) 그는 유목 생활을 하나의 종교적으로 의무화시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이었다.
- (5) 이들은 히브리 족속이 아니었으나 그들 중에 많이 섞여 살았고(참조, 사 4:11, 17; 삼상 27:10; 30:39) 그들과 쉽게 동화되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겼다(참조, 사 5:14-31; 왕하 10:1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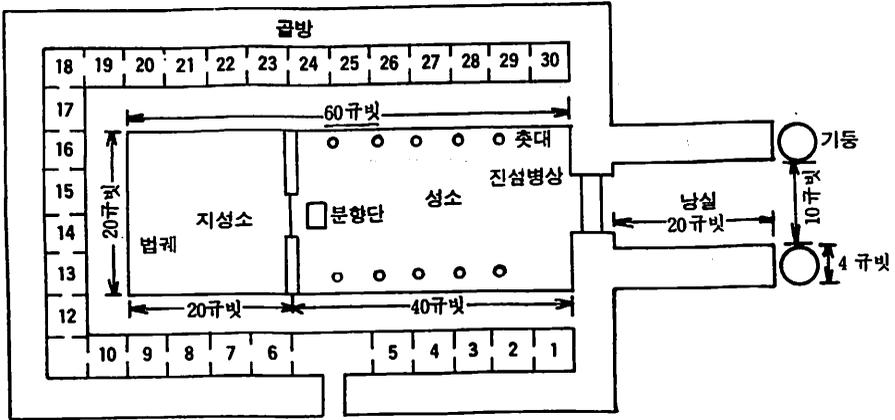
4. Ⓢ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어디에 데리고 가서 무엇을 시키라고 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의 패역함을 보이시기 위하여 성전에서 레갑 족속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려고 하셨다.
- (3) 율법은 제사장들이 직무 수행을 위해 포도주를 멀리하라고 하였는데(신 14:33) 그들은 술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레갑 족속을 통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려 하셨다.
- (4) 백성의 지도자들도 경건한 신앙인들의 생활을 본받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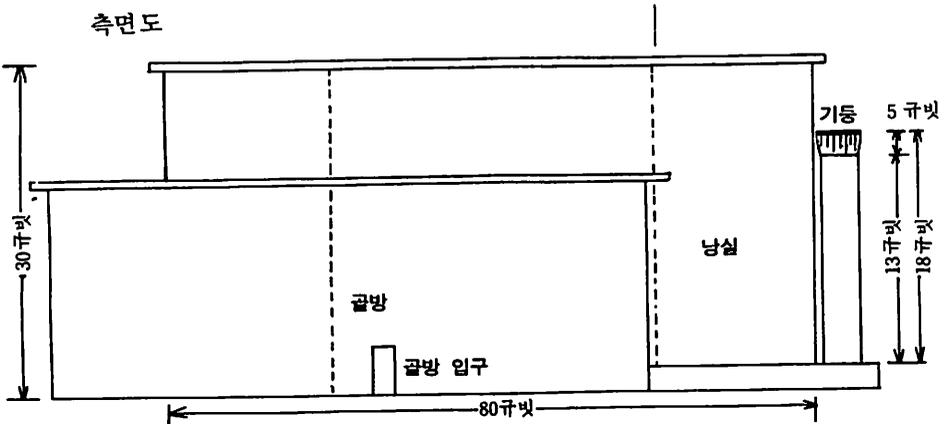
5. Ⓢ 레갑 족속을 데리고 간 여호와의 집 방은 어디인가? (3, 4절)

- ㉠ (1) 그 방은 익다라의 아들 하난의 아들들의 방인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고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였다.
- (2) 이 방은 골방을 말하는데 젤 41:6에 의하면 성전에 이런 방이 3층으로 30개가 있었다 (참조, 왕상 6:5). 그러므로 레갑 족속이 들어간 방은 1층이 아니고 2층이나 3층의 방일 것이다.
- (3) 솔로몬 성전의 평면도와 측면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평면도



측면도



- (4) 이런 골방들은 성전의 비품과 희생 제사 때 사용되는 도구를 보관하고, 실일조와 제물들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었다 (Keil, Ewald).
- (5) 그러나 혹자(Thenius)는 이 골방들이 제사장들을 위한 침실로 사용되었다고 보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밤에도 성전에서 봉사했던 것(참조, 시 134:1)으로 보아 타당성이 있는 말이다.

6. ㉠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이 세운 규례는 무엇인가? (6, 7절)

- ㉠ (1) 그 규례는 네 가지인데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 농사를 짓지 말 것,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 것 그리고 집을 짓지 말고 천막 생활에 만족하라는 것 등이다.
- (2) 이런 규례를 만든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고 불리기도 하였다(왕하 10:15).

- (3) 그는 종교적인 엄격한 금욕주의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예후의 종교 개혁에 도움을 주었다.
- (4) 그래서 예레미야도 레갑 족속을 자기 시대에 불순종하는 유다 백성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으로 사용하였다.
- (5) 한편 그가 이런 규례를 세운 이유는 부패가 만연하고 부조리와 불성실이 난무(亂舞)하던 시기에 그들 족속은 그런 생활에 동조하지 않고 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7. **㉠** 선조 요나담의 규례에 대한 레갑 족속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8-10절)

- ㉠** (1) 그들은 요나담의 모든 말을 순종하여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이 모든 규례를 다 준행하였다.
- (2) 경건하게 살기 위해 규례를 제정한 요나담의 태도도 본받아야 하지만 그 충고에 복종한 자손들의 모습은 더 칭송을 받아야 한다.
- (3) 그들의 이런 생활 모습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갖는 유다 백성에게 수치를 느끼게 하였다.
- (4) 레갑 족속이 예레미야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보다 못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거부한 유다 백성의 패역함을 드러내었다.
- (5)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면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요 14:21; 요일 3:10;5:2).

8. **㉠**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할 때 레갑 족속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11절)

- ㉠** (1) 그들은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움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했다.
- (2) 본절에 언급된 수리아는 아람으로 그들의 군대가 특별히 언급된 것은 과거에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한 후 계속 그들의 침공을 받았기 때문이다(왕하 24:2).
- (3) 그런데 레갑 족속은 원래 유다의 변경에 살았고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협을 느끼고 즉시 안전한 예루살렘으로 이동할 수 있었다.
- (4) 그들이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하여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조의 충고를 따라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 (5) 성도들도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릴 때 모든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사랑했던 롯의 아내를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다(참조, 창 19:26; 눅 17:32).

9. **㉠**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 족속을 향하여 무엇을 말하라 하셨는가? (12-14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을 향하여 레갑 자손은 선조의 명령을 지금까지 순종하였는데 너희는 지금까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라 하셨다.
- (2)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요나담 만큼도 대접을 받지 못하셨으므로 그들을 더 효과적으로 꾸짖기 위해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내세워 그분의 인격으로 유다 백성을 꾸짖고 있다.
- (3)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은 요나담이 그의 후손들에게 세운 규례와 차이가 있다. 즉 레갑 자손은 완고한 교훈뿐이었으나 유다 백성은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을 좇아 결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 (4)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당신께만 순수하게 예배하라는 것뿐이다(참조, 요 4:23, 24).

10.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당신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며 요구하신 것은 무엇인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들을 좇아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셨다.

- (2)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평범하고 쉬운가를 알 수 있다. 즉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자발적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셨다.
- (3) 또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당신의 권위와 보호 아래 두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자 하셨을 뿐이었다.
- (4)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인간의 규례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자유스럽고 편안한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29:11; 시 119:165).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해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11. **㉠**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결심하신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6,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레갑 자손의 순종에 반하여 유다 백성은 당신의 부르는 소리에 대답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 (2) 예레미야는 앞에서 유다 백성의 잘못을 들추어 내고 그들이 죄인임을 선언하였다.
- (3)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고통에 빠지는 것은 그분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하지 못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기 때문이다(사 50:2).

12. **㉠** 선조의 명령에 순종한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약속하셨는가? (18, 19절)

- ㉠** (1) 하나님께서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당신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 (2) 이 약속은 유대인을 더 자극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신다.
- (3) 레갑 자손도 그들의 선조가 세운 율법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과 상반되지 않았다.
- (4) 이런 레갑 자손을 본받아 우리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출 20:12).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비교하며 순종해야 한다(참조, 엠 6:1-3).

연구자료

유다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 예레미야의 예언은 주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가 유다 회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장차 유다 백성들이 유랑지에서부터 다시 되돌아올 것을 예언하였다(30:3; 31:7-9, 23; 32:37-44; 33:26). 이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은 미래의 이스라엘 왕국과 독특한 관련을 맺고 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 내리신 심판의 목적은 유랑지에서 고역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연단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다른 민족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해방된 후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에브라임으로도 불린 이스라엘과 유다는 둘 다 그들이 흩어져 있던 땅에서부터 팔레스틴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옛 성읍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것(30:18; 31:38-40) 등이 유다 회복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의 중심 내용이니 이는 매우 희망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제 36 장 바룩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다

단락구분 1-8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여 낭독하다 / 9-10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다 / 11-19 방백들이 두려워하다 / 20-26 불경한 여호아킴의 행위 / 27-32 하나님께서 여호아킴에게 재앙을 선언하시다

1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 사 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너는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열방에 대하여 나의 네게 이른 모든 말을 그것에 기록하라

3 유다 족속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앙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듯하니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사하리라

4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5 예레미야가 바룩을 명하여 나는 감금을 당한 지라 여호와와 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은즉

6 너는 들어가서 나의 구전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와 그의 집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7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날 듯하니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와 분이 크니라

8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무릇 선지자 예레미야의 자기에게 명한 대로 하여 여호와와 그의 집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낭독하니라

9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킴의 오년 구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10 바룩이 여호와와 그의 집 뒷뜰 곧 여호와와 그의 집 새 문 어귀의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에서 그 책에 있는 예레미야의 말을 낭독하여 모든 백성에게 들리니라

11 사반의 손자요 그마라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있는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다 듣고

12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방백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불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라와 하나냐의 아들 사드기야와 모든 방백

이 거기 앉았는지라

13 미가야가 바룩의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로 그들에게 고하매

14 이에 모든 방백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가매

15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16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17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가로되 네가 그 구전하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컨대 우리에게 이르라

18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베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노라

19 이에 방백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20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로 왕의 귀에 고하니

21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22 때는 구 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23 여후디가 삼편 사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24 왕과 그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25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라가 왕께 두루마리를 사르지 말기를 간구하여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26 왕이 왕의 아들 여라므엘과 아스리엘의 아

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27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으로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8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29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녕히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애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뇨 하도다

30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31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32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1. **㉠** 본장에 기록된 사건과 그 의미를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바룩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기록하여 왕과 백성에게 읽어 주지만 여호야김이 그 말씀을 불에 태우는 불경한 죄를 범하므로 그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 (2)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선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그분의 의도대로 수용하지는 못한다.
- (3) 본장에 등장하는 여호야김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불경한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 (4)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선한 의도로 말씀을 주실 때 다윗과(삼하 12:13) 므낫세(대하 33:12, 13)와 같이 회개하여 당신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2. **㉠**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여호야김 4년의 시대적 배경을 말하라(1절).

- ㉠ (1) 때는 B. C. 605년으로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을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잡아간 1차 포로 시절이었다(참조, 단 1:1-6).
- (2) 여호야김은 25세에 왕위에 올라 11년간 통치했는데(왕하 23:36; 대하 36:5) 그가 하나님을 의외하기 보다는 인간적인 힘을 더 의지하므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시켰다.
- (3)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여호야김은 그에게 충성하기로 하였으나(왕하 24:1)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있는 후 그를 배반하고 애굽 왕 느고를 의지하여 백성들에게 많은 재물을 거두어 느고에게 뇌물로 바쳤다(왕하 23:34, 35).
- (4) 여호야김이 반역한 사실을 알게 된 느부갓네살은 다시 유다를 침공하여(35:11; 왕하 24:2) 유다를 괴롭혔으며 여호야김은 B. C. 597년 12월에 죽었다.
- (5) 결국 여호야김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한 대로(32:26-30)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했던 자들의 최후가 비참했다는 것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

3. **㉠**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기간은 얼마나 되었는가? (2절)

- ㉠ (1) 요시야의 날부터 여호야김 4년까지였다.
- (2) 요시야의 때란 요시야 통치 13년째 되던 해(B. C. 626, 1:2)를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본장의 말씀을 받은 때는 22년째 되던 해(B. C. 626-605)였다.
- (4) 이때는 예레미야 활동 전시기(全時期)의 중간기에 해당한다. 그는 요시야 13년(B. C. 626)부터 시드기야 11년 말, 즉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1:3, B. C. 586)까지 42년간 활동을 했다.

4. **㉠** 하나님의 재앙에 관한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이 그들의 죄를 뉘우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3절)

- ㉠** (1) 그들이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과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2)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최소한의 신앙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결코 지치지 않고 기다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듯하니라’ 고 말씀하셨다.
 (3)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마음이 없다면 죄인들은 결코 그분께 돌아올 수 없다 (참조, 시 130:4).
 (4)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인을 다스리시지만 (참조, 시 18:26) 그들과 언제나 화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므로 범죄한 행위로 말미암아 절망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5. **㉠** 바룩은 누구의 구전 (口傳)을 기록하였는가? (4절)

- ㉠** (1) 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구전의 말씀을 기록하였다.
 (2) 바룩은 예레미야의 서기관으로 인간의 짧은 기억력으로는 다 이해하고 외울 수 없는 방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대로 기록하여 말씀을 보존하였다.
 (3)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많은 예언의 말씀이 사라졌을 것이다.
 (4) 우리는 말씀을 기록하여 보존함으로 오늘날 성도들에게 죄에 대한 경계와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6. **㉠**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기록하게 한 후 성전에서 낭독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5, 6절)

- ㉠** (1) 이유는 예레미야가 감금당하여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이 당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때같이 옥에 갇힌 것(32:2)은 아니었다. 단지 그가 백성들과 방백들 그리고 왕의 귀에 거스리는 말로 예언을 했기 때문에(7, 26장) 자유롭게 성전 출입을 못 한 것뿐이었다.
 (3) 여호야김 시대에 예레미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다(19절). 그렇기 때문에 성전 출입이 자유로운 바룩을 통하여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4) 오늘날 성도들도 특정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스스로 말씀을 들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참조, 마 28:19, 20; 행 1:8).

7. **㉠**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언제 말씀을 읽으라고 하였는가? (6절)

- ㉠** (1) 예레미야는 금식일에 여호와의 집에서 읽으라고 하였다.
 (2)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 때 식음을 전폐한 경우가 많았다.
 (3) 그러나 그들에게 정기적인 금식일은 7월 10일에 있었던 속죄일 뿐이었다. 이날의 규례를 어기는 자는 죽음의 형벌이 따랐다(참조, 레 16:29이하; 23:27-32; 민 29:7).
 (4) 구약 시대에 금식은 속죄일 외에도 전쟁의 위협(삿 20:26; 삼상 7:6)이나 병들었을 때(시 35:13), 애곡할 때(왕상 31:13; 대상 10:12) 그리고 회개할 때(왕상 21:9이하; 느 9:1)에도 행하여졌다.
 (5) 본절에 바룩이 말씀을 낭독한 금식일은 정기적인 속죄일이 아니었다(참조, 9절).
 (6) 단지 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 때문에 그날을 택했던 것이다.

8. **㉠**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백성 앞에 낭독하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7, 8절)

- ㉠** (1) 금식일에 모인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드리며 악한 길을 떠날 듯하기 때문이다.
 (2) 본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신 이유가 나타나 있다. 즉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회개시키려는 뜨거운 사랑 때문이다.
 (3) 하나님의 용서를 얻기 위한 회개는 기도와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금식일에 하나님의 말

섬을 백성에게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자극시켜 회개하도록 유도하려 하였다.

- (4)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화해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값없으신 은총으로 되는 것이다.

9. **㉠** 여호야김 5년 9월에 무엇이 선포되었는가? (9절)

- ㉠** (1) 그때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였다.
- (2) 유다 백성은 그들에게 심각한 징벌이 가까왔음을 알고 금식을 선포했다. 그들이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의도보다 자신들의 겸손을 나타내고 기도할 준비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 (3)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빠지고 백성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여 이 금식을 선포하였으므로 당시 지도자들의 패역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 (4) 니스웨 성의 범죄에 대하여 외친 요나의 예언을 듣고 회개한 그들(은3장)의 태도와 유다 지도자는 큰 차이가 있다.
- (5) 종교적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실한 말씀으로 충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압제하는 지도자들에게 니스웨 성의 회개 사건은 큰 교훈을 준다.
- (6) 오늘날도 정치적, 경제적 혹은 종교적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지나친 권위 의식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歪曲)하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10. **㉠** 바룩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낭독한 방은 어떤 방이었나? (10절)

- ㉠** (1) 그 방은 여호와와의 집 윗뜰 곧 새 문 어귀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라의 방이었다.
- (2) 예루살렘 성전에는 안뜰과 바깥 뜰이 있는데 안뜰은 제사장들이 설교하는 곳으로 지대가 높아 윗뜰이라고도 하고 ‘제사장의 뜰’이라고도 하였다.
- (3) 바깥 뜰이 제사장의 설교를 듣기 위해 백성이 모인 곳이므로 ‘백성의 뜰’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였다.
- (4) 한편 새 문은 분열된 남왕국의 11대 왕인 요담이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기 때문에(왕하 15:35) 붙여진 이름이었다.
- (5) 새 문 곁에는 밤에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그들의 임무를 행하고 쉬기도 하며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기도 했다.

11. **㉠** 서기관은 어떤 자들인가? (12절)

- ㉠** (1) 그들은 서기(書記) 또는 글 베끼는 사람으로 이들은 주로 가족의 전문적인 직업으로 계승되었다.
- (2) 서기관은 성전 운영의 국고(國庫) 조직을 위한 필요에서 생겼는데 레위인은 제사장의 직무를 기록하였고(대상 24:6), 왕실 서기관은 성전 수리비로 모금된 공공 기금을 계산하여 기록하였다(왕하 12:10, 11; 대하 14:11).
- (3) 서기관 중 정부의 행정 서기관은 모사(謀士)로(참조, 대상 27:32) 혹은 군대 소집의 책임자(왕하 25:19) 역할을 하기도 했다.
- (4) 분열 왕국 시대에 서기관은 높은 서열에 있었는데 특히 요시아 치세 때에는 사관이나 예루살렘 시장(市長, 왕하 22:3-13; 대하 34:8-21)보다 서열에 앞서 있었다.
- (5) 이런 사실은 사반의 높은 지위로 인해 그의 아들 아히감과 손자 그달랴와 미가야의 경력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 (6) 그달랴는 ‘궁내 대신’이 되었으며 후에 바벨론 치하에서 유다 총독이 되었고 미가야는 여호야김 시대에 주요 장관들 밑에서 일했다(11절). 특히 왕실 서기관은 궁궐 내에 사

무실을 갖고 있었다.

12. **㉠** 바룩이 백성에게 읽어 준 글을 미가야가 누구에게 전해 주었는가? (12, 13절)

- ㉠** (1) 미가야는 서기관과 방백들에게 예레미야의 글을 전해 주었다.
 (2) 미가야가 전해 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아래 도표와 같다.

이 름	뜻	가 족	행한 일
엘리사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두루마리를 자신의 방에 보관(20,21절)
들 라 야	주께서 끝내 올리셨다	스마야의 아들	두루마리를 태우지 말도록 권고함
엘 라 단	하나님께서 주셨다	악불의 아들	"
그 마 라	여호와께서 이루셨다	사반의 아들	그의 방에서 바룩이 두루마리를 읽다
시드기야	여호와와의 정의	하나나의 아들	

13. **㉠** 모든 방백이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어 가져오도록 한 것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것은 예레미야의 구전(口傳)을 기록한 두루마리였다.
 (2) 일반적으로 두루마리는 파피루스나 가죽, 혹은 양피지를 긴 두루마리 형태로 연결시켜 만든 것인데 폭은 25-30cm 정도이며 길이는 10.5m까지 이르는 것도 있다.
 (3) 이 두루마리는 손잡이로 튀어나온 굴림대가 있는 두 개의 로올러 사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졌다.
 (4) 두루마리에 기록을 할 때 일반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보존시키는 잉크를 사용하였다.
 (5) 한편 중요한 것은 표준 길이의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사용은 부득이 히브리어 모세 오경을 다섯 권으로 나누게 하였다. 하나의 두루마리는 이사야서를 기록하는 데 충분한 길이였다.
 (6) 유대인의 탈무드에 의하면 공적인 낭독에 사용될 토라(Torah)의 사본은 정결한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파피루스는 가죽보다 쉽게 소멸되기 때문이다.
 (7) 본장에서 여호야김이 불태운 두루마리는 가죽이 아니고 파피루스였다. 왜냐하면 가죽이 있다면 타는 냄새를 견디지 못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22, 23절).
 (8) 한편 다른 곳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명령을 받았고(겔 2:9-3:3), 스가랴의 환상 중에도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었다(슥 5:1,2).

14. **㉠** 바룩이 낭독한 말을 들은 방백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5, 16절)

- ㉠** (1) 그들은 말씀을 듣고 놀라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고 하였다.
 (2) 방백들 중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진 자들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했고 선지자의 종 바룩을 정중히 영접했다.
 (3) 그러나 그들의 태도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인간적 왕에 대한 충성을 조화시켜 보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4) 그들은 인간적 야심으로 인해 양심이 부패하여 참신이며 왕이신 하나님보다 세상 왕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그를 추종하였다.
 (5)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세상의 없어질 것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지 말고 그분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을 간구해야 한다(참조, 약 4:14).

15. **㉠** 바룩은 구전을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17, 18절)

- ㉠** (1) 그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다.
 (2) '책'에 관해서는 **㉠** 13을 참조하라.
 (3) 두루마리를 기록하는 데 사용한 '먹'은 주로 그을음이나 검은 탄소로 되어진 액체이다.

- (4) 먹을 이용하여 양피지에 쓰려면 나무진(津)이나 기름을 혼합하였고, 파피루스에 쓰려면 금속 성분과 혼합하였다.
- (5) 잉크의 성분을 나타내는 말이 구약에서는 본절에만 기록되었고 신약에는 3회(고후 3:3; 요이 12; 요삼 13)가 기록되었다.

16. **㉠** 바룩이 읽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방백들은 무엇이라 말했는가? (19절)

- ㉠** (1) 그들은 바룩에게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다.
- (2)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궁정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 냉담한 태도를 보였으나 그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손길에 의한 것임을 느끼고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3) 그래서 방백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이 왕의 진노를 피하도록 숨으라고 하였다.
- (4) 오늘날에도 이 방백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리에 감동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이 진리와 정의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 (5) 이런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 부인하는 자(딤후 1:16)들로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실 것이다(참조, 마 10:32; 눅 12:8; 계 3:5).

17. **㉠** 방백들이 왕을 찾아가 고할 때 왕은 누구를 시켜 두루마리를 가져오도록 하였는가? (20, 21절)

- ㉠** (1) 여호야김은 여후디를 보내어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했다.
- (2) 여후디는 구시의 증손 셀레야마 손자 느다냐의 아들이었다.
- (3) 그의 이름은 ‘유대인’이란 뜻인데 그의 증조부가 구시인 것으로 보아 귀화한 사람이다.
- (4) 대개 구시는 KJV와 RSV에서 에티오피아인으로 번역했다.

18. **㉠** 여호야김에게 예레미야의 구전을 읽어 준 때와 장소는 어디인가? (22절)

- ㉠** (1) 그때는 9월인데(불 피운 화로가 있는) 겨울 궁전에서 두루마리를 읽었다.
- (2) 9월은 태양력의 11, 12월에 해당하는 겨울이다.
- (3) 겨울 궁전은 겨울에 거하는 따로 지은 궁전이 아니라 왕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만든 방을 가리킨다(참조, 암 3:15).
- (4) 보통 왕궁에는 낮은 곳에 위치한 방과 높은 곳에 위치한 방이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여름 방이다. 혹시 같은 층에 있다면 통풍이 잘되는 바깥의 방이 여름 방이고 안쪽에 있는 방이 겨울 방이다.
- (5) 불 피운 화로는 방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흙으로 구워 만들었는데 큰 물병 모양으로 방 한가운데 두고 사용하였다. 불이 다하게 되면 그 위에 석탁 같은 것을 덮고 담요 같은 것을 더 덮어서 열을 보존했다.

19. **㉠** 여후디가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을 때 여호야김과 신하들은 어떠했는가? (23, 24절)

- ㉠** (1) 여후디가 3편 4편을 읽을 때 왕이 작은 칼로 두루마리를 베어 화로에 태웠고 왕과 신하들은 모든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그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 (2)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더 패역한 행동을 취하였다.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데 참된 회개에 대하여 요엘 선지자는 옷을 찢지 말고 먼저 마음을 찢으라고 외쳤다(욘 2:13).
- (3) 한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두루마리를 기록했으나 완악한 왕의 태도로 인하여 좌절감에 빠졌을 것이다.
- (4) 우리도 오늘날 이런 경우를 당할 때 하는 일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단순한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20. **㉠** 서기관들의 충고를 듣지 않은 여호야김은 누구를 잡으라고 하였는가? (25, 26절)

- ㉠** (1) 그는 예레미야를 잡으라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시므로 잡지 못하였다.

- (2) 완악한 왕의 어리석은 분노는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내키는 대로 죽이려고 하였다.
- (3) 그러나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엘리야 뿐 아니라 7,000명을 살려 주신 하나님(참조, 왕상 19:18)께서 예레미야와 바룩을 보호하셨다.
- (4)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 때의 선지자 7,000명과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듯 반드시 당신의 종들을 보호하시므로 안전하게 해주신다.

21. **㉠** 여호야김이 두루마리를 태운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27, 28절)

- ㉠** (1)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야김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셨다.
- (2) 이것은 여호야김이 하나님을 불신하여 그분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태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은 변경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선언이다.
- (3) 오늘날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찢고 불태우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살시킬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4)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 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라(마 8:16)는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될 것이므로 성도들은 말씀의 권위에 더 확고히 설 수 있다.

22. **㉠**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록한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호야김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하셨는가? (29절)

- ㉠** (1)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이 두루마리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게 되리라고 기록한 것을 싫어하여 불태운 사건을 지적하라고 하셨다.
- (2) 여호야김은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여호야김 3년에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대하 36:6, 7; 단 1:1).
- (3)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한 충고를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범했다.
- (4) 악한 자를 그의 길에서 돌이키기 위하여 훈계를 주시지만(6:8)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자의 최후는 수치와 죽음뿐임을 알 수 있다(참조, 잠 5:23; 13:18).

23. **㉠**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30, 31절)

- ㉠** (1)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 다윗의 위(位)에 앉을 자가 없겠고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자손과 신하들은 그들의 죄대로 징벌받을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김의 직계 자손 중에서 후계자가 없을 것이고 그는 전쟁에서 죽어 매장당하지도 못하고 그를 위하여 애곡할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다.
- (3) 이 말씀대로 그가 죽은 후 맛다나가 왕으로 등극하였고(왕하 24:17) 그의 죽음에 대하여 예언한 대로(22:18, 19) 이루어졌다.
- (4)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가감(加減)할 때 그곳에 기록된 모든 재앙이 임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계 20:18, 19).

24. **㉠**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바룩에게 주었을 때 그는 무엇을 기록하였는가? (32절)

- ㉠** (1) 그는 여호야김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더 많이 기록하였다.
- (2) 결코 사단의 세력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뜨릴 수 없고 오히려 그분의 깊은 뜻은 더 멀리 더 많이 전해질 것이다.

- (3) 초대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신앙을 지키므로 더욱 부흥했듯이(참조, 행 12:24 ; 16:5) 오늘날 성도들도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화보자료

선지자와 서기관. 하나님께로부터 전해 들은 바를 다시금 서기관에게 들려주어 책에 기록케 하는 장면을 묘사한 이 그림은 12세기경의 것으로서 현재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고대 이스라엘에 있어서 서기관(書記官)은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세습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러한 서기관은 주로 레위 지파에서 많이 배출되었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복사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신 17:18). 그러나 이외에도 그들은 제 사장의 직무를 기록하기도 하며(대상 24:6) 개인적인 법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아 보기도 한다. 한편 본장에는 서기관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받아 두루마리에 기록한 사실이 언급되어 있다(4절).

제 37 장 예레미야가 투옥되다

단락구분 1-2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르다 / 3-10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다 / 11-15 예레미야가 투옥되다 / 16-21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 대화하다

1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다 땅의 왕을 삼음이 었더라

2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3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4 때에 예레미야가 감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던라

5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6 여호와와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7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8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9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10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군대를 쳐서 그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11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12 예레미야가 배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13 배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두목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로되 네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14 예레미야가 가로되 망령되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방백들에게로 끌어가매

15 방백들이 노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집으로 옥을 삼았음이다라

16 예레미야가 토굴 옥 음실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17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그를 이끌어 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 물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받은 말씀이 있느뇨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가로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 이다

18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관대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19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차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20 내 주 왕이여 이제 청컨대 나를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 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21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하여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덩이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다할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1. ㉠ 본장의 말씀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1) 본장에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계획대로(36:30) 왕위에 오른 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할 것을 요청하지만 그분의 계획을 바꾸지 못한 것과 예레미야가 방백들에 의하여 투옥되지만 시드기야가 그를 풀어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2)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입을 통하여 증거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며 결코 급변하는 인

간의 감정을 따라 변하지 않는다.

- (3) 이것을 통하여 볼 때 오늘날 성도들은 모든 일을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다 실패하는 아픔을 겪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한 후 그분의 보호와 인도를 받아야 한다.

2. **㉠ 여호야김과 그의 백성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절)**

- ㉠** (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
- (2) 본래는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가 왕위에 올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36:30) 그의 직계 자손 중에서 왕권을 잇지 못하였다.
- (3) 고니야는 여호야긴이라는 이름으로 3개월 동안 통치하였는데(왕하 24:8; 대하 36:9) 이는 그의 부친의 죽음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의 기간(B. C. 567년 3월 16일, 바벨론력)이었다.
- (4)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 권위를 부정하므로 순종하지 못한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한 후 그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3. **㉠ 왕위에 오른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가? (2절)**

- ㉠** (1) 그는 신화와 은 백성과 함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 (2) 그는 전임자(前任者)들에게 임한 치명적 결과를 보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다.
- (3) 시드기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7장의 **㉠** 4를 참조하라.

4. **㉠ 시드기야가 여후갈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무엇을 청(請)했는가? (3절)**

- ㉠** (1) 그는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 (2) 시드기야는 처음 왕위에 오르면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여호야김과 같이 악을 행하고 또 애굽을 의지하였다(왕하 24:18, 19; 대하 36:11-13; 겔 17:14, 15).
- (3) 그러나 시드기야는 인간적인 모든 노력을 경주하다가 최종적으로 돌아올 곳이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했다. 그렇지만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앓았다. 즉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했다(21:1, 2).
- (4)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결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만 응답하신다(참조, 마 21:22).

5. **㉠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청하기 위하여 파송한 자는 누구인가? (3절)**

- ㉠** (1) 시드기야는 켈레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파송했다.
- (2) 여후갈은 ‘여호와와 능하시다’는 뜻으로 유갈이라고도 불리었다(38:1). 스바냐는 시드기야 치세 때 부제사장(52:24)을 지낸 거짓 선지자 스마야가 제사장으로 임명했던 자이다(29:24-28).
- (3) 시드기야는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두 번 보냈는데 바벨론 포위 공격에 관해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21:1, 2) 그리고 본장에서는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보냈다.
- (4) 여후갈에 관한 성경상의 기록은 본절 이외에 더 이상 없다. 그렇지만 스바냐의 최후에 대한 기록은 본서 52:24, 27과 왕하 25:18, 21에 예루살렘 함락 후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느부사라단에 의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 립나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6. **㉠ 예루살렘을 에워싼 갈대아 군대가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 (1)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었다.
- (2) 시드기야가 애굽에 구원을 요청하므로(36:6; 겔 17:15) 그것을 수락한 바로가 유다를 구원하러 올라왔고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갈대아는 예루살렘을 잠시 떠났었다.
- (3) 이런 사실은 ‘라기스의 편지’(The Letters of Lachish)에도 기록되어 있다.

(4) 이때의 유다는 라기스와 아세가만 남아(34:6) 겨우 명맥을 유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왕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7. **㉠** 갈대아 군대가 예루살렘을 떠난 사건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6-8절)

- ㉠** (1) 예레미야는 애굽 군대가 유다를 도우러 나왔으나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고 갈대아인이 다시 예루살렘을 취하고 불사를 것이라고 하였다.
- (2)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갈대아인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자 그것이 자신들의 노력에 의한 것인 줄 알고 득의양양(得意揚揚)했으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 (3)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여 잠깐 효과를 볼 때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되는데(참조, 왕상 15:16-21; 왕하 18:13-16) 결과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왕하 18:17).
- (4)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는 마음이 병행하므로 많은 갈등을 겪는 이들이 있는데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뿐임을 확신해야 한다(참조, 시 18:1-3).

8. **㉠** 헛된 확신에 사로잡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9,10절)

- ㉠** (1) 갈대아인이 반드시 자기들을 떠날 것이라는 헛된 확신에 빠진 유다 백성에게 갈대아의 부상자만 남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을 불사르리라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계획하신 것을 인간적인 확신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심과 같다(참조, 창 18:22-19:28).
- (3) 그러므로 눈앞의 좋은 것만 생각하고 뒤에 있을 큰 일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유다 백성과 같이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다.
- (4)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존심이나 권위 의식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지만 겉으로 더 화려하게 치장하므로 약점을 가리우는 자들이 있다.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갈 6:7)고 충고하였다.

9. **㉠**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 간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 ㉠** (1)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서 백성 중 분깃을 받으려고 그곳으로 갔다.
- (2) 잠깐 동안이지만 예루살렘이 갈대아인의 손에 의하여 멸망되리라는 예언이 들린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할 것이 확실해지므로 그는 잠시 조용한 곳으로 피하려고 하였다(Calvin).
- (3) 예레미야는 자신의 노력이 헛됨을 알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실망을 느꼈다. 마치 엘리야가 로렘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함과 같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다(왕상 19:4).
- (4)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받은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때 실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힘을 주셔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왕상 19:5-18).

10. **㉠** 예레미야가 체포된 곳은 어디인가? (13절)

- ㉠** (1) 예레미야는 베냐민 문에 이르렀을 때 체포되었다.
- (2) 베냐민 문은 예루살렘 영내의 북쪽에 위치한 문으로서 일명 에브라임 문이라 부르기도 했다(참조, 38:7; 왕하 14:13; 느 8:16; 스 14:10).
- (3) 이 문은 아나돗에 있는 예레미야의 집을 향하여 있었는데 요담 왕이 세운 성전의 뒷문(왕하 15:35; 겔 9:2)과 같은 방향에 위치해 있다.

11. **㉠ 셀레야의 아들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체포한 죄목(罪目)은 무엇이었는가? (13절)**

- ㉠** (1) 예레미야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간다는 죄목으로 체포하였다.
 (2) 베냐민 문의 문지기 두목인 이리야는 예레미야가 평소예 바벨론 왕 앞에 항복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따라가는 줄 착각했던 것이다.
 (3) 예레미야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피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을 떠나지 말고 당신의 일을 수행하도록 막으셨다.
 (4)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를 막아 마게도냐로 가게 했듯이(참조, 행 16:6-10)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자신의 안일만을 생각하지 말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12. **㉠ 결백을 주장하는 예레미야에 대한 방백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14, 15절)**

- ㉠** (1)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는 예레미야를 방백들이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다.
 (2)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예레미야에게 잘못이 없었지만 그들은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기에 포악하게 그를 때렸다.
 (3) 또한 방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진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고 바르게 살도록 힘써야 한다(참조, 딤후 3:16).

13. **㉠ 토굴에 갇힌 예레미야를 불러낸 시드기야가 질문한 것과 예레미야의 답은 무엇인가? (16, 17절)**

- ㉠** (1)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가를 비밀히 물어 볼 때 예레미야의 대답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라는 것이었다.
 (2) 시드기야는 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 보았다.
 (3) 그런데 ‘비밀히’ 물어 본 이유는 여러 방백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런 행동의 결과 자신의 권위가 실추(失墜)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4) 우리는 시드기야에게서 위선자의 태도를 발견한다. 즉 그는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하면서도 그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며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병행시키려 하였다.
 (5)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예레미야와 같이 모든 악에 굴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충실히 감당하게 된다(참조, 고전 4:2).

14. **㉠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호소한 것은 무엇인가? (18절)**

- ㉠** (1) 예레미야는 왕과 신하와 백성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옥에 갇혔다고 호소했다.
 (2) 예레미야는 자신이 받는 대우가 매우 부당하며 통치자들이 그들의 권위에 의하여 제정된 법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므로 그 법을 옹호하는 부당한 행위(참조, 단 3:4-6)를 지적하고 있다.
 (3) 그러나 집권자들도 하나의 부족한 인간에 불과하므로 그들의 악한 성향에 따라 비합리적이고 불의한 법을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
 (4) 이런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예레미야나 다니엘과 같이(참조, 단 6:22) 잘못을 과감히 지적하고 잘못된 법을 고치기 위해 희생할 수 있는 확신과 행동이 필요하다.

15. **㉠ 예레미야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하였는가? (19절)**

- ㉠** (1) 시드기야에게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치지 아니하리라고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의 행방을 물었다. 이러한 질문의 의도는 거짓 예언자들을 믿었던 시드기야의 여러 석음을 고발하기 위해서였다.

- (2) 왕과 백성을 현혹하는 말로 거짓 예언한(6:14;8:11;23:17) 선지자들의 최후가 하나님의 저주대로 성취된 사실(14:15;28:16, 17)을 상기시키며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게 자신의 예언은 진실하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3) 예레미야는 이런 사실을 시드기야에게 말하면서 그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데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라는 질문은 ‘당신은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속아왔다’는 말과 같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예레미야의 사건을 통하여 불의한 일이 순간적으로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을 때 그것이 승리를 얻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진리가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16. **Q**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무엇을 요구했으며 그는 어떻게 되었는가? (20, 21절)

- A** (1) 예레미야는 요나단의 집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시드기야는 그를 시위대 뜰에 두고 매일 떡 한 덩이씩 그에게 주었다.
- (2)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과 행동이 모두 진실한 것을 알았으나 그에게 자유를 주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시드기야에게 불쾌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32:3-5). 이처럼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영육을 이롭게 하는 말 앞에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그 말을 묵인하고 만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코 당신의 종들을 어려움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지도자료

바벨론의 유다 침공 경로

- ①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는 애굽 군대가 접근해 오고 있다는 풍문 때문에 잠정적으로 방해를 받는다(5절).
- ② 유다 성읍들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하다.
- ③ 느부갓네살은 애굽군을 격퇴한 후 다시 예루살렘 성을 공격 함락시키다(39:1, 2).
- ④ 바벨론에 대항하던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다가 여러고에서 잡히다(39:4, 5).



제 38 장 예레미야가 항복을 권고하다

단락구분 1-6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고소하다 / 7-13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구해 주다 / 14-16 시드기야가 비밀히 예레미야를 찾다 / 17-23 예레미야가 갈대아에게 항복할 것을 권고하다 / 24-28 시드기야가 비밀 유지를 요구하다

1 맛단의 아들 스바다와 바스훈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야의 아들 유갈과 밀기야의 아들 바스훈이 예레미야의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략물을 얻음같이 살리라

3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취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4 이에 그 방백들이 왕께 고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치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들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5 시드기야 왕이 가로되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6 그들이 예레미야를 취하여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리웠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흙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흙중에 빠졌더라

7 왕궁 환관 구스인 에벳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8 에벳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고하여 가로되

9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주려 죽으리이다

10 왕이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의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 끌어내라

11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공간 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형경과 낡은 옷을 취하고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줄로 내리우며

12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형경과 낡은 옷을 네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 대라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며

13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14 시드기야 왕이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와 집 제 삼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일을 물으리니 일호도 내게 숨기지 말라

15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단정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가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16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도 아니하리라

17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18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19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20 예레미야가 가로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붙이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고한 바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21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22 곧 유다 왕궁에 남아 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들은 내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려갔도다 하리라

23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어냄을 입었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성으로 불사름을 입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4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사람으로 알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25 만일 방백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고하라 하거든

26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의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27 모든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의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치 아니하였고 그들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28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더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방백들의 고소로 옥에 갇힌 예레미야를 시드기야가 불러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갈대아인에게 항복할 것을 권고받고 자신의 체면이 손상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과의 대화에 대한 비밀 유지를 예레미야에게 요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그분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과거나 현재나 늘 동일하다.
- (3) 또하나 불변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태도인데 그들은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에 우선 순위를 주고 사람들에게만 인정받으려고 한다.
- (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따르기 보다 사람들의 지탄을 더 두려워하므로 그분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
- (5) 오늘날 성도들 중에도 신앙 생활이 인간 중심으로 되어 비정상적인 형태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참조, 마 10:28).

2. ㉠ 네 명의 방백들은 예레미야가 어떤 예언하는 것을 들었는가? (1-3절)

- ㉠ (1) 그들은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염병에 죽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라'는 예언을 들었다.
- (2) 예레미야의 예언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런 예언은 이미 30년 전에 선언되었던 것이다(1:13-15; 4:6; 6:22; 27:12).
- (3) 유다의 방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었지만 사악한 마음으로 애굽인들을 친구로 맞아 그분의 격렬한 심판을 피하려고 하였다.
- (4) 그러나 예레미야는 인간의 피를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생명이 보존된다고 하였다.
- (5) 이제 우리는 생명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릴 용기가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참조, 마 16:26; 눅 12:22, 23).

3. ㉠ 예레미야의 참된 예언을 참소(譫訴)한 자들은 누구인가? (4절)

- ㉠ (1) 그들은 방백들이다.
- (2) 그 방백들은 맛단의 아들 스바야와 바스홀의 아들 그다라와 셀레야의 아들 유갈과 밀기야의 아들 바스홀이었다(1절).
- (3) 그다라는 예레미야를 때리고 착고에 채운(20:1-3) 바스홀의 아들이며 유갈은 에후갈(37:3)과 동일인이다. 그리고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은 시드기야의 특사로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자이다(21:1, 2).
- (4) 이들은 모두 시드기야의 심복이며 당시 유력한 실력자들이었다. 이처럼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흔히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

은 세상 정치의 한계성이며 인간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죄악의 결과이다.

4. **㉠ 네 명의 방백들은 어떤 말로 예레미야를 참소하였는가? (4절)**

- ㉠** (1) 이들은 예레미야가 평안을 구하지 않고 해(害)를 구하는데 이런 말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의 남은 군사와 백성이 낙담하게 된다고 하였다.
 (2) 유다의 방백들은 지적되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기 보다는 죄의 결과로 인해 다가올 재앙에 대한 경고만 탐탁치 않게 여겼다.
 (3)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 중에 원인보다는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므로 신앙 성장이 중단 되는 사례가 많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여 그분의 긍휼을 입어 평안을 누리야 한다(참조, 잠 28:13; 행 3:19).

5. **㉠ 방백들의 참소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5절)**

- ㉠** (1) 그는 방백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너희 손에 있으니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고 하였다.
 (2)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소신껏 통치하지 못하고 방백들에게 아첨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3) 통치자들이 폭정을 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으나 군중들에 의하여 끌려다니는 정치를 할 때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은 다리오(단 6:15, 16)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도록 방치한 빌라도(마 27:23, 24) 역시 후대에 큰 수치를 남기게 되었다.
 (4) 오늘날 통치자나 목회자가 군중들의 요구를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한다면 순간적으로는 많은 호응을 받는다 해도 후대에 지탄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6. **㉠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가둔 곳은 어디인가? (6절)**

- ㉠** (1) 그들은 시위대 뜰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예레미야를 넣고 가두었다.
 (2) 구덩이란 히브리어로 <뿔>과 <사할>이 있다. 구약에 76회나 구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그중에 <뿔>이 36회 나온다.
 (3) <뿔>이란 특별히 물이 있는 우물로 사용되었으나 후에 물이 없는 곳에도 사용되므로 '우물' (신 6:11) 이외에 '옥(감옥)'이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출 12:29).
 (4) <사할>은 '잠긴다'는 개념이 있는데(시 9:15; 35:7) 혼돈, 절망, 슬픔을 나타내기도 한다.

7. **㉠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구해 준 사람은 누구인가? (7-13절)**

- ㉠** (1) 왕궁 환관인 구스 사람 에벳멜렉이 시드기야에게 청원하여 예레미야를 구해 주었다.
 (2) 환관은 성(性)불구자(신 23:1)로 왕궁에서 궁녀들이 하는 일을 담당했던 자를 말한다.
 (3) 예레미야는 동족인 유다 방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뻔했으나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환관이 구출해 주었다.
 (4) 이것은 마치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도움을 주고(눅 10:30-37) 열 문둥이 중 사마리아인만이 예수께 감사한 것(눅 17:11-19)과 구스 내시(행 8:26-40), 백부장의 신앙(마 8:5-13)을 기억하게 해주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이 많음을 발견하게 한다.
 (5)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혈통만 자랑하는 자들에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셨다(마 3:9).

8. **㉠ 에벳멜렉이 예레미야를 위하여 무슨 말로 시드기야에게 요청했는가? (9절)**

- ㉠** (1) 그는 시드기야에게 방백들의 행위가 악하고 성중에 떡이 떨어졌으므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굶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2) 시드기야가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서 그를 구해 준 후 매일 떡 한 덩이씩 주게 하였으나(37:21) 이제는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3) 이런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양식이 다 떨어졌고 또한 기근도 심

하였다(왕하25:1-3).

- (4)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에벳멜렉이 그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다.
- (5)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엘리야를 기근 중에 그릇 시냇가에서 먹이시고(왕상 17:1-6) 사자굴에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지켜 주셨듯이(단 6:19-22) 예레미야에게는 에벳멜렉을 보내어 구원하셨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부르짖는 당신의 종들(에 3:53-55; 단 6:10)을 결코 못 본 채하지 않으시고 어떤 질과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참조, 행 12:7-10) 반드시 구해 주신다.

9. **㉠** 구덩이에서 건짐 받은 예레미야에게 시드기야가 무엇을 알고자 하였는가? (14-16절)

- ㉡** (1) 그는 예레미야에게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자 하였다.
- (2) 시드기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였기에 조금이나마 그분의 진노가 변한 것이 있나 알고자 하였으나 가장 중요한 시드기야 본인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 (3) 시드기야의 모든 관심은 단순히 재앙을 피해 보려는 것뿐이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자기 원인 분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분의 관심이 멀어지면 인간의 힘을 의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주 잊어버린다.

10. **㉠**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는 어떤 말로 충고하였는가? (17, 18절)

- ㉡** (1)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고 그와 그의 가족이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하였다.
- (2) 그는 이미 시드기야에게 동일한 의미의 경고를 하였다(27:12, 13). 이것은 결코 예레미야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 나온 말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불변하는 계획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었다.
 - (3) 그러므로 이것은 만일 끝까지 거만하게 버틴다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파멸에 이르는 경고의 말씀이다.
 - (4)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마음을 강박하게 가졌을 때 열 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의 나라와 자신이 파멸당한 것을 통하여 증명되었다(출 8-12장).

11. **㉠** 예레미야의 충고를 시드기야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19절)

- ㉡** (1) 그는 자신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그들이 자신을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넘겨 동족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 처음부터 시드기야의 태도는 인간 중심적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 (3) 오늘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 공포를 느끼고 불안해 한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 안 믿는 자들의 심령은 더 완악해 가는데 반하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에 자신을 복종시킨다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
 - (4) 그러나 시드기야는 이런 공포 가운데 자신의 생명에 관한 문제보다 사람들의 비난을 더 두려워하므로 순종하지 못하였다.
 - (5) 오늘날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최상의 악을 피할 줄 아는 참된 용기이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피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다(왕하 25:5-7).

12. **㉠**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계속 충고하는 말은 무엇인가? (20절)

- ㉡** (1) 여호와와 그의 말을 청종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갈대아인은 왕을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충고하였다.
- (2)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의 견해가 확실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지만 자신의 말은 하

나눔을 통하여 확실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권고를 따르도록 충고하고 있다.

- (3) 사람들이 자신의 추측에 의존하여 선부르게 일을 처리하면 사울과 같이 큰 낭패에 처하게 된다(참조, 삼상 13:8-15).
- (4) 우리는 언제나 등불로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행하여야 한다(참조, 시 119:105).

13. **㉠** 갈대아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시드기야와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21-23절)

- ㉠** (1)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왕궁의 여자가 바벨론의 방백들에게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불타며 시드기야와 아내들과 자녀가 갈대아인의 손에 잡혀갈 것이다.
- (2) 이것은 계속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시드기야가 당할 큰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다.
- (3)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 전체의 죽음을 가져왔듯이(참조, 창 2:17; 롬 5:18) 시드기야의 불순종이 자신 뿐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죽음을 초래하였다.
- (4) 그러므로 지도자들의 위치와 그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신만을 위하여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약 3:1).

14. **㉠**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와의 대화를 마치고 보내면서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24-26절)

- ㉠** (1)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과 시드기야에게 항복을 권고한 사실은 숨기고 방백들이 물으면 요나단의 집에 돌려보내지 말라고 간청하였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 (2) 시드기야가 이처럼 비겁한 행동을 취한 원인은 방백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 (3)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롬 13:1) 시드기야는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지하고 그분의 뜻에 순응하기 보다 권력 유지를 위해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였다.
- (4) 오늘날 정치적 지도자들도 자신의 권력만 믿고 폭정(暴政)을 행해서는 안 되지만 지나치게 백성들을 의식하여 정치를 하게 되면 금송아지를 세운 아론(출 32:1-6)이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 사울 왕(삼상 13:8-15)과 같이 실수를 범하게 된다.

15. **㉠** 시드기야의 앞에서 나온 예레미야가 방백들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가? (27, 28절)

- ㉠** (1) 방백이 예레미야에게 왕과의 대화 내용을 물을 때 시드기야가 명한 대로 요나단의 집에 보내지 않기를 간청했다고 대답하였다.
- (2) 그 결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참조, B. C. 586, 왕하 25:8-12; 대하 36:17-20)까지 시위대 뜰에 머물렀다.
- (3) 마침내 예레미야의 예언이 진실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었다는 역사적 증거로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언급하고 있다.
- (4)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태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찾아온 방백들에게 준엄한 하나님의 경고를 당연히 알려 주어야 할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5)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순간적으로 거짓을 말하였다. 오늘날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매순간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 어려울 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마 26:69-75)을 하게 된다.

제 39 장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단락구분 1-3 예루살렘이 함락되다 / 4-10 시드기야가 포로되다 / 11-14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를 선대(善待)하다 / 15-18 에벳멜렉의 구원을 약속하다

1 유다 왕 시드기야의 구 년 시 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2 시드기야의 제 십 일 년 사 월 구 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3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갓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갓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4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좇아 두 담 샷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5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와와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6 바벨론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7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8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9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 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10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 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11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12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13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갓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14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15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16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벳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목전에 이루어리라

17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18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략물을 얻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와와 말이니라

1. ㉠ 본장에는 어떤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가?

㉠ (1) 본장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되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그의 목전에서 살해되고 자신은 눈이 뽑힌 채 포로가 된 사건과 예레미야를 구해 준 구스인 에벳멜렉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구원을 약속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이 성취가 결코 꾸며 낸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1절에 기록된 역사적 시기를 보아 알 수 있다.

(3)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세계를 관할하시며 결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본장에 잘 나타나 있다.

(4)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계명을 주시며(참조, 수 1:8; 요 13:34) 그것을 지키도록 요구하시는데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므로 인해 저주와 수치

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 예루살렘이 얼마 동안 포위되어 있었는가? (1, 2절)**

- ㉠** (1) 예루살렘이 유다 왕 시드기야 구 년 시 월 (B. C. 588, 태양력 12, 1월, 왕하25:1)부터 십 일 년 사 월 구 일 (B. C. 586, 태양력 6, 7월, 왕하25:2, 3) 까지 18개월 동안 포위되어 있었다.
- (2) 예레미야는 마치 역사가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예언을 확증하며 그 예언이 성급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리는 것이다.
- (3) 예루살렘이 포위된 18개월 동안 성안의 상황은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을 정도였고 (애 4:10) 이런 기근에 역병까지 겹쳤다.
- (4)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경고보다 사람들의 지탄을 두려워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았다.
- (5) 오늘날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쌀 때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종해야 한다.

3. **㉠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바벨론의 방백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3절)**

- ㉠** (1) 바벨론의 방백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스김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기타 방백들이 중문에 앉아 있었다.
- (2) 중문이란 예루살렘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중요한 문으로 바벨론의 방백들이 이곳에 앉아 있었다는 의미는 그들이 정복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3) 한편 본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은 모두 바벨론식 이름인데 환관장 살스김은 느부사스반이라는 이름을 잘못 기록한 것 같다(13절).
- (4) 본절은 이미 1:15에서 북방 모든 나라의 족속이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사면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고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에 불과하다.

4. **㉠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어떻게 되었는가? (4-7절)**

- ㉠** (1) 시드기야는 밤에 도망하여 아라바에 이르렀으나 갈대아인에게 체포되어 립나의 바벨론 왕에게 끌려갔고 그곳에서 시드기야의 아들들과 모든 귀인이 죽고 그도 눈이 뽑히고 결박되었다.
- (2) 시드기야가 망한 모든 일들은 이미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것이었다. 왕이 도망하지만 (겔 12:12) 그물에 걸리듯 잡힐 것(겔 12:13)이고 눈이 뽑혀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34:3; 겔 12:13)고 하였는데 그대로 성취되었다.
- (3) 하나님과의 약속은 생명과 관계가 있다(참조, 창2:16, 17).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당해야 한다.

5. **㉠ 예루살렘이 함락되므로 그 성과 백성은 어떻게 되었는가? (8-10절)**

- ㉠** (1) 그 성의 왕궁과 백성의 집은 불타고 성벽은 헐렸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하여 백성은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소유가 없는 빈민만 그곳에 남겨 놓아 포도원과 밭을 갈게 하였다.
- (2) 바벨론은 유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고 그 대신 말썽을 일으킬 여지가 적은 빈민들만 남겨 놓아 그들에게 토지를 주고 경작하도록 하였다.
- (3)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부자였던 자들은 거만하였고 포학하게 압제를 했었으나 이제 그들은 피압박자가 되고 자신의 재산은 빼앗겨 가난한 자들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 (4) 이처럼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위치를 지나치게 확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활동하면 자기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참조, 고후 9:6; 갈 6:7, 8).

6. **Q** 선지자 예레미야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1-14절)

- A** (1) 느부갓네살은 그를 선대(善待)하여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의 집에 머물게 하였다.
- (2)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다.
- (3) 이미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1:8;15:21) 그 말씀대로 그는 생명의 보호를 받았다.
-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 반드시 자비를 베푸시고 어떤 박해와 죽음의 손길이 뻗쳐 온다 해도 피할 길을 주신다(참조, 고전 10:13).

7. **Q**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구원을 약속받은 자는 누구인가? (15-18절)

- A** (1) 그는 구스인 환관 에벳멜렉이었다.
- (2) 예레미야가 방백들에 의하여 시위대 딸의 구덩이에 갇혔을 때 에벳멜렉이 시드기야에게 청원하여 구해 주었다(38:7-13).
- (3)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하여 여리고에 들어간 이스라엘의 정탐군을 숨겨 준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그 성의 멸망 때 살아난 것과 같이(수 2:8-14;6:22-25) 에벳멜렉도 죽음의 그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
- (4) 라합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믿었듯이(수 2:8-11) 에벳멜렉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 결과 죽음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다(요 11:25, 26).

화보자료

샘물을 마시고 있는 노새. 이 샘은 '왕의 동산'에 있는 것이다.



'왕의 동산'은 실로암 못 가까이에 있는 두 성벽문 부근에 있다(참조, 4절; 52:7). 이곳은 성벽의 바깥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항상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흘러 나온 물이 적셔져 있다. 이 동산에 대한 언급은 본서 뿐 아니라 왕하 25:4 과 느 3:15에도 나와 있다.

제 40 장 그다라가 유다의 총독이 되다

단락구분: 1-3 에레미야가 포로에서 풀려나다 / 4-6 에레미야가 그다라에게 가다 / 7-12 유다의 남은 백성이 그다라에게 돌아다 / 13-16 그다라가 이스마엘의 음모를 무시하다

1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2 시위대장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3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4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히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 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선히 여기는 대로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5 에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하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6 에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 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7 들에 있는 군대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이 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8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래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밧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배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9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10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라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일은 성읍들에 거하라 하니라

11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북방에 있는 유대인도 바벨론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 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12 그 모든 유대인이 쫓겨 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13 가래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군대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라에게 이르러

14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취하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믿지 아니한지라

15 가래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라에게 비밀히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네 생명을 취케 하여 네게 모인 모든 유대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 하라

16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가래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네가 이 일을 행치 말 것이니라 너희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1. [C] 본장에 기록된 내용을 설명하라.

- (A) (1) 본장에는 바벨론 왕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라에게 포로에서 풀려 난 에레미야와 포로되지 않고 유다 땅과 각처에 흩어졌던 유다의 빈민이 모여든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2) 앞 부분과는 달리 본장에는 예언이 전혀 없고 유다 땅과 주변에 흩어졌던 유다 백성이

다시 모이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

- (3) 이곳에는 가난하고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겨졌는데 그들 중에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반란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13-15절)은 불행한 일이다.
- (4) 어떤 상황에 있든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화합될 수 있다면 남겨진 유다 백성도 큰 힘을 모을 수 있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교회 내에 어떤 일이 있다 해도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2. **㉠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가다 해방된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를 다른 백성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기던 중에 라마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 (2) 라마는 베냐민 지경에 있는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쪽 8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 (3) 이 성읍은 베냐민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수 18:25)인데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유다와 전쟁할 때 요새화했으며(왕상 15:16, 17) 유다의 아사 왕은 라마를 점령한 후 그 성의 재목들로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했다(대하 16:1, 5, 6).
 - (4) 또한 라마는 B. C. 187년 느부사라단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모은 포로들을 집결한 장소이며 바벨론 유배 후 베냐민 지파가 귀환하여 다시 거주하게 된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참조, 스 2:26; 느 7:30; 11:30).
 - (5) 전승(傳承)에 의하면 이 성읍 근처에 라헬의 무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참조, 31:15; 삼상 10:2; 마 2:18).

3. **㉠ 라마에서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을 하였는가? (2, 3절)**

- ㉠** (1) 느부사라단은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라마에 재앙을 선포하신 대로 재앙을 내리셨다고 말하였다.
- (2) 이방인이었던 느부사라단도 유다가 당하는 고통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그분의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다.
 - (3) 40 여년 간 유다 백성에게 예언된 내용을 이방인들도 분명히 들어서 알았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재앙임을 알았다. 그러나 당시의 유다 백성은 이방인조차 알고 있는 진리를 간과했던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백성이 말씀에 대한 영적 눈이 어두워질 때 이방인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영적 눈을 뜨게 하신다(참조, 은 1:5, 6).

4. **㉠ 느부사라단은 라마에서 예레미야를 해방시켜 주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였는가? (4절)**

- ㉠** (1)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과 유다에 남는 것 중 좋은 방향을 택하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바벨론은 비록 유다를 정복한 정복자들이지만 그들 중에서 예레미야는 보호받을 수 있었다.
 - (3) 한편 예레미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기로(岐路)에 서게 되었다. 마치 롯이 아브라함과 갈라설 때 죄악의 땅과 의의 땅 중에서 선택해야만 했듯이(창 13:9, 10).
 - (4) 이와 같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도 언제나 선택해야만 하는 고민에 빠질 때가 종종 있는데 어리석은 롯과 같이 지나치게 현실에 집착하면 결과적으로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창 19:12-29).

5. **㉠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길을 권(勸)했는가? (5절)**

- ㉠** (1) 그는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라에게 가서 백성 중에 거하거나 원하는 길로 가도록 권하였다.
- (2) 이를 통해 볼 때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의 정직성과 의로움을 믿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사라단은 예레미야가 안전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주었는데 결코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다.

- (3)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초기에 사단의 시기로 인한 시련이 있을지라도(참조, 욥 1:6-12; 2:1-6)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며 이방인까지도 그 믿음을 인정하게 된다.

6. **㉠ 그다라는 어떤 사람인가? (5절)**

- ㉠** (1) 그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로 바벨론 왕이 세운 유다의 총독이었다(참조 25:22-26).
 (2) 그의 부친인 아히감도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는데(26:24) 이런 정치적 중용의 자세가 바벨론 사람의 마음에 들어 총독으로 세움을 입었다.
 (3) 그는 총독으로 취임한 지 2개월 만에 이스마엘에게 암살당했는데(왕하 25:22-26) 그가 암살당한 7월 3일을 '티쉬리'라고 하여 히브리인의 4대 금식일 중의 하나로 지켜 졌다(참조, 슥 7:5; 8:19).

7. **㉠ 예레미야는 해방된 후 어떤 길을 택하였는가? (6절)**

- ㉠** (1)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미스바에 가서 그다라와 온 백성과 함께 거하는 길을 택하였다.
 (2) 그는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의 유배 생활이 끝나고 본국으로 유다 백성이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백성 중에 머물러 있고자 하였다.
 (3) 인간적인 안락과 세상의 재물을 욕심내면 크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참조, 22:21-30) 세상적인 모든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코자 할 때 그분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참조, 히 4:16).

8. **㉠ 미스바는 어떤 곳인가? (6절)**

- ㉠** (1) 본절에 언급된 미스바는 베나민 지파 경내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 지명의 뜻은 '망대'이다.
 (2) 사무엘 선지는 이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죄를 회개하는 대성회를 베풀었던 적이 있다(삼상 7:1-14).
 (3) 이곳은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가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2개월 동안 통치한 곳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중수(重修)할 때 다시 언급되었다(느 3:6, 7, 15, 19).

9. **㉠ 그다라가 유다의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간 사람들은 누구누구였는가? (7, 8절)**

- ㉠** (1)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로 이스마엘과 요하난과 요나단 그리고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여사나와 그 외의 사람들이었다.
 (2) 이들은 바벨론 군대에 패하고 들로 도망갔던 자들과 그들을 동조하여 따라갔던 사람들이었다.
 (3) 본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이스마엘은 그다라를 암살한 자(왕하 25:25)이며 요하난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레미야에 대해 반역한 후 동조자들을 모아 애굽으로 내려간 자(43:4-7)였다.

10. **㉠ 총독으로 임명된 그다라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였는가? (9, 10절)**

- ㉠** (1) 그다라는 자기를 찾아온 자들에게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유익하리라'고 말하고 자신은 갈대아인을 섬긴다고 하였다.
 (2) 본래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 즉 한때 갈대아 지방이 어느 종족들에게 점령되었었는데 그때 이후 그 땅은 빛 닥꾸리, 빛 아디니, 빛 설라니, 빛 야킨 등으로 불리었다. 그리고 갈대아 왕국의 발흥(B. C. 626)과 함께 바벨론이라고 기록하게

되었다. 따라서 갈대아는 바벨론 전체 왕국 이름으로 사용되었다.

- (3) 그다라는 자신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으로 확신하였다. 그는 오래 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권고(21:8, 9)를 들었으므로 그다라는 순종한 것이다.
- (4)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전쟁의 혼란을 두려워 말고 평상시처럼 살도록 하였다.
- (5)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참조, 시 31:5; 요 1:17)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다.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다.

11. **㉠** 그다라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떤 자들이 모였는가? (11, 12절)

- ㉠** (1)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북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겨 났던 각처에서 소식을 듣고 미스바로 모였다.
- (2) 돌아온 자들이 피난갔던 지역 역시 유다 백성의 원수를 땅이었다. 그런데도 이들이 돌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실과를 허락하시어 평안히 살게 하셨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다라의 정책이 성공한 것이고 그가 진실하였음을 입증한 증거였다. 이와 같이 정책을 세우는 자들의 자세가 백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오늘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12. **㉠**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다른 군대 장관들이 그다라에게 무엇을 전해 주었는가? (13, 14절)

- ㉠** (1) 그들은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리스에게 매수되어 그다라를 죽이려 한다는 비밀을 전해 주었다.
- (2) 그런데 암몬 왕이 그다라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스마엘을 이용한 것은 그가 왕족 출신이므로(41:1) 그다라의 수하에 예속되기 싫어하는 시기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이런 음모를 그다라가 알았건만 그는 요하난의 말을 믿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스마엘의 손에 그다라는 살해되었는데(왕하 25:25)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는 했으나 지나치게 사람을 신뢰한 것이 큰 실수였다.
- (4)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고 거짓되기 때문에(16:9) 지도자들은 사람을 신뢰하여 따르지 말고 신의(神意)를 따라 다스려야 한다.

13. **㉠**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밀 때 그다라에게 제시한 것은 무엇인가? (15, 16절)

- ㉠** (1) 요하난은 그다라에게 아무도 모르게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고 하였다.
- (2) 요하난이 이런 일을 제시한 까닭은 그다라가 생명을 잃으므로 그에게 모인 유대인이 흩어지고 남은 자들이 멸망당할 것을 걱정하였기 때문이다.
- (3) 비록 그다라가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좋은 마음에서 나왔으나 음모에 대한 조사를 해보지도 않고 단순히 사람을 믿은 것은 그의 실수였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고 정의와 불의를 판단할 수 있는 영(참조, 시 9:8; 119:137)을 받아야 한다.

제 41 장 이스마엘이 반역하다

단락구분 1-3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암살하다 / 4-10 이스마엘이 무고한 백성을 죽이고 암몬으로 가다 / 11-15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저지하다 / 16-18 요하난이 애굽으로 떠나다

1 칠 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나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2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한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죽였고

3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4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틀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5 때에 사람 팔 십 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6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려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여

7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8 그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9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

우고

10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하여 떠나니라

11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12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13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14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15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16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17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김함에 머무렀으니

18 이는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 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 함이 있더라

1. ㉠ 본장의 주요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왕족인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라와 무고한 70명을 죽이고 암몬 족속에게 가려다가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에 의하여 저지당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사람을 지나치게 믿은 그다라가 암살 음모를 알고도 방비하지 않은 결과(40:13-16) 자식은 죽임을 당하고 유다는 다시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 (3) 결국 이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에게 복종하지 않고 이스마엘은 암몬 사손에게, 요하난은 애굽으로 떠나고 말았다.
- (4)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한 결과 죽음과 함께 나라의 혼란이 왔고 백성들은 흩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진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롬 13:1)를 가지고 그분의 뜻대로 통치를 해야만 한다.

2. **㉠ 반역에 대한 음모를 가볍게 여긴 그다라와 추종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1-3절)**

- ㉠** (1) 그들은 7월에 왕의 종친인 엘리사마의 손자,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과 함께 미스바에서 떡을 먹다가 그와 10명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 (2) 이스라엘은 왕의 '종친'인데 이는 왕손(王孫)이란 뜻으로 세습주의 정신에 의해 권력을 탈취하려는 마음을 가졌음에 틀림없다.
- (3) 이때가 시드기야 11년 7월(B. C. 586, 9, 10월)인데 유다 백성이 이날을 기억하고 그다라를 애도하는 금식일로 지켰다(참조, 습 8:19).
- (4)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조건들을 제시할 때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 가정이나 교회 혹은 국가에서도 하나님의 권위보다 인간적 요소들이 앞설 때 유다와 같은 혼란이 있게 된다.

3. **㉠ 그다라가 죽은 지 이틀 후에 여호와의 집으로 가던 자들은 누구인가? (4, 5절)**

- ㉠** (1) 그들은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올라온 자들인데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80명이 여호와의 집으로 가고 있었다.
- (2) 그들은 그다라가 죽은 것을 모르고 단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불타다는 소리를 듣고 올라온 자들이었다.
- (3) 그러나 이들은 율법이 금지한 것을 행하는 모습을 하였다. 즉 율법은 수염을 깎지 말고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참조, 레 19:27, 28; 신 14:1)고 하였는데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그들은 상처를 내었다.
- (4) 이것은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데 그 결과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우상의 길에 빠지게 된 경우이다(참조, 출 32:1-6; 왕상 11:1-8).

4. **㉠ 여호와의 집으로 가던 사람들에게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였는가? (6, 7절)**

- ㉠** (1)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여 성으로 인도한 후 자기와 함께 한 사람과 더불어 죽이고 구덩이에 던져 버렸다.
- (2) 본절에는 이스마엘의 위선과 잔인성이 잘 나타나 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미스바를 거쳐서 가야만 했는데 이스마엘은 그들 앞에 거짓으로 눈물을 흘리며 유인한 후 잔인하게 죽였다.
- (3) 예레미야는 이미 24장에서 '나쁜 무화과'에 대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대로 유다가 황폐해졌다.
- (4) 겉모습이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그것을 맹종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다.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세력도 같은 양의 가족으로 가리우고 나타난다(참조, 잠 5:3-6; 7:7, 13-23; 마 7:16).

5. **㉠ 성전으로 올라가던 80명 중 10명은 어떤 방법으로 죽지 않게 되었는가? (8절)**

- ㉠** (1) 그들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다고 말하였으므로 살게 되었다.
- (2) 본절을 통하여 이스마엘의 속셈은 왕권을 계승하려는 것보다 탐욕에 더 눈이 어두웠음이 발견된다. 이렇게 이스마엘은 재물에 눈이 어두웠으므로 자비가 아닌 뇌물에 의해 10명을 살려 주었다.
- (3) 만일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아깝게 생각하므로 버리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생명도 죽은 70명과 같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물을 사랑하는 것은 해가 되고(전 5:13)

생명까지 잃게 된다(욥 3:39).

(4)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한 것에 그 뿌리를 두어야 한다 (참조, 고후 5:1).

6. **㉠** 이스마엘이 시체를 던져 넣은 구덩이는 어떤 장소이었는가? (9절)

- ㉠** (1) 이스마엘이 시체를 넣은 구덩이는 과거에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곳이다.
- (2) 바아사 왕이 유다를 공격한 후 성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는데 아사 왕은 수리아 왕을 고용하여 이스라엘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도록 했다(왕상 15:16-19; 대하 16:1-3).
- (3) 따라서 바아사는 하던 일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갔는데 아사 왕은 그들이 성을 쌓기 위하여 모아온 돌을 치워 계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왕상 15:20-22; 대하 16:4-6).
- (4) 결국 돌을 치웠던 곳에는 큰 구덩이가 남아 적의 침입을 저지할 수 있는 자연적인 방어선이 되었다.

7. **㉠** 이스마엘은 어떤 자들을 데리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했는가? (10절)

- ㉠** (1) 그는 느부사라단이 그다라에게 위임했던 왕의 딸들과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하였다.
- (2) 여기서 '왕의 딸들'은 시드기야의 딸이라기 보다는 이스마엘과 같은 왕족, 즉 방백들의 여자를 말한다.
- (3) 그리고 암몬 자손은 롯의 둘째 딸의 후손(창 19:38)들로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었다(신 23:3).
- (4) 이스마엘은 이런 자들에게 유다의 남은 백성을 넘겨 주려 하였는데 이는 유다 백성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었다.
- (5) 그렇지만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의 충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갔기 때문이다(17절).
- (6) 이런 고통을 모르고 먼저 죽음을 맞이한 자들이 더 복된 자들이었다.

8. **㉠** 이스마엘의 반역을 알고 요하난은 어떻게 막았는가? (11-14절)

- ㉠** (1) 요하난은 모든 사람을 데리고 기브온에서 이스마엘과 대치하였다. 그때 암몬 족속에게 잡혀가던 모든 백성이 요하난에게 돌아왔다.
- (2) 예레미야는 여기서 이스마엘이 자기 백성을 암몬 족속에게 팔아 넘기려 한 계획이 실패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 (3)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잔인성은 알았으나 피를 피로 갚지 않았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요하난에게 돌아가는 포로들을 막을 만한 힘이 없었기에 속수 무책이었다.
- (4) 그러므로 통치자가 평상시에 백성들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위급한 순간에 모두 자신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된다.

9. **㉠** 반역에 실패한 이스마엘은 어디로 갔는가? (15절)

- ㉠** (1) 그는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갔다.
- (2) 이스마엘은 유다 자손 틈에서는 거할 곳이 없어 암몬 자손에게 갔다. 처음에 그가 반역을 일으킬 때 10명의 동지와 함께 했으나 암몬 족속에게 갈 때는 8명뿐이었다.
- (3) 그는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패하였는데 이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에 개입하셨음을 보여 준다.

10. **㉠** 이스마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요하난은 어디로 가려 했는가? (16-18절)

- ㉠** (1) 요하난은 이스마엘의 손에서 빼앗은 포로와 함께 기브온에 돌아와서 갈대아인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가고자 베헤레헴 근처의 게롯김합에 머물렀다.
- (2) 요하난은 이스마엘이 그다라를 죽였으므로 갈대아인의 미움을 받아 보복당할 것이 두

려워 애급으로 가려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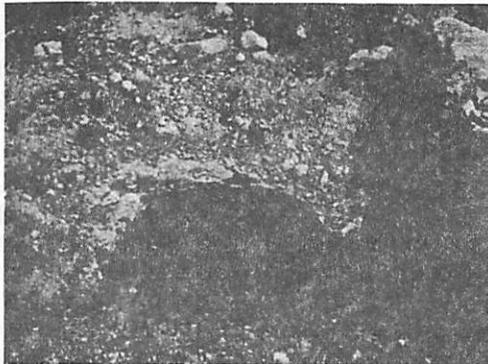
- (3) 요하난은 애국자이며 정의감이 강한 자였으나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는 비록 그가 애국자라고 할지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 (4)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선택하실 때 결코 인위적인 자를 택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다(참조, 삼상 16:7; 왕상 8:39; 대상 28:9).

11. Q 기브온은 어떤 곳인가? (16절)

- A (1) 이곳은 예루살렘 북서쪽 9.6km 지점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도시이다.
- (2) 성경에서 '기브온'이란 지명이 처음 나오는 곳은 여호수아가 산지 거민을 공격하는 귀절인데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화친을 맺었다(참조, 수 9:3-15).
- (3) 또한 이곳은 여호수아가 아모리 사람들과 싸울 때 해와 달을 멈추게 하고 그들을 물리친 곳이기도 하다(참조, 수 10:12-14; 사 28:21).
- (4) 사울이 이 성 사람을 많이 죽였기에 3년간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다윗 왕의 허락으로 사울 자손 7명을 죽인 일도 있었다(참조, 삼하 21:1-6).
- (5)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죽은 거짓 선지자 하나나도 기브온 사람(28:1)이며 바벨론 포로 후 느헤미야를 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때 기브온 사람이 돕기도 하였다(참조, 느 3:7; 7:25).

화보자료

구덩이. 팔레스틴 곳곳에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구덩이가 많다. 아래 사진의 구덩이도 그러한 것들 중의 하나로서 미스바(Mizpah)에서 발견된 것이다.



구덩이는 살인자나 살인 계획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실행하거나 그 범죄 결과를 은폐하기 좋은 자연 지형물 중의 하나이다. 본장에도 그 같은 사례가 나오는데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죽인 후 그 시체를 구덩이에 버린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7절). 한편 이 뿐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동생을 구덩이에 가두어 죽이려 하였는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요셉은 생명을 보존하였었다(창 37장).

제 42 장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다

단락구분 1-3 요한과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다 / 4-6 그들이 순종을 맹세하다 / 7-12 유다에 거하라 / 13-22 불순종할 때 받는 재앙

1 이에 모든 군대의 장관과 가례아의 아들 요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와와

2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 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3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할 것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4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5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니이다 여호와와는 우리 중에 진실 무망한 중언이 되시옵소서

6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청중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7 십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8 그가 가례아의 아들 요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부르고

9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가라사대

10 너희가 이 땅에 여전히 거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니라

11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 말라

12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리니 그로도 너희를 긍휼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13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복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14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썩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15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와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기로 고집하던

16 너희의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의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17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열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18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은 것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른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르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19 유다의 남은 자들이 여호와께서 너희 일로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날 너희에게 경계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1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고

하였어도 너희가 그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치 아니하였은즉

22 너희가 가서 우거하려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열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1. **㉠ 본장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이스마엘의 반란을 저지한 요하난과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자신들의 거취를 위해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할 것을 맹세한 일과 예레미야가 그들을 위해 대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해 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거하면 긍휼히 여기사 재앙을 돌이키시지만 바벨론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가면 극심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 잘못될 것이라고 하셨다(14절).
- (3) 하나님의 뜻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유다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을 지키기 어려울 때 교회를 떠나 세상과 연합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2. **㉠ 요하난과 여사나와 온 백성이 예레미야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1-3절)**

- ㉠** (1) 많은 사람 중에서 조금만 남았으니 남은 자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남은 자들의 갈 길과 할 일을 보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 (2)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패역한 모습을 가지고 나타났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가려고 결심한 상태였기 때문이다(41:16-18).
- (3)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으나 애굽으로 가려는 자신들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했다(참조, 43:1-7).
- (4)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으나(참조, 마 7:7, 11; 약 1:5) 요하난과 그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욕심만을 위해 구할 때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다(참조, 약 4:3).

3. **㉠ 요하난의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의 대답은 무엇인가? (4절)**

- ㉠** (1) 예레미야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알려 주기로 하였다.
- (2)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패역한 마음과 행동을 알고 있었으나 진정으로 그들의 행복을 소원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 (3) 마찬가지로 백성의 지도자들은 인간적 감정에 치우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참조, 삼상 12:23).

4. **㉠ 기도를 요청한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맹세하였는가? (5, 6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을 행하는데 그 말씀이 좋든지 나쁘든지 청종할 것이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복이 있기 때문이다.
- (2) 유다 백성의 과거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아 하나님의 징계를 많이 받았는데 본절에서도 그런 행태(行態)가 나타난다.
- (3) 즉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모든 말씀을 행하겠다는 과신(過信)에 넘쳐 있었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면서 자신들과 하나님을 동등시하는 교만을 나타냈다.
- (4)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유다 백성과 같이 아는 것 또는 의미 없는 제사나 제물이 아니고 순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참조, 삼상 15:22; 시 15:4).

5. **㉠ 예레미야가 여호와와의 말씀을 받은 후 누구를 불러모았는가? (7, 8절)**

- ㉠** (1) 예레미야는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과 백성의 작은 자

로부터 큰 자까지 다 불러모았다.

- (2) 백성들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그의 말을 순종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주어진 말씀을 거부하였다(43:1-3).
- (3) 따라서 그가 모든 사람을 불러모은 이유는 그들이 범한 죄가 한두 사람에게 의한 잘못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동참하였음을 알려 주기 위함이다.

6. **㉠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내용은 무엇인가? (10-12절)**

- ㉠** (1) 그 내용은 그들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바벨론 왕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재앙을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는 것이다.
- (2)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신 일은 그것이 이루기 전까지 결코 변하지 않음을 발견한다.
- (3)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순종하는 자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시며 당신의 능력은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므로 바벨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다 백성을 본향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것이다.

7. **㉠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된다고 하였는가?(13-17절)**

- ㉠** (1) 만일 유다 백성이 말씀을 불순종하여 유다 땅에 남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칼과 기근과 열병 등 모든 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2) 유다 백성이 애굽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묻지 않았으나 은밀한 목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말씀하셨다.
- (3) 이미 율법에서는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것을 금하였고(신 17:16)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하였다(사 30:1, 2; 31:1).
- (4) 성도들도 애굽과 같은 세상(참조, 히 11:25, 26)을 사랑하여 육신적 안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된다.

8. **㉠ 유다 백성은 애굽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였는가? (14절)**

- ㉠** (1) 그들은 애굽이 전쟁도 없고 식물의 꺾절함도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였다.
- (2) 현재 당하는 잠깐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한 그들의 선조(출 14:10-12)와 같이 그들도 인내로써 견디지를 못하였다.
- (3)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의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므로 우리에게 준비된 하늘의 영광을(참조, 롬 8:18) 소유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9. **㉠ 유다 백성이 불순종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예(例)를 들어 경고하셨는가? (18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노와 분을 예루살렘 거민에게 부으신 것과 같이 유다의 남은 백성이 애굽에 이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들이 가증함과 놀람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하셨다.
- (2) 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현시점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인데(왕하 24:10-16)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다(참조, 왕하 25:8-10; 느 1:3).
- (3) 이와 마찬가지로 남은 자들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일을 당하게 되는데 '결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는 최종적 경고를 받았다.
- (4) 어려움을 피하려고 애굽으로 갔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더 큰 어려움을 당했던 것으로 보아(창 12:10-20; 26:1-11)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잠깐의 어려움을 믿음의 성숙을 위한 훈련으로 여겨야 한다(참조, 사 48:10; 롬 5:3, 4; 벧전 1:7).

10. **㉠ 예레미야가 유다의 남은 백성이 범한 죄를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9, 20절)**

- ㉠** (1) 예레미야가 지적한 죄는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보내어 기도하게 한 후 응답받은 내

용대로 행하리라고 약속한 것이다(5, 6절).

- (2)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면서 스스로 속인 것을 들추어 냈다.
- (3) 하나님께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진실해져야 한다(참조, 갈 6:7).

11. ㉠ 불순종의 결과는 어떠한가?(21, 22절)

- ㉠(1) 그 결과는 칼과 기근과 열병에 의한 죽음뿐이다.
- (2) 예레미야는 본장의 결론으로 그들의 불성실과 불경건과 배은 망덕함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종말을 초래한다고 경고하면서 예언을 마치고 있다.
- (3) 하나님의 재앙을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그분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다.
- (4) 다만 그분의 통치와 계획에 순종하고 자신을 부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므로 그분의 재앙을 피해야 한다.

연구자료

예루살렘 멸망과 그 이후 예레미야의 활동. B. C. 58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Nebuchadnezzar)은 빈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갔다(왕하 25장). 이때 예레미야도 사로잡혀 쇠사슬에 매여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나 도중 라마(Ramah)에서 풀려났다(40:1). 그 후 그는 자신을 호송하던 바벨론의 시위대장으로부터 팔레스틴에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벨론으로 가서 유다 포로민들과 함께 살 것인가 하는 제안을 받았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예레미야는 팔레스틴에 남는 쪽을 택하였다(40:4, 5). 그리하여 그는 팔레스틴에 남아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미스바(Mizpah)로 가 그들과 함께 거하였다(40:6). 그런데 미스바에 모여 살던 유대인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불상사가 발생하였으니 곧 이스마엘이 유다 총독 그다라(Gedaliah)를 살해한 일이다(41:2). 이에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려 하였는데 떠나기에 앞서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계속해서 팔레스틴에 남아 있으라고 답변하였다(10절). 그러나 이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으니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기로 한 예레미야도 부득불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43:6, 7). 하지만 애굽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계속 활동을 하였다.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 와서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보다는 우상 숭배에 여념이 없는 백성들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은 또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는 것이었으니 이에 대하여서는 44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 43장 유다의 남은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단락구분 1-4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 / 5-7 애굽으로 내려가다 / 8-13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에게 예언하다

1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말하대

2 호사야의 아들 아사사와 가례아의 아들 요한과 및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3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인의 손에 붙여 죽이며 바벨론으로 잡아가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4 이에 가례아의 아들 요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5 가례아의 아들 요한과 모든 군대 장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 났던 열방 중에서 유다의 땅에 거하려 하여 돌아온 자

6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넘겨 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영솔하고

7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

들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이러하였더라

8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 너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네 손으로 큰 들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의 벽들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10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 보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들위에 두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11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12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13 그가 또 애굽 땅 벤세메스의 주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은 유다의 남은 자들이 처음의 약속(42:5, 6)과는 달리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예레미야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경고대로 징벌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 결과 그들 뿐 아니라 그들이 피한 애굽까지도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셨다.
- (3)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도운 애굽을 치신 것처럼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옹호해 주는 자들까지도 징계하신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여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을 보호하고 용납하는 행위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

2. ㉠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 유다 백성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1-3절)

- A** (1) 그들은 예레미야가 바룩의 꼬임에 넘어가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거짓 예언을 하여 자신들을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 (2)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가장 큰 원인은 교만(2절)이었다. 이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장애 요소였다(참조, 출 5:2).
- (3)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응답지 않으시고(참조, 욥 35:12, 13)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오는 결과는 패망과 수치와 낮아짐 뿐임(참조, 잠 16:18; 단 5:20)을 알게 해주신다.
- 3. C 여호와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4절)**
- A** (1) 가례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대 장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거하라 하시는 여호와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 (2) 이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욕망과 하나님의 조언이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인해 선지자에게 반항했기 때문이다.
- (3) 이와 같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므로(롬 8:7)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내 자존심이나 권위를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 4. C 여호와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택하였는가? (5-7절)**
- A** (1) 그들은 유다에 거하기 위하여 열방에서 돌아온 자들과 선지자 예레미야 그리고 서기관 바룩을 데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 (2) 애굽에 함께 간 사람들 중에는 남녀 유아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 (3) 왜냐하면 비록 그들의 운명이 불가항력적인 것이었다 해도 주저 없이 애굽으로 향하는 그들의 태도가 얼마나 뻔뻔스러웠는가를 보여 주기 때문이다.
- (4)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와 서기관 바룩을 동행시킴으로 조금이나마 자신의 태도를 정당화시키려 했다.
- (5) 언제나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이 하나님과 어긋날 때 새로운 행위로써 자신을 정당화시킨다.
- (6)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창 3:11-13) 아론이 우상만든 죄(출 32:21-24)와 빌라도가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방치한 죄(마 27:24, 25)를 백성에게 돌린 것과 같다.
- 5. C 다바네스란 어떤 도시인가? (8절)**
- A** (1) 다바네스는 유다의 남은 자들이 내려가 거한 애굽의 도시이다.
- (2) 이곳은 멤피스(논)와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로 나와 있다(2:16).
- (3) '다바네스'란 말은 B. C. 6세기에 애굽에서 발견된 페니키아 파피루스 문서에 언급된 <테하프느헤스>와 동일한 장소로 본다.
- (4) 이 문서에는 바알스본과 다바네스의 신들이라는 말이 나오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쳤던 바알스본은 다바네스에서 유래된 것이 확실하다(출 14:2).
- 6. C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9절)**
- A** (1)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의 목전에서 큰 돌들을 가져다가 다바네스 바로의 집 어귀의 벽돌 깔린 곳에 진흙으로 감추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셨다.
- (2) 하나님께서 강제로 선지자를 애굽으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서 발견된다. 즉 선지자가 그곳에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며 또한 예언이 이스라엘 땅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시키시기 위함이다.
- (3)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인데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벽돌을 굽던 일(출 5:7)을 기억하게 하며 또한 그곳에 애굽 멸망을 위한 초석을 놓게 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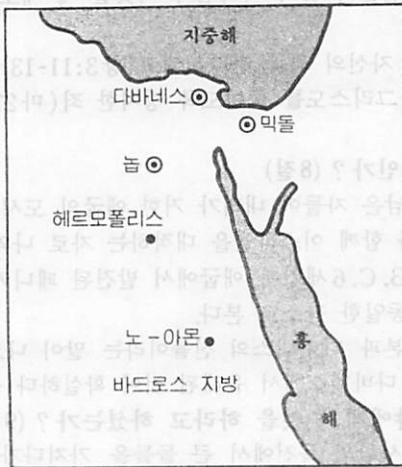
- (4) 결국 그들이 피해 간 곳은 과거에 쓰라린 역사가 있으며 그것이 반복되는 장소임을 보여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당신뿐임을 알게 하신다(참조, 삼하 22:3; 시 18:2; 잠 30:2).

7. **Q**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10-13절)

- A** (1)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애굽에 보내어 죽일 자는 죽이고 애굽 신들의 집을 불사르며 애굽 땅 벤세메스의 주상(柱像)들을 깨뜨릴 것이라고 전하라 하셨다.
 (2)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애굽으로 피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계시며 유다인을 피하게 장소를 제공한 애굽까지도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셨다.
 (3)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재주껏 숨지만(창 3:8) 결코 그분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참조, 시 19:6; 139:7).
 (4)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시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요셉도 억울하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순복(順服)할 때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참조, 창 39-41 장).

지도자료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이 거주하였던 지역



유다를 정복한 바벨론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 (Gedaliah)를 총독으로 세워 유다를 통치하려 하였다(41:2). 그러나 이스마엘(ishmael)이 그다라를 죽여 버리자 많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였다(6, 7절). 이들이 애굽 땅으로 도망가서 머문 지역은 주로 므딕, 다바네스, 눴, 바드로스 지방인데 위의 지도에 그곳들이 표시되어 있다(44:1).

제 44 장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에 대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

단락구분 1-6 우상 숭배로 인한 유다의 파괴 / 7-10 우상 숭배를 할 것이다 / 11-14 애굽으로 내려간 자가 받을 형벌 / 15-19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다 / 20-30 예레미야가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다

1 애굽 땅에 거하는 모든 유다인 곧 므딕들과 다 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거하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2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3 이는 그들이 자기가 너희나 너희 열조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를 격동한 악행을 인함이라

4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치 말라 하였어대

5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6 나의 분과 나의 노를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고 적막하였느니라

7 나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중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려느냐

8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의 소위로 나의 노를 격동하여 너희의 가서 우거하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 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9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열조의 악과 유다 왕들의 악과 왕비들의 악과 너희의 악과 너희 아내들의 악을 잊었느냐

10 그들이 오늘까지 겸비치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 앞에 세운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느니라

11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

희에게로 향하여 재앙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 버릴 것이며

12 내가 또 애굽 땅에 우거하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가증함과 놀림과 저주와 모욕거리가 되리라

13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벌하리니

14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남아서 그 사모하여 돌아와서 거하려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피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겠느니라

15 때에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거하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6 내가 여호와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17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정녕히 실행하여 우리의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방백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대저 그때에는 우리가 식물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였더니

18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꺾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19 여인들은 가로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에게 경배하는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20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가로되

21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방백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치 아니하셨느냐 생각지 아니하셨느냐

22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소위를 더 참으실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무하며 놀렷과 저주거리가 되어 거민이 없게 되었나니

23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여호와와의 법과 율례와 증거대로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양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미쳤느니라

24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2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어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잔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립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26 그러므로 애굽 땅에서 사는 모든 유다여

여호와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은 땅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일컬어서 주 여호와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게 되리라

27 보라 내가 경성하여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28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 우거하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이 성립되었는지 알리라

29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한 말이 단정코 성립될 것을 그 것으로 알게 하리라

30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 원수 곧 그 생명을 찾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것 같이 애굽 왕 바로 호브라를 그 원수 들 곧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와의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자신들의 고집대로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 (2) 유다 백성은 과거에 우상을 섬길 때 복을 받아 궁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시 우상을 섬기기로 하였는데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상기시키며 우상 숭배하는 죄에서 돌이키기를 권고하고 있다.
- (3)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잠깐 잘되는 것을 경험하고 영원히 세상적인 일에만 매달리는 자들이 많이 있다.
- (4)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 그분의 진노를 자신들의 재물로 피할 수 없음(참조, 잠 11:4)을 모른다. 성도들은 정함이 없는 재물(딤후 6:17)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움으로 받아야 한다.

2. ㉠ 유다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 거한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유다 백성이 거한 곳은 므딕들과 다바네스와 늑과 바드로스 지방이었다.
- (2) 므딕들은 애굽 동북단의 성읍으로 펠루시움의 서남쪽 11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다바네스는 애굽의 삼각주 동쪽에 있는 성읍이다. 이곳은 겔 30:18의 드합느헤스와 동일한 장소이고 라암셋 동남 13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 (3) 늑은 멤피스라고 불리우기도 하는데 카이로 남쪽 2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제 3 왕조의 수도였다. 바드로스는 상(上)애굽으로 애굽과 에티오피아 사이에 위치해 있다(사 11:11). 이곳은 애굽인들이 최초로 정착한 거주지(겔 29:14)이며 애굽 제 1 왕조의 도읍이었다.

3. ㉠ 예루살렘과 유다가 황폐한 원인은 무엇인가? (2, 3절)

- ㉠ (1) 그 원인은 유다 백성과 그들의 조상들이 일찌기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섬기므로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였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을 제정해 주셨을 뿐만 아

나라(신 6:14) 유다 백성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계속할 때 그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경고도 하셨다(1:16).

- (3) 그렇지만 어리석은 백성은 유다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안전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유다나 예루살렘도 범죄했을 때 징벌하신 것을 보고 애굽 역시 징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 (4) 오늘날 성도들 역시 어디나 계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참조, 창 28:10-16)를 잊고 자신의 길을 가려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 유다 백성이 받은 것과 같은 징계를 피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시 130:3; 겔 18:24, 26; 사 59:2; 롬 6:23).

4. **㉠**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는 어떠한가? (4-6절)

- ㉠** (1)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며 당신의 종들을 파송하시어 가장한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셨으나 유다 백성은 여전히 우상에게 분향하며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 (2)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노와 분을 쏟으시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불타서 황폐하고 적막해졌다.
- (3) 여기서 우리는 당시 애굽으로 피신한 유다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들이 유다 땅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을 당했음(32:28-30)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내려가 또다시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였던 것이다.
- (4) 유다 백성의 이런 태도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가 징계로 주어졌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우둔하여졌다. 세상적인 지식이 더 많이 쌓인 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역효과를 나타낸 것이다(참조, 4:22; 시 92:6; 롬 1:22).

5. **㉠**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7절)

- ㉠** (1) 우상 숭배의 결과 자기 영혼이 해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즉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멸절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 (2) 죄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이렇게 넓다.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36명이 죽고 전쟁에서 패하였으며(참조, 수 7:1-5) 다윗의 범죄로 7만 명이 죽었다(참조, 삼하 24:1-15). 또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전체 인류의 죽음을 가져왔다(참조, 롬 5:12).
- (3)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범죄할 때 자손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하시겠다(참조, 출 20:5)는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새 계명(참조, 요 13:34, 35)을 순종함으로 그분의 제자인 증거를 가져야 한다.

6. **㉠** 유다 백성이 애굽 땅에서 우상에게 분향하여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므로 어떤 일을 당하는가? (8절)

- ㉠** (1)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므로 끊어 버림을 당하여 세계 열방 중에서 저주와 모욕거리가 된다.
- (2) 즉 우상에게 분향하므로 죽임을 당하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에게 비난과 조롱거리가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 욕이 되는 것이다.
- (3)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데(참조, 고전 10:31; 살후 2:14) 오히려 욕을 돌린다면 그 결과는 죽음뿐이다(참조, 롬 6:23). 즉 우상 숭배자는 육체적 죽음보다 더 가혹한 영적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7. **㉠** 유다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대하여 범한 죄는 무엇인가? (9, 10절)

- ㉠** (1)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회개를 외쳐도 겸비(謙卑)치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였다.
- (2) 즉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은 몇몇 사람이 아니고 유다의 열조와 왕들과 왕비들과 그

들의 아내까지 포함된 모든 백성이었다.

- (3)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화려하고 풍성한 제사가 아니라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다(참조, 삼상 15:22).
- (4)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징계의 채찍을 돌이키실 것이다(참조, 왕상 21:29; 대하 7:14; 은 3:5-10).

8. **㉠**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준행치 않은 자들이 당하는 벌은 어떤 것인가? (11-13절)

- ㉠** (1)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사 온 유다를 끊으시고 애굽으로 피한 자들을 찾아가 취하시므로 노유(老幼)를 막론하고 칼과 기근과 열병에 죽게 되고 저주와 모욕거리가 될 것이다.
- (2)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해 보고자 장소를 옮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까지 가서 죄인들을 찾아 심판하신다.
- (3)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여러 면에서 시도하지만 그 시도가 헛됨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의 시선과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참조, 시 139:7, 8).

9. **㉠** 애굽 땅에 들어간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14절)

- ㉠** (1) 애굽 땅에 피하여 우거하는 유다의 남은 자는 도피하는 자들 몇 명 외에 그들이 사모하는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 (2) 이 말씀은 애굽으로 도피한 자들이 모두 멸절되며 단지 바벨론으로 유배(流配)된 자들만 유다 땅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이다.
- (3) 그들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의 헛된 속임수를 믿고 돌아갈 수 있다는 어리석은 희망을 가졌으나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하셨다.
- (4)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패망을 당하게 된다(참조, 잠 13:13)는 사실을 명심하고 성도들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한다(참조, 롬 2:13).

10. **㉠** 애굽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죄는 무엇인가? (15절)

- ㉠** (1) 모든 남자들은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알고 있었으나 그 행위를 방치하는 죄를 범하였다.
- (2) 이 말씀은 우상 숭배가 여자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암시한다. 여자들이 공공연히 우상을 섬김으로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동조하여 우상 숭배하는 죄에 동참하고 말았다.
- (3) 솔로몬이나 아합이 여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는데(참조, 왕상 11:1-8; 16:29-33)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동조한 자들과 방관한 자들을 동시에 멸하신다.
- (4) 우리는 주위의 환경들,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나 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시험받는데(참조, 욥 2:9)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다른 것에 대한 사랑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11. **㉠**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변명은 무엇인가? (16-18절)

- ㉠** (1) 그들은 과거에 선조들과 방백들이 우상을 섬길 때 식물이 풍부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았는데 우상 앞에 분향하는 것을 폐한 후 모든 것이 꺾절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다. 그래서 다시 우상을 섬겨야겠다고 변명하였다.
- (2) 유다 백성은 신앙이란 음식을 얻고 단순히 외형적 행복만 추구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
- (3) 그러나 역사적으로 돌이켜 볼 때 유대인들의 우상을 섬기던 시절에 한재(旱災)를 당했고(참조, 14:1-6; 왕상 17:1-16) 앗수르와 바벨론이 침략하기도 하였다.

- (4) 그들은 한때 요시야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 우상과 우상의 선지자들이 모두 없어져 신앙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참조, 왕하 23:1-25) 시드기야 시대에 다시 우상 숭배에 전념하므로 자신들의 죄로 인해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 그러나 죄를 깨닫기 보다는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사실을 동경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 (5)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들의 인간적 마음이 간사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언제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12. **㉠**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의 변명은 어떤 것인가? (19절)

- ㉠** (1) 그 여인들은 우상에게 분향하는 것이 남편의 허락에 의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 (2) 여인들은 자신의 죄를 남편에게 전가시키면서(참조, 창 3:12, 13) 무죄를 주장하였다.
- (3)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부가 함께 범죄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참조, 행 5:1-10).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을 묵인하지 않고 지적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나아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참조, 롬 16:19).

13. **㉠** 우상에게 분향하여 하나님의 법과 율례를 범한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20-2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행과 가증한 소위(所爲)를 참으려 하셨으나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 (2) 하나님의 공의가 즉시 발한다면 이 땅에 살아 남을 자가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참조, 벰후 3:9).
- (3) 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으시는 기간이 끝나기 전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14. **㉠** 유다 백성이 이행(履行)하기로 서원한 것은 무엇인가? (24-26절)

- ㉠** (1) 그들은 자신과 아내들이 입으로 서원하기를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고 하였다.
- (2) 이들이 숭배하기로 한 ‘하늘 여신’은 바알의 아내되는 아스다룻에 대한 숭배인 것 같은데 풍년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여자들이 특히 열심히 행하였다(15절). 이런 제사에는 반드시 성적인 음란 행위가 동반되었다.
- (3) 유다 백성은 서원했다는 이유를 들어 우상 숭배를 변명하지만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들 중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게 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었다.
- (4) 우리가 서원이나 약속을 세웠을 때는 그것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파기해야 한다.

15. **㉠**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전달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27-29절)

- ㉠** (1)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내리시기로 한 칼과 기근과 재앙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의 미련함을 들추어 내고 바로를 믿는 것이 헛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다.
- (3) 인간의 미련함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기도온도 양털을 가지고 표적을 구했으며(참조, 사 6:36-40)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예수께 표적을 구하였다(참고, 마 12:38-40).
- (4) 언제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요구하다 보면 믿음이 자랄 수 없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해도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참조, 요 20:24-27; 히 11:1-3).

16. **㉠**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인 바 된 '호브라'는 어떤 인물인가? (30절)

㉠ (1) 애굽 26왕조의 4대 왕이며 그의 손자 역시 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2) 그의 이름은 '태양 신은 오래 참으신다'는 뜻을 갖고 있으며 B. C. 589년부터 570년까지 19년간 애굽을 통치하였다.

(3) 그는 B. C. 589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2세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시드기야의 요청에 의해 출정했으나 바벨론이 애굽으로 회군(回軍)하자 퇴각하여 유다를 돕지 못하였다 (참조, 37:5이하; 겔 17:15, 17).

(4) 그의 치세 때 다바네스에 끌려간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애굽 침공을 예언하였고 (43:9-13; 46:13-26) 바벨론으로 끌려간 에스겔도 B. C. 587-585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에 게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참조, 겔 29:1-16; 30:20-26). 그리고 에스겔은 포로된 지 27년째 되는 B. C. 570년경, 즉 호브라가 죽기 전에 (겔 29:17-30:19) 다시 예언하였다.

(5) 그의 최후는 이러한 내용은 예레미야에 의해 본절에만 언급되어 있다. 리비아에서의 군사적인 멸망과 그 일로 인한 애굽 내의 반란으로 앞당겨졌으며 느부갓네살은 이런 기회를 틈타 B. C. 568-567년 사이에 애굽을 공격했다.

화보자료

부적(符籍). 고대 중동인들이 지니고 다니던 이 부적은 낫쇠로 된 것인데 이쉬타르(Ishtar), 즉 아스다롯(Ashtaroth)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은 저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 그런데도 망국의 한을 안고 애굽으로 피신한 유대인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8절). 그러므로 저들의 결국은 멸망뿐인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거하는 자들도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벌하리라'(13절) 라고 선포하셨다.

제 45 장 하나님께서 바룩을 위로하시다

단락구분 1-3 바룩이 슬픔을 느끼다 / 4-5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다

1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 사년에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2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3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 하도다 하셨고

4 또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이러하거늘

5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의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노략물을 얻는 것같이 하리라 여호와와 그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1. Q 본장에 기록된 내용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 A (1) 본장에는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을 기록한 뒤 낙심하였을 때 다른 백성들은 다 멸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바룩의 생명만은 보호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 (2) 바룩은 자기의 임무에 충실하여 예레미야의 구전을 기록하였으나 백성이 당하는 고통으로 자신이 평안하지 못하다고 하였다(3절).
- (3) 그러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그들에게 주어진 충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므로 당연한 결과였다.
- (4)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선, 즉 순종을 아시고 낙심치 않기를 원하셨다. 당신의 뜻을 순종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신다(참조, 고후 4:8; 갈 6:9; 살후 3:13).

2. Q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을 다 기록한 때는 언제인가? (1절)

- A (1) 그때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 4년이였다.
- (2) 여호야김 4년은 B. C. 605년으로 비록 45장에 기록되어 있으나 36장의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

3. Q 바룩이 피로와했던 것은 무엇인가? (3절)

- A (1)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므로 탄식으로 인해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다고 하였다.
- (2) 바룩은 조국이 파멸당하는 예언을 기록한 그것을 낭독해야만 하는 슬픔과 피로움을 겪었는데 이제 백성에게 배척당하는 아픔까지 느껴야 하는 지경에 이르러 피로와했다.
- (3) 그는 비록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었으나 동족으로서 같이 아픔을 느꼈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룩과 같이 자신의 안락만을 즐거워하지 않고 동족의 아픔을 함께 느낄 줄 아는 의식이 필요하다. 민족을 위해 생명을 걸고 기도한 에스더(참조, 에 4:15-17)나 다니엘(참조, 단 6:10)과 같이.

4. Q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며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데 바룩이 불안에 떠는 이유가 이 주권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3)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욥이 신앙 고백한 것(참조, 욥 1:21)처럼 오늘날 세상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도 욥의 신앙을 본받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모든 길에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잠 3:6).

5. Ⓢ 바룩에게 충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스스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경영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 (2) 우리는 아무리 사람의 지혜가 뛰어나서 그 지혜로 모든 계획을 세운다 해도 응답하시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참조, 잠 16:1,9).

6. Ⓢ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5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어느 곳을 가든지 그의 생명을 전쟁에서 노략물 얻는 것처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2) 바룩이 세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근심을 할 때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실천한 그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다.
- (3)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으나 그런 방법으로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다.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갖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뿐이다(참조, 마 25:21).

연구자료

바룩(Baruch). 마세야(Mahseiah)의 손자이며 네리아(Neriah)의 아들인 바룩(1절; 32:12)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막역(莫逆)한 친구이자 그의 서기(書記)로서 예레미야를 도왔던 것이다(32:16; 36:10; 51:59). 뿐만 아니라 그는 유다 왕 시드기야의 시종장(侍從長)인 스라야(Seraiah)와 형제지간이다. 이러한 바룩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전해 받아 책에 기록하였으며 또한 그 말씀을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온 성읍으로부터 모여든 백성들에게 낭독하였다(36:4-10). 이때가 바로 유다 왕 여호야김(Jehoiakim, B. C. 608-597) 5년 9월인데 여호야김은 바룩이 기록한 두루마리를 칼로 조각 내어 화로에 던져 버리고 예레미야와 바룩을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다(36:20-2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숨겨 보호하셨으며 예레미야의 명을 받은 바룩은 불태워져 버린 두루마리의 말씀을 재기록하였다(36:27-32). 본장 1-5절에는 바룩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경계(警戒)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도 바룩이 하나님과 예레미야에 대하여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제 46 장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다

단락구분 1-12 애굽의 멸망이 예언되다 / 13-19 바벨론이 애굽에 원정할 것을 예언하다 / 20-26 애굽의 멸망이 다시 예언되다 / 27-28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다

1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 사 년에 유브라데 하수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노그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3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4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5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쩔인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6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수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데도다

7 저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노

8 애굽이 나일의 창일함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을 멸할 것이라

9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잠은 구스인과 붓인과 활을 당기는 루딤인이여 나오지니라 하거니와

10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값은 보수일이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수가에서 회생을 내실 것임이로다

11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12 네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네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부딪혀들이 함께 엎드러졌음이니라

13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14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므들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곧게 서서 예

비하라 네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15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쩔이요 그들의 몰아내신 연고니라

16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시매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학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17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18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의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19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놀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20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이르렀느니라

21 또 그중의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22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2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24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붙임을 입으리로다

25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아론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멸할 것이라

26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여전히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와 딸이니라

27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네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온히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2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흠뻑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1. **㉠** 본장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과 그것을 통한 교훈을 요약하라.

- ㉠** (1) 본장에는 애굽이 바벨론의 원정에 의하여 갈그미스에서 패전하므로 망하게 될 것과 여전히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약속하시며 위로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 (2) 본장은 유다가 망하기 전에 기록된 것으로 앞장과 관계가 있다. 이전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병행되어 나타나는데 역시 공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실천하시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보여 준다.
- (3) 애굽이 갈그미스에서 패전할 것이 본서에서는 유일하게 본장에만 나타나는데 바벨론이 시드기야 때에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나 유다의 요청으로(36:6;겔 17:15) 애굽이 올라오자 바벨론이 잠시 포위를 풀고 갈그미스에서 애굽을 격파했다.
- (4)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이런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불변의 약속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있다.

2. **㉠** 본장부터 새로이 주어지는 말씀의 대상은 누구인가? (1, 2절)

- ㉠** (1) 본장부터는 열국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51장까지 연결되어 있다.
- (2) 열국에 대한 예언 중에서 최초로 애굽에 관하여 언급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패할 것에 대한 말씀이었다.
- (3) 갈그미스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중요한 길목으로 애굽의 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하므로 서방 통치권을 탈취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에게 어떻게 무장하라고 하셨는가? (3, 4절)

- ㉠** (1) 하나님께서는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기병은 말에 안장을 지워 타고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나서며 창을 갈아서 사용하라고 하셨다.
- (2) 이때 애굽은 매우 강성하던 시기였기에 훌륭한 무기들을 갖추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장할 것을 말씀하셨다.
- (3) 애굽은 자신의 힘을 의식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그들의 결과는 패망뿐이었다(참조, 잠 16:18; 약 4:6).

4. **㉠** 각종 무기로 무장한 애굽은 어떻게 될 것인가? (5, 6절)

- ㉠** (1) 그들은 놀라서 물러가며 용사가 도망하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어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고 용맹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여 북방 유브라테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질 것이다.
- (2) 이와 같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삼상 17:47)이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무장했음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 (3) 특히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세상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엡 6:12)이므로 인간적인 방법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믿음과 말씀의 진리로 무장해야만 한다(참조, 엡 6:13-18).

5. **㉠** 애굽의 교만한 모습은 어떠한가? (7-9절)

- ㉠** (1) 애굽이 자신의 세력을 자랑하는 귀절로서 돈으로 산 용병-구스인, 붓인, 루딤인 등-이 있으므로 자신의 힘을 애굽의 나일 강의 창일(漲溢)함과 홍용(洶湧)함에 비유하였다.
- (2) 이와 같이 애굽 군대가 강력한 것을 나일 강에 비유한 것은 그 강이 해마다 범람하여

평원을 적셔 주었는데 그와 같이 애굽의 세력이 커져 유브라테 하수까지 군대를 동원할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것이었다.

- (3)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애굽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들은 의외적으로 나타나는 군사적 힘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무기인 것으로 여겼으나 외적인 힘은 잠시뿐이었다. 이것은 외적으로 강력했던 바벨론이나 메대 바사 그리고 로마도 망하게 된 것으로 증명된다.
- (4) 이에 비해 그리스도인들은 심히 나약해 보였고 또 무서운 폼박을 받았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더욱 흥왕하여 번성해 갔다(참조, 행 19:20). 이는 어느 것이 진정으로 강한 힘인가를 가르쳐 주는 사실이다.

6. **㉠**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애굽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10-12절)

- ㉠** (1) 애굽이 교만하여 유브라테 하수로 나오는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약을 사용하든지 상처가 낫지 못할 것이고 열방 중에 수치가 드러날 것이다.
- (2) 그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 보수(報讐)하시는 이유는 바로노고가 경건한 요시아를 살해하였기 때문이며(참조, 왕하 23:29, 30; 대하 35:22-24) 그의 태도가 오만했기 때문이다.
- (3) 한때 애굽이 큰 힘을 가지고 있었으나 교만으로 인하여 그 결국은 패망을 당하고 말았다(참조, 잠 16:18).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잠시 흥왕하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할 필요가 없다(참조, 시 37:1, 2).

7. **㉠**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이 애굽 땅을 칠 사건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13-16절)

- ㉠** (1) 애굽인들이 돈으로 용병을 사서 사방을 경계하고 유브라테 하수를 지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용병은 각자 자기의 민족과 고토(故土)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셨다.
- (2) 이 예언은 B. C. 568년에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략하므로 정복할 것을 말하는데 애굽이 아무리 강력하게 무장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시면 사람의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할 때(참조, 수 6:1-21) 그리고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정벌할 때(참조, 사 7:19-23)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 (4)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애굽 같은 세력에 부딪힐 때가 있으나 여호수아가 기드온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내 이기게 될 것이다.

8. **㉠** 애굽을 떠나는 자들이 무엇이라고 부르짖었는가? (17절)

- ㉠** (1) 그들은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라고 부르짖었다.
- (2) 여기서 '망하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온>인데 그 뜻은 소음(騷音)이란 의미로서 바로가 말만하는 보잘것없는 왕이란 뜻이다.
- (3) 전에는 바로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만했으나 이제는 소리만 나는 혼란한 왕에 불과했다.
- (4) 그는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에게 패하였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바벨론과의 전투를 그쳤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을 저질렀다.
- (5) 성도들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잃지 않고(참조, 골 1:20) 그의 사랑에 속하므로 평화를 누리야 한다(참조, 롬 5:1; 엡 2:16).

9. **㉠**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러 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무엇에 비유하셨는가? (18절)

- A** (1)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을 산들 중의 다불과 해변의 갈렐에 비유하셨다.
 (2) 다불 산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 16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해발 약 553m의 원추형이다. 정상에서 보면 어느 방향이든 볼 수 있다.
 (3) 그리고 갈렐 산은 서북쪽 지중해로 들출한 갑으로부터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내륙으로 약 20.8km에 이른다.
 (4) 이와 같이 다불 산과 갈렐 산은 그 기반이 든든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더우기 다른 장소로는 옮겨질 수도 없다.
 (5) 그러므로 바벨론이 이런 산에 비유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느부갓네살이 모든 왕들을 압도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애굽도 반드시 바벨론에 의해 멸망될 것이다.
- 10. C**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인가? (19절)**
A (1) 애굽의 늪이 황무하여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이므로 애굽인들은 포로의 행장(行裝)을 준비하라고 하셨다.
 (2) 늪은 왕의 처소가 있는 수도(首都)와 같은 곳인데 이곳이 황무하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애굽의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착했었지만 이제는 그들도 포로로 끌려간다는 의미이다.
 (3) 애굽인들은 그들의 평안함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겼으나 포로의 행장을 꾸려야 할 때가 가까웠음을 몰랐다.
 (4)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굽 사람들처럼 멸망의 날이 가까이 온 줄을 모르고 평안을 외치고 있다(참조, 눅21:34; 살전5:3).
- 11. C** **애굽과 그들이 고용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 21절)**
A (1)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그들의 고용군도 외양간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는데 이는 재난의 날이 이르러 벌받는 때가 왔기 때문이다.
 (2) 이 말씀은 애굽이 비옥하여 그들과 그들이 고용한 자들까지 평안하게 잘 먹고 지냈으나 이제는 그들이 즐기던 쾌락이 끝나고 하나님의 보수(報讐)를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킨다.
 (3) 마치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을 쌓아 두고 평안히 즐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신 것(참조, 눅12:16-21)이나 부자 청년이 재산으로 인해 생명의 길을 포기한 것(참조, 마19:16-22)과 같다.
 (4) 우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 것으로 헛된 자만과 신뢰심을 갖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
- 12. C**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하는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22-24절)**
A (1) 바벨론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이며 수효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애굽은 뱀같이 소리를 내면서 도망가고 북방 백성의 손에 붙인 바 되어 수치를 당할 것이다.
 (2) 애굽은 단지 숲에 숨어서 소리만 내는 뱀처럼 종말을 맞이할 것인데 에스겔은 이런 애굽의 세련을 악어에 비유하였다(참조, 겔29:3; 32:2).
 (3) 자신의 세력이 강성하다고 믿었으나 그들을 정벌할 바벨론의 군대는 더 막강하고 많은 수의 군사를 보유했으므로 애굽이 필경 망하게 될 것을 보여 준다.
- 13. C**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정벌하시겠다고 한 자들은 누구인가? (25, 26절)**
A (1) 하나님께서는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

는 모든 자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하셨다.

- (2) 노의 아몬은 남애굽의 가장 중요한 신(神)으로 고대 애굽의 수도였던 더베(Thebes)에 있었던 최고의 신이었다. 이 신은 생산(生産)의 신으로 간주되었고 후에 태양의 신 레(Re)와 연관을 갖게 되었다.
- (3) 그리고 애굽의 신들은 애굽인들만 특이하게 갖고 있는 지방 신(神)을 말하는데 프타나 오시리스처럼 인간의 모습을 하거나 아누비스, 소브크, 호루스처럼 동물 특유의 머리로서 그리기도 하였다.
- (4) 애굽의 왕들이란 표현은 사실적으로 다른 면이 있다. 왜냐하면 애굽의 왕은 단 한명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애굽의 왕들'은 총독이나 방백들을 가리킨다.
- (5)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을 징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동일한 벌을 받게 된다.
- (6) 애굽은 외형적으로 볼 때 완벽하였다. 그러나 그 내면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하였다(참조, 고전1:27).

14. ㉠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27, 28절)

- ㉠ (1) 그 약속은 유다 백성을 원방에서, 즉 포로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본래의 땅에 돌아오게 하여 평안히 거하게 하시고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결코 그들을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다.
- (2) 이 약속이 주어진 때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고 또 애굽에 대한 예언이 계속되다가 유다 백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열방과 유다가 서로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3) 유다에 관한 약속은 하나님 자녀의 희망이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후까지 확대됨을 보여 준다.
- (4) 그러므로 70년이 지나면 그들을 포로된 땅에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참조, 25:11, 12; 대하36:21; 단9:2; 스7:5)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징계하시지만 마침내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셨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할 때 징계하시므로 회개하도록하시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결코 버리시지는 않는다.

본장의 요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앞드러지는도다’
(6절).

제 47 장 블레셋의 멸망을 예언하다

단락구분 1 예언의 배경 / 2-7 애굽 군대에 의하여 블레셋이 멸망될 것을 예언하다

1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일하게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3 힘센 것의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의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4 이는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

돈에 남아 있는 바도와 즐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여호와께서 감동함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5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네가 네 몸 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6 여호와와의 같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설지어다

7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 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1. ㉠ 본장의 중요한 예언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블레셋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블레셋은 B. C. 608년 므깃도 전쟁 뒤에 느고가 침공하였는데 블레셋의 가사는 므깃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한 도시이기 때문에 바로의 군대가 침략하였다.
- (3) 애굽이 이스라엘의 거짓 친구로서 그들을 괴롭혔듯이 블레셋 또한 영원한 적이였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애굽보다 더 위험한 존재였다.
- (4)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필경 망하고 마는데 역사적으로 블레셋이란 나라가 계속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명된다.
- (5) 따라서 사람들이 갖는 우상이나 재물이나 군사적 힘으로는 마지막 시기에 죽음에서 그들을 구할 수 없다. 오직 살아 계신 참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2. ㉠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때는 언제인가? (1절)

- ㉠ (1) 그때는 애굽의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이었다.
- (2) 애굽의 바로느고가 블레셋의 가사를 침공한 것은 유다의 요시야를 므깃도에서 살해한 후(왕하 23:29, 30; 대하 35:22-24) 귀국하는 길에 있었다.
- (3) 그러므로 예언이 주어진 시기는 므깃도 전쟁이 있기 전, 즉 B. C. 608년 이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시기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성과 진실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3. ㉠ 블레셋을 침략하는 자의 모습이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2절)

- ㉠ (1) 그들은 북방에서 일어나 창일하는 시내로 비유되었다.
- (2) 블레셋을 징벌할 북방의 창일한 시내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킨다(참조, 사 14:31). 애굽인들은 오직 가사의 재산만 약탈하는 데 반하여 갈대아인들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대행하는 것이다.
- (3) 본절에서 바벨론의 세력을 창일한 시내에 비유한 것은 그들의 세력이 강하므로 무서

운 힘으로 블레셋을 침공할 것을 상징한다.

(4)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은 많은 사람이나 민족(참조, 계 17:15) 혹은 위협적인 재난(참조, 시 69:1) 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4. **㉠ 바벨론의 침공으로 블레셋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 (1) 바벨론이 창일하는 시내같이 블레셋 땅과 성읍과 거민들을 엮몰시킬 때 그 땅 거민들이 부르짖으며 애곡할 것이다.

(2)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과 숙적의 관계에 놓여 있었는데(참조, 사 3:31; 왕하 18:8; 대하 21:16; 겔 25:15)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벨론으로 인하여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3) 오늘날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참조, 요일 4:3; 요이 1:7)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듯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신다.

5. **㉠ 바벨론에 의하여 침공당하는 블레셋 거민은 어떤 상태에 빠질 것인가? (3, 4절)**

㉠ (1) 바벨론 침공으로 블레셋 거민은 자기들의 자녀를 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공포와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들을 도우려는 자를 끊으셨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도움의 길이 막히는 자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인하여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이르고 만다.

(4) 한편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에 이런 혼란과 재난이 임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하시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디라고 권면하셨다(참조, 마 24:6-13).

6. **㉠ 마지막까지 몸부림치는 블레셋에게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5절)**

㉠ (1)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 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는데 어느 때까지 몸을 상하게 하며 우상에게 매달리겠느냐고 말씀하셨다.

(2) 가사와 아스글론은 블레셋의 중심 도시이지만 침략자들로 인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탈취당하고 수치와 절망의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3) 이런 절망적 상태를 맞이한 궁극적 원인은 잘못된 종교를 갖는 데로 귀착(歸着)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근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못 된다고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태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암시한다.

(4)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興亡)이 사람의 손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올바른 길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

7. **㉠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6, 7절)**

㉠ (1) 그 심판은 블레셋이 멸망될 때까지 계속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명령하셨으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2) 예레미야는 갑자기 여호와의 칼로 말머리를 돌려 블레셋에게 임한 재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강조하였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재앙을 '칼'로 표현한 성경 귀절은 15:3과 신 32:41; 사 2:4, 5; 겔 21:28 등인데 불신자나 불순종하는 당신의 백성을 징책(懲責)하실 때 사용하셨다.

(4)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으로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불신자들의 악행을 본받지 말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제 48 장 예레미야가 모압에 대하여 예언을 하다

단락구분 1-8 모압이 멸망될 것이다 / 9-16 모압이 황폐되고 거민은 포로가 될 것이다 / 17-25 모압의 영광이 떠나다 / 26-35 모압의 교만과 몰락 / 36-39 모압을 위한 애가(哀歌) / 40-47 모압이 받을 형벌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다

1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라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감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2 모압이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우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맛벤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3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4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5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히 언덕으로 올라감이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성이 들리도다

6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7 네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8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훼파되며 평원은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9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10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11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용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용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13 이스라엘 집이 뱀을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14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명사라 하느뇨

15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16 모압의 재난이 가까왔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17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18 디본에 거하는 딸아 네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네 요새를 파하였음으로다

19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음지이다

20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곡하며 부르짖으며 아르는 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무하였도다 할지이다

21 심판이 평지에 임하였나니 곧 흠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22 디본과 느보와 벤디블라다임과

23 기라다임과 뱀가물과 뱀온과

24 그리웃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에로다

25 모압의 뿔이 적혔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26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이다 이는 그가 나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골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27 네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적 중에서 발견되었느냐 네가 그를 말할 때마다 네 머리를 흔든도다

28 모압 거민들아 너희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 이에 거할지이다 깊은 골짜기 어귀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29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궁과 그 마음의 거만이라도

30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그 노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궁하여도 아무것도 성취치 못하였도다

31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우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하리로다

32 십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실과와 포도에 파멸하는 자가 이르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곡하기를 야셀의 곡함보다 더하리로다

33 기쁨과 즐거움이 옥도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없게 하리니 의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34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셀리아까지의 사람들이 소리를 발하여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말랐음이라도

35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그치게 하리라

36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나니 이는 그 모았던 재물이 없어졌음이나니라

37 각 사람의 두발이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으며 허리에 굵은 베가 들렸고

38 모압의 모든 지붕에서와 거리 각처에서 애곡함이 있으니 내가 모압을 재미없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나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39 아하 모압이 파괴되었도다 그들이 애곡하는도다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이켰도다 그 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되리로다

40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41 성읍들이 취함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42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43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모압 거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음부가 네게 임하나니

44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음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의 벌받을 해로 임하게 할 것임이나니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45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발하며 화염이 시혼의 속에서 나서 모압의 살쩍과 흰화하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46 모압이여 네게 화 있도다 그모스 백성이 망하였도다 네 아들들은 사로잡혀 갔고 네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47 그러나 내가 말일에 모압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압을 심판하는 말씀이 이에 그쳤느니라

1. ㉠ 본장의 예언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사해 동편에 위치한 모압이 그들의 교만함으로 그들의 영광이 떠나고 그 땅은 황폐되며 거민은 포로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 (2) 모압은 이스라엘과 같은 혈통이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전장(前章)에서 언급된 블레셋이나 애굽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 (3) 본장에서 예레미야가 모압의 멸망을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당한 신실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인내하며 용기를 갖도록 복돋우시기 위함이다.

2. ㉡ 모압은 어떤 나라이며 어떤 민족인가? (1절)

- ㉡ (1)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성에서 피하여 굴에 숨었을 때 두 딸 중 큰 딸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족속이다(창 19:30-37).
- (2) 이들의 주요 거주지는 사해 동쪽의 고원인데 사해로부터 해발 약 1,430m 높이에 위치해 있다. 이들의 거주지 중심부는 아르논 골짜기와 세렛 골짜기에 위치하고 있다.
- (3) 아르논 골짜기와 해안에는 비옥한 곳이 있어 포도 재배를 하였고 산에서는 목축업을 하였다.
- (4) 하나님께서는 근친 상간(近親相姦)으로 형성된 모압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과 분리시

키기 위하여 법을 정하였다(참조, 신 23:3-6).

- (5)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의 선견자 발람을 불러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하나님께서 막으시므로 실패하였다(참조, 민 22-24장).
- (6) 모압의 종교는 지방 신(神)을 섬기는 것으로 블레셋 주민과 관계가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유혹으로 바알 브올(Baal-Peor)의 제사 의식에 참여한 것(참조, 민 23:1-4, 14; 25:1-5)으로 보아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공통되는 요소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이들은 요시야 왕 시대에 점점 세력이 쇠퇴하여 앗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팔레스틴 본토와 함께 나보폴라살(Nabopolassar, B. C. 626-605)의 영토가 되었으며 갈그미스 전투(B. C. 605) 이후 바벨론에게 공물을 바치게 되었다.

3. **Q** 모압의 여러 지역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1-3절)

- A** (1) 모압의 느보는 황폐되고 기라다임과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그래서 모압의 칭송이 없어지므로 헤스본에서 반란의 모의가 있고 맛넌도 적막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호로나임에서는 파멸로 인한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2)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많은 성읍들을 말한 이유는 모압에 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압 땅 전체에 걸쳐 임할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 (3) 그래서 인간의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 주는데 사소한 것 같은 죄가 전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참조, 창 3:14-19)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국가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4) 하나님의 심판 방법은 사람들의 행위를 따라(참조, 겔 7:8; 벰전 1:17) 공의로 심판하시기 때문에(참조, 창 18:25; 시 20:6; 벰전 2:23)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조심하여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참조, 살전 5:21, 22).

4. **Q** 모압의 멸망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 5절)

- A** (1) 모압의 멸망으로 어린 아기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들이 울면서 루히 언덕을 올라가는데 호로나임으로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당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게 된다.
- (2)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모압에 관한 사건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다.
- (3) 따라서 예레미야는 모압이 당할 극심한 재난과 침략자의 잔인성을 어린 아기들의 울부짖음으로 연관시켰다.
- (4) 모압이 한때는 별로 어려움이 없고 평안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한꺼번에 벌하시려는 하나님의 저주였다.

5. **Q** 멸망당할 모압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충고하셨는가? (6-9절)

- A** (1) 하나님께서는 파멸하는 자가 각 성에 이르러悔改할 것이므로 모압이 가지고 있는 보물이나 우상, 제사장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였다.
- (2)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모압 땅에는 모압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나 장소가 없다고 하였다.
- (3) 모압은 망하기 전까지 평안한 땅이었고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었으나 그것이 그들을 죽음의 길에서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 못하였다. 오히려 죽음을 재촉하는 것일 뿐이었다(참조, 창 19:23-26; 마 24:16-18; 눅 17:31, 32).
- (4) 따라서 우리의 참된 의지자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뿐이시며 또한 그분의 통치권을 벗어나서는 잠시도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6. **Q**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인가? (10절)

- Ⓐ (1)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와 자기 칼을 금(禁)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 (2) 모압을 진멸시키고자 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을 행하는 갈대아인은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 (3) 하나님의 계획이 지나치게 잔인하고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어긋나는 것 같지만 죄악이 판명한 상태의 모압을 용서하실 수 없어서 이런 심판을 작정하신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때 결코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인간적 감정으로 일을 할 때면 사울과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참조, 삼상 15:10-16).

7. Ⓞ 모압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는가? (11절)

- Ⓐ (1)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함 같은 상태에 있었다.
- (2) 모압은 사해 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그들이 점령한 영토는 관개(灌漑)가 잘 되어 있는 고원 지대였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외국의 침략을 피할 수 있었고 풍부한 농산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였다.
- (3) 또한 한 그릇에만 담겨 있는 술로 모압을 표현한 이유는 그들의 외적들의 침략을 받지 않아서 평안이 유지되고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 (4)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관계에 있던 모압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멸망당할 때가 오기 때문이다(참조, 시 37:1,7,8).

8. Ⓞ 평안히 자신들의 땅에 거하던 모압은 어떻게 될 것인가? (12, 13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내셔서 그릇을 비게 하고 병들을 부수시는 데 마치 이스라엘이 벨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수치를 당했던 것처럼 모압은 그모스를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하셨다.
- (2)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평안했던 사실이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조장(助長)하는 결과일 뿐이었다고 여기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평안한 그릇을 깨뜨리시므로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다.
- (3) 모압인들이 평안할 때 지은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벨엘에 금송아지를 세워 놓고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참조, 왕상 12:25-33)과 같았다.
- (4) 모압인들이 숭배한 우상은 그모스인데 모압 족속에게 최고의 신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그모스의 백성이라 불리었다(참조, 46절; 민 21:29). 그들의 제사는 자기 자녀를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었는데(참조, 왕하 3:27) 요아스가 그들의 전을 모두 파괴하였다(왕하 23:13).
- (5) 예레미야는 이런 것으로 참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 주는데 우상 숭배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섬기는 것(참조, 롬 1:25)이므로 하나님께 불경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9. Ⓞ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교만을 책망하신 후 어떤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는가? (14-16절)

- Ⓐ (1)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황폐되어 성읍에서는 연기가 올라가고 청년들은 살륙을 당하므로 재난이 가까왔으며 고난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하셨다.
- (2) 모압 족속은 천연 요새와 같은 그들의 거주지와 튼튼한 방어벽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평안을 유지하므로 교만하여 자신들을 용사요 전쟁의 맹사(猛士)라고 하였다.
- (3) 결국 이런 오만함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을 더 의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도덕적 의무까지 잊고 말았다.

- (4) 이제 모압이 당한 재난의 원인이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발견하였다. 자신을 지나치게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남을 인정해 주는 신앙의 성숙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다(참조, 마 23:11, 12; 요 13:8; 빌 2:3).

10. **㉠** 모압을 아는 자들이 모압의 재난을 보고 무엇이라 외칠 것인가? (17-20절)

- ㉠** (1) 그들은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라고 외칠 것이다.
 (2) 왜냐하면 모압의 수도인 디본이 전쟁에서 폐허가 되므로 남쪽 도시인 아로엘까지 영향이 미쳐 전국적으로 소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3)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예언하였듯이 모압의 멸망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모든 백성에게 외쳐 알리라고 하였다.
 (4)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분명히 성취되며 온 땅에 알려져 하나님께 대한 경외(敬畏)를 갖도록 한다.

11. **㉠**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모압 땅은 어디인가? (21-25절)

- ㉠** (1) 그곳은 모압의 평지에 있는 성읍들로 홀른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벤디블라다임 그리고 기라다임과 벤가물과 벤므온과 그리웃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이다.
 (2) 예레미야가 모압 지방의 성읍들을 열거한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이 역사성을 가지고 반드시 성취될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3) 본절에 언급된 지명들은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발견된 모압 비문에 있으므로 역사성이 확증되었다.
 (4) 본장에 기록된 모압의 성읍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12. **㉠**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시키신 일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26, 27절)

- ㉠** (1)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하여금 모압을 취(醉)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모압이 여호와를 거스려 자만하였고 이스라엘 민족을 비웃으며 조롱하였기 때문이다.
 (2)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그들에게 진노의 잔을 주어 모든 나라에게 마시도록 하셨다(25:15).
 (3) 그래서 바벨론이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압도 그 잔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 (4) 그들은 다윗 왕 때 정복되어 조공을 바쳤으나(참조, 삼하 8:2) 후에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유다를 공격하기도 하였다(참조, 왕하 1:1; 대하 20:1).
- (5) 또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였는데(참조, 민 25장)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었다.
- (6)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힌 모압은 술취한 자처럼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은 모두 이런 재난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13. **㉠** 모압 거민이 안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28절)

- ㉠** (1) 그 방법은 그들이 성읍을 떠나 깊은 골짜기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바위 사이에 거하는 것이다.
- (2) 바벨론을 통한 진노의 잔이 그 땅에 쏟아지므로 모압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숨을 수 있는 장소에 몸을 피하라고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다.
- (3) 본장의 11절에서 모압은 지형적 조건이 완벽한 나라였고 주변 국가들과 비교할 때 가장 안전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고 말한다.
- (4) 그러나 지리적 조건이나 다른 외형적 요소가 완벽하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므로(참조, 시 127:1)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두려움으로 하나님만 바라는 경외(敬畏)의 마음이다(참조, 대하 19:7; 시 33:8).

14. **㉠** 모압이 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었는가? (29, 30절)

- ㉠** (1) 모압 패망의 원인은 그들의 교만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의 교만이 너무 심하여 자고(自高)하고 오만(傲慢)하며 자궁(自矜)하고 마음이 거만하였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이런 교만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이루게 하지 못하였다(참조, 사 16:6). 그렇기 때문에 모압 패망의 결과는 필연적이었다(참조, 잠 16:18).
- (3) 따라서 스스로를 자랑하며 자기의 의지를 강행하려는 일은 헛된 낭비이며 다른 사람들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 되며 결과적으로 자신은 수치를 당하고 만다(참조, 시 97:7).

15. **㉠** 모압이 당한 비참한 상황을 슬퍼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어떠한가? (31-34절)

- ㉠** (1) 십마의 포도나무와 여름 실과에 파괴하는 자가 이르렀고 옥토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며 니르림의 물이 말라서 모든 성읍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다.
- (2) 길헤레스는 모압의 중요한 요새(要塞)이며(참조, 왕하 3:25; 사 16:7) 십마는 유명한 포도 산지(產地)이었다.
- (3) 그런데 이런 곳이 황폐되고 남쪽 성읍인 니르림의 물까지 말랐다는 것은 모압 땅 전역(全域)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 것을 보여 준다.
- (4)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불신자와 신자의 시각적 차이(視角的差異)이다.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상황이 악화된 것을 슬퍼하지만 신자들은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긍휼이 떠난 사실을 더 슬퍼한다는 사실이다.
- (5) 우리는 내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심을 염려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참조, 요 15:4; 요일 4:11-16).

16. **㉠**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어떤 자들의 일을 그치게 하신다고 하셨는가? (35절)

- ㉠** (1) 하나님께서는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그치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 (2)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압인들의 교만 뿐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다.
- (3) 그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루이었는데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우상만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했다(참조, 사 16:12).
- (4)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 그만큼 심한 진노를 받

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개로 피해야 한다.

17. **㉠** 예레미야가 모압 족속의 슬픔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36절)

- ㉠** (1) 모압 족속이 모았던 재물이 없었졌기 때문에 선지자의 마음은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하며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슬퍼한다고 하였다.
- (2) 이는 그들이 한때는 평안하게 강한 힘을 유지하였으나 바벨론의 침공으로 재산을 잃은 후 슬퍼하는 모습이다.
- (3) 이들은 순간뿐인 이 세상의 재물로 인하여 슬퍼할 줄 알면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는 괴로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 (4)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스 10:9-11) 회개해야 한다(참조, 삼상 7:3; 행 9:35).

18. **㉠** 모압이 당한 재난의 증거는 무엇인가? (37, 38 절)

- ㉠** (1) 모압인 각 사람의 머리가 밀렸고 수염이 깎였으며 손이 베어졌고 허리에 굵은 베가 들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각처 거리에서 애곡함이 있는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질그릇을 깨뜨리시듯 모압을 치시므로 그들이 고통으로 인해 슬픔에 빠진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참조, 4:8; 왕상 6:26; 시 31편; 사 22:12; 미 1:16).
- (3) 따라서 나라의 흥망 성쇠(興亡盛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42절; 단 4:17, 25)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국가를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한다(참조, 딤후 2:1, 2).

19. **㉠** 모압이 파괴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39절)

- ㉠** (1) 모압의 패망으로 그들은 애곡하며 사방 모든 자의 조롱거리와 두려움이 될 것이다.
- (2) 오랫동안 모압이 침략당한 일 없었고 평안했으나(11절) 이제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므로 주변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존재(存在)를 인식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다.
- (3)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공의로(참조, 시 89:14) 심판받게 되는 줄 알고 겸손해야 한다(참조, 왕상 21:29; 대하 7:14; 12:12; 잠 18:12; 뱀전 5:5).

20. **㉠** 모압을 정제하는 바벨론은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40-42절)

- ㉠** (1) 바벨론은 모압의 성읍들을 취(取)하고 요새를 함락하며 나라를 멸망시키는 독수리에 비유되었다.
- (2) 본래 독수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참조, 호 8:1; 마 24:28; 계 8:13)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당신의 심판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의미이다.
- (3)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의 칼은 잔인하게 모압을 진멸할 것이다(4, 5, 7, 8절).
- (4)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은 국가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B. C. 1세기경에 나바타족에 의해, 후에는 아랍족들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21. **㉠**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함정과 울무로 인하여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셨는가? (43, 44절)

- ㉠** (1) 모압 족속이 두려움에서 도망하면 함정에 떨어지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울무에 걸릴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형벌을 모압이 별받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 (2) 모압이 아무리 어려움을 피하려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피할 수 없다(참조, 암 5:18, 19).
- (3)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피해 보려고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벗어날 수는 없다(참조, 시 139:7-12).

22. **㉠** 모압이 도망하려 해도 도망갈 곳이 없지만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45-47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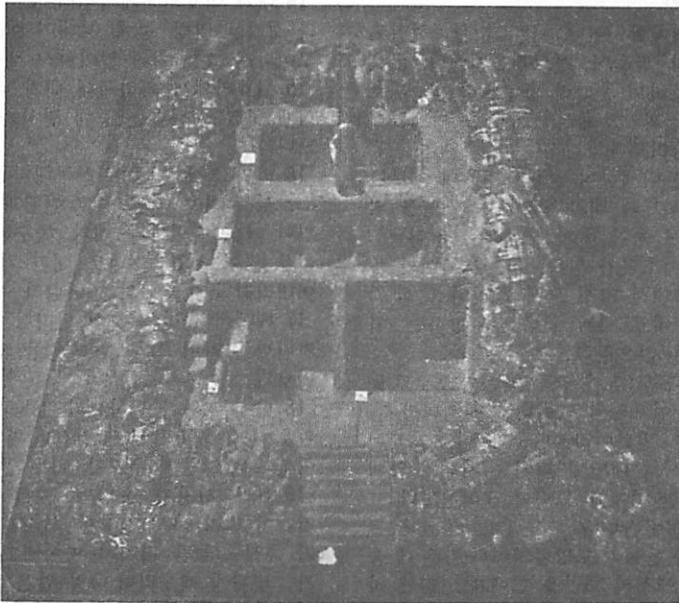
- ㉠** (1) 모압 족속이 피하려는 곳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우고, 그들의 신도 역시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일(末日)에 모압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2) 여기서는 모압을 멸망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모습과 대조되는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대조되는 사랑의 측면이다.
- (3)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달 되어 그들도 구원에 동참시키신다는 것이다.

화보자료

포도주 틀. 옛 사람들이 포도의즙을 짜는 데 사용하던 틀은 거대한 창고와 같은 것이었다. 아래 사진은 이와 같은 틀을 축소시켜 만든 모형물로서 암스테르담 성경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장에는 모압(Moab)의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의 예언은 비유를 사용한 일종의 애가(哀歌)로서 모압 땅의 포도주 틀에 더 이상 포도주가 담겨 있지 않으리라는 내용이다(33절). 일찍부터 모압은 팔레스틴과 더불어 유명한 포도 수확지로 알려져 왔는데 이러한 모압 땅에 더 이상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나라에 재난이 생겼음을 시사해 준다.

제 49 장 예레미야가 이방 열국의 멸망을 예언하다

단락구분 1-6 암몬 자손의 멸망을 예언하다 / 7-22 에돔 자손의 멸망을 예언하다 / 23-27 다메섹의 멸망을 예언하다 / 28-33 게달과 하숨의 멸망을 예언하다 / 34-39 엘람의 멸망을 예언하다

1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부자하나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갖은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거함은 어찌뇨

2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이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거친 무더기가 되겠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3 헤스본아 애곡할지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이 부르짖을지이다 굶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앞 뒤로 달린지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방백들이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4 타락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네 흐르는 골짜기로 자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요 하느냐

5 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쫓겨서 바로 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6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하시니라

7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데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8 드단 거민아 돌이켜 도망할지이다 깊은 데 숨을지이다 내가 예서의 재난을 그에게 임하게 하여 그를 벌할 때가 이르게 하리로다

9 포도밭을 거두는 자들이 네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적이 오면 그 육십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10 대저 내가 예서로 적신아 되게 하여 그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게 하였나니 그가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였은즉 그가 없어졌느니라

11 네 고아들을 남겨 두라 내가 그들을 살려

두리라 네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12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이 잔을 마시지 않을 자도 마시지 않치 못하겠거늘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고 반드시 마시리라

13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렘과 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영히 황폐하리라

14 내가 여호와께에서부터 오는 소식을 들었노라 사자를 열방 중에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하시도다

15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를 열방 중에 작게 하였고 사람들 중에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16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 같이 보금자리 높을 지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17 에돔이 놀라운 것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비웃으리로다

18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의 멸망된 것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중에 우거할 아무 인자가 없으리라

19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툰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20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와 도모와 데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와 뜻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21 그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22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 날개

를 보스라 위에 퍼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하는 여인 같으니라.

23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 슬픔이 있고 평안이 없도다

24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츠렸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잡았도다

25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어찌 버린 것이 되지 않겠느냐

26 나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청년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27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놓으리니 벤하닷의 궁전이 살라지리라

28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공격된 바게달과 하술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계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멸하라

29 너희는 그 장막과 양 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0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하술 거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데 거하라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획을 정하였음이니라

31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는 일어나 저 평안

하고 염려 없이 홀로 거하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빛장이 없이 홀로 거하는 국민을 치라

32 그들의 약대들은 노략되겠고 그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흘리고 그 재난을 각방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33 하술은 사랑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무하리니 거기 거하는 사람이나 그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되리라

34 유다 왕 시드기야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35 나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을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요

36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 난 자의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

37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38 내가 나의 위를 엘람에 배움고 왕과 족장들을 그곳에서 멸하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39 그러나 끝날에 이르러는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1. ㉠ 본장에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 (1) 본장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방 열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될 것을 예언하도록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2) 이방 열국이 자신들의 재물과 강한 힘을 의지하므로 교만해지고 패역해져서 그들이 의지하던 재물은 탈취당하고 교만은 꺾여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3)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희망을 주셨는데 끝날에 포로의 상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4) 이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가리킨다.

2. ㉡ 본장에서 선지자는 어느 자손에 대한 예언을 먼저 선포하였는가? (1절)

㉡ (1) 암몬 자손에 대한 예언을 가장 먼저 선포하였다.

(2) 암몬 자손은 롯과 그의 작은 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벤암미의 후손으로(참조, 창 19:38) 셈족 혈통이다.

(3) 이들의 영토는 모압이나 에돔의 국경처럼 명백히 정의되지는 못했으나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암몬의 주요한 지경(地境)은 압복 강 동쪽 지류(支流)에 의해 이어진 서쪽 지역에 있었다(참조, 신 3:16; 수 12:2; 13:10). 그러나 암몬 국가 초기에는 압복 강 건너 훨씬 더 서쪽에 정착했었다(참조, 민 21:24; 신 2:37; 수 13:25).

(4) 암몬 족속의 활동 시기는 대개 B. C. 1200-580년 사이로 보는데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

어 초기 암몬 국가 시대는 B. C. 1200-922년 개화 쇠퇴 멸망을 거치는 때를 B. C. 922-580년경으로 본다.

- (5) 암몬의 문화는 대부분 B. C. 7, 6세기에 물질적 번영과 함께 발달했다고 보는데 발견된 무덤군(群)과 조상(彫像)들과 인장(印章)을 통해 증명된다.
- (6) 그러나 더 높은 차원의 문화, 즉 종교에 대해서는 그들의 국신(國神)인 밀곰(Milcom)의 이름만 알려져 있다. 밀곰이나 말감(Malkam), 몰렉(Molech)이라는 이름은 모두 셈계의 보통 명사인 멜렉을 포함하는데 '왕'(king)이란 의미를 갖고 있다.

3. **㉠**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암몬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1절)

- ㉠** (1)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의하여 완전히 버림 받는 것이 아니라 부성적(父性的) 사랑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존속(存續)한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함이다.
- (2) 암몬은 모압과 같이 롯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과 혈연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들에 대하여 예언을 하게 되었다.
- (3)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을 암몬이 자주 침략하므로(참조, 사 10:7; 11:4-33; 삼상 2장; 삼하 10, 12장; 왕하 15:29; 대하 20장; 암 1:13-15) 결국 암몬을 책망하신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때 오랫동안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후(참조, 뱀후 3:9) 돌아오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심판하심을 알 수 있다.

4. **㉠** 암몬 족속에 대하여 하나님의 참으심이 마치는 날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2절)

- ㉠** (1) 그날에 랍바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그곳은 거친 무더기가 되었고 그 촌락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암몬을 점령할 것이다.
- (2)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 하신 말씀으로 '날이 이르리니' 라고 언급하셨다.
- (3) 랍바는 암몬 족속의 수도(참조, 삼하 12:26)로 요단 강 동쪽 약 37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요새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이 무너지리라고 선포하셨다.
- (4)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수들의 외적인 힘만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적들을 보옵하시느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격려했다.

5. **㉠** 하나님의 참으심이 마치고 암몬이 점령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3-5절)

- ㉠** (1) 아이 성이 황폐되고 랍바의 딸들은 굶은 베를 입고 애통하며 말감과 제사장들이 잡혀갈 것이다. 그들이 자기의 재물을 의지했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두려움에 쫓겨 도망하지만 다시 모을 자가 없을 것이다.
- (2) 암몬 족속은 천연의 요새이며 토지 소산물이 많은 자랑스런 성읍들이 있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것들이 모두 파괴되고 사망에서 닥치는 침략군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고 도망할 것이라고 하였다.
- (3) 이들은 예레미야가 '타락한 딸'이라고 미화(美化)된 표현을 사용했으나 에스겔, 아모스, 스바냐는 암몬 족속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참조, 겔 25장; 암 1:13; 습 2:9)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평안할 때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가 평안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왔다는 것을(참조, 살전 5:3) 잊기가 쉽기 때문이다.

6. **㉠** 암몬이 멸망하지만 그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비는 어떠한가? (6절)

- ㉠** (1) 하나님의 참으시는 날이 지나 암몬 족속에게 그분의 심판이 임하므로 그들이 도망하고 각처에 흩어지지만 그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셨다.

- (2)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만 선택하셨다는 사실과 상충(相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까지 연장되어 이방인을 부르시는 것과 연결된다.
- (3) 즉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자비가 베풀어지므로 흠어진 자들을 한 몸으로 연합시키신다는 뜻이다(참조, 사 56:6, 7).
-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참조, 마 28:19, 20; 행 1:8; 롬 10:14, 15).

7. **㉠** 에돔은 어떤 나라를 말하는가? (7절)

- ㉠** (1) 에돔은 '붉다'는 뜻으로 야곱의 형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팔족과 바꾸었기에 붙여진 이름(참조, 창 25:30)이며 또한 그의 자손과 영토를 의미하기도 한다(참조, 창 32:3; 민 20:18, 20, 21; 암 1:6, 11; 말 1:4).
- (2) 에돔 족속이 거주한 땅은 세렛 시내에서 남으로 아카바 만(灣)까지 160km 뻗어 있고, 동서로 에돔 광야를 가로질러 64km 정도 뻗은 산악 지역이었다. 이들의 땅은 지형적으로 황폐한 곳이지만 일부 경작하기 좋은 땅이 있었다(참조, 민 20:17-19).
- (3) 이들의 역사는 에돔 땅에 에서의 후손이 거하기 전 다른 사람들이 거주했었는데 에서와 그의 아들들이 세일 산에 이르러 호리 족속을 흡수하여(참조, 창 36:5-8)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직능을 이어받아 족장이 되었다(창 36:15-19; 신 2:12, 22).
- (4)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에서는 에돔을 점령한 상태였다(창 32:3; 36:6-8; 신 2:4, 5).
- (5) 에돔과 이스라엘의 적대 감정은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에 근원을 둔다(창 36:1).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에돔의 증오는 유다의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받았는데 특히 오바다서는 전체적으로 에돔에 대한 심각한 경고와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 (6) 이와 비슷한 주제는 이사야와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사 11:14; 34:5-17; 겔 35:1-15) 말라기(말 1:2-4)는 특히 제사의 매개(媒介)로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단호하게 거부한 것을 강조하고 있다.
- (7) 특히 에돔은 이스라엘 주변의 어떤 나라들처럼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받지 못한 유일한 나라였다.

8. **㉠** 에돔에 대한 선지자의 지적은 무엇인가? (7절)

- ㉠** (1) 데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모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고 하였다.
- (2) 에돔인들은 재능이 뛰어났으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참조, 욥 4:1; 욥 1:8) 함께 모여 협의하면 어떤 일든지 할 수 있고 안전하리라고 생각했다.
- (3) 그러나 그들은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지혜가 있었으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지혜가 무용지물(無用之物)임을 몰랐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에 임할 때 그들은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9. **㉠** 예레미야가 드단 거민에게 도망해 깊은 데 숨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8-11절)

- ㉠** (1) 에서의 후손이 벌받을 때가 되었으므로 적군이 침략하면 포도밭에 열매를 남기지 않고 욕심이 차기까지 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에서의 후손으로 빈 몸이 되게 하여 비밀한 곳들이 드러나며 그 자손과 형제와 이웃이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 (3) 드단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참조, 창 25:1-3) 후에 에돔에게 점령되어 에돔 족속으로 포함되었다. 그래서 에돔이 멸망당할 때 피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 (4) 여기서는 에돔을 칠 바벨론 군대가 '포도를 거두는 자'와 '도적'으로 비유되었는데 이는 바벨론이 이를 때 에돔은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될 것이기 때문이다.

- (5) 마침내 에돔은 자기들의 아내와 자식을 내버리고 도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사 그들이 버린 고아와 과부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 (6) 이렇게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들은 어떤 시련과 고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다(참조, 합3:2).

10. **㉠** 에돔이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12, 13절)

- ㉠** (1)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으려 하던 자도 피할 수 없었듯이 에돔 역시 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면 보스라가 놀렘과 황폐함과 수욕, 저주거리가 될 것이고 모든 성읍은 영영히 황폐할 것이다.
- (2) 보스라는 페트라 북쪽 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삼면이 가파른 계곡으로 둘러싸인 암석으로 이루어진 난공 불락(難攻不落)의 성이었다.
- (3) 이런 성이 멸망당한다는 것은 에돔의 패망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임을 보여 주는 사건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여 임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1. **㉠**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에돔을 징벌하시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 열방 중에 사자를 보내사 에돔을 칠 군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에돔과 싸우게 하실 것이다.
- (2) 이런 사실은 오바다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옵1:1) 갈대아인이나 앗수르인은 하나님의 용병(用兵)으로 언제라도 복종할 수 있게 되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라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느부갓네살(참조, 25:9; 27:6, 8)이나 고레스(참조, 사 45:1) 뿐 아니라 다른 피조물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참조, 사 7:18).
-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연관시키고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12. **㉠** 에돔의 교만한 모습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은 어떤 것인가? (15-17절)

- ㉠** (1) 에돔은 바위 틈에 거하며 산 꼭대기를 점령하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기고 마음이 교만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보금자리를 높은 곳에서 끌어내리시고 열방 중에서 멸시를 받게 하실 것이다. 그 결과 열방은 에돔이 당한 재앙을 인해 놀라고 그들을 비웃을 것이다.
- (2) 에돔은 그들의 거주지가 천연의 요새였기에 스스로 강한 자라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 열국을 사용하시어 패망당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 (3)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겸손'이 가장 큰 요새이며 또한 최상의 무기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겸손은 결코 외형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뿌리가 있다(참조, 빌 2:3; 약 4:6).

13. **㉠** 교만한 에돔은 어떻게 망할 것인가? (18, 19절)

- ㉠** (1) 에돔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것이고 바벨론은 요단 수풀에서 나온 사자와 같이 에돔의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다. 그러면 에돔 거민은 그들의 거주지에서 쫓겨 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 (2) 이제 에돔에는 아무런 희망도 남지 않게 되었다. 이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시며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3) 바벨론 군대는 요단 강이 창일(漲溢)할 때 요단의 사자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에돔의 성읍을 침공할 것이다.
- (4) 마침내 에돔은 폐허가 되어 흔적을 찾을 수 없었는데 19세기에 이르러 페트라(Petra,

참조, 사 1:36; 왕하 14:7; 사 16:1; 42:11)의 폐허가 발견되었다.

14. **㉠**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도모와 데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그분의 뜻은 어떠한가? (20-22절)

- ㉠** (1) 그 뜻과 의도는 어린 것들에게도 에돔이 수치를 당하고 그 땅이 황무하며 원수들이 독수리같이 날아와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펼 때 에돔 용사의 마음이 구로(劬勞)하는 여인 같으리라는 것이다.
- (2) '양 떼의 어린 것들을...끌어가고'란 '양 떼의 어린 것들이 그들을 반드시 끌어가고'로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 의미는 에돔이 어린 양같이 약한 세력에게도 사로잡혀 갈 수 있다는 뜻이다.
- (3) 에돔이 튼튼한 요새였고 여리고도 강한 성이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무 힘도 쓰지 못한 것과 같다(참조, 수 6:1-21).

15. **㉠** 다메섹은 어떤 곳인가? (23절)

- ㉠** (1) 다메섹은 수리아 왕국의 수도로서 지중해 동쪽 약 100km 지점에 위치해 있고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서쪽에는 헬몬 산과 안티 레바논 산맥이, 북쪽에는 산등성이가 돌출하였고 남쪽에는 비옥한 땅이 있었다.
- (2) 이곳의 아바나는 성경에서 요단(왕하 5:12)과 유브라데(사 8:5)와 비교되는데 해발 약 690m에 위치해 있다. 이곳의 주요 농작물은 올리브와 여러 종류의 과일과 편도(扁桃), 그리고 호두, 피스타치오(pistachios), 곡식과 담배와 목화, 아마 섬유 및 삼이다.
- (3) 유브라데와 수리아의 윗편에 있는 아람은 사울과 다윗 시대에 다메섹, 소바, 하맛 왕국으로 나누어졌다.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르손이 다메섹에서 권력을 잡았다(참조, 왕상 11:23-25).
- (4) 다메섹(수리아)은 유다의 멸망을 위해 이스라엘과 연합을 했기 때문에 아모스 같은 초기의 선지자들까지 다메섹의 멸망을 예언했다(참조, 암 1:3-5).

16. **㉠**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3-25절)

- ㉠** (1) 그 이유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기 때문이다.
- (2) 그들에게 들려오는 흉한 소문은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해도 떨림과 고통과 슬픔이 해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당하듯 그를 붙잡았고 찬송과 즐거움의 성음이 버린 바 된 것이다.
- (3) 이 말씀은 수리아 왕국, 즉 다메섹의 멸망에 관한 예언인데 그 성이 아무리 아름답고 비옥한 곳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가차없이 임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참조, 사 17:1, 2; 암 1:3; 숙 9:1, 2).
- (4) 오늘날에도 육체적 쾌락은 잠깐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다메섹과 같이 세상을 즐기고 자랑하다가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고 만다.

17. **㉠** 다메섹이 당하는 고통은 어떤 것인가? (26, 27절)

- ㉠** (1)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전쟁에서 군사들이 멸절되고 청년들은 거리에 엎드러지고 다메섹 성벽에 하나님께서 불을 놓으시므로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는 것이다.
- (2) 예레미야는 나라를 지키던 청년들이 모두 죽고 수리아의 왕궁인 벤하닷의 궁전이 불타는 것을 예언하므로 수리아의 국운(國運)이 다 됨을 암시하였다.
- (3) 아무리 청년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참조, 사 40:30) 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지 않으면 그 나라가 올바르게 설 수 없다(참조, 시 127:1).

18. **㉠**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술은 어떤 나라인가? (28절)

- ㉠** (1) 게달은 이스마엘의 자손으로 북부 아라비아 종족이다(참조, 창 25:13; 대상 1:29).

- (2) 이들에 대하여 사 42:11과 60:7에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될 것을 상징적으로 사용하였고 본서 2:10에서는 먼 서쪽을 의미하는 깃딤과 병행을 이루어 동쪽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 (3) 그들에게는 궁술가와 용사들이 있고(사 21:17) 가축과 약대를 길렀는데(사 60:7) 그들의 장막은 솔로몬의 휘장과 더불어 그의 사랑받는 자의 거무스름한 미로 묘사되고 있다(아 1:5).
- (4) 하술은 팔레스틴 동쪽 아라비아 사막의 한 곳으로 현재는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19. **㉠** 계달과 하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무엇을 명하셨는가? (28, 29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일어나 계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을 멸하고 장막과 양 떼를 취하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약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고 외치라 하셨다.
- (2) 하나님의 징계는 모든 사람과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하며 또한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는다.
- (3)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태도이다. 제한적인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자 하면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뿐이다.

20. **㉠** 하나님께서 어떤 충고를 하술 거민에게 하셨는가? (30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하술을 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술 거민에게 멀리 도망하여 깊은 데 숨으라고 하셨다.
- (2) 하술이 멸망당하는 것은 바벨론의 세력에 의한 것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일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징계의 계획을 세우셨으나 미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고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참조, 창 19:17; 사 26:2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붙잡아야 한다.

21. **㉠** 하술 거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인가? (31-33절)

- ㉠** (1)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그들을 치고 재물을 탈취하여 그들의 거처를 사랑의 거처와 같이 황무하게 하는 것이다.
- (2) 하술 거민은 사막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을 쌓지 않아도 평안히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적들의 침입이 없이 평안히 살았다 해도 멸망되지 않을 수 없었다.
- (3)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사막이나 하늘이나 음부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참조, 시 139:7-13).

22. **㉠** 엘람에 대하여 설명하라(34절).

- ㉠** (1) 엘람은 성경에 나오는 한 민족과 나라의 명칭이다. 이 나라는 티그리스 계곡의 동쪽과 동북부의 자그로스(Zagros) 산맥에 있는 이란 고원의 남부 지역에 위치하였다.
- (2) 성경 기록에 의하면 엘람 사람은 셈의 아들 엘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참조, 창 10:22; 대상 1:17). 이들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B. C. 2450년경에 라가쉬(Lagash)의 에안나툼(Eannatum)에게 종속되어 있었음을 보여 준다.
- (3) 엘람은 B. C. 약 1200년경부터 유능한 왕들이 통치하여 세력을 팽창시켰고 1160년에는 바벨론을 침략하기도 하였다(사 21:2, 9). 바벨론 연대기에서 엘람은 B. C. 742년에 독립 국가로 기술되어 있다.
- (4) 앗수르 왕 앗술바니팔(Ashurbanipal, B. C. 633-619)은 엘람의 왕을 사로잡고 위성 국

가를 세웠으나 앗수르에 충성하지 않으므로 B. C. 640년에 멸망당하였다.

- (5) 성경에 나타난 엘람의 선조는 앗수르, 아브락삿, 롯, 아람과 함께 셈의 아들이었다(창 10:22). 그리고 엘람 왕 그들라오멜은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세 왕 가운데 우두머리였다(창 14:1-17).
- (6) 엘람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으며 궁술가(弓術家)의 고장으로 기록되어 있다(35절; 사 22:6).
- (7) 에스더에 기록된 일화(逸話)는 바사 왕 아하수에로의 치하에 엘람의 옛 수도(首都) 수사에서 생긴 일이었다. 또한 행 2:9에 의하면 엘람인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바대인, 메대인 등과 함께 있었다.

23. **㉠** 하나님께서 엘람의 힘을 꺾으실 때 그 거민은 어떻게 될 것인가? (35, 36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방에 흩으시므로 엘람인이 온 땅에 퍼질 것이다.
- (2) 엘람인은 전통적으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므로(사 22:6) 전쟁을 잘하는 자신들의 능력만을 믿었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무력(無力)함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처에서 대적이 몰려오므로 엘람인은 포로가 되어 세계 각처로 끌려갈 것이다.
- (4)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람'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며 땅의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신적 사역(神的使役)을 나타내는 데 가장 적당하기 때문이다(참조, 단 7:2; 숙 6:5).

24. **㉠** 하나님께서 엘람에 대해 세우신 계획은 어떤 것인가? (37-39절)

- ㉠** (1)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대적 앞에 놀라게 할 것이며 당신의 재앙을 그들에게 내려 진멸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엘람의 왕위를 빼앗고 왕과 족장을 멸하는 것이다. 그러나 끝날에 엘람의 포로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 (2) 엘람의 위치가 견고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패망은 주변 국가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다. 부강했던 그들이 망하게 된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던 것이었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급작스럽게 임할 때가 많다(참조, 마 24:36-41; 살전 5:3). 그러므로 세상의 평안에 만족하지 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참조, 마 25:1-30).

연구자료

말감(Malcam). 일명 밀곰(Milcom, 왕상 11:5) 또는 몰렉(Moloch, 32:35)으로도 불리우는 이 신은 암몬인(Ammonites)들이 섬기던 가증한 신이다. 이 신에 대한 제의(祭儀) 가운데는 어린아이를 타오르는 불속에 던지는 희생 의식이 있었는데 7:31; 19:5; 신 12:31; 왕하 16:3; 사 30:33 등에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암몬인들의 우상 숭배 행위는 일찍부터 이스라엘인들에게도 전래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힌놈의 골짜기'(Valley of Hinnom)에 몰렉을 위한 도벳(Topheth) 사당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자녀들을 불에 사르는 의식을 자행하였다(7:31).

제 50 장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다 (1)

단락구분 1-3 바벨론의 멸망을 공표(公表)하다 / 4-8 이스라엘의 해방을 예언하다 / 9-26 바벨론이 황폐될 것을 예언하다 / 17-20 이스라엘이 모든 죄를 용서받다 / 21-28 바벨론의 패전(敗戰)을 예언하다 / 29-32 바벨론의 교만이 꺾여지다 / 33-40 바벨론의 패망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하다 / 41-46 바벨론을 치러 오는 자들

1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바벨론과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2 너희는 열방 중에 광고하라 공포하라 기를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므로다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3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함이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4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그와 함께 유다 자손이 돌아오되 그들이 울며 그 길을 행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니

5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어버리지 아니할 영영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자 하리라

6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길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7 그들은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은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 열조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 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8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라 떼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하라

9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오를 벌이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속한 용사의 화살같아서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로다

10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1 나의 산업을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

하며 기뻐하며 곡식을 가는 송아지같이 뛰며 힘센 말같이 울도다

12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온전히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열방의 말재와 광야와 마른 땅과 사막이 될 것이며

13 여호와와 진노로 인하여 거민이 없는 온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으로 지나는 자마다 그 모든 재앙을 놀라며 비웃으리로다

14 바벨론을 둘러 항오를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소리 그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15 그 사면에서 소리질러 칠지이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보장은 무너졌고 그 성벽은 훼파되었으니 이는 여호와와 보수하시는 것이라 그의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보수하라

16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잠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 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17 이스라엘은 흠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도다

18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앗수르 왕을 벌한 것같이 바벨론 왕과 그 땅을 벌하고

19 이스라엘을 다시 그 목장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그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20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발견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남긴 자를 사할 것임이니라

21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너희는 올라가서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거민을 쳐서 진멸 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다하라

22 그 땅에 싸움의 소리가 큰 파멸의 소리가 있으리라

23 온 세계의 방망이가 어찌 그리 꺾여 부숴졌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열방 중에 황무지가 되었는고

24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음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내가 나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만난 바 되어 잡혔도다

25 나 여호와와 그 병고를 열고 분노의 병기를 낚은 주 만군의 여호와와 내가 갈대아인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26 먼 데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 곳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27 그 황소를 다 죽이라 도수장으로 내려가게 하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라

28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보수하시는 것, 그 성전의 보수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29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무릇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치고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 일한 대로 갚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30 그러므로 그날에 청년들이 그 거리에 엎드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31 주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니 네 날 곧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32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놓으리니 그 사면에 있는 것이 다 사라지니라

33 나 만군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엄히 지키 놓아 주지 아니하거니와

34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결코 그들의 원을 퍼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거민으로 불안케 하리라

35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거민의 위에와 그 방백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임하며

36 칼이 자궁하는 자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37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잠족의 위에 임하리니 그들이 부녀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임하리니 그것이 노략될 것이요

38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을 말리우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음이니라

39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타조도 그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히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40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중에 우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41 보라 한 족속이 북방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오나니

42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궁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홍융함 같도다 딸 바벨론아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항오를 벌여 너를 칠 것이라

43 바벨론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잠혀 해산하는 여인의 구로함 같도다

44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툰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뇨

45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와의 도모와 갈대아인의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와의 뜻을 들으라 양 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 처소로 황무케 하리니

46 바벨론의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리리라 하시도다

1. ㉠ 본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열국을 정벌하던 바벨론이 그들의 교만으로 역시 그분의 심판을 받게 될 사실과 이방 중에 포로가 되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2)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다음 장에까지 연결되는데 예레미야 예언에서 이 부분이 마지막을 차지한 이유는 이 예언이 맨 끝에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3) 바벨론에 대한 예언은 이미 이사야로부터 시작되었는데(참조, 사 45:1) 바벨론이 번영하기 전부터 그들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 선포되었다.

- (4) 바벨론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대대적인 구원과 어둠의 세력에 대한 성도들의 승리를 보여 주지만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보다 훨씬 후인 복음적 교회의 종말적인 승리를 나타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많이 인용되었다(참조, 계 2:27;3:12;8:8;16:12 등).
- (5) 한편 본장에서 언급된 바벨론의 패망은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보다 크고 강하므로 망할 것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 (6)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형적인 힘을 전혀 개의(介意)치 않으시고 세력을 꺾으실 수 있으며 이런 상황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더 큰 뜻을 갖고 계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다.

2. **㉠**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관하여 무엇을 공포(公布)하고 숨기지 말라 하셨는가? (2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므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는 사실을 공포하라고 하셨다.
- (2) 바벨론의 멸망은 열방들에게 중요한 소식이고 관심거리였다. 이것은 그들에게 행하신 심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시 9:16).
- (3) 하나님의 전능(全能)하심은 그들이 섬기는 신(神)조차도 막을 수 없었다. ‘벨’은 ‘운명’이란 뜻을 가진 바벨론의 신 이름인데 하늘을 지배하는 아누(Anu), 땅 밑의 물을 지배하는 이아(Ea)와 함께 바벨론의 세 수호신 중의 하나이다. 벨은 공중과 땅을 지배하는 신이며 태양의 신이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아침과 봄에 큰 제사를 지냈다(참조, 사 46:1).
- (4) 또한 므로닥은 바벨론 제국이 바빌로니아를 수도로 삼은 후 바벨론이 그리이스의 주피터(Jupiter)와 같은 주신(主神)으로 추대(推戴)한 우상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비록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했을 때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현재 상황에 중점을 두고 행하신다.
- (6)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로 과거의 신앙적 연륜이나 공적을 자랑하고 현재의 신앙 생활에 충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 바벨론을 치는 나라가 어디에서 올 것인가? (3절)

- ㉡** (1) 바벨론을 치는 나라가 북방에서 나와 그 땅을 황폐케 하여 그중에 거하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 (2) 바벨론은 B. C. 539년 페르시아(Perisa)에 의해 멸망되었는데 페르시아는 바벨론의 북쪽이 아니라 동쪽에 위치한 나라였다.
- (3) 그런데 바벨론을 치는 나라가 북쪽에서 온다고 기록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외국의 침략을 받을 때 대부분 북쪽에서부터 왔으므로 그들의 의식 속에 재난은 북쪽에서 온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4. **㉠** 바사(Persia)가 바벨론을 치는 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4, 5절)

- ㉡** (1) 그때에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은 울면서 함께 돌아와 하나님을 찾을 것이며 그들은 잊어버리지 않을 영원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할 것이다.
- (2) 이스라엘과 유다의 연합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안전이 보장되었고(참조, 시 133: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원 불변한 언약이 맺어지었다(참조, 롬 11:29).
- (3) 이 언약은 31장에서 말한 하나님의 새 언약(31:31, 32)과 대조가 되는데 이것은 인간 능력 밖의 사항이다. 이전에 이미 인간은 언약 파기자가 되었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였다.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 기쁨으로 본국에 돌아오게 된다. 비록

돌아오는 길이 험난하다고 해도(참조, 시 84:6)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참조, 시 137:4)가 있기에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매우 현실적이며 또한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사실적이어야 한다.

5.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전의 그들의 상태는 어떠한가? (6, 7절)**

㉠ (1) 그때는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 인하여 잃어버린 양 떼와 같았다. 그들을 만나는 대적들은 백성을 삼켰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2)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게 된 원인이 지도자의 잘못된 인도라는 것과 바벨론에 의한 패망이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보여 준다.

(3) 이것을 통해 볼 때 지도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데 야고보 사도는 지도자의 심판이 더 크다고 경고하면서 조심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참조, 약 3:1).

6.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8절)**

㉠ (1)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갈대아인의 땅에서 나오는데 두려움 없이 모든 때에 앞서가는 수염소같이 당당하게 나오라고 하셨다.

(2)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행한 죄를 비난하거나 저주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므로 불행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3) 여기서 '수염소같이' 라고 표현한 것은 수염소는 양보다 더 담대하기 때문에 앞서서 길을 인도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앞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다는 뜻이다.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실 때는 애굽에서 바로에게 두려움을 일으키시고(참조, 출 12:31-36) 광야 길을 진행할 때(출 15:14-16)와 가나안을 점령할 때(수 2:8-11)도 동일한 방법으로 도우셨다.

(5)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데 반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과거나 현재, 앞으로의 모든 일에 영원 불변(永遠不變)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참조, 히 13:8)에 우리의 삶을 접합시키는 일만 남았을 뿐이다.

7. **㉠ 바벨론을 치러 오는 나라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9, 10절)**

㉠ (1) 큰 연합국이 북방에서 일어나 바벨론을 칠 때 항오(行五)를 벌여 취하고 그들이 갈대아를 약탈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숙련된 용사의 화살 같아서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2) 바벨론을 정벌할 큰 연합군은 바사(Persia)를 가리키는데 역사적으로 아케메네스 조(朝) 페르시아(Achaemenid Persia, B. C. 6C-330)가 B. C. 539년에 바벨론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3) 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보여 준다. 즉 바벨론의 패망은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져 있었기에 용사의 활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이다.

(4) 그러므로 모든 통치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참조, 롬 13:1)임을 바로 인식하여 그분께 겸손히 복종해야만 한다.

8. **㉠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하여 즐거워하던 바벨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11-13절)**

㉠ (1) 유다 백성을 노략하고 즐거워하던 바벨론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열방의 막내가 되고 갈대아 땅은 하나님의 진노로 거민이 없는 황무지가 될 것이며 또한 모든 자들이 비웃을 것이다.

(2) 바벨론은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으나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강한 힘을 자랑하였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로 작정하셨다.

- (3) 결국 B. C. 539년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 정복되었다(참조, 단 5:30). B. C. 514년에 다리우스(Darius Hystaspes, B. C. 558-486)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부분적으로 성벽이 파괴되었고, B. C. 478년 크세르크세스(Xerxes I, B. C. 519-465)가 성벽을 수축하고 신전을 재건하였으나 그 후 성읍 회복에 대한 시도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

9. **㉠**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싸우는 메대와 바사인에게 무엇을 권고하셨는가? (14-16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당신께 범죄하였으므로 활을 아끼지 말고 다 쏘며 그 성을 파괴하라고 하셨다. 그것이 바벨론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여호와와 복수라 하셨다.
 (2) 바벨론이 망하는 원인은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이다. 그 범죄는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것인데 그 죄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상하게 하는 행위와 같다(참조, 습 2:8).
 (3)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모든 세력들도 바벨론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다.

10. **㉠** 바벨론이 비참하게 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15절)

- ㉠** (1)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2) 즉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심하게 괴롭혔으므로(참조, 왕하 24, 25장)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이다.
 (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을 학대하거나 속이지 말고(참조, 사 33:1) 비판하거나 긍휼 행하기를 게을리하지 말라(참조, 마 7:2; 약 2:13)고 하셨다.
 (4) 특히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여 백성들을 괴롭히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11. **㉠** 이스라엘 민족이 당한 침략의 역사는 어떠한가? (17절)

- ㉠** (1)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 같아서 사자(獅子)들이 따르는데 처음에는 앗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뼈를 꺾었다.
 (2) 유다 왕국에 대한 앗수르의 침공은 산헤립(Sennacherib, B. C. 705-681) 때부터 본격화되었다(참조, 왕하 18:13-19:37; 대하 32:1-21; 사 36, 37장). 그러나 B. C. 612년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 앗수르는 망하고 말았다.
 (3) 바벨론은 B. C. 605년부터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참조, 단 1:1)하여 4차례 걸쳐 유다를 침공하였다. 그 가운데 3차 포로인 B. C. 586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함락시키면서 유다의 멸망을 선언하였다(참조, 25:9-11; 왕하 25:6-12).

12. **㉠**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한 침략을 받았으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한가? (18-20절)

- ㉠** (1)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왕과 같이 바벨론 왕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모두 용서하실 것이다.
 (2)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어 앗수르를 멸망시키셨듯이 바벨론도 그들의 교만한 죄로 인해 세력을 꺾으실 것이다.
 (3) 그리고 그들이 침략하여 약탈하던 유다 백성은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신다.

13. **㉠** 유다 백성이 돌아와 거하게 될 곳은 어디인가? (19절)

- ㉠** (1) 그들이 돌아올 장소는 갈멜과 바산이며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인데 그곳에서 먹고 만족할 것이다.
 (2) 갈멜은 '동산', '포도원' 이란 뜻으로 지중해 연안 아크레 만 남단에 솟아 있는 540m의

산으로 나무가 많고 과수도 많은 기름진 땅이다(사 33:9; 35:2; 암 1:2; 미 7:14).

- (3) 바산은 '부드러운 땅'이란 뜻으로 요단 강 동편에 위치한 넓고 비옥한 땅이다.
 (4) 에브라임은 면적은 좁지만 비옥한 땅이 에브라임 산 동서로 전개되어 있고(수 17:15; 19:50; 20:7) 길르앗 산은 요단 강 동편을 말하는데 목축업이 성행했으며(8:22; 46:11; 아 6:5) 유향도 생산되었다.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시키심은 완벽한 것이고 더 나아가 영적인 축복까지 이어지는 데 이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였기에(4절) 그 외의 축복까지 더하신 것이다(참조, 마 6:33).

14. ㉠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히 돌아올 때 그들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20절)

- ㉠ (1)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사(赦)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찾으려고 할지라도 발견치 못할 것이다.
 (2) 그들의 죄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경배한 것과 유다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이었다. 그러나 포로 생활이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치료 약이었다.
 (3) 즉 그들은 비록 포로라는 비참한 처지로 떨어졌을지라도 그러한 고통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므로 죄에 대한 징벌을 그치실 것이다.
 (4)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참조, 시 32:1; 사 43:25; 미 7:19)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해진 우리를 원수들이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참조, 31:34; 롬 8:1; 엡 5:26, 27).

15. ㉠ 메대와 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았는가? (21절)

- ㉠ (1) 그들은 므라다임의 땅을 치며 브곳 거민을 쳐서 진멸하라는 명령과 권세를 받았다.
 (2) 므라다임과 브곳은 모두 바벨론의 지역을 의미하므로(참조, 젤 23:23)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칠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16. ㉠ 바벨론의 어리석은 모습은 어떠한가? (24절)

- ㉠ (1)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잡으려고 을무를 놓았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걸렸고 하나님과 다투었으므로 마침내 잡히고 말았다.
 (2) 즉 새가 몰이군의 을무에 걸리듯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을무에 걸렸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였기 때문이다(참조, 슥 1:15).
 (3) 이처럼 인간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것을 알지 못하고 을무에 걸렸을 때 후회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의 인도하에 서만 안전할 수 있다(참조, 요 14:27; 16:33).

17. ㉠ 하나님께서 병고(兵庫)를 열고 갈대아인에게 행하실 일은 어떤 것인가? (25-28절)

- ㉠ (1) 그 일은 갈대아인을 치고 곳간을 열고 그것을 쌓아 무더기 같게 하여 진멸하는 일과 황소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복수(復讐)를 선포하시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하여 또한 지위의 높고 낮음이나 나이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심판을 베푸신다.
 (3) 일반적으로 '황소'는 힘, 권력, 부 등을 의미하므로(참조, 시 22:12; 사 34:7, 8) 통치자나 다른 권력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킨다.
 (4)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순종하는 자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세우시면 어떤 힘과 재산을 의지하는 자라도 반드시 그 세력을 꺾으신다.

18. ㉠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원리로 인해 바벨론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가? (29-32절)

- Ⓐ (1) 그들이 하나님께 교만히 행하였으므로 사방의 군대들이 바벨론에 모여 바벨론 군사들과 청년들을 멸절하며 교만한 자가 넘어지고 성읍들이 불타는 일을 당하게 된다.
- (2) 역시 하나님께 대한 교만을 가장 미워하시고 징계하신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도록 허락받았으나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억압하였다.
- (3)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 일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들을 패망의 길로 이끄신다(참조, 잠 16:5, 18; 약 4:6).

19. ⓐ 이스라엘과 유다를 학대받는 중에서 구원하신 구속자는 어떤 분인가? (33, 34절)

- Ⓐ (1) 그들을 구속하신 분은 강하신 본인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 (2)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으로(출 3:14) <예호와>의 음역(音譯)이다.
- (3) 이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적인 자각(自覺)과 연결되어 하나님과의 유일한 계약 관계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 (4) 신약에서 본 명칭은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는 의미로 쓰였는데 특히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존재한 관계에서 발전한 아버지의 개념(참조, 시 68:5; 103:13)이었다.
- (5) 하나님의 이런 이름은 예수께서도 그분의 아들 자격으로 자연스럽게 또한 빈번하게 사용하셨다(참조, 마 7:21; 10:32; 눅 2:49; 11:13; 요 12:49).

20. ⓐ 하나님께서 바벨론 거민에게 내리시는 재앙의 특징은 무엇인가? (35-38절)

- Ⓐ (1) 하나님의 재앙은 '칼'로서 모든 방백들과 자궁(自矜)하는 자와 용사와 기타 거민과 부녀 그리고 그들의 재물에까지 임하게 된다.
- (2) 즉 칼로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뜻인데 '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을 상징한다.
- (3) 이렇게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원인은 하나님께 대한 교만한 행위와 함께 우상을 숭배한 땅(참조, 51:52; 사 21:9)이고 주민들은 거짓 신들로 인하여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이다.

21. ⓐ 전쟁으로 인한 인위적인 재앙 외에 자연적인 재앙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38-40절)

- Ⓐ (1) 바벨론에게 임한 자연적인 재앙은 그 땅에 가뭄이 임하는 것이다.
- (2) 그래서 바벨론 땅에는 사막의 들짐승과 시랑과 타조가 살게 되고 거민은 없어지고 소들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것같이 아무도 살지 않는 성읍이 되게 하실 것이다.
- (3)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바벨론에 대하여(참조, 사 13:20-22) 그리고 에돔에 대하여 하신 예언(34:12-15)을 예레미야가 인용한 것이다.
- (4)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한 자들이 당하는 형벌은 모두 공통적인 면을 갖고 있다. 즉 소들과 고모라가 멸망되어 사해 밑에 잠겨 역사 속에 사라졌고 바벨론도 이와 같이 멸망하고 말았다.
- (5)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 행위를 하는 자는 이 땅과 내세(來世)에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참조, 마 12:31, 32).

22. ⓐ 바벨론을 치는 북방 족속은 어떤 자들이며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 (41-43절)

- Ⓐ (1) 그들은 활과 창을 가진 자들로 잔인하여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 목소리는 파도가 흉용함 같으므로 바벨론에 대하여 항오(行五)를 벌여 칠 것이다.
- (2)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하던 당시의 바벨론은 막강한 세력으로 성장하던 때이었으나 그들이 유다를 압제하던 것(6:22-24)과 같이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은 확실하게 행하여지고 또한 한치의 용서도 없이 실시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23. ⓐ 바벨론을 치러 오는 자는 무엇에 비유되었는가? (44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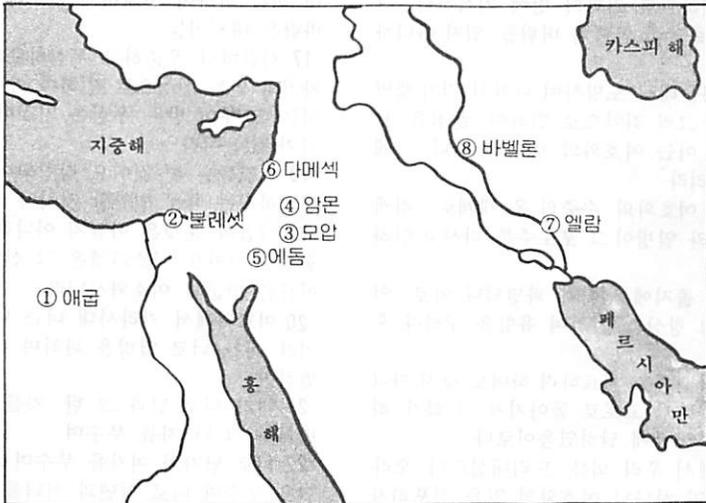
- Ⓐ (1) 바벨론을 치는 자는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사자에 비유되었다.
- (2) 이 사자는 고레스(Cyrus, B. C. 559-529)를 상징하는데 그는 페르시아의 아케메네스(Achaemenes) 왕조(B. C. 6C-330) 건설자이다. 그는 안산의 왕으로 즉위하였으며, 아스티아게스(Astyages)를 격파하였고, B. C. 549년에 에크바타나를 점령했다.
- (3) 이어서 그는 소아시아, 바벨론, 앗수르, 수리아, 팔레스틴 등을 병합하였고 그의 영토는 이란 고원 전역에 미쳤다. 그러나 그는 피정복민의 풍습을 존중하였고, 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고국으로 돌려보냈다(참조, 대하 36:22, 23; 스 1:1-4).

24. ⓐ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45, 46 절)

- Ⓐ (1) 바벨론은 어린 양보다 더 미약해지고 그들의 처소는 황무해지며 바벨론이 함락당하는 소리가 땅에 진동하므로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릴 것이다.
- (2) 바벨론이 하나님의 이런 계획에 걸리게 된 이유는 교만함과 하나님께 대한 반항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용기를 빼앗아 전쟁을 수행할 수 없게 하신 것이다.
- (3)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만이나 의심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따르지 않고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 베드로가 어린 계집 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否認)한 것처럼 약해질 수밖에 없다(참조, 마 26:69-74; 막 14:66-71; 눅 22:54-60).

지도자료

예레미야가 예언하였던 나라들



- ① 애굽 (46:1-28) ② 블레셋 (47:1-7) ③ 모압 (48:1-47) ④ 암몬 (49:1-6) ⑤ 에돔 (49:7-22) ⑥ 다메섹 (49:23-27) ⑦ 엘람 (49:34-39) ⑧ 바벨론 (50:1-51:64)

제 51 장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다 (2)

단락구분 1-4 바벨론을 심판하는 자들 / 5-1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권고(眷顧)하시라 바벨론을 멸망시키다 / 15-19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 / 20-23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 / 24-40 바벨론이 행한 대로 보응받다 / 41-44 바벨론의 멸망이 큰 놀림이 되다 / 45-58 바벨론의 멸망 가운데서 선민(選民)이 탈출하다 / 59-64 스라야를 통해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다

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켜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처하는 자를 치되

2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니 재앙의 날에 그를 에워 치리리다

3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주를 갖추고 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 활을 당길 것이라 그 청년들을 아끼지 말며 그 군대를 진멸하라

4 무리가 갈대아인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그 거리에서 절립을 당한 자가 엎드려지리라 하시도다

5 대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거역하므로 죄악이 땅에 가득하나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을 입지 아니하였나니

6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꺾임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와 보수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7 바벨론은 여호와와 수증의 온 세계로 취케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8 바벨론이 즐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올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은 나으리리다

9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토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라

10 여호와께서 우리 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일을 선포하자

11 화살을 갈며 방패를 굳게 잡으라 여호와께서 대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시라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여호와와 보수하시는 것 곧 그 성전의 보수하시는 것이라

12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기를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군을 세우며 복병을 베풀어 방비하

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거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경역하시고 행하시리라

13 많은 물가에 거하여 재물이 많은 자여 네 담람의 한정, 네 결국이 이르렀도다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로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황충같이 네게 가득히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소리를 높이리라 하시도다

15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16 그가 목소리를 발하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공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7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만든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8 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19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20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의 첩필 곧 병기라 내가 너로 열방을 파하며 너로 국가들을 멸하며

21 내가 너로 말과 그 탄 자를 부수며 너로 병거와 그 탄 자를 부수며

22 너로 남자와 여자를 부수며 너로 노년과 유년을 부수며 너로 청년과 처녀를 부수며

23 너로 목자와 그 양 떼를 부수며 너로 농부와 그 멍겟소를 부수며 너로 방백들과 두령들을 부수리리다

24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25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26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에 들어가 기춧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27 땅에 기를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되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28 열국 곧 메대인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모든 두 령과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예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29 땅이 진동하며 고통하니 이는 나 여호와가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할 경영이 섰음이라

30 바벨론이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 거처는 불타고 그 문지방은 부러졌으며

31 보발군이 달려 만나고 사자가 달려 만나서 바벨론 왕에게 고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 되었으며

32 모든 나무는 꺾어졌으며 갈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두려워하더이다 하리라

33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미구에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34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로 빈 그릇이 되게 하며 용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게 나를 쫓아내었으니

35 나와 내 육체에 대한 잔학이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거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거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36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수하여 그 바다를 말리며 그 샘을 말리리니

37 바벨론이 황폐한 무더기가 되어서 사랑의 거처와 놀람과 치솟거리가 되고 거민이 없으리라

38 그들이 다 사자같이 소리하며 어린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39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빼놓고 그들로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영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40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수양과 수염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41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의 칭찬 받는 성이 꺾어졌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열방 중에 황폐하였도다

42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많은 파도가 그것에 덮였도다

43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이 거민이 없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인자가 없도다

44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흘러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지리로다

45 나의 백성이 너희는 그중에서 나와 각기 나 여호와와 진노에서 스스로 구원하라

46 너희 마음을 겁박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풍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풍설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경내에는 강포함이 있어 관원끼리 서로 치리라

47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살륙 당한 모든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48 하늘과 땅과 그중의 모든 것이 바벨론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방에서 그에게 음이니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49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을 살륙하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땅 사람이 바벨론에서 살륙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하시도다

50 칼을 면한 자들이여 서지 말라 행하라 원방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51 이방인이 여호와와 그의 집 성소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이 우리 얼굴에 덮였느니라

5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조각한 신상을 벌할 것이라 상함을 입은 자들이 그 땅에서 신음하리라

53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 오른다 하자 그 성을 높이어 견고히 한다 하자 멸망시킬 자가 내게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

54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갈대아인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로다

55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케 하사 그 떠드는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그 대적이 많은 물의 요동함같이 요란한 소리를 발하니

56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임함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와는 보복의 하나님이니 반드시 보용하시리로다

57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들과 용사들로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영히 자고 깨지 못하리라

58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의 넓은 성벽은 온전히 무너지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 탈 것인즉 그들이 쇠패하리라 하시니라

59 유다 왕 시드기야 사 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60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임할 모든 재앙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61 예레미야가 스라야에게 이르되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62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 거하지 못하게 하고 영영히 황폐케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63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매어 유브라데 하수 속에 던지며

64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앙 내림을 인하여 이같이 침몰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니 그들이 쇠패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에 마치니라

1. **㉠ 본장의 예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앞장의 내용과 연결되어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내용이 계속 예언되고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한때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방 열국과 당신의 선민(選民)을 징계하도록 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계획보다 지나치게 유다 백성을 압제하므로 그분의 진노를 유발하였다.
- (3)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고 그 대신 유다 백성이 구출될 것이다.
- (4) 본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는데 그 이유는 포로된 자들 중에 있는 경건한 무리에게 이스라엘 해방에 대한 소망과 용기를 주고자 함이다.
- (5) 마지막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예언을 기록한 사본을 돌에 묶어 유브라데에 던져 빠뜨림으로 예언이 성취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2. **㉠ 바벨론을 치는 자를 누가 일으키셨으며 또한 어떤 것을 명하셨는가? (1-4절)**

- ㉠** (1)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자의 마음을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치게 하셨으며, 또한 그들의 청년이라도 아끼지 말고 다 죽여 진멸하도록 명하셨다.
- (2) 여기서 ‘멸망시키는 자’란 말이 다른 곳에는 ‘멸망의 바람’으로 묘사되기도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는 바람으로도 온 세상을 쉽게 멸망시킬 수 있음을 보여 준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도록 시키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일으키셨다고 하였다.
- (4) 바벨론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겨가 키질을 당하듯이 호전적인 바벨론이 진멸 당할 것이다.

3. **㉠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5, 6절)**

- ㉠** (1) 그 이유는 바벨론이 죄악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도 있었으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가 땅에 가득하였으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본다. 그러므로 택하지 않은 백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었다(18:5, 6; 신 32:43).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유다 백성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거역한 죄가 땅에 가득하였으나 그분께서 유다 백성을 과부처럼 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기 때문에 바벨론처럼 완전히 멸망당하지는 않았다(참조, 사 48:20; 54:4; 숙 2:6-8).
- (4)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으니(참조, 롬 10:10; 요일 4:2) 결코 버림

을 당하지 않는다(참조, 요 6:39, 40). 그러므로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4. **㉠ 바벨론은 어떤 나라이었는가? (7절)**

- ㉠** (1)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있는 금잔(金盞)으로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담고 있었다.
- (2) 여기서 ‘잔’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의미(참조, 25:15, 28)로서 ‘금잔’이라고 부른 것은 성읍과 그 왕국이 화려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그 잔이 여호와의 수중에 있다고 한 것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그분의 통제에 매인다는 의미이다.
- (4)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선택된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받을 수 없고(참조, 욥 1:12; 2:6) 시험을 받는다 해도 반드시 피할 길로 인도함을 받는다(참조, 고전 10:13).

5. **㉠ 하나님께서 유다의 의(義)를 드러내사 행하신 일은 어떤 것인가? (8-10절)**

- ㉠** (1) 바벨론이 줄지에 넘어져 파멸되므로 어떤 악을 써도 낫지 못하고 자기 고토(故土)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 (2)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감격하여 외친 말이다(참조, 시 37:6; 미 7:9, 10).
- (3)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갔으나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의가 있었다. 그러나 바벨론은 사신(死神) 우상을 섬기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다(참조, 10:11).
- (4) 그러므로 그들이 믿던 우상이나 그들과 함께 활동하던 용병(用兵)이 아무 도움을 못하고 쫓겨 나갈 것이다.
- (5)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위한 사랑을 보여 주시는 의미로서 그 이유는 당신의 은총을 받은 자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함이다(참조, 시 116:12, 13).

6. **㉠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 ㉠** (1) 그 이유는 바벨론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 (2) 바벨론이 하나님의 전을 모독한 행위는 성전의 기명(器皿)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우상을 찬양한 것이다(참조, 단 5:1-4).
- (3) 그러므로 바벨론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 메대와 바사가 그들을 멸망시키리라고 예언되었는데(참조, 사 13:17-22)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다(참조, 단 5:30).
- (4)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참조, 마 12:31, 32).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므로 죽임을 당함과 같다(참조, 행 5:1-11).

7. **㉠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바벨론을 보수(報讐)하시는가? (12-14절)**

- ㉠** (1) 바벨론 성벽에 대하여 파수군과 복병을 세워서 방비하시고 황충과 같이 사람을 많이 보내사 그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 (2) 이것은 바벨론이 아무리 튼튼하게 방어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25:12)는 뜻이고, 그들이 아무리 재물이 많고 문화가 창달(暢達)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 (3)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군대는 메뚜기와 황충같이 많으므로(참조, 시 105:34; 욥 2:25; 나 3:16) 승리의 개가(凱歌)를 부를 것이다.
- (4)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 즉 망명된 자를 압도하시는 주권과 승리(참조, 10:12-16)를 발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참조, 시 117편; 136:10-20).

8. **㉠**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5, 16절)

- ㉠** (1)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음성으로 세계를 만드신 전능하신 유일신(唯一神)이다.
- (2)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자신의 예언에 포함시킨 이유는 유다 백성, 즉 그들의 인간적 사고(思考)로는 바벨론의 멸망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 (3)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능력(참조, 시 136:5; 사 44:24; 45:12; 48:13; 51:13)을 보여 주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자 하였다.
- (4) 예레미야의 이런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용기를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계적인 세계에서 환경을 벗어나면 잠시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한다(참조, 시 121:1-8).

9. **㉠** 하나님과 비교된 우상은 어떠한가? (17, 18절)

- ㉠** (1) 사람이 우둔(愚蠢)하고 무식하여 금장색(金匠色)마다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은 거짓이고 생명이 없으며 망령되어 만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 멸망할 것이다.
- (2)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을 때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지만(참조, 출 32:1-6) 그 결과 하나님의 징벌로 죽임을 당하고 만다(출 32:25-29).
- (3)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께 대한 지식을 갖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기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을 버리므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경우가 많다(참조, 호 4:6).

10. **㉠** 바벨론의 우상과 비교한 야곱의 분깃은 어떠한가? (19절)

- ㉠** (1) 야곱의 분깃은 만물의 조성자이신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支派)이다.
- (2) 바벨론의 우상은 헛 것이고 망령되지만 야곱의 분깃인 하나님은 가공(架空)의 신이 아니다. 즉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참조, 민 16:22)이시고 영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창 1:1)이시므로 자신의 능력으로 천지를 보전(保全)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공상(空想) 속에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역사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만 소명하며 살아야 한다(참조, 시 16:5; 73:25, 26).

11. **㉠**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당신의 첩퇴로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20-23절)

- ㉠** (1) 하나님의 도구인 바벨론은 열방을 파괴하고 국가들을 멸하고 말탄 자와 병거를 탄 자, 그리고 남녀 노소와 양 떼와 농부와 방백과 수령들을 부수었다.
- (2)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예레미야가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유다 백성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 (3) 즉 그들은 응기장이의 손에 좌우되는 절그릇처럼(18:2-4)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참조, 45:4).
- (4) 행악자의 흥왕(興旺)해짐은 잠시요 그들은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참조, 시 37:1, 2)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시 37:5-7).

12. **㉠** 하나님의 필요가 끝난 바벨론의 최후는 어떠한가? (24-26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행한 대로 갚으사 당신께서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시고 영영한 황무지가 되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돌도 건축의 기초석이 되지 못할 것이다.
- (2) 지금까지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타락한 종교와 문화를 수용했으나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므로 모든 것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3)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악인들의 일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여 그들의 행위를 따라 잠시 동안의 육신적 안락을 위해 산다면 바벨론이 당했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참조, 창 13:10-13; 19:12-28).

13. **㉠**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 어떤 나라들을 사용하셨는가? (27-29절)

㉠ (1)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치시기 위해 열국을 예비하셨는데 특히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를 불러 사나운 황충같이 몰아오시고 메대의 왕들과 방백들을 준비시켜 바벨론을 치게 하셨다.

(2)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나타난다. 즉 인간의 힘으로 동원할 수 없는 무수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셨다.

(3) 따라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꾀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힘을 사용하셔서라도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친히 싸우시기 때문이다(참조, 사 63:1-6; 요 15:18, 19).

14. **㉠** 하나님께서 열국을 이용해 바벨론을 치실 때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30-32절)

㉠ (1) 바벨론은 싸움을 그치고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거처가 불타고 문빛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군(步撥軍)은 왕에게 달려가 패전(敗戰)을 알릴 것이다.

(2) 만약 하나님께서 전쟁을 도우시지 않으면(참조, 삼상 17:47) 어떤 장정이라도 힘을 쓰지 못하고 어떤 방어벽이라 해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일 수밖에 없다(참조, 시 107:16; 사 13:7; 45:1, 2; 나 3:13).

(3)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이 새 힘을 얻어 피곤치 않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참조, 사 40:29-31).

15. **㉠** 열국으로 인해 멸망할 바벨론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33-35절)

㉠ (1) 하나님은 바벨론이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아서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를 것이며 시은 거민은 그들이 당한 모든 학대가 바벨론에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하셨다.

(2)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 한때 사용된 바벨론도 밟히는 타작 마당과 같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3) 그리고 바벨론이 유다에 대하여 잔인한 맹수처럼 괴롭혔으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복수를 요구할 것이다.

(4) 오늘날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한다(참조, 눅 18:1-8).

16. **㉠** 시온의 거민이 복수를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36-40절)

㉠ (1)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여 행하시는 복수는 바다와 샘을 말리시는 일과 바벨론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 짐승의 거처가 되게 하며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고 도수장(屠獸場)으로 가는 짐승같이 하실 것이다.

(2)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유브라테 강이 그들을 보호하신 방어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강을 마르게 하시므로 그들을 멸망시키신다. 그리고 그들이 사자와 같이 번성하여 그 즐거움에 도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이다.

(3) 이 예언은 단 5:1-4, 30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행사하시는데 장애되는 요소가 있을 수 없음을 가리킨다.

(4)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 우리가 그분의 통치하심에 순응할 때 우리의 앞에 놓여진 장애물이 모두 제거될 것이다.

17. **㉠** 바벨론이 멸망하는 모습은 어떠한가? (41-44절)

㉠ (1) 바벨론을 암시하는 세삭이 함락되고 바다가 바벨론에 넘쳐 파도가 덮이고 그들의 성읍

에 거민이 없으며 벨을 벌하고 삼킨 것을 끌어내므로 열방이 다시는 그에게로 가지 않고 그들의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 (2) 여기서 세삭은 바벨론을 의미하는 다른 이름이다(25:26). 그리고 벨은 태양 신으로 숭배하는 갈대아 최고의 신이었다(50:2).
- (3) 이 말씀은 바벨론의 비참한 종말에 관하여 예언하는 것인데 고레스 왕을 거쳐서 다리오 왕(Darius I, B. C. 521-486) 때 많은 요인들이 죽었고 성벽이 헐렸으며 도시가 황폐하게 되므로 성취되었다.

18. ㉠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어떤 말씀으로 격려하셨는가? (45, 46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바벨론 중에서 나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함께 멸망하지 말라.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은 항상 있는 것이므로 그런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셨다.
- (2) 이 말씀은 당연히 멸망할 바벨론에 거할 장소를 찾지 말고 그곳을 벗어나 구원받으라는 말이다(참조, 창 6:13-19; 19:12-17).
- (3) 그리고 바벨론이 망할 때가 되어 여러 가지 소문들이 들려오지만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다.
- (4) 성도들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오직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경청(敬聽)해야 한다(참조, 시 119:105).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세속적인 요소는 과감하고 아낌없이 버릴 줄 알아야 한다(참조, 히 11:24-27).

19. ㉠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할 때가 되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것인가? (47-49절)

- ㉠ (1)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조각한 신상들을 벌하시고 온 땅에 살륙당한 자가 엎드러지고 천지(天地)가 바벨론의 망함을 기뻐할 것이다. 북방에서 바벨론을 멸할 자가 오는데 이스라엘을 살륙함같이 그들도 당할 것이다.
- (2) 또한 바벨론의 멸망을 기뻐한다(참조, 사 44:23).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어겼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올바르게 실현되는 것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 ㉠ 바벨론을 나오므로 재앙을 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무엇인가? (50, 51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바벨론을 떠나며 하나님과 예루살렘을 생각하라고 하셨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성소를 짓밟음으로 유다 백성이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 땅이 그들의 안식처가 될 수 없고 다만 가나안, 예루살렘이 그들의 안식처이므로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 (3)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소가 이방인들로 인해 모욕을 당하였기에 실망하고 돌아가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참조, 시 79:1; 젤 7:21).
- (4) 그러나 아무리 성소가 더럽혀졌다고 해도 바벨론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21. ㉠ 성소를 더럽힌 자들이 받는 형벌은 어떠한가? (52, 53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을 벌하시고 상함을 입은 자들을 그 땅에서 신음하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이 하늘까지 요새를 쌓았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망시키실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예로 들어 하나님을 멸시한 자의 최후를 보여 주신다.
- (3) 바벨론이 너무 교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참조, 욥 20:6, 7; 사 14:12-20) 파괴하실 것이다.

(4) 사람들의 가진 것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은 결국에 패망을 가져온다(참조, 창 11:1-8).

22. **㉠ 바벨론이 멸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54-56절)**

- ㉠** (1)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의 무절제한 자랑과 교만을 끊어 버리시는 데 그 원인이 있다.
- (2)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자들이 회개하고 당신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만(참조, 벧후 3:9) 그분의 인내하심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참조, 50:15; 사 59:18).
- (3) 그래서 바벨론은 구스와 메대인들이 격렬한 과도처럼 밀려와 덮치므로 황폐해지고 잠잠해질 것이다.
- (4)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 결코 관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려는 자에게 반드시 보응하신다.

23. **㉠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된 바벨론은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57, 58절)**

- ㉠** (1)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백들과 박사들과 감독들과 관장(官長)들과 용사들에게 잔을 주어 취하게 하시고 그들의 성벽과 문들과 그들의 수고는 무너지고 불타며 쇠패(衰敗)할 것이다.
- (2) 이 예언은 단 5:1을 통해 성취였다. 왜냐하면 벨사살이 연회를 베푸는 동안에 성읍이 함락되고 연회에 모인 자들이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이다.
- (3) 또한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탑, 즉 지주라트와 아름다운 궁정과 이층으로 쌓아 올린 성벽을 자랑하였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 (4) 이와 같이 인간이 갖고 있는 헛된 교만은 하루도 못 가서 무너지고 그 결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참조, 함 2:12-14).

24. **㉠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으로 간 스라야는 어떤 인물인가? (59절)**

- ㉠** (1) 그는 마세야의 손자이며 네리아의 아들로써 왕의 시종장(侍從長)이었다.
- (2) 본서 32:12과 비교해 볼 때 스라야는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룩의 동생임에 틀림없다.
- (3) 그는 B. C. 594년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예레미야에게서 예언의 책을 받아 왔는데, 바벨론에 도착하면 먼저 그 말씀을 읽은 후 유브라테 하수에 그것을 던지라는 명령을 받았다.
- (4)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 여행을 한 이유는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서약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때 스라야가 동행을 하였다. 그러나 여행에 대한 구상이 시드기야 자신에게서 나왔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5) 이런 상황에서 스라야가 읽은 예언은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말씀인데 유브라테 하수에 던지라는 것은 말씀의 완전한 성취와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25. **㉠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관한 예언을 어떻게 하였는가? (60, 61절)**

- ㉠** (1) 그는 예언의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바벨론에 도착하면 그것을 읽으라고 스라야에게 명령하였다.
- (2) 바벨론이 한참 번성할 때 이런 명령을 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고 바벨론 멸망에 대한 경고와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기 위함이었다.
- (3)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들에게 곧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참조, 행 5:42; 딤후 4:2; 벧전 3:15).

26. **㉠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진멸 계획은 어떠한가? (62-64절)**

- ㉠** (1) 바벨론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하지 못하고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며 하나

님의 재앙으로 물 속에 가라앉듯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 (2) 바벨론은 세상의 상징이며 최악의 상징으로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라고 실질적인 모습을 통하여 예언하였다(참조, 계 18:21).
- (3) 그리스도인들은 필연적으로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야 한다. 그렇다고 세상이 최악 중에서 멸망의 길에 있으니 그리스도인이 함께 망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자로서(참조, 마 5:13-16) 최악의 세상을 계도(啓導)해야 한다.

화보자료

파멸당하는 바벨론.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을 묘사한 이 그림은 계 16:17-19에서 제재(題材)를 따온 것이다. 작자의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13세기경 프랑스의 그림인 이것은 캄브레 시립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 유다를 멸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죄악에 대한 일시적인 징계였지 영구적인 징계는 아니였다. 그러나 정작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내린 하나님의 징계는 영구적인 것이었으니 B. C. 593년 메대(Media)에 의해 멸망당한 바벨론은 그 이후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본장에는 이처럼 바벨론이 장차 격개 될 폐허와 수치가 잘 묘사되어 있다.

제 52 장 예루살렘이 파괴되다

단락구분 1-3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다 / 4-11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시드기야가 체포되다 / 12-16 예루살렘 성(城)이 파괴되다 / 17-23 예루살렘 성전이 훼파(毀破)되다 / 24-30 바벨론에 잡혀간 포로의 수호 / 31-34 여호아긴이 머리를 들다

1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이십 일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립나인 예레미야의 딸 이더라

2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3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매

4 시드기야 구 년 시 월 십 일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대하여 진을 치고 사면으로 홍벽을 쌓으매

5 성이 시드기야 왕 십 일 년까지 에워싸였더니

6 그 사 월 구 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식물이 진하였더라

7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더니 성벽을 깨뜨리매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결문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길로 가더니

8 갈대아인의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미치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9 그들이 왕을 잡아가지고 하맛 땅 립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를 신문하니라

10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립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11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옥에 두었더라

12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십 구 년 오 월 십 일에 바벨론 왕의 어전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13 여호와와 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4 시위대 장관을 쫓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으며

15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빈한한 자와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행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옮겨 가고

16 빈천한 국민을 남겨 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17 갈대아인이 또 여호와와 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와 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18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19 시위대 장관이 또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술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물의 금과 은물의 은을 가져갔는데

20 솔로몬 왕이 여호와와 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의 그 받침 아래 있는 열 두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중수를 헤아릴 수 없었더라

21 그 기둥은 한 기둥의 고가 십 팔 규빗이요 그 주위는 십 이 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사지 놓이며

22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다섯 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으며

23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구십 룩이요 그 기둥에 돌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일백 이었다

24 시위대 장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고

25 또 성중에서 사람을 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장관 하나와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칠 인과 국민을 초모하는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중에서 만난 바 국민 육십 명이라

26 시위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잡아가지고 립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27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립나에서 다 쳐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28 느부갓네살의 사로잡아 옮긴 백성이 이러
 하나라 제 칠 년에 유다인이 삼천 이십 삼이요
 29 느부갓네살의 십 팔 년에 예루살렘에서 사
 로잡아 옮긴 자가 팔백 삼십 이 인이요
 30 느부갓네살의 이십 삼 년에 시위대 장관 느
 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칠백 사십
 오인이니 그 총수가 사천 육백 인이었다라
 31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삼십 칠
 년 곧 바벨론 왕 에월므로닥의 즉위 원년 십이

월 이십 오 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
 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32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33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게 하고 그 일평생
 에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34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
 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끊
 이지 아니하였더라

1. **㉠ 본장의 중심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배반하므로 예루살렘이 1년 7개월 동안 포위된 후 시드기야가 도망하다가 체포되고 성벽이 헐린 것과 또 성전이 훼파되어 바벨론인들이 성전 기물과 함께 빼앗긴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2) 본장에 기록된 사건은 39장에도 동일하게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대로 성취된 모습이다.
 (3) 이런 모습은 왕하 24장과 25장에 나오는 역사적 상황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이런 모습이 개별적으로 본서 앞 부분에 언급되다가 본장에서 모든 예언에 대한 사실적인 내용이 종합되어 기록되어 있다.
 (4) 이런 내용이 다시 기록된 목적은 본서 다음에 나오는 애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그 내용에 대한 열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다.

2. **㉠ 시드기야의 정책은 어떠한가? (1, 2절)**

- ㉠** (1) 그는 여호야김의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 시드기야는 지세에 왕위에 올라 11년 동안 통치했고 그의 모친은 립나 예레미야의 딸 하루달이었다. 그리고 여호야김은 시드기야의 형이었는데 정책을 잘못하였다.
 (3) 여호야김의 정책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열조들이 행하였던 죄를 답습하였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리며 압박과 강포를 행하였으며 그 마음과 눈에는 탐람(貪婪)이 가득 차 있을 뿐이었다(참조, 22:13-17; 왕하 23:37).

3. **㉠ 시드기야의 정책이 악하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3절)**

- ㉠** (1) 여호와와의 진노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임하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쫓겨 나게 되었다.
 (2)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었으나 의무를 이행치 않은 유다 백성에게 노하셔서 약속의 땅에서 추방하셨다.
 (3) 여기서 우리는 정치가의 잘못된 정책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보게 된다. 정치가는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정책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일치하는가를 알아야 한다.

4. **㉠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성이 파괴된 일을 설명하라(4-16절).**

- ㉠** (1) 본서 39장 **㉠** 2-**㉠** 5까지 참조하라.

5. **㉠ 갈대아인들이 성전에서 훼파(毀破)한 것은 어느 부분인가? (17절)**

- ㉠** (1) 그들은 성전의 두 홑기둥과 받침들과 전(殿)의 홑바다를 깨뜨려 그 홑을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2) 여기의 두 기둥은 야긴(그가 세우리라)과 보아스(그에게 능력이 있다)인데 이것은 성전의 지주(支柱)가 아니라 장식용으로 만들어졌다(참조, 왕상 7:15-22). 이는 성전의 낭실 앞에 세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게 된 것을 기념하는 성격과 기둥의 이름과 같이 성전이 오래 서 있기를 바라는 염원적(念願的)

의미의 건축물이다.

- (3) 받침은 열 개를 만들었는데 장이 네 규빗, 광이 네 규빗, 고가 세 규빗이므로 이동하기 쉽게 각 받침마다 네 개의 바퀴가 있다. 받침의 역할은 번제용 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는 대야를 운반하는 것이었다.
- (4) 늦바다는 큰 대야를 말하는데 그 규모와 용량 때문에 ‘바다’라 불리었다. 여기는 제사장들의 세정식을 위한 물을 담아 두기 위해 만들었는데 직경이 4.56m, 높이가 2.28m, 둘레가 13.68m 이었고 두께는 한 손 넓이만했다(7.6cm). 그 용량은 약 44,000ℓ의 물을 담을 수 있었다.

6. **Q** 갈대아인들이 탈취해 간 성전의 기구들은 어떤 것들이었는가? (18, 19절)

- A** (1) 그 기구들은 가마들과 부삽들과 불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늦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 장관이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술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과 은의 물건을 가져갔다.
- (2) 여기서 불집게, 주발, 숟가락은 불을 옮길 때 사용하는 기구들로 번제단에서 피운 불을 성소의 향단으로 옮길 때나 등잔의 심지를 자르는 데 이용되었고 술, 부삽, 대접 등은 제물을 드릴 때 도구로 사용되었다.
- (3) 촛대는 정금(精金)으로 만들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좌우에 다섯 개씩 두었고 정금 대접은 피를 담는 데 사용되어진 그릇으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려 백성의 죄를 구속하는 대속죄일(레 16:29-34)에 사용되었다.

7. **Q** 솔로몬 성전 낭실 앞에 세운 두 기둥의 규모와 형태는 어떠한가? (20-23절)

- A** (1) 두 기둥은 고가 18규빗(9.41m)이며 둘레는 12규빗(6.3m)으로서 속은 비었으며 두께는 네 손가락 넓이(7.6cm)였다.
- (2) 그 기둥 위에는 늦머리가 있는데 높이가 5규빗(2.62m)이며 머리 사면으로는 돌아가며 꾸민 바둑판 모양의 그물(왕상 7:17)과 석류가 있었는데 이는 모두가 늦이며 사면의 석류는 96개이고 그물 위의 석류는 100개이었다(참조, 왕상 7:15-22).
- (3) 이 기둥 둘은 본장 **Q** 5에서 설명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기둥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 백성의 죄를 징벌하시고 더 이상 그의 전(殿)을 지탱하시지도 않으시고 그 전의 능력도 되시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이다.

8. **Q** 열 두 늦소란 무엇인가? (20절)

- A** (1) 열 두 늦소란 바다를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 (2) 그런데 그 다리는 소[牛]의 형상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으며 12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 서, 남, 북에 각 세 지파씩 진(陣)을 쳤듯이 세 마리씩 사방으로 향하였다.
- (3) 이 소들은 모두 밖을 향하여 있었고 뒤는 안으로 향하였다(왕상 7:25).
- (4) 이 소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는 바다를 받치고 있으므로 순종이나 제물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지향(指向)해야 할 태도를 가르쳐 준다.

9. **Q** 시위대 장관이 잡아간 자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24-27절)

- A** (1) 시위대 장관은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전(殿) 문지기 세 사람, 그리고 성중에서 군대 장관 하나와 왕의 시종 칠 인, 군대 장관의 서기관 하나, 국민 육십 명을 하맛 땅 립나에 잡아가서 죽였다.
- (2) 바벨론 시위대 장관은 느부사라단이고 잡혀간 스라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의 대제사장이었다. 그는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의 자치권을 상징하는 인물이었다(왕하 25:18-21). 대상 6:12-14에는 힐기야와 사독 반열에 속한 레위 지파 자손으로 언급되어 있다.
- (3) 부제사장 스바냐는 마아세야의 아들(21:1)이며 시드기야 치세 때 일을 하였다. 그는

거짓 선지자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 의하여 여호야다 대신 제사장으로 임명되었다(참조, 29:24-28).

(4) 그리고 유다의 중요한 인물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는데 이 사건은 예레미야가 15:2에서 예언한 대로 성취된 것이다.

10. ㉠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그의 나라로 이주시킨 유대인은 모두 몇 명인가? (28-30절)

- ㉠ (1) 느부갓네살은 그의 7년에 3023명, 18년에 832명, 23년에 745명 등 총 4,600명을 사로잡아갔다.
- (2) 본장에 기록된 연도와 수효는 왕하 24장에 기록된 내용과 차이가 있다. 왕하 24:12에는 8년, 19년으로 기록되었고 포로된 자의 수에 있어서도 왕하 24:14과 16절에는 18,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3) 그런데 연도의 차이는 왕의 즉위(即位) 연도를 보는 시각에 원인이 있다. 즉 유다에서는 즉위한 해를 통치 1년으로 보지만 바벨론에서는 즉위 다음해를 통치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게 된 것이다.
- (4) 한편 포로된 수의 차이는 성경의 기록이나 역사적 기록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본장의 기록은 유다 백성 중 지도층의 사람들과 귀인(貴人)들만 언급한 것이고 왕하 24장은 전쟁 포로(軍人)와 장인(匠人)들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 (5) 그리고 세번째 포로된 사건은 느부갓네살 통치 23년에 되어진 일로서 이는 예루살렘이 멸망된 지 4년 후의 일이었다. 이 사건은 유다의 총독이었던 그달라를 살해한 데 대한(참조, 왕하 25:22-25) 보복 행위로 있었던 것이다.

11. ㉠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한 바벨론 왕은 누구인가? (31절)

- ㉠ (1) 그는 에월드로닥(Evil-Merodach)이었다.
- (2) 그의 이름의 뜻은 '말독의 종'이며 느부갓네살 2세의 아들로서 그의 뒤를 이어 B. C. 562-560년에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왕으로 통치하였다.
- (3) 베로수스(Berosus)와 톨레미(Ptolemy)의 경전에 의하면 에월드로닥이 그의 매부인 네르그리살(Nerglissar)에 의해 암살당하였다.

12. ㉠ 에월드로닥은 여호야긴을 어떻게 대우하였는가? (31-34절)

- ㉠ (1) 그는 즉위 원년 12월 25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놓아 머리를 들게 하고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보다 위치를 높여 주었으며 평생 자기 앞에서 먹게 하였다. 그리고 그의 쓸 것을 날마다 공급하여 죽는 날까지 끊이지 않게 하였다.
- (2)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이 되어 석달을 통치한 뒤 바벨론에 잡혀간 뒤(참조, 왕하 24:8, 12) 37년이나 감옥에서 생활을 하였다.
-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기 때문에(참조, 요일 3:20) 당신의 백성을 압제자들로부터 호감을 얻게 하셔서 상황을 바꾸신다.
- (4)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주위의 모든 압제자들로부터 긍휼을 얻게 해주시는 하나님(참조, 시 106:46)을 바라보며 그분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참조, 시 3:8; 62:1).

예레미야 애가

Lamentations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3 : 22, 23)

חֲסָדֵי יְהוָה כִּי לֹא-תִמְנֹו כִּי לֹא-כָלוּ רַחֲמָיו
חַדָּשִׁים לְבִקְרִים רַבָּה אֱמוּנָתְךָ :

예레미야 애가 차례

예레미야 애가 서론	〈10제〉	317
제 1 장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다	〈21제〉	321
제 2 장 예레미야가 시온의 멸망을 슬퍼하다	〈15제〉	327
제 3 장 예레미야가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다	〈20제〉	332
제 4 장 예루살렘이 패망되다	〈14제〉	339
제 5 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다	〈15제〉	344

예레미야 애가 특별 자료 차례

예레미야 애가 서론 〈연구 자료〉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 특성과 주제	320
제 1 장 〈본장의 요절〉		326
제 2 장 〈화보 자료〉	빨 달린 수소 탈	331
제 3 장 〈화보 자료〉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며 울고 있는 예레미야	338
제 4 장 〈화보 자료〉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 개	343
제 5 장 〈연구 자료〉	유대인들의 형벌 제도	348

예레미야 애가 서론

1. ㉠ 본서의 명칭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뜻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명칭은 히브리어로 <에카>인데, 이것은 첫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삼았던 모세 오경처럼 본서의 첫 단어 <에카>를 그대로 본서의 제목으로 삼았다.
- (2) 여기서 <에카>는 ‘아!’, ‘얼마나!’란 뜻을 지닌 감탄사인데 랍비들은 이 말 대신 애가(哀歌) 혹은 만가(挽歌)라는 뜻을 지닌 <키노드>라는 말로 본서의 제목을 변경해서 사용했다.
- (3) 이 <키노드>는 원래 장례식에서 죽은 자를 애도할 때 사용되었던 주문(呪文)에서 유래된 말인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데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로 그 의미가 변하였다.
- (4) 이 <키노드>란 말은 탈무드(Talmud)와 70인역(LXX)에서도 제목으로 채택되었지만 오늘날처럼 ‘예레미야 애가’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은 시리아 역이나 벌게이트(Vulgate) 역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2. ㉠ 본서의 저자와 저작 연대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가 선지자 예레미야라는 것은 역사적 전승으로 내려오는 것이지만 성경 자체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 (2) 그렇지만 헬라어 역본인 알렉산드리아(Alexandria) 역에는 1:1 앞에 ‘때가 되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후 예루살렘은 황폐되었으므로 예레미야는 앉아서 예루살렘에 대해 이애가로 울며 말했다’는 기록이 있고 벌게이트(Vulgate) 역이나 탈굼(Targum) 역에서도 같은 말이 기록되었다.
- (3) 이외에도 예레미야서와 본서가 지닌 상호간의 유사점에서 그 저자는 동일 인물인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그것은 두 책 모두가 자신들이 저지른 민족적 죄과(罪過)와 거짓 선지자들과 맺은 제사장들의 군사 동맹을 유다 백성들이 너무 신뢰하였기 때문에 재앙을 받게 되었다고 지적하는 점이다.
- (5) 또한 두 책에는 서로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의 딸’(예레미야서)과 ‘처녀...’(애가서)로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모두 <바트>란 단어로 썼으며 각 권에서 20번 가량 나타난다(참조, 1:6; 2:1; 4:11; 램 4:11; 6:2; 8:21).
- (6) 특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의 두려움(3:57; 램4:24)과 예루살렘의 적들이 반드시 벌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4:22; 램 2:3) 등이 두 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7) 이런 점에서 두 책의 저자가 동일 인물이며 더우기 예레미야가 두 책의 단일 저자라는 것이 분명하다.
- (8) 이와 같이 본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본서는 다른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 장들간에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기는 하나, 예루살렘의 멸망(B.C. 586) 후 오래 되지 않는 시대, 즉 예레미야가 생존(B.C. 650 - 585)하고 있을 때 기록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 (9) 즉 본서는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직후에 기록된 것이 틀림없다.

3. **㉠** 본서가 지닌 형식상 특성은 무엇인가?

- ㉠** (1) 본서는 대부분 구약의 시가서에서처럼 시적 운율을 지닌 히브리어 알파베트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 (2) 특히 본서는 히브리 시(詩)에 대한 운율적인 구조를 명확히 알게 해주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시가서이므로 다른 히브리 시에서보다 시적 형식이 더욱 뛰어나다.
- (3) 그리고 문장의 종류 면에서 살펴본다면 1장에서 4장까지는 애가의 형식을 지니고 있지만, 5장은 애가라기 보다 기도문에 더 가까우며, 다른 장과는 다르게 알파베트 순서가 완전히 무시되었다.
- (4) 또한 3장에서는 본서가 지닌 슬픈 내용을 가슴에 새겨 사람들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같은 알파베트를 세 번씩 반복해서 썼지만 시가 지닌 아름다움과 우아함을 잃지 않았다.
- (5) 2-4 장에서는 히브리어 알파베트 순서로 쓰지 않고 <아인>과 <페>의 위치를 바꾸어 사용했다.
- (6) 여기에 대해 라이트푸트(Lightfoot) 박사는 <아인>과 <페>의 위치를 바꾸어 70이라는 수자의 의미를 지닌 <아인>을 강조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될 해가 70년 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상기시켰다고 주장했다.

4. **㉠** 본서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 예레미야 당시 유다의 운명은 정치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 (2) B.C. 605년에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Carchemish)에서 애굽의 군대를 격파하였기 때문에 당시 애굽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다는 바벨론에 복속되고 말았다.
- (3) 그리고 B.C. 601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애굽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다시 애굽에 쳐들어갔지만 그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 (4) 예레미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 여호야김은 이때를 이용하여 바벨론에 대해 반기를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을 쳐서 1만여 명을 인질로 잡아갔다.
- (5) 그 후 바벨론은 3차례나 유다를 침략하여 마침내 B.C. 586년에 예루살렘의 도성과 성전을 파괴함으로 유다를 멸망시켰다.
- (6) 이러한 환경에서 예레미야는 당시의 파멸을 슬퍼하며 날카로운 묘사로 애가를 기록하였다.

5.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애가는 단순히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멸망을 되새기려는 목적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준엄하게 심판하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쓰여졌다.
- (2) 다시 말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의 교훈을 배우게 하여 어려운 재난에 직면할 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세를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이다.
- (3) 그러므로 본서는 단지 과거의 슬픔에 대한 묘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찬란한 희망의 빛을 보여 줌으로(3장) 성도들의 나아갈 바를 제시해 준다.

6. **㉠** 본서를 통하여 나타내려는 예레미야의 의도는 무엇인가?

- ㉠** (1) 그것은 유다 백성이 당한 비극을 비통한 슬픔으로 표현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주시한 데 있다.
- (2) 유다가 징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도록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에 대한 불만과 슬픔의 고통을 억제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 (3) 이러한 예레미야의 지대한 노력은 임박한 심판에 대하여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게 함으

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을 그에게 인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 (4) 유대인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애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본서를 성전 파괴 기념일에 읽도록 정하였다.
- (5) 한편 그것은 오늘날 교회의 전투적 성격을 본서에 연관시켜서 생각한다는 점과 유다가 당한 심판은 앞으로 있을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여긴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연관성을 가진다.
- (6)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나타내려는 궁극적 의미는 성경의 전체 흐름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에 있다.

7. ㉠ 본서가 취급하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는 어떤 것인가?

- ㉠ (1) 본서는 예루살렘에 대한 슬픈 통곡을 표현했는데 예루살렘을 과부가 되어 쫓겨 난 공주로 묘사하였다. 즉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킴으로 과거의 영광보다 현재의 비참함과 굴욕을 크게 부각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백성들에게 더 깊은 누우침을 주기 위해서이다.
- (2) 이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세상을 향해 통곡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 (3) 또한 본서는 신정 정치가 몰락할 때에 경건한 신자가 지녀야 될 태도를 보여 준다. 이것은 심판과 보상에 대한 신명기적 교리의 반복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면 평화와 축복을 누리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순응하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신명기적 교리의 관점으로 보아 유다의 멸망은 그들이 쌓아 올린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8. ㉠ 본서가 쓰인 용도에 대하여 말하라.

- ㉠ (1) 이 애가는 압 월(태양력 7, 8월) 제 9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에 낭독되었는데 항상 5:21을 22절에 반복 낭독함으로 긍정적인 내용에 가까와지도록 했다.
- (2) 로마 카톨릭에서는 지금까지 이것을 고난 주간(Holy week)의 마지막 3일 동안에 읽고 있다.
- (3) 이러한 점에서 본서는 유대교에서 뿐만 아니라 기독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9.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황폐된 예루살렘 성 / 1:1-22
 - ① 환난으로 예루살렘 성이 훼파(毀破)되다 / 1:1-11
 - ② 예루살렘 성이 당한 고통 / 1:12-22
- (2) 예루살렘 성의 참상(慘狀) / 2:1-22
 - ① 심판하시는 하나님 / 2:1-10
 - ② 선지자의 비탄(悲嘆) / 2:11-22
- (3) 선지자의 혼란스러운 마음 / 3:1-66
 - ① 예레미야의 슬픔 / 3:1-8
 - ② 예레미야의 희망 / 3:9-42
 - ③ 예레미야의 고통 / 3:43-54
 - ④ 예레미야의 기도 / 3:55-66
- (4) 고난당한 예루살렘의 백성들 / 4:1-22
 - ①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한 기간 / 4:1-12
 - ② 포위당한 이유 / 4:13-20
 - ③ 에돔의 징벌과 미래에 대한 희망 / 4:21, 22

(5) 유다 백성을 위한 기도/5:1-22

① 회개의 기도/5:1-18

②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는 선지자의 기도/5:19-22

10. ㉞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㉞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5:21).

연구자료

예레미야 애가의 문학적 특성과 주제. 본서를 이루고 있는 주요 배경은 공공(公共)의 비탄(悲嘆)이다. 게다가 본서에 나오는 다섯 편의 시는 그 제재(題材)에 있어서 시편과 많은 공통점을 보여 주고 있다. 즉 본서의 저자는 민족적 재난과 그로 인한 수치에 대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며 또한 민족을 대표하여 지난날의 과오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내용을 좀더 정확히 묘사하기 위하여 저자는 조가(弔歌)와 비가(悲歌)라는 문학적 형식을 빌어 본서를 기술하고 있다. 이중 조가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구조적 반전(反轉)이다. 즉 조가는 찬양과 애도가 그 기본적인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죽은 자에 대한 찬사(讚辭)는 계속적으로 그의 생전의 영광과 공덕 곧 신체적인 탁월함(참조, 4:7; 사 52:14; 53:2)이라든가 그의 부귀와 호화로운 의상, 수많은 자녀와 아내들(4:5; 겔 27:3) 등에 대하여 강조한다. 그러나 애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생전과는 다른 현재의 비참한 상태에 크게 슬퍼하는 대목이 나온다. 이에 생존자들의 유기(遺棄)된 형편에 대하여 슬퍼하는 내용까지도 포함된다(1:1). 특히 고인이 당하였던 비참한 죽음(1:19)과 이와는 달리 크게 기뻐하는 대적들의 사악한 모습(2:15, 16)에 대한 비탄의 글은 읽는 자로 하여금 비감(悲感)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처럼 과거의 영광과 대비되는 현재의 비참함과 굴욕은 '그때'와 '지금'('본래'와 '이제')이라는 두 단어로 정교히 기술되고 있다(참조, 1:1). 한편 이상과 같은 구조적 반전은 본서의 주제를 더욱 부각시켜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과는 달리 암울하고 비참한 현재의 상황은 온 백성이 이러한 비극의 원인에 대하여 뒤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촉구해 준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준엄한 심판을 내리신 근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로써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이전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바로 여기에 본서의 주제와 관련된 본서의 두드러진 문학적 특성이 있는 것이다.

제 1 장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게 되다

단락구분 1-9 예루살렘 성이 비침한 처지에 이르다 / 10-12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다 / 13-19 예레미야가 자신이 처지를 하소연하다 / 20-22 원수들에 대한 저주

1 슬프다 이 성이여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드리는 자가 되었다다

2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다

3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함이며 그 모든 꺾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4 시온의 도로가 처량함이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를 받았도다

5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곤고케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6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며 저의 목땀은 꿀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릴 같도다

7 예루살렘이 환난과 곤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함이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은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8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므로 불결한 자 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9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을 생각지 아니함이며 그러므로 놀라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10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11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로 식물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권고하옵소서

12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

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불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13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며 종일토록 고적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14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고 엎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음이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15 주께서 내 지경 안 모든 용사를 없는 것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심이며 처녀 유다를 슬픔에 빠셨도다

16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성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17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였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18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불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19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성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20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패역이 심히 큼이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륙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21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22 저희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같이 저희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고, 남은 백성이 비참한 처지에 있었을 때 죄책감을 느낀 예레미야가 그 민족을 대표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했다.
- (2)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한 고난을 자기의 고난으로 묘사하여 그 고통을 모두에게 항변(抗辯)하였다. 이 항변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와 원수들에 대한 저주도 내포되어 있다.
- (3) 이것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해주며 항상 당신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참조, 히12:1,2).

2. **㉠ '이 성'은 어디를 말하는가? (1절)**

- ㉠ (1) '이 성'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황폐하여진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
- (2)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중심지였다는 것과 당시 팔레스틴의 주요 상업 도시들 중 하나였다(참조, 대하1:15-17)는 사실로 보아 매우 큰 도시였음에 틀림없다.
- (3) 과거에는 큰 도시로 이름을 떨친 예루살렘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이 지은 죄악의 결과로 완전히 훼파(毀破)되고 말았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번창했던 도시도 하루아침에 황폐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 준다(참조, 시127:1).

3. **㉠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열방 중에 공주'라고 묘사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과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각 지방들 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 주관했기 때문이다.
- (2) 이것은 역사 속에서 잘 증거되고 있는데 다윗이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여 주관한 것(삼하 8:1-4; 10:6-19)과 솔로몬의 통치에서(왕상 4:21, 24), 또한 웃시아 치하(治下)에서(대하 26:6-8) 명확히 드러난다.
- (3) 특히 스 4:20에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君王)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하며 조공과 잡세와 부세(賦稅)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 당시의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다.
- (4) 이렇게 예루살렘이 부강하게 되었던 것은 그 당시 왕들과 백성들의 신앙 태도가 올바르다는 것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신앙 태도가 바르지 못할 때 항상 진노의 채찍을 가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민 25:3; 렘 7:23).
- (5) 그러므로 축복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참조, 신 12:28).

4. **㉠ '조공'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조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쓰>는 원래 '노역'(勞役)이란 뜻을 지녔다.
- (2) 이러한 의미를 본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 한때에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렸던 자가 이제는 친한 노예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3) 즉 예레미야는 이 말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비참함을 연결시켜서 지금 왜 자신들이 이러한 처지에 있어야 하는가를 상기시키고 있다.
- (4) 우리는 환난에 처해 있을 때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대부분 한탄만 한다. 이것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요건 중에 하나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환난을 통해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속히 발견하도록 그에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행 14:22; 롬 12: 12).

5. **㉠ '사랑하던 자'와 '친구'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 (1) 이 말은 예루살렘과 동맹을 맺었던 많은 나라들(애굽, 모압, 암몬, 베니게)을 가리키는데, 특히 유다 백성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했던 애굽을 지칭한다.
- (2)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 뿐만 아니라 주변의 작은 나라와도 서슴지 않고 동맹을 맺었다.

(3) 이들이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기 보다 인간을 의지한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 때문에 그들은 믿었던 나라에게서 오히려 배신당하였고 마침내 멸망당하고 말았다(참조, 왕하 24:2).

(4) 이처럼 우리가 의뢰할 대상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가변적(可變的)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절대자이시며 불변하신 하나님께 대한 의뢰는 영원하다(참조, 시 125:1).

6. ㉠ **잡혀간 유다 백성의 고통은 어떠한가? (3절)**

㉠ (1) 유다 백성은 압박과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다. 그러나 이 말은 억지로 포로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에 응했다는 뜻이다(Calvin).

(2)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을 지배하는 갈대아인들의 폭정에 이기지 못하여서 다른 나라로 잡혀가기를 자청했기 때문이다(참조, 렘 43:4-7).

(3)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평강을 얻으려고 자기 나라를 떠났지만 포로된 신세로 어느 곳에서도 평온한 거처를 구할 수 없었고, 오히려 모욕과 경멸만 받을 뿐이었다.

(4)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한 인간의 선택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움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5)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 성도가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자신의 죄악에 대한 고백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주시하며 그 뜻에 따르는 것이다(참조, 신 30:1).

7. ㉠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1) 이 말은 예레미야가 '시온으로 통하는 도로의 황량함'을 강조하기 위해 의인법(擬人法)으로 표현한 것이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중지된 데 대한 비통한 슬픔을 이런 말로 표현했다.

(2) 전에는 이 시온의 도로가 예배와 절기를 지키려는 유다 백성들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배와 절기가 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3) 그러나 당시 고통당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여러 나라에 흩어지므로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자 시온의 도로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4) 과거의 유다 백성들 및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생활한다. 그렇지만 신앙의 태도는 그들에 비해 더 철저하지 못하고 나태해 있다. 우리는 이런 때일수록 신앙 생활에 태만해서는 안 된다. 언제 우리 앞에 유다와 같은 처지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5) 과거를 생각해 보라. 일제의 압박 속에서나 공산 치하 때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가. 그러므로 환경이 좋을수록 신앙의 경성함이 필요하다(참조, 눅 21:36).

8. ㉠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곤고(困苦)를 받았도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1) 이 말은 절기를 맡아 주관하며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제사장들이 갈대아인의 압박 때문에 탄식하고, 절기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처녀들(참조, 시 68:25; 렘 31:13)도 슬퍼한다는 의미이다.

(2) 이러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되었다. 성전이 파괴되고 감사도, 제사도, 찬양도 없게 되자 그들의 처지는 더욱더 비참하게 되었다.

(3) 예배는 성도들에게 가장 기본되는 의무이자 권리이다(참조, 신 10:12, 13). 성도가 예배

를 드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것이다.

9. **㉠** ‘대적’과 ‘원수’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가? (5절)

㉠ (1) 유다를 압박하는 바벨론을 가리킨다.

(2) 이 말을 설명한 귀절인 ‘저의 대적이 머리가 되고’라는 표현은 모세가 신28:13에서 했던 말의 형식을 빌려 쓴 것이다. 유다 백성이 당한 이러한 상황은 정작 신28:44의 말 씀을 이룬 것이다.

(3) 사실상 유다 민족이 쇠퇴할 때 이에 반하여 바벨론은 찬란하게 번성하였다(참조, 욥12:6; 시122:6; 렘12:1)

(4) 이러한 원수의 번영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불의하심에 의해 생긴 것도 역시 아니다. 다만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일 뿐이다.

(5) 이것은 죄를 지은 결과가 반드시 우리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참조, 레26:21).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며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참조, 고후1:3,4).

10. **㉠**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간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1)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이다. 부모의 죄로 인하여 어린아이들까지도 고난을 당해야 하였다.

(2) 대적 바벨론 군사에게 끌려가는 소년들의 모습을 유다 백성들은 비참함과 분노의 눈길로 바라보았을 것이다.

(3)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철저하시다. 그 철저하심은 인간에게 반드시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참조, 겔18:30).

11. **㉠**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감이어’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6절)

㉠ (1) 먼저 시온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거처로 삼으신 것(시132:13)과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렘31:31)을 통해 나타난다.

(2)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게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온갖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

(3) 그렇지만 이제 그들은 저지른 죄의 결과로 최고의 영광을 가졌던 예루살렘이 영예를 빼앗기고 대신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4)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사실은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뜻한다(참조, 2:1, 6; 삼상4:21, 22).

(5)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회개의 길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을 펴신다(참조, 렘25:5; 26:13).

12. **㉠** ‘목백’(牧伯)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6절)

㉠ (1) 예루살렘이 아주 곤경한 시기에 있을 때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한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와 그 족속들을 가리킨다.

(2) 이들은 본질에서 짊을 찾지 못한 사슴으로 묘사되었다. 당시 사슴은 발이 빠르고 귀한 동물로 취급되어졌다. 그러나 본질에서는 굶어서 도망할 힘을 다 잃어버린 사슴으로 묘사되었다.

(3)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으며 그들 위에 군림하였던 시온의 방백(方伯)들은 바벨론의 무리에게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

(4)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시지만 그들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들에게 내리신 존귀와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징계로 자책(自責)하게 만드신다(참조,

잠 5:7-9).

13. **Q** '옛날의 모든 즐거움'은 언제 누렸던 즐거움을 가리키는가? (7절)

- A** (1) 이스라엘 민족들은 한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융성하였던 적이 있다. 특히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의 시대가 그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를 돌이켜 보곤하였다(참조, 시 42:3, 4).
- (2) 한편 본질의 이러한 표현은 그 민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암시해 준다.
- (3)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에 대해 무감각하다. 그렇지만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고 진정한 축복이 올 것을 기다리며 생활하게 된다(참조, 신 4:30; 대하 33:12).

14. **Q** 유다 백성들이 낮아지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8, 9절)

- A** (1) 유다 민족들이 불리한 위치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 (2) 그들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거역한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부정과 불경건한 죄악에 빠져 있었다(참조, 렘 32:30-35).
- (3)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정한 심판장이시며, 결코 평범한 거역 때문에 징벌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하는 엄청난 죄악으로 인해 징벌하신다(참조, 단 9:5).

15. **Q**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서 저지른 죄악은 무엇인가? (10절)

- A** (1) 바벨론 군대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보물들과 제기(祭器)들을 약탈해 갔다. 이방인들은 주의 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법(참조, 신 23:2, 3; 겔 44:7, 9)인데 그들은 아무런 거리낌없이 성전에 들어와 만행을 저질렀다.
- (2) 제사장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성소에 바벨론 군대들이 경배하러 왔다고 할지라도 규례를 범하는 것이 되는데, 약탈과 파괴를 하였으니 경건한 백성들에게는 심한 고통이 되었을 것이다.
- (3) 이러한 일의 원인은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자체가 외식(外飾)으로 가득 차 있어 성전의 시설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것으로 여겨 그것이 외적(外敵)의 침입을 막아 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참조, 삼상 4:3; 렘 7:3).
- (4)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할 때 보이는 것에 얽매이기 쉽다. 교회당 자체를 신성시하는 행위, 성상(聖像)을 숭배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생활이 필요하다(참조, 요 20:29).

16. **Q** 당시 예루살렘 백성들의 생활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11절)

- A** (1) 예루살렘 성의 포위로 유다 백성들은 양식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기들이 가진 모든 보물을 팔아야 했다.
- (2) 이것은 생명을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양식이 결핍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한다.
- (3) 그러한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는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환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뢰해야 하는 신자의 태도를 가르쳐 준다(참조, 삼하 22:7).

17. **Q**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근심은 무엇인가? (12절)

- A** (1)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당하고 있는 환난을 보며 민족의 대표자로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 이상의 것을 느꼈다.
- (2) 본절에서 예레미야는 지나가는 다른 민족에게 자기가 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근심이 없는가 하고 물었는데 이것은 다른 민족에게는 이와 같은 환난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 (3) 그러므로 본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더욱 큰 징계를 하신다'(참

조, 삼하 7:14)는 사실을 알려 준다.

18. ㉠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어떠하였는가? (13-15절)

- ㉠ (1) 범죄한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없었다. 불이 위로부터 퍼부어져 예루살렘 성은 골수(骨髓)까지 산산히 짓밟혔고 또한 그 발에 함정을 파서 넘어지게 하여 하나님은 그 성의 멸망을 초래하게 하셨다.
- (2) 그리고 처참하게도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지은 죄(14절)로 멍에를 메게 되었고 그 압박 아래 죽은 시체의 피는 포도주처럼 흘렀다(15절). 본절에서 예레미야는 그 민족이 당하는 환난을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지적하였다.
- (3)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활 중심에 있는 하나의 원과 같다. 거기에서 탈출하려는 것은 심판의 영역에 침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해야지, 벗어나길 힘쓴다면 패망만 있을 뿐이다(참조, 대상 28:9).

19. ㉠ 유다 백성들이 당한 수모는 어떠하였는가? (16, 17절)

- ㉠ (1) 유다 백성은 징벌을 받을 때에 그들을 위로해 주는 자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은 유다 백성의 원수가 되었다. 진정으로 그들은 그때 열방 중에서 가장 '불결한 자처럼' 취급당하였다.
- (2) 즉 예루살렘은 모든 나라 가운데서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여기에 따른 그들의 비참한 광경은 그들이 범했던 최악의 추태를 남들에게 드러내어 보이게 되었다.
- (3) 신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소외된다는 것은 실로 비참한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신앙으로 끈기있게 견뎌야 한다(참조, 롬 12:12).

20. ㉠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18, 19절)

- ㉠ (1)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했다. 이와 동시에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와 관련이 있으며 지금 비참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2)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므로 유다 백성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거나 행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보다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강조하였다.
- (3) 성도의 자세는 환난 중 하나님께 원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처럼 자신의 죄과(罪過)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다(참조, 느 9:17).

21. ㉠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는가? (20, 22절)

- ㉠ (1)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대한 동정과 대적들에 대한 보복을 간구했다.
- (2)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원수들이 조롱하여 기뻐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의 원수들이 보용받을 사실을 내다보며 기도했다.
- (3) 그러므로 성도는 남의 실패를 기뻐하기 보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참조, 고전 10:12).

본장의 요절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하므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이던 모든 자가 그 적신(赤身)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8절).

제 2 장 예레미야가 시온의 멸망을 슬퍼하다

단락구분 1-10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다 / 11-13 유다 백성이 고난을 당하다 / 14-16 유다의 고난을 원수가 비웃다 / 17-19 하나님이 유다 백성의 회개를 원하시다 / 20-22 하나님께 대한 간구

1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시니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2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시고 궁홀히 여기지 아니하셨음이며 노하시니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덮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3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음이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4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륙하셨음이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붙처럼 쏟으셨도다

5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음이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훼파하시니 처녀 유다에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6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 버리시며 공회 처소를 훼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니 진노하시니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7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와의 전에서 원화하기를 절기 날과 같이 하였도다

8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훼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시니 성과 꼭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쇠하였도다

9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훼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10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턱끝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베를 허리에 둘렀음이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11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에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처녀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혼미함이라

12 저희가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혼미하여 그 어미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미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13 처녀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네게 비유할고 처녀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네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고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칠소나

14 네 선지자들이 네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네 죄악을 드러내어서 네 사로잡힌 것을 들이키지 못하였도다 저희가 거짓 경교와 미혹케 할 것만 보았도다

15 무릇 지나가는 자는 다 너를 향하여 박장하며 처녀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천하의 희락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나 하며

16 너의 모든 원수는 너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비소하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저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하도다

17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음이며 궁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훼파하시니 원수로 너를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며 너의 대적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18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곽이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19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20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누가 이같이 행하였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끈 손에 받든 아이를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21 노유는 다 길바닥에 엎드려서오며 내 처

너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신 날에 죽이시되 공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살륙하셨나이다
22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

를 절기에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었나이다 내 손에 받들어 기르는 자를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1. **㉠** 본장의 강조점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예루살렘의 몰락과 유다의 멸망이 1장보다 더 격한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다. 즉 예레미야는 본장에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서 행하신 심판을 취급하고 있다. 특히 심판을 주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 (2) 본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10절에는 주님이 주재하시는 심판이 나타나 있고, 11-22절에는 그 심판을 슬퍼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3) 유다 사람들이 고난의 원인을 생각치 않고 단순히 나타난 현상만을 슬퍼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쉽게 좌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원망할 때가 많으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성찰(自己省察)을 하여야 한다 (참조, 신 4:30).

2. **㉠**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라고 예레미야가 외친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예레미야는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노로 버리셨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불변하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름 속에서 무감각해진 백성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한 것이다.
- (2) 유다 백성들은 극심한 재앙에 놀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악함은 한층 더 하였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본절을 말한 의도는 백성들 사이에 만연된 강박함을 감화시키는 데 있었다.
- (3)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수백 번 다른 마음을 품는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대해 주신다. 우리는 그분과 맺은 언약이 인간의 공적(功績)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한다(참조, 롬 11:5; 벰전 5:10).

3. **㉠** '야곱의 모든 거처' 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2절)

- ㉠** (1) 이 말은 야곱의 목장들이란 뜻으로 유다 지방을 가리킨다.
- (2) 하나님의 진노는 일부 지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다 전역에 미쳤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진노가 무서운 것이었음을 말하여 준다.
- (3) 실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왕국(참조, 삼하 7:24)을 인간이 임의로 더럽혔다는 것(참조, 렘 32:34)은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당하도록 방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너무나 큰 죄악이다.
- (4) 성도들의 몸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殿)이다(고전 3:16).
- (5) 그러므로 자신의 몸이라도 임의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성도는 항상 성결의 생활을 해야 한다(참조, 고전 6:19).

4. **㉠**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에 의해 찢리운 것은 무엇인가?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뿔(힘과 권세)을 자르셨다. 이 진노는 가벼운 반역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불경건이 극심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 (2)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통해 그 백성이 재앙을 평범한 방법으로 애통해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크신 진노의 원인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맹렬히 격노하신 것은 공정한 일이므로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 (3)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실 때 인간의 가능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신다. 왜냐하면 인간의 미약함을 통하여 당신에게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이다.

5. **㉠** ‘원수’와 ‘대적’으로 비유된 것은 누구인가? (4,5절)

- ㉠** (1) 하나님이다. 유다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수처럼 되셨다.
- (2) 하나님이 원수같이 활을 당기셨고, 이스라엘을 삼키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약1:13)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 환난을 허락하신 것이다(렘30:14).
- (3)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며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범죄할 때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들을 바로 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취하시는 태도이다(참조, 히 12:6).

6. **㉠**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6,7절)

- ㉠** (1)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나타내신 진노의 극한점(極限點)은 당신을 위해 세운 성막과 제단과 성소를 헐어 버리셨다는 사실에 잘 나타났다.
- (2) 하나님께서 제단, 성전, 언약궤, 절기 등 신성한 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셨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데 특별히 소용되는 대상이지만 이제는 무시되었고, 던져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 (3)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으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진노로 대하신다(참조, 사 1:11-13).

7. **㉠** 하나님의 결심은 무엇인가? (8,9절)

- ㉠** (1)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
- (2) 여기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온갖 헛된 생각을 함으로써 제멋대로 타락하고 따라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므로 우연히 헐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명령에 따라 헐린 것이라고 했다.
- (3)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주 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부패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 이때에 우리의 자세는 당신께 돌아서서 참회개하는 가운데 복종하며 회개하기를 힘써야 한다(참조, 욕 22:21).

8. **㉠** 예루살렘 성읍의 백성들이 재앙의 충격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10절)

- ㉠** (1) 유다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들은 땅에 앉아 잠잠하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유다 백성들)은 실망 가운데 머리를 땅에 숙였다.
- (2) 장로들은 어쩔 줄 모르고 애통해 하기만 하였고 다른 백성들 역시 그들의 행동을 따라 슬퍼하기만 하였다. 예레미야는 장로들이 이런 슬픔을 통해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직 슬픔의 표시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 (3) 우리들은 가끔 환난에 처해 있을 때 한탄만 하였지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못한다. 이러한 슬픔과 탄식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환난의 때에 자신의 잘못을 바라보는 것은 신자의 의무이다(참조, 대하 33:12).

9. **㉠** 예레미야는 슬픔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1절)

- ㉠** (1) 내장이 파열하는 듯한 아픔으로 묘사하였다.

- (2) 예레미야는 자기 몸의 모든 기관이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본질을 통해 나타내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크나큰 재난으로 인해서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을 보여 주는 말이다.
- (3) 예레미야가 통곡하여도 백성들 중에 듣는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이 강박하여 옳은 말을 수용할 줄 모르고 감언 이설(甘言利說)에만 귀기울이는 이기주의(利己主義)로 치닫고 있다. 이것은 자멸만 초래할 뿐이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음성)에 귀기울여야 한다(참조, 창35:3).

10. ㉠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당한 곤경을 무엇으로 비유하였는가? (12, 13절)

- ㉠ (1) 기근이 심해서 음식을 찾으며 어머니의 품안에서 죽어 가는 아이들로 묘사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예루살렘의 파괴 정도가 복구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이다.
- (2)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기근을 이처럼 의인법으로 묘사하여, 그 처참함을 날카롭게 나타내었다.
- (3)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악을 가혹하게 벌하셨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우리의 사악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발하시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참조, 출 15:7).

11. ㉠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14-16절)

- ㉠ (1)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대신에 평화와 영화를 예언하였다(참조, 렘 8:11).
- (2) 그러나 결과적으로 비참과 비웃음만이 유다 백성들 앞에 놓이게 되었다. 그들을 침략한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
- (3) 항상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예언만을 줄 뿐이다. 당시에는 그 말이 정당한 것 같고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결과는 패망뿐이다(참조, 요일 4:1; 계 20:10).

12. ㉠ '옛날에 명하신 말씀' 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 ㉠ (1) 유다 민족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임을 보여 준다.
- (2) 예레미야는 본질에서 '옛날에'란 말을 첨가하여서 유다 백성이 자기 죄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죄악을 따르고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였다. 즉 옛날에 모세는 이 일에 대해 여러 번 경고로써 예언하였던 것이다(참조, 신 4:25-31; 30:1-10).
- (3) 우리가 짓는 모든 죄악은 우리 자신들이 말씀을 멀리한 결과이다. 우리의 성품이 강박해지면 해질수록 말씀에 둔감해진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소양(素養)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참조, 신 4:2).

13. ㉠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경고하였는가(18, 19절)

- ㉠ (1)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경고하였다. 부언하면 유다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는 것이다.
- (2) 그 기도는 눈물로써, 깨어서 간절히 해야 한다고 예레미야는 말했다.
- (3) 고난 중에 있더라도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눈물로써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성도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다(참조, 롬 12:12).

14. ㉠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비극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20, 21절)

- ㉠ (1) 여인들은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 때문에 자기가 사랑스럽게 기르던 아들을 먹게 되었으며, 성전에는 살륙당한 선지자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고, 도로에는 매장되지 않은 채 버려진 시체들이 즐비했다.
- (2) 당시 갈대아인이 행한 살상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한다. '하나님이 갈대아인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매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대하 36:17).

- (3) 이는 갈대아인들이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특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값을 받게 하신 것(참조, 렘14:16-18)을 말한다.
- (4) 인간에게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하소연하여 위로를 받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 (5) 다만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만이 완전한 해결을 줄 수 있다.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요 피할 견고한 망대이시다(참조, 시 61:3, 4).

15. **Q** '주께서 내 두려운 일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22절)

- A** (1) 백성이 극심한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2) 당시에는 축제일이 가까울 때면 나팔을 불어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았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두려운 일을 예루살렘으로 모아 백성을 괴롭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다. 덧붙여서 이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자는 없다고 말했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배치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벌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참조, 겔 18:30).

화보자료

뿔 달린 수소
탈. 헤라클레이
온 고고학 미
술관에 소장되
어 있는 이 탈
은 그레테 사람
들(Cretans)이
숭배하던 수소
신의 주물(鑄
物)이다.



히브리인들은 '뿔' (horn) 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종종 '힘'과 '권력', '보호'를 상징하였다(참조, 출 38:2; 왕상 1:50; 시 75:10). 이 같은 히브리식 표현법이 본장에도 나오는데 곧 '대적의 뿔'이란 말이다(17절). 그러므로 여기서 '대적의 뿔이 높이 들렸다'는 말은 대적의 세력이 막강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제 3 장 예레미야가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다

단락구분 1-18 유다 백성이 당한 환난의 형편 / 19-39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자비와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을 가지다 / 40-41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요구하다 / 42-66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다

1 여호와와 노하신 때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2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3 종일토록 손을 들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도다
 4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셨고
 5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에우셨으며
 6 나로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오렌자 같게 하셨도다
 7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8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
 9 다들은 들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하셨도다
 10 저는 내게 대하여 엎드리어 기다리는 곱과 은밀한 곳의 사자 같으사
 11 나의 길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로 적막하게 하셨도다
 12 활을 당기고 나로 과녁을 삼으심이여
 13 전동의 살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14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15 나를 쓴 것으로 배불리시고 썩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16 조약들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17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음이여
 18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회포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썩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21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옵은
 22 여호와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와 나의 기업이 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멩을 메는 것이 좋으니
 28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29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라도
 30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1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32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34 세상에 모든 갇힌 자를 발로 밟는 것과
 35 지극히 높으신 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36 사람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것은 다 주의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37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38 화, 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니라
 39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40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41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2 우리의 범죄함과 패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43 진노로 스스로 가리우시고 우리를 군축하시며 살육하시라 긍휼을 빼앗지 아니하셨나이다

44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45 우리를 열방 가운데서 진개와 폐물을 삼으셨으므로

46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47 두려움과 함정과 잔해와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48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49 내 눈의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함이어

50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리노도다

51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를 인하여 내 눈에 내 심령을 상하게 하는도다

52 무고히 나의 대적이 된 자가 나를 새와 같이 심히 쫓도다

53 저희가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어

54 물이 내 머리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55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56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옵소서

57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하셨나이다

58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을 펴셨고 내 생명을 속하셨나이다

59 여호와여 나의 억울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옵소서

60 저희가 내게 보수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감찰하셨나이다

61 여호와여 저희가 나를 훼파하며 나를 모해하는 것

62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과 종일 모해하는 것을 들으셨나이다

63 저희가 앉든지 서든지 나를 노래하는 것을 주여 보옵소서

64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옵하시라

65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시며

66 진노로 저희를 군축하시라 여호와와 천하에서 멸하시리이다

1. ㉠ 본장에서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 ㉠ (1) 본장은 낙심과 절망적인 비극에서 경건한 자의 심각한 영적 고통을 제시함으로써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고통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전능하신 섭리를 통해서 소망으로 이어지고 또한 그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침내 유다 백성들은 인정하게 되었다.
- (2)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는 유다 백성이 당신께 간구하게 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으시며 도움을 보내시고, 원수들을 응징하겠다는 약속을 하셨다.
- (3) 여기에서 1인칭으로 묘사된 ‘나’는 예레미야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당시 유다 백성을 지칭하는 말도 되며 지금 우리를 나타내는 말로도 받아들여진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통을 당할 때에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끊이지 않는 간구와 회개가 있어야 하겠다(참조, 대하20:9).

2. ㉠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예레미야를 어떻게 대하셨는가? (1-3절)

- ㉠ (1) 흑암에 처하게 하시고 진노의 채찍을 가하셨다.
- (2)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이토록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을 통해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을 흑암에 거하도록 하셨다.
- (3) 하나님은 때때로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데 그것은 멸절(滅絶)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채찍이다. 이 진노가 당시는 슬픈 것일지라도 유다 백성들에게는 유익한 시련이었다.
- (4) 우리가 이 채찍으로 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진노가 정당하고 또한 그 고난은 자비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사26:16).

3. **㉠**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이 어떠하다고 하였는가? (4,5절)

㉠ (1) 신체적 손상으로 자신의 고통이 처절하다고 말하였다.

(2) 그리고 그 고통은 자신의 주위를 온통 싸고 있어서 그 고난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고 예레미야는 덧붙여 이야기했다.

(3) 예레미야는 외적인 재앙과 하나님의 보응에 나타난 증거를 중요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권고하셨지만 가능성이 없는 자들은 결국 정의대로 극도의 보응을 행하셨다.

(4)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임의로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때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깨달아서 자신의 잘못을 그분께 고해야 한다(참조, 롬 2:5).

4. **㉠** 도움을 구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나? (6-9절)

㉠ (1) 고난에서 피할 길을 부르짖는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피하지 못할 환난의 답으로 유다 백성을 들러싸셨다.

(2) 앗시리아인들에게는 죄수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 가두는 관례가 있었다. 이 귀절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직접 그 고통을 경험했던 것처럼 묘사하여 유다 백성들의 고통과 접맥(接脈)시켰다.

(3) 사실 유다 백성이 당했던 고통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는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느껴졌던 것이다.

(4)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자기의 기도가 무익하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말씀(욥2:32)과 배치(背馳)되는 말이 아니다.

(5) 다만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들을 불안하게 하여 인내를 시험하시려고 때때로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 들어주실 때도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연기하시고 지체하시는 이유이다(시22:1, 2; 눅 18:7).

5. **㉠** 하나님 앞에서 유다 백성의 처지는 어떠하였는가? (10-13절)

㉠ (1) 사나운 맹수가 먹이를 기다리듯 여호와의 진노는 유다 백성의 한 발치 앞에 놓여 있었고 곧 그 진노는 유다 백성을 향해 치명적인 상처를 주었다.

(2) 하나님의 진노는 처참하리 만큼 유다 백성에게 미쳤다.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찢고 절단하듯 황폐와 파괴(1:4, 13, 16), 쓸쓸함과 외로움(참조, 겔6:14)이 온 유다 땅에 가득했다.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 자에 대해서 무서울 정도로 보복을 가하신다(참조, 민 14:35; 렘 4:17).

6. **㉠** 예레미야가 자신이 당한 고통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4-18절)

㉠ (1) 그는 자기 동족들에게 조롱을 당해야 했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까지도 의심하게 되었다.

(2) 이는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닥친 시련에 굴복했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짧은 시기 동안 그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압도되었던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3) 성도는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하듯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성도의 태도이다(참조, 롬 4:18; 히 11:1).

7. **㉠** 예레미야가 절망 중에서 소망을 바라보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19-25절)

㉠ (1)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게 되자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2) 그는 이 소망을 말함에 있어 단순히 겉으로만 외치지 않고 그의 심령으로 고백하였다(24절).

(3) 하나님의 자비는 죄인이 회개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자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 8:31) 라고 하였다.

8. **㉠**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환난 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라 하였는가? (26-33절)

- ㉠** (1) 예레미야는 여호와를 바라며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유다 백성에게 간절히 호소하였다.
 (2) 그는 비록 지금 당하는 고난이 참기 어렵지만 이 고난을 통해 유다 백성이 주의 은혜를 배우기 원했다(참조, 시 119:71).
 (3) 성도들은 때때로 궁핍하게 되고, 비난과 증상을 당하고, 손해로 괴로움을 당하면서까지 물질적인 일에 비참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은 신앙의 길을 넓혀 주는 하나님의 방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련을 통하여 인내하며 주의 뜻을 깨닫는 자세가 성도의 근본 태도이다(참조, 히10:36).

9. **㉠** 유다 백성들의 고난을 주재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34-39절)

- ㉠** (1)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미치지 않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다(37, 38절).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빼앗도록 허락하지 않으시며 사악한 자들에게 그릇된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신다.
 (3)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계획에 따른 명령은 그 뜻대로 하신다. 따라서 명령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르침에 속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심판에 속한 것이다.
 (4) 가르침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자를 통해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의 명령에 유의하고, 우리의 삶을 규제(規制)해야 한다. 왜냐하면 가르침은 참된 규율로만 이루어지며 그것을 벗어나는 행위는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5)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하신 심판에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행위의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참조, 삼하 16:5, 6).
 (6) 그러므로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시지만 바벨론이 저지르는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바벨론의 목적은 다만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악행일 뿐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7)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의 판단에 종속시키지 말고 우리가 그분의 심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지녀야 할 가장 큰 지혜는 겸손과 절제이다(Calvin).

10. **㉠**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40, 41절)

- ㉠** (1) 자기들의 행동을 뒤돌아보아 잘못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 그를 의지하며 살기를 요구하였다.
 (2) 특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유다인의 죄값으로 폐허(廢墟)가 된 후에도 회개와 믿음을 백성에게 전파했다.
 (3) 회개와 믿음의 기회는 사람이 세상을 뜨기 전에는 있는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최대 한도로 은혜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참조, 시78:38; 계2:21).

11. **㉠**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범죄를 용서치 않으시고 어떻게 보우하셨는가? (42, 46절)

- ㉠** (1)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모든 대적들에게 유다 백성을 쓰레기와 폐물(廢物) 같이 취급하셨다.
 (2) 유다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한 만남의 길을 자신들의 죄로 막아 버렸으며, 또한 올바른 자세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참조, 렘 3장).

- (3)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은 모든 열방 가운데 천(賤)더기가 되었으며 슬한 비방을 받게 되었다.
- (4) 이러한 보응은 단순한 형벌로는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강한 환난으로써 그 백성들을 일깨우기 위한 당신의 자상한 배려였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관용(寬容)의 기회는 없고 무서운 환난만 있을 뿐이다.
- (5)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강약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크기를 알 수 있음을 말해 준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채찍으로 보고 끊임없이 자신의 행위를 살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참조, 40절; 호 6:1; 행 26:18, 20).

12. **㉠** 예레미야는 몰락해 가는 유다의 모습은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47-54절)

- ㉠** (1) 젖은 구덩이에 던져진 자신으로 묘사했다. 그가 이러한 감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참조, 렘 38:6) 이처럼 생생한 비유를 할 수 있었다.
- (2) 예레미야는 유다가 몰락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성읍의 잔해(殘骸)를 보면 볼수록 슬픔이 한층 더했다. 더우기 깊은 구덩이 속을 헤매듯이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서 포기 상태에까지 이르렀다(54절).
- (3) 이는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이럴 때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만 찾게 되어 있다(참조, 시 2:12).

13. **㉠** 환난 가운데 예레미야는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가? (55절)

- ㉠** (1) 예레미야는 죽음을 감지(感知)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쉬지 않았다. 그의 신앙이 마음을 굳세게 했으므로 그는 굴복치 않고 정반대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유혹을 확고하게 거부했던 것이다.
- (2) 비록 육신적으로는 파멸되었다고 생각했지만(54절), 아직 그는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
- (3)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실 때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진 것처럼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 외친다면 그것은 신앙과 희망에 대한 참되고 확실한 증거이다(참조, 시 22:1).

14. **㉠** 예레미야의 확신은 무엇인가? (56절)

- ㉠** (1) 예레미야는 역경에 압도당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 자신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확신하였다.
- (2) 이것은 그가 너무나 열심히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진지함과 열심에 대한 증인이 되셨다는 말이다.
- (3) 우리들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마음이 산란하게 되며 혼란을 거듭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모두 맡길 때에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참조, 시 37:5; 잠 16:3).

15. **㉠**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말하였는가? (57, 58절)

- ㉠** (1)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간구하는 자의 곁에 오셔서 도움을 허락하신다고 그는 말했다.
- (2) 이 말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보호자이시며, 도움을 주시며 그것도 한순간이 아니라 곤경에 처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임을 알았다는 의미이다.
- (3)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使役)은 끝이 없으시다. 미천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 (4) 그 큰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일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참조, 사 12:2; 26:3).

16. ㉠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감찰하셨다고 말하는가? (59, 60절)

- ㉠ (1)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당한 잔혹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셨다고 말한다.
- (2) 이런 표현 양식은 하나님의 사역자(使役者)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불행을 감찰해 주시도록 간청할 때마다 기꺼이 도와 주셨기 때문이다.
- (3) 우리는 조그만 시험이 닥치더라도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하여 절망 속에 있을 때가 많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런 점에 있어서 자신과 투쟁해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물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감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무시하고 주의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교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참조, 시 10:14; 31:7; 33:13; 히 4:12).

17. ㉠ 예레미야가 60절의 내용을 반복하여 나타내고자 한 것은 무엇인가? (61, 62절)

- ㉠ (1) 바벨론의 사악한 행동을 다시 반복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호소하려 하였다. 6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들으셨다’는 확실한 말로 나타내었다.
- (2)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악한 행동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잠시도 쉬지 않고 ‘종일’ 유다 백성을 괴롭혔다고 말하였다.
- (3) 우리 앞에 닥치는 시련이 잠깐 동안만 미친다면 모두가 극복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잠깐 동안만 환난이 우리들에게 부닥치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도구로 만들기 위해 용광로 같은 심한 환난을 장기간 동안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 (5) 그러므로 환난 중에 인내하며, 우리들 앞에 간 허다한 증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며,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생활이 성도의 삶이자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목표이다(참조, 히 12:1, 2).

18. ㉠ 예레미야는 대적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63절)

- ㉠ (1) 대적들은 항상 비방의 노래를 멈추지 않고 계속 불러 유다 백성을 괴롭혔다(14절).
- (2) 여기에서 ‘얕든지 서든지’라는 말은 삶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그것은 다윗이 ‘주께서 나의 얕고 일어섬을 아시며’(시 139:2)라고 말한 내용과 같다.
- (3) 따라서 예레미야도 ‘서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움직임과 행동을 나타내며, ‘얕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인간의 조용한 계획을 의미함을 나타냈다.
- (4) 다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적들이 아무 말없이 은밀하게 모의했든지 아니면 이런 저런 일을 시도했든지 하나님께 알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하려고 했다.
- (5)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계획과 행위를 아시므로 악한 자들을 억압하고 저지하지 아니하실 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식은 심판장으로서의 직책과 연결되기 때문이다(참조, 요일 3:20).

19. ㉠ 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64절)

- ㉠ (1)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계속 내버려두시지 않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 (2) 앞 귀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도록 하기 위해 재앙과 부당한 압박과 치욕까지도 언급하였다.
- (3) 사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행한 자들을 기꺼이 도와 주리라고 증거하셨다. 포로된 자들을 감옥에서 구해 내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며, 불행한 자들과 억압당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독특하신 역사(참조, 사 61:1-3)이다.
- (4) 이런 하나님께서 허물며 자기 백성인 유다를 구원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러한 이유로써 예레미야는 확신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5)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므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은총을 구해야 한다(참조, 출 33:19; 스 7:28).

20. **㉠** 대적에 대한 예레미야의 간구는 어떠하였는가? (65, 66절)

- ㉠** (1) 대적들의 마음을 더욱 강박케 하여 하나님의 저주로 그들이 멸망당하기를 간구했다.
 (2)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치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다. 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잠시 동안만 악한 자들을 박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거듭하여 멸망할 때까지 보응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3) 여기에서 우리는 대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화의 원인이 회개치 않은 죄 때문에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4) 더구나 회개를 할 때에 다른 사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회개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인정하시고 언약한 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참조, 시 4:1; 20:1; 27:7).

화보자료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며 울고 있는 예레미야. 파리 병기창(兵器廠)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4세기 삽화이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가리켜 일명 ‘눈물의 선지자’ 또는 ‘고독의 선지자’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하는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였으며 정작 백성들에게 그에 대한 예언을 한 자이기 때문이다(렘 6:22-30). 따라서 그는 항상 애통하는 마음에 젖어 있었는데 그러한 그의 마음이 본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

제 4 장 예루살렘이 패망되다

단락구분: 1-2 예레미야가 비참하게 된 유다를 보며 탄식하다 / 3-10 예레미야가 기근(饑饉)으로 인한 폐허를 목도하다 / 11-13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하다 / 14-16 유다 백성의 참혹상 / 17-20 /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가 만날 현실 / 21-22 에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1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는고

2 시온의 아들들이 보배로와 정금에 비할라니 어찌 그리 토기장이의 만든 질항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3 들개는 오히려 짚을 내어 새끼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4 젓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며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5 진수를 먹던 자가 거리에 의로움이며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리운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6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처녀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도다

7 전에는 존귀한 자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땅한 청옥 같더니

8 이제는 그 얼굴이 숫보다 검고 그 가죽이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9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절립같이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10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11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으심이며 시온에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사르셨도다

12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 열왕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13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14 저희가 거리에서 소경같이 방황함이며 그 옷이 피에 더러웠으므로 사람이 만질 수 없도다

15 사람이 저희에게 외쳐 이르기를 부정하다 가라, 가라,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음이며 저희가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저희가 다시는 여기 거하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16 여호와께서 노하여 흠으시고 다시 권고치 아니하시리니 저희가 제사장들을 높이지 아니하였으며 장로들을 대접치 아니하였음이로다

17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라므로 우리 눈이 상함이며 우리를 구원치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18 저희가 우리 자취를 엿보니 우리가 거리에 행할 수 없음이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이 다하였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르렀도다

19 우리를 쫓는 자가 공중의 독수리보다 빠름이며 산꼭대기에서도 쫓고 광야에도 매복하였도다

20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와 기름 부으신 자가 저희 함정에 빠졌음이며 우리가 저를 가리키며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저의 그늘 아래서 열국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21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네게도 이룰지니 네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22 처녀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네 죄악을 벌하시며 네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1. ㉠ 본장의 흐름을 설명하라.

- ㉠ (1) 시온의 방백(方伯)들과 주민들이 무서운 비극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죄과가 너무 크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 사람의 헛된 기대를 의지했다. 그러나 유다는 고통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다가 죄악의 형벌이 다하는 날 해방될 것이다.

- (2) 예루살렘이 당한 비극은 그들의 심각한 죄에 대한 형벌이었다. 예루살렘은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 때문에 그들의 대적에게 넘겨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의인의 피를 흘렸다(17-20절).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은 마땅히 회개하여야 했으나 계속 죄악 중에 머물러 있었다.
- (3) 우리들 역시 인간적인 고집 때문에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여 악한 일인 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많다. 이것은 우리들이 그 말씀에 입각한 생활을 하지 않을 경우 에 범하는 잘못이다(참조, 대하 34:31).

2. **㉠** '성소의 돌이 각 거리 머리에 쏟아졌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바벨론 사람들이 성전의 돌들을 예루살렘 도처에 흩어 버린 사실을 가리킨다.
- (2) 그것은 물론 그들이 성전을 멸시킨 대가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바벨론 사람들이 것처럼 성전의 돌을 흩어 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엄청난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예레미야가 놀라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3) 성도들이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이다. 그들이 의식으로부터 성전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손으로 그것을 없애신다(참조, 사 1:10-20).

3. **㉠** 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을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에 비유하였는가? (2절)

- ㉠** (1) 유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모든 위엄을 잃게 되고 질항아리처럼 다른 형태로 몰락했기 때문이다.
- (2) 한편 본질의 말은 예레미야서에서 언급했던 예언을 암시한다. 그 예언은 유다 백성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들어가 토기 제작하는 과정을 보게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다(참조, 렘 18:2-6).
- (3) 토기장은 항아리를 만들 때 그 항아리가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것을 몇 번이고 고쳐 만든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의해 좌우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또한 그분의 뜻에 달려 있다(참조, 렘 19:11).
- (4) 예레미야는 이런 예언을 유다 백성들에게 재상고(再詳考)시킴으로 그 경고를 소홀히 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불케 하신다는 사실을 유다 백성들에게 상기시켰다.
- (5) 성도는 항상 말씀에 민감한 생활을 해야 한다. 현재 우리는 악에 대해서 너무 관용을 베푸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회 도덕은 그 기준을 잃었고, 인간들은 가치관을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때 성도들은 깨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활화(生活化)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영역에서 노력해야 한다(참조, 수 1:8).

4. **㉠**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을 광야의 타조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유다 백성의 딸들이 자녀를 소홀히 다루었기에 잔인하다는 의미로 타조에 비유하였다.
- (2) 타조는 우둔한 동물이어서 알을 낳자마자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떠나 버리는 습관이 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자녀를 아무렇게나 대했고 오히려 우상 제물로 자식을 바치기까지 했다(참조, 렘 32:35).
- (3) 인간은 악의 생활에 치달게 될 때, 마땅히 해야 할 의무까지도 내팽개쳐 버린다. 이것은 죄악의 악순환(惡循環)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러한 생활에서 탈피하려면, 현재 우리들이 행하고 있는 죄악된 생활에서 과감하게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하다(참조, 렘 35:15; 절 18:21).

5. **㉠** 유다 백성이 당한 기근은 어떠하였는가? (4, 5절)

- ㉠** (1) 젓먹이들이 어머니들의 젖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목이 सू척해졌고, 어린이들도 떡이 부족해서 굶주려 죽어 갔으며, 귀족들도 거름더미를 뒤지며 먹을 것들을 찾는 처량한 신세로 변했다.
- (2) 이러한 기근의 참상은 이미 렘 21:9에서 예언하였던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그 예언을

믿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본질의 말로써 유다 백성들의 완고함을 책망하였다.

- (3) 실로 바벨론 군대의 포위로 인한 유다 백성들의 생활 실상은 비참했다. 기근으로 인해 굶주린 부모들은 자녀들을 요리하여 쇠고기나 양고기처럼 게걸스럽게 먹어 치울 만큼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참조, 렘 19:9).
- (4)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악해지면 해질수록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도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참조, 삼상 15:22).

6. **㉠** 왜 예레미야는 소돔의 죄악과 유다 백성의 죄악을 비교하였는가? (6절)

- ㉡** (1) 소돔은 당시 유다 민족들에게 죄악의 대명사로 쓰여졌다(참조, 사 1:9, 10). 그래서 예레미야는 소돔을 비교하여 유다 백성들의 죄가 그보다 더 심한 상태였음을 외쳤다.
- (2) 이것은 예레미야가 일순간에 죽임을 당한 소돔의 경우보다 지속적으로 고통받았던 유다의 고난을 더욱 심각하게 보고, 유다의 죄악을 소돔의 죄악보다 크게 보았다는 말이다.
- (3) 만일 유다인들이 소돔인들이 범했던 엄청난 죄악 속에 빠지지 않았다면 선지자들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들을 소돔인들과 같고 오히려 더 사악하다고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의 이런 가증한 범죄를 지적하고 있다(겔 16:46, 47).
- (4)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보용하실 때, 언제나 정당하게 행하시므로 우리가 받는 벌의 경중(輕重)에 의해 우리는 범한 죄의 심각성을 판단해야 한다(Calvin).

7. **㉠** '존귀한 자'란 어떤 사람을 비유로 나타낸 말인가? (7, 8절)

- ㉡** (1) 히브리어 원어에는 나실인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을 가리킨 말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배의 모든 가공적인 형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셨으며, 당신께서 인정하시는 것을 조목조목 나실인들에게 규정하셨다(참조, 민 6:1-21).
- (3)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규정을 어긴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나실인들을 명시하였다.
- (4) 사실 본절에서 나타난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나실인처럼 절제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했지만 이제는 그들이 생기를 잃어 쇠퇴하고 보기 흉한 모습으로 일그러지게 되었다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하나님의 보용이 그들에게 분명히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5) 그와 동시에 율법에 따라 행하는 예배가 백성의 사악하므로 인해 타락하였음을 나타내 준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본서 전체에서 나타내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 (6)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생활 역시 나실인들처럼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신자와 불신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행할 바를 올바르게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단적으로 지적한다.
- (7) 성도라면 적어도 살아가는 자세가 구별되어야 하고 삶의 궁극적 목적 역시 불신자와는 달라야 한다. 만약 계속해서 들이키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들과 같은 재앙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자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참조, 고후 6:11-18).

8. **㉠** 칼에 죽은 자가 주려 죽은 자보다 낫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유다 백성이 당한 기근은 오히려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극심했기 때문이었다.
- (2) 참혹한 죽음은 항상 공포스러운 대상이지만, 예레미야는 이러한 죽음을 기근과 비교하여 유다 백성에게 닥친 벌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보여 준다.
- (3) 우리에게 닥칠 마지막 심판의 결과는 유다 백성들에게 임한 환난의 수백 배 수천 배 더 할지도 모른다(참조, 눅 16:20-31).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는 자세로 세상의 풍파에 끊임없이 대항하며, 주님이 오시 날을 기다려야 한다(참조, 막 13:35; 고전 15:34).

9. ㉠ 유다의 부녀들이 행한 악행은 어떠했는가? (10절)

- ㉠ (1) 자기의 자식들을 삶아 먹었다.
 (2) 예레미야는 이러한 부녀들 앞에 ‘자비로운’이라는 말을 붙여, 선량한 어머니로서 행동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재앙으로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타내었다.
 (3) 실로 유다 백성의 강박함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에 대하여 마땅히 지녀야 하는 자비로움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었다.
 (4) 이러한 사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이나 게으름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데 헌신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가져야 한다(참조, 엡 4:1).

10. ㉠ 예루살렘 성의 파멸은 어떠하였는가? (11, 12절)

- ㉠ (1) 예루살렘 성의 파멸은 완전한 파멸이었고 놀라운 파멸이었다.
 (2)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의 어느 한 부분도 남겨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시온에’ 불을 ‘붙여서’ 집들을 사르고, 땅처럼 평평히 만들었을 뿐 아니라, 화재로 소실되는 것 이상으로 ‘지대’(址臺)를 살라 버렸다. 이것은 완전한 파괴를 말한다.
 (3) 이러한 처지는 세상의 왕들에게 놀라운 일로서 전파되었다(참조, 사 52:15). 이방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예루살렘 성이 망하지 않으리라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치실 때, 초개(草芥)처럼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4) 이것은 인간의 완전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 선 미천한 자에 불과하다.
 (5)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일만이 있을 뿐이다(참조, 골 1:10; 살전 2:12).

11. ㉠ 거짓 선지자를 따른 유다 백성의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14-16절)

- ㉠ (1) 소경처럼 방황하게 되어서 모든 자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고 그들이 외국에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외국인들에게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
 (2)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참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고 방황하였으며 오히려 거짓 선지자의 뒤를 따라 의인을 죽이는 데 동참하였다. 그 결과로 유다 백성들은 많은 주위의 나라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3) 이단의 세력들은 현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같이 감언 이설(甘言利說)로 유혹하지만 결국 우리를 악의 길로 인도할 뿐이다(참조, 마 24:24; 계 19:20).

12. ㉠ 유다 백성들이 도움을 바란 나라는 어느 나라인가? (17절)

- ㉠ (1) 애굽 나라이다.
 (2) 유다 민족의 패망 원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을 바라본 데에 있다.
 (3) 성도들은 난관을 당할 때마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와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참조, 사 3:1-3).

13. ㉠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유다 백성의 상태는 어떠하였는가? (18-20절)

- ㉠ (1) 유다 백성이 거리에서 활동할 수 없을 만큼 바벨론 군대가 그들을 사냥하듯이 잡았다. 또한 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혜택으로 장차 열국 중에서 자신들이 잘 살 줄로 굳게 믿었지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잡힘으로 허사(虛事)로 돌아갔다.
 (2) 유다 백성들의 살 길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궁지에 몰리게 하여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3)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기에 노력을 다하지만, 아무데서도 진정한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최소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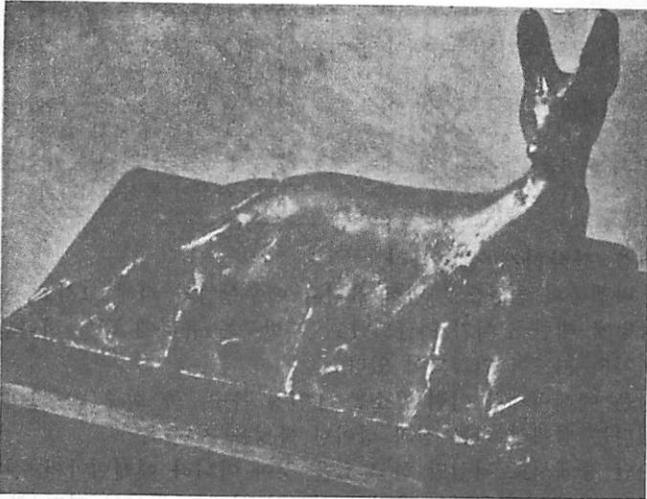
의 인간적인 가능성을 무너뜨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경책하시며 기다리신다.

14. **Q** ‘에돔’ 과 ‘시온’ 은 무엇을 각각 가리키는 말인가? (21, 22절)

- A** (1) ‘에돔’ 은 유다 민족의 원수들을 지칭하며 ‘시온’ 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2) 즉 유다 백성의 원수들은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될 사실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예언하였다.
 (3)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역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나 결국 불신 세력들은 망하게 되고, 그들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들을 성장시키는 연단으로 여겨야 한다(참조, 롬 5:4;8:17).

화보자료

새끼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어미 개. 제작 연대를 알 수 없는 이 브론즈(bronze)는 현재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예레미야는 본장에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포위당했을 때 주민들이 겪은 비극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어미가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던 일도 기록하고 있다(10절). 이러한 일은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들개도 자행하지 않는 일이니(3절)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겪었던 고초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제 5 장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다

단락구분 1-18 포로된 유다 백성이 당한 짐상 / 19-22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다

- 1 여호와여 우리의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수욕을 감찰하옵소서
- 2 우리 기업이 외인에게, 우리 집들도 외인에게 돌아갔나이다
- 3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머니는 과부 같으니
- 4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쉼을 얻으오며
- 5 우리를 쫓는 자는 우리 목을 늘렸사오니 우리가 끈비하여 쉴 수 없나이다
- 6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앗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 7 우리 열조는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 8 종들이 우리를 관할함이며 그 손에서 견져 낼 자가 없나이다
- 9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 10 주립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은나이다
- 11 대적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에서 처녀들을 육보였나이다

- 12 방백들의 손이 매어 달리며 장로들의 얼굴이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 13 소년들이 땀들을 지오며 아이들이 섶을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 14 노인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소년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 15 우리 마음에 회락이 그쳤고 우리의 무도가 변하여 애통이 되었사오며
- 16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함을 인함이니이다
- 17 이리므로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이리므로 우리 눈이 어두우며
- 18 시온 산이 황무하여 여우가 거거서 노나이다
- 19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
- 20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 21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 22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특심하시니이다

1. ㉠ 본장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전반부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한 유다와 예루살렘의 피해 그리고 포로 시절의 치욕과 고뇌와 낙망에 대한 묘사가 언급되었고, 후반부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언급되어 있다.
- (2) 특히 본장은 예레미야가 이런 호소를 1인칭 복수, 즉 회중(會衆)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점에서 다른 장과 상이한 특성을 지닌다.
- (3) 성도는 환난 중에서도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신앙을 본받아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며 간구하는 올바른 성도의 자세를 찾아야 한다(참조, 고후 4:7-18).

2. ㉠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목적은 무엇인가? (1절)

- ㉠ (1) 유다 백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허락받기 위해 간구하였다.
- (2) 하나님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이 받은 특이한 축복이다.
- (3)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비참한 처지에서 신음할 때 기꺼이 도움을 손길을 허락하시며 특히 우리들이 부당하게 압제당했을 때는 더욱 우리를 돌보신다(참조, 렘 30:11).

3. ㉠ 왜 예레미야는 '기업이 외인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는가? (2절)

- Ⓐ (1)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4백여 년 전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던 그 기업의 땅(참조, 창 17:8)이 이제는 바벨론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의 비참한 상황을 강조하여 그들이 땅과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축출당하며 그 집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다고 말했다.
 (3)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우리의 죄악이 극심하고, 돌이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을 거두어 가신다(참조, 왕상 11:11).

4. ⓐ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외로운 자식과 과부로 비유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점진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괴롭히기를 멈추지 아니하셨기에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가 많아진 것을 보여 준 것이다.
 (2) 이러한 일은 한 나라가 질병이나 전쟁에 의해서 파멸되었을 때에 으레히 일어난다.
 (3)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서 그토록 많은 과부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잃어버린 많은 어린 아이를 본다는 것은 실로 슬픈 광경이었다.
 (4) 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성도의 말로(末路)는 비참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항상 경성하여 이러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겠다(참조, 골 4:2).

5. ⓐ 유다 백성이 당한 고통은 어떠한가? (4,5절)

- Ⓐ (1) 극심한 재난 때문에 물조차도 값을 치르고 사먹어야 했었고 갈대아인들은 틈만 있으면 유다 백성을 못살게 굴어서 유다 백성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안식을 얻지 못했다.
 (2) 한때 마음놓고 자기 소유의 나무를 쓸 수 있고 포도주와 곡식을 모을 수 있었던 처지에서, 돈을 주고 사지 않는 한 한 방울의 물조차도 얻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변화라 할 수 있다.
 (3) 또한 갈대아인들이 유다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서 그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었다.
 (4) 실로 유대인들은 그러한 보상을 받아 마땅했다. 그들은 철과 같은 목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명을 매도록 했으나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마치 길들일 수 없는 사나운 들짐승과도 같았다.
 (5) 그들의 목이 것처럼 굳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난과 바벨론 민족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의 자만심과 완악함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하셨다.
 (6) 우리가 지닌 인간적인 고집 때문에 자칫하면 악을 쌓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참조, 왕상 11:38).

6. ⓐ 유다 백성들이 애굽인과 앗수르인과 악수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6절)

- Ⓐ (1) 이것은 백성들이 곤궁하여 큰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했으므로 거지처럼 양식을 구걸했다는 뜻이다.
 (2) 그 당시에 애굽인들은 선택받은 백성의 친구인 척하며 그들과 조약을 체결했다(참조, 호 12:1).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매춘부와 같이 자신들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마땅히 당해야 하는 모욕을 애굽인들에게 당했다.
 (3) 정작 축복 속에 살 수 있는 조건(참조, 신 15:6)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쌓은 악 때문에 유다는 오히려 비굴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4) 우리 또한 유다 백성들처럼 허락된 축복을 우리가 행한 악 때문에 거부하는 꼴이 되지 않도록 근실(勤實)한 신앙 생활을 해야겠다.

7. ⓐ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란 의미는 무엇인가? (7, 8절)

- Ⓐ (1) 하나님께서 조상의 죄를 자녀들에게 보응하신다는 뜻이다.
 (2)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한 의미는 그 후손을 이유없이 벌하시고 열조는 벌하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겔 18:20의 선언은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열조의 죄악을 담당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선언하 시듯이 자신의 복수를 삼사 대에까지 미치게 하시기 때문이다(참조, 출 20:5; 램32:18).
- (4)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보응을 후손들에게까지 제속하셨다. 그토록 엄하게 벌을 받은 자 녀들이 또한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도 벌받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수백 번 죽어도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 (5) 우리가 쌓는 죄악은 우리 당대에만 보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까지 영향을 주 게 된다. 참으로 하나님이 벌하실 때에는 과거의 죄도 보시므로 우리는 반드시 소급하 여 회개하여야 한다.

8. ㉠ 유다 백성들이 당한 사회적인 참상은 어떠하였는가? (9-12절)

- ㉠ (1) 처처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들의 피부는 검게 타들어 갔으며, 바벨론의 군사들은 시온의 부녀들과 유다의 처녀들을 희롱하였고, 방백들의 손을 매달았을 뿐만 아니라 평소 존 경을 받았던 장로들도 그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 (2) 그러나 정작 여자들이 추행당함과 방백들의 손을 매다는 일들은 지나간 일이었지만 바 벨론이 남긴 고통은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당시에도 계속 남아 있었다.
- (3) 이와 같이 죄악의 결과는 도덕적 타락으로 치닫고, 그 재난의 악순환은 그 일이 일단락 된 후에도 신자들을 괴롭힌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 니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의뢰와 간구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참조, 시 22:5).

9. ㉠ 연약한 자들에게 미친 환난은 무엇이었는가? (13, 14절)

- ㉠ (1) 나이 어린 소년들이 과중한 일로 인해 쓰러졌고, 노인들이 성문 어귀에서 행했던 재판 이나 사교 모임조차도 폐기되어 버렸다.
- (2) 이것은 노인이나 소년들처럼 연약한 자들에게만 고난이 미쳤다는 말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이다.
- (3) 실로 바벨론인들이 이와 같이 유다인을 박해한 목적은 유다 백성들을 점차적으로 말살 하여 그들이 거기에서 어떠한 공동체도 구성할 수 없도록 하려던 것이었다.
- (4) 이처럼 오늘날에도 악의 세력들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분열을 조화시키며 자녀들에게 저항치 못하도록 막는다. 즉 성도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진 하나의 공 동체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분열을 조장시킴으로 자기들에 대한 저항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참조, 빌 1:27, 28).

10. ㉠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란 말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15, 16절)

- ㉠ (1) 면류관은 회락과 영예의 상징인데 이것이 떨어졌다 함은 유다 백성들에게 모든 기쁨과 영예가 박탈되었다는 말이다.
- (2) 이러한 재앙의 원인은 그들의 범죄에 있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오호라 우리의 범 죄함을 인함이니이다' 라는 고백은 그러한 처벌 아래 있는 것이 정당하다는 말이다.
- (3) 이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지식은 자만심을 무기력하게 하며, 믿지 않는 자 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일어설 때 털어 놓는 시끄러운 불평을 억제시킨다. 그러므로 우리가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해야 한다(참조, 요일 1:9).

11. ㉠ 하나님의 저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17, 18절)

- ㉠ (1) 하나님의 저주로 유다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쳤으며, 그 슬픔으로 인하여 눈까지 어두 워졌다. 이러한 저주의 주된 원인은 시온 산이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 (2) 하나님께서 거하신 시온 산은 이제 마치 황량한 동굴처럼 여우들이 우거하게 되었다.
- (3) 이와 같은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마저 없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을 것 이다. 우리는 이러한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자숙하며 성도의 신분에 어긋나지 않는 행

등을 해야겠다.

12. **Q** '주의 보좌는 세세에 미치나이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19절)

- A** (1) 하나님의 보좌는 세상의 통치를 가리킨다(참조, 계 20:12).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자라는 사실을 더 명백히 나타내 주고 있다.
- (2) 덧붙여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언급하였다.
- (3) 성도가 현실에만 집착할 때 필연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세상에 영구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역경이 우리의 눈을 구름처럼 가릴 때, 우리의 믿음은 사라지고 당황하게 된다.
- (4)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급변할지라도 언제나 동일하시다(참조, 히 13:8).

13. **Q** 예레미야가 탄식한 의도는 무엇인가? (20절)

- A** (1) 신실한 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형태의 기도를 따르게 하여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 하심 아래로 피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 (2) 이 탄식은 다윗의 시(시 13:1; 22:1)에서 인용한 내용이다. 다윗이 드린 이 기도는 성령에 따라 간구했던 것이다. 이처럼 신실한 자들도 때로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복종과 겸손을 버렸던 것은 아니었다.
- (3) 우리는 많은 재난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때, 소망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질 때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서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참조, 롬 8:25; 갈 5:5).

14. **Q** 예레미야의 바람은 어디에 있는가? (21절)

- A** (1) 유다 백성이 이전에 허락하신 그 은총으로 회복되기를 예레미야는 원했다.
- (2) 예레미야는 자기의 소망을 옛적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에 근거하여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충만한 축복을 부어 주셨기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품으며 지금 자기 동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줄 것을 간구하였다.
- (3)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중한 심판을 옮기시며 우리가 전에 누렸던 기쁨과 번영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간구드려야 하겠다.

15. **Q**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란 의미는 무엇인가? (22절)

- A** (1) 예레미야는 강한 반어법을 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참조, 롬 11:1-7).
- (2)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 (3) 우리는 이 세상의 불행과 교회의 비천한 상태를 슬퍼하면서도 신자들이 가는 참시온은 황폐해질 수 없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와 같이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취소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뻐할 수 있다.

연구자료

유대인들의 형벌 제도

유대인들의 제반 규례와 법률 체계는 인간이 거룩한 생활로써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제도(啓導)하는 데 그 근본 목적이 있었다(참조, 출 19:5-8). 이 점은 형벌 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본고는 유대인들이 범법자를 징계하였던 형벌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이해해 보려 한다.

1. 사형(死刑)

① 돌로 치م : 이 같은 형벌에 해당하는 죄로는 신성 모독죄(레 24:15, 16; 행 7:57, 58), 우상 숭배죄(레 20:2-5; 신 17:2-7), 간음죄(신 22:22, 23), 안식일을 범한 죄(민 15:32-36) 등이 있었다.

② 칼로 치ム : 한 성읍 주민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였을 때 그들은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다(신 13:12-15). 예레미야는 이에 대하여 본서에서 언급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처녀들과 소년들이 칼에 죽었다'(2:21)라고 하였다.

③ 화형(火刑) : 제사장 딸이 간음한 경우(레 21:9), 한 남자가 아내와 장모를 범한 경우, 세 사람 모두 화형당했다(레 20:14).

④ 교수형(絞首刑) : 실제적인 사형 방법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다. 다만 사람들을 경계시킬 목적으로 이미 죽은 범법자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았을 뿐이다(창 40:22; 신 21:23; 수 8:29).

2. 태형(答刑)

이에 해당하는 죄가 어떤 것인지 분명치 않다. 재판 결과 태형이 합당한 경우 최고 40대까지의 매가 선고될 수 있었다(신 25:1-3).

3. 절단(切斷)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상대방 남자의 음낭(陰囊)을 잡았을 경우 그녀는 손을 잘리우는 형에 처해졌다(신 25:11, 12).

4. 투옥(投獄)

투옥은 대개 재판을 기다리는 형사 피고인(刑事被告人)을 구류에 처하는 경우에 사용되었다(참조, 렘 37:11-21).

5. 노예로 삼음

이것은 민사상(民事上)의 문제로서 빚을 갚지 못하는 경우 채주(債主)의 종살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참조, 왕하 4:1).

6. 손해 배상과 벌금형

이에 대하여서는 레 24장 연구 자료 '구약에 언급된 손해 배상과 벌금형'을 참조하라.